

연구보고 19-R16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장근영

공동연구원 윤철경 서고운 이동훈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원 장근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서고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철경(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훈(성균관대학교 교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명지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고운 (부연구위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예슬 (연구사업운영원)
협력 연구 기관	명지대학교	조아미 교수	임정아 (명지대학교) 김남은 (명지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사를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함으로써 중등교육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인기 이행과 성장과정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이들의 내적·외적 세계의 심층을 탐색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시설과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이용 기회의 현황과 지원체계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단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우선 일반적인 성인기 이행과정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1차 년도에 실시한 학교 밖 청소년의 유형분류 결과와 1차 질적 패널 조사 결과를 재분석했다. 그 결과 2차 년도 질적 조사의 핵심 변인을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어 부모(혹은 양육자)와의 심리적·사회적 분리 및 개별화 과정으로 설정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모색을 위한 협동연구는 1차 년도에는 지역사회 시설과 기관의 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본 바, 2차 년도에는 그 중 주요 중소도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 패널 조사는 1차 년도와 마찬가지로 패널 47명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1차 년도 대비 생활세계의 변화내용, 자아·가족·또래·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변화 과정을 학업 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 현재에 이르는 3개 단계별로 재구성하고 주요

사건과 그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핵심 변인과 개입 요구지점들을 탐색하였다. 협동연구에서는 중소도시는 경제적 여건이나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 타 지역과의 연계 수준 등에서 다양하며, 그 다양성으로 인해 중소도시에 일괄적인 지원모델을 제안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연구대상으로 지역적 특수성을 가장 많이 가진 중소도시를 선정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렇게 선정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어떠한 자원과 기회가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체계를 파악한 후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차원의 효율적인 연계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질적 조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기존 친구들과의 관계가 추가로 단절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었다. 즉, 학업중단은 또래문화의 결핍과 또래관계기술의 결핍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소한 인간관계망, 성인기 사회적응 어려움,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이성 관계에의 집착, 소극적 관계형성도 청소년기 또래관계의 축소·단절과 관계되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문화를 공유하고 대인관계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장(長)이라 여기고 있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단지 학력 장벽으로 인한 취업이나 진로만이 아니라 또래관계와 또래문화의 결핍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교육비 지원, 쉼터 지원, 체험기회 제공 등의 물리적 지원, 가시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관계 회복과 또래문화 공유에 초점을 맞춘 개입방안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진입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취업 현장에서 많이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구직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얻거나, 대인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하였어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정적 경험들을 언급하였다.

성인기 진입 이후 생활고 혹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들 역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무환경, 제한적인 취업조건을 겪고 있었다.

협동연구를 통해 도출한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은 아홉 가지로 나타낼 수 있었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셋째, 모든 청소년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여섯째, 예산 확보. 일곱째,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여덟째,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아홉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세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5개 영역에서 모두 18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5개의 영역은 무업청소년지원 대책 강화,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대책 강화, 꿈드림 센터 서비스 및 운영 개선, 다양한 전달체계 확보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생태계 구축, 교육체제의 통합적 개편과 개발물의 공유·활용이며 각 영역별 세부과제들을 제시하였다.

핵심어 :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과정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변화과정을 추적하여 이들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관계, 개인적 경험사건, 지역사회, 새로운 집단과의 사회관계 등이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질적 패널 조사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지역의 특성, 지역별 청소년의 요구와 여건, 지역별 기관의 특성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지역단위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성장시키고 자립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2.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선행연구 및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주제와 목표를 선정함.
 - 질적 패널 조사 설계를 위한 선행연구 수집·검토 및 학교 밖 청소년 성인기 이행과 영역별 관계의 변화양상, 분리-개별화 관련요인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
 - 질적 패널 조사 설계와 패널 분석방법, 설문지 설계 및 정책제언에 대한 자문을 실시함.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계획과 대상지역 선정, 지역별 특성 및 면접 방식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함.

● 질적 연구

- 학교 밖 청소년 장기중단 패널 중 47명을 대상으로 2차년도 질적 패널 조사를 실시함.
- 전년 대비 변화내용, 학업중단단계별 자아, 가족, 또래, 학교(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질문하고 심층 면담을 통해 이에 대한 패널의 반응을 수집하여 CQR-M 기법과 내용분석 방법으로 분류, 분석함.
-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2018년 1차년도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기초조사 시행 후 자원과 인프라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간 정도인 중소도시¹⁾(‘나’형 센터)²⁾를 대상으로 어떠한 자원과 기회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를 파악함.

3. 주요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분석

● 학업중단 이전의 영역별 관계 현황

- 학업 중단 이전 자아관계에서는 ‘자신의 세계에 고립’, ‘심리적 취약’,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함’ 등이 나타남.

1) 중소도시 : 규모가 중간 이하의 작은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구를 통해 도시규모를 정의한다. 인구기준은 최소인구 5만에서 최대인구 30만명에서 100만명까지로 다양하다(국토환경정보센터에서 발췌).

2)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문회의 결과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급은 ‘가’, ‘나’, ‘다’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형 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규모와 인구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2019년 ‘나’형 센터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88개이다.

-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돌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부정적 관계 양상', '긍정적 관계양상' 등이 부각됨.
-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또래관계', '또래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이성관계'들이 나타남.
- 학교와의 경험은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원하지 않았던 학교',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교사의 심리적 지원'으로 나타났음.
- 학업 중단 의 기저 원인은 또래관계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상, 가정불화, 학업에 대한 흥미없음, 학교 규칙 위반, 부상, 원하지 않는 학교, 희망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고자 하는 욕구 등이 나타났음.
- 학업 중단 의 촉발 원인은 원치 않는 학교 진학, 학교 생활 부적응, 외부의 자퇴 권유,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 학교 규율 위반 등의 문제경험, 심리적 외상, 친구와의 갈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임교사 등이 언급됨.

● 학업중단 이후의 관계 경험 현황

- 학업 중단 이후 자아관계에 대한 반응들은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의 범주로 나누어,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이 혼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학업중단 결정에 관한 부모의 신뢰', '가족의 지지'가 발견되어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부모와 가족이 보내준 지지와 신뢰가 동시에 발견됨.
-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 '힘이 되어준 지인'등 나타났으며, 학업중단 이후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향성과 함께, 단절된 관계의 회복 및 지인들의 도움도 발견됨.

- 학교와의 관계는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 '직업학교로의 전환', '학업중단과 복교의 반복'으로 분류되었음.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학업중단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했으며 복교를 생각하거나 실행했으나, 복교 적응은 어려웠음.

● 학업중단 이후 현재까지의 경험

- 현재 경험하는 자아관계 영역에 대한 이들의 반응은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 준비', '뒤늦은 진로 준비로 인한 무거움', '소극적인 진로 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직장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심리적 어려움', '행동조절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정적 자아인식', '긍정적 자아인식', '군대에서의 적응양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등으로 다양했음.
- 가족 관계는 '가족간 소통방식',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회복', '부모 자녀간 공존한 마음', '부모의지지',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가족 관계에서의 불만족' 등으로 다양했음.
- 또래 관계에 대한 반응은 '심리적, 환경적 결핍들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또래에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경험',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 경험', '생계문제에 따른 관계욕구의 지연',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관계양상의 다각화',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 등으로 분류되었음.
- 학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소속감의 회복', '대학에서의 부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중단했던) 학교에 대한 소회',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 등이 발견되었음.

- 지역사회와의 관계로는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멘토의지지’,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등이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음.

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협동연구)

● 기관 현황

- 조직 부분에서는 기존 여성가족부 지침 외에 인력 및 근속년수 확보가 되어 있음.
- 공간 면에서 타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활동 시 어려움이 있었으며, 예산부분에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가 원활한 편이었음.
- 임금은 타기관(상담복지센터)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 편이었음.

●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 세 기관 모두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이 높았음. 이는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가 증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지역이 넓은 편이지만 규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했으며 교통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도농지역은 청소년이 선망하는 취업 관련 전문기술학원이 부족했음.

● 기관 이용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

-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마다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공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은 경제적 빈곤과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의 증가가 나타났고 도농지역의 경우 심리적 우울이 주로 보고됨.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인 것으로 나타남.

●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 중앙부처 권고 주요서비스 이외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음.
-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활동 서비스를 확보하였음.

● 기관 서비스 운영 중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공간 지원,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작업공간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 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음.

● 기관 성공모델

- 본 연구의 대상이었던 ‘나’형센터의 모델은 세 가지
- 첫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둘째,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셋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임.

● 기관 성공요인

- 실무자들의 근무조건 안정화로 인하여 이직률도 줄고 이로 인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 축적.
-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폭 확장.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인적요인.

●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세 기관 공통적으로 정부나 광역시도의 지원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 존재
- 기관별 지자체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진로 작업장 예산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중앙정부)

- 실무자들의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인력 필요
-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광역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나 도 관할 입장에서 최우선적인 지원 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지원 및 자립비 지원이 공통적으로 제시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기초자치단체)

-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많은 진로체험이 가능한 진로작업장 확장
-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교육청)

-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시에도 학력 취득 인정
-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 내의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투입되도록 학교와의 협조 지원
-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 그리고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 변화 등

- 학교 밖 청소년 연계경로, 연령대, 욕구, 특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기관을 이용하는 현황
 -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는 주로 17~22세의 청소년들로,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었음.
 - 인턴십 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4. 정책제언

-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하였음.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 모든 청소년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 예산 확보
 -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
-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은 크게 다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유형별 특성과 적절한 상황 및 장단점에 대하여 기술하였음.
 -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
 -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19-R16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9
3. 연구방법	12
II. 이론적 배경	15
1.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	17
2. 부모로부터의 자립	23
3. 발현성인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	28
4. 질적 연구 방법론	32
5. 1차년도 연구 결과 개요	36
6. 요약 및 시사점	47

Ⅲ.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분석	
-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계 양상 중심으로	51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53
2. 분석 방법	56
3. 논의	181
4. 종합 제언	219
Ⅳ.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협동연구)	235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37
2. 5개년도 연구계획	238
3. 연구 내용 및 방법	239
4. 조사 대상 지역사회 특성	242
5. 연구 결과	249
6. 요약 및 논의	256
V. 정책 제언	263
1. 요약 및 시사점	265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정책 제언 ..	274
참고문헌	283
부록	301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자료	304
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연구(협동연구)	313
ABSTRACT	321

표 목차

표 II - 1	질적 연구의 특성	33
표 II - 2	질적 연구의 유형	34
표 III - 1	연구대상	53
표 III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계 양상에 따른 빈도	58
표 III - 3	(학업중단 이전) 가족과의 관계	64
표 III - 4	(학업중단 이전) 나 자신과의 관계	73
표 III - 5	(학업중단 이전) 또래와의 관계	78
표 III - 6	(학업중단 이전) 학교와의 관계	83
표 III - 7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자신과의 관계	93
표 III - 8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가족과의 관계	99
표 III - 9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또래와의 관계	106
표 III -10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학교와의 관계	111
표 III -11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지역사회와의 관계	114
표 III -12	(학령기 이후) 나 자신과의 관계	118
표 III -13	(학령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140
표 III -14	(학령기 이후) 또래와의 관계	148
표 III -15	(학령기 이후) 학교와의 관계	162
표 III -16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169
표 III -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근본 원인	177
표 III -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촉발 계기	179
표 IV - 1	2차 년도 연구 참여자 현황	240
표 IV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241
표 IV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241
표 IV - 4	○○시 학업중단을	243
표 IV - 5	○○시 청소년 시설 현황	244
표 IV - 6	△△시 학업 중단을	246

표 IV- 7	△△시 청소년 시설 현황	246
표 IV- 8	□□시 학업 중단율	248
표 IV- 9	□□시 청소년 시설 현황	249
표 IV-10	조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관 현황, 청소년의 특성, 운영 현황	251
표 IV-11	중소도시 지원모델 유형	252
표 IV-12	조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공요인, 지자체 협조 현황, 지원체계 발전 방향	253
표 IV-13	조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기관 현황, 운영 방법, 지원체계 발전 방향	255
표 IV-14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261
표 V- 1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281

그림 목차

그림 I-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9
그림 II-1	발현 성인기의 가능한 배열	18
그림 II-2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37
그림 II-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성별 비율	38
그림 IV-1	연구계획	239
그림 IV-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260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280

○———— I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 3. 연구방법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9년 6월, 일본에서는 농림수산성 차관과 주체코 대사까지 지낸 76세의 아버지가 44세 장남을 살해해서 이슈가 되었다. 살해된 그의 아들은 명문 사립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에 교내 따돌림에 시달리다 등교를 거부하던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 그는 간신히 대학에 진학하고 직장생활까지 하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사회생활을 중단하고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아버지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아들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버지와 다툼 끝에 죽음에 이르렀다. 이를 계기로 일본에서는 성인이 된 은둔형 외톨이들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일본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40~64세 은둔형 외톨이는 61만3000명으로, 15~39세(54만 1000명)보다 더 많다. 특히 생계를 책임져온 부모들이 사망한 후에 이들에게 의존하던 40·50대 외톨이 자녀들이 굶어죽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³⁾

이는 극단적인 사례이며 학교 밖 청소년 중 일부에 해당하는 은둔형 외톨이들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서 니트(NEET)로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한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도 향후 20년 이내에 이와 유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모두 은둔형

3) 왜 일본의 늙은 아버지는 아들을 죽여야 했을까. 시사저널(1566), 2019.10.19.

외톨이이거나 사회부적응자는 아니다. 일찍 학교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례들도 많다. 한국에서는 대중음악인 서태지가 고교중퇴 학력으로 스타가 된 이후, 많은 연예인들이 유사한 진로를 걷고 있다. 기업인들 중에도 고교중퇴자들은 드물지만 존재한다.

데이비드 카프(David Karp)는 15살이 되던 2001년에 뉴욕 브롱스 과학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그로부터 5년 후 그는 자신의 부모 침실 컴퓨터를 이용해 이미지 중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텀블러(Tumblr)를 시작했다. 이 회사는 2013년에 약 11억 달러에 야후(Yahoo)에 인수되었고, 그는 여전히 같은 회사의 CEO로 일하고 있다. 1968년생인 방준혁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고등학교 2학년 중퇴 후, 우여곡절 끝에 IT 관련 업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가 2000년에 인수한 한 게임회사는 현재 2조원 규모로 게임업계에서 가장 큰 업체 중 하나인 넷마블(Netmarble)로 성장했다. 그는 지금도 이 회사의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2014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2015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가 지정되고 운영을 시작했다. 그 이후, 2019년 현재 전국에 총 209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a).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혹은 ‘꿈드림’ 청소년 지원센터는 서울(25개), 부산(15개), 대구(9개), 인천(9개), 광주(6개)와 같은 대도시 뿐 아니라, 경기(31개), 경남(20개), 경북(15개), 충남(16개), 충북(13개), 강원(10개) 등 각 도지역내 중소도시 및 읍면 단위에서도 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b). 이들 꿈드림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교육, 건강검진 서비스 및 직업체험, 직업교육훈련과 같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지원 체계가 ‘꿈드림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어지고는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의 여부는 미지수이다. 실제로 학교를 중단한 이후 지역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도움을 받고는 싶지만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정보가 없어서’, 혹은 ‘취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원하지만 지역사회 자원이 한정되어 있어서’와 같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원하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있었다(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서두에 제시한 사례들에서 볼 수 있듯, 학교 밖 청소년들은 그 배경이나 학업 중단 과정 뿐만 아니라 이후 성인이 되어서 보이는 성취와 적응의 수준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 있다. 이들을 양적인 통계수치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법의 한계도 여기에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어떤 사례들은 정부의 지원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인 반면, 어떤 사례는 앞으로 10년 후에 이들이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지 너무나도 명확해 보이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명칭으로 이들을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지원정책은 최악의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목표를 향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은 양적 통계에 근거한 접근 이전에 심층적인 탐색과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 이것이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적인 접근을 선택한 이유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연령별, 성별, 사회계층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 체계가 상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겪게 되는 이행 경로에 따라 상이한 지원모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실제로 2018년에 각 유형별 청소년들의 이행 경로 별 진로관련 변인의 변화를 추적한 결과, 무업형은 다른 유형과는 다르게 변인들의 초기치가 좋지 않았으며, 직업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로정보탐색 활동이 줄어들었고, 학업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적 낙인감이 증가하였다(윤철경 외, 2018). 이러한 결과는 각 이행 경로 별로,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 모델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별로도 상이한 지원모델이 필요하다.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활비 지원, 검정고시, 대학 탐방 및 견학 프로그램을 원했던 반면,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읍면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 및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필요로 하였다(윤철경 외, 2018). 따라서 효과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행 경로를 고려하고, 지역사회별로 상이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지역사회 모델을 마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인기로 전이해 가고 있는 시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로, 경제적, 심리적 독립 및 자립을 성취해야하는 발달적 과업에 직면해 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테두리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겪는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과는 매우 다른 양상의 이행기를 겪는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 부모와의 관계 뿐 아니라, 동성, 이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할 뿐 아니라,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위한 검정고시 및 취업 준비 등 성인기로의 안정적인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만 한다.

5차년의 종단 연구로 계획되었던 본 연구는, 횡단적 인터뷰나 양적 연구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이한 요구와 여건, 성인기로의 이행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시키는 요인, 다양한 심리사회적 상태 등을 질적 패널 조사를 통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지역사회별로 나타나는 상이한 조건과 요구를 파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018년 1차 년도 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 패널 조사 체계를 구축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변화, 자립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도움을 얼마나, 어떻게 받고 있으며, 지역별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2019년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되어진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특징에 부합하는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질적 패널 조사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중단 이후 겪고 있는 ‘관계에서의 변화와 성장, 자립’을 살펴보았다. 안정적인 관계는 개인이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고 사회로의 건강한 적응을 하는데 기반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겪게 되는 관계에서의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의 위험 요인, 촉진 요인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적 요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발달과 자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둘째, ‘중소도시 지역 지원모델 개발’을 위하여, 중소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특성과 욕구를 분석하고, 학교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역적 지원체계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소도시는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특성을 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 대도시, 읍면지역으로 범위를 넓히는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같은 중소도시이지만 지역사회의 경제적 요건에 따라, 혹은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인프라의 양적, 질적인 차이에 따라, 적절한 지원모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중소도시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서 학교밖 청소년들의 지원체계의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질적 패널 조사를 통해 파악한 학교를 중단한 이후 겪게 되는 여러 변화와 자립의 과정에 대한 결과와 연계하여, 그러한 변화와 자립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역사회 별 차별적 지원모델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현재 200여개가 넘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전국 각 지역에서 건립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중앙 부처가 작성한 매뉴얼에 따라 획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학교밖 청소년들의 욕구와 필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에 놓여있는 학교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이행 경로 및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 상이한 지원 인프라를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은,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이다. 각 지역의 인프라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상이한 특성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지역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이끄는 전방위적인 지역사회 지원모델이 구축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패널로 구축해 이들이 과거에 겪은 경험과 향후 수년간 겪을 성장과 변화의 과정을 추적하는 종단연구이자, 패널과의 1대 1 면담과 내적 분석을 통해 양적 변화 뿐만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질적 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내적/외적 세계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성인기 이행과 성장 경로에 대한 질적 분석 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의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은 OECD 가입국 기준 대비 낮은 편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학업중퇴를 하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들의 욕구와 특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종단적 질적 연구는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복지나 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현재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미래를 조망할 때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질적 조사 자료의 축적을 1차적인 목표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가 향후 학교 밖 청소년정책의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구성과 축적 프레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2. 연구추진체계 및 연구내용

1) 연구추진체계

구분	질적 패널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협동연구기관)
조사개요	○ 조사대상 : 학교 밖 청소년(60명) ○ 조사방법 : 심층면접 ○ 조사주체 : 조사회사 (패널관리)	○ 조사대상 : 지역 센터 실무자 및 청소년 ○ 조사방법 : 심층면접 ○ 조사주체 : 협동연구기관
1차년도 (2018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구축(60명) 거주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이행경로(학업형, 직업형, 무업형), 성별 고려 · 면접질문지 개발(생활세계, 학교종단 후 학교 밖 경험 등) · 예비조사 실시 ·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기초조사 ○ 조사대상 : 지역 센터 책임자, 실무자 및 학교 밖 청소년 ○ 조사방법 : 참여자별 심층면접, FGI ○ 조사주체 : 협동연구기관 ○ 조사내용 : 지역규모별 지역 배경과 자원특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 기관별 한계점 및 애로사항 등
2차년도 (2019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2차)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특정주제 : 관계) · 예비조사 실시 ·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중소도시 지역모델 개발 ·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정 ·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지원서비스 분석, 지역기관 분석 · 지역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실행 지침 개발
3차년도 (2020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3차)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특정주제 : 정체감) · 예비조사 실시 ·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읍면도시 지역모델 개발 ·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정 ·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지원서비스 분석, 지역기관 분석 · 지역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실행 지침 개발
4차년도 (2021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4차)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특정주제 : 진로직업) · 예비조사 실시 ·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대도시 지역모델 개발 · 해당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선정 · 해당 지역 학교 밖 청소년 특성 및 지원 서비스 분석, 지역기관 분석 · 지역기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실행 지침 개발
5차년도 (2022년)	· 학교 밖 청소년 질적 조사 패널 조사(5차) · 면접질문지 수정 보완(특정주제 : 자립) · 양적조사(설리정서, 생활만족도 등) · 예비조사 실시 · 본 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모델 실시 지역과 비실시 지역 비교 및 운영성과 분석 및 제언

그림 1-1 연도별 연구추진계획(2018~2022년)

2) 연구내용

(1) 질적 패널 조사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질적 패널 조사를 통해서 학교를 중단한 후 지난 5년간 학업, 취업, 직업 훈련 뿐만 아니라 방황이나 하는 일 없이 지내기 등을 주요 경험으로 해 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후 5년간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과 변화, 또는 지체 등의 과정을 거쳐 자립을 성취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2차 년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사건과 경험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진입 과정에 있어서 독립과 인생구조 형성의 양상을 탐색해보았다.

① 심층면접조사 실시

먼저,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는 생활세계라는 횡적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 자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미시체계(개인과 가족), 중시체계(지역사회, 이웃, 또래관계, 학교, 학원, 직장 등), 거시체계(경제 사회구조, 정책, 교육체제)적 요인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세계에 어떻게 엮여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면접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은 계속 변화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의 경험은 이전의 경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경험세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청소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주변 인간관계의 경험, 또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학교를 중단한 이전의 경험부터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자립(혹은 미자립)에 이르기까지 핵심 주제(관계, 정체성, 진로 등)를 연차별로 특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면접문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② 지역규모별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 세계의 특성 분석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세계가 어떠한지 경험세계는 어떠한지 변화를 촉진, 또는 지체하는 것과 관련된 요인이 무엇이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세계에서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거나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러한 경험세계가 지역규모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개인의 이전의 배경적 경험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

(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협동 연구로 수행)

① 지역특성 조사

중소도시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규모별 지역배경, 자원분포(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인력자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한다.

② 지역규모별 성공모델 발굴 및 조사

비교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되어 있고 만족스러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 책임자(또는 실무자) 면접을 통해 성공요인 등을 분석한다.

③ 지역특성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발굴 및 지원과정의 특성

중소도시의 지역특성별로 당면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지원상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한다.

3. 연구방법

1) 문헌분석 및 전문가자문

문헌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1차년도 연구 결과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련된 선행 연구 문헌과 청소년들의 자립과 관련 되어진 개념 및 영향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이로의 이행과 그를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관한 선행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와 함께 연구방법 수립과 결과 분석을 위해 질적 연구방법에 대한 전문가 자문 및 대규모 질적 연구 사례들에 대한 검색과 검토,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시설 및 기관 현장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었다.

2) 질적 패널 연구

○ 조사내용 개요(조사항목 등)

본 패널은 이미 학업을 중단한지 5년에서 7년까지 지난 그룹으로 평균연령은 만 23.2세로 청소년이라기보다는 청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조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진입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심층자료의 수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중단 이후 생활 경험,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에게 중요한 사람 및 관계, 지난 경험에 대한 생각, 현재의 생활경험, 생활시간 및 공간, 미래에 대한 생각, 심리정서, 현재의 주요 관심사와 필요, 지역사회에서의 경험 등 전년도 연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영역에 대해 전년 대비 변화한 사항을 추적·조사하되, 성인기 진입과정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변화, 특히 부모와의 분리-개별화과정과 새로운 관계의 형성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요인들에 대한 인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 심층면담(면접)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기존 구축된 패널 중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으로 분류 학교 중단 후 경험과정의 유형화 후 대상 선정	
면담참여자 수	총 56명 (예정)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학교 밖 청소년 패널 청소년으로 무업형/진학형/취업형 유형별 20명 내외로 구성 (총 3개 유형)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구조화된 개별면접	
면담 시간 및 횟수	1회 2시간 이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면담자	훈련된 면접원	

3) 협동 연구

○ 연구개요

1차 년도에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차 년도인 이번 연구에서는 중소도시를 기반으로 요구되는 정책 모델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사회의 규모는 인적, 물적 자원의 분포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규모에 따른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해 중소도시 3개를 선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 그 외 가능한 지역사회 기관들의 실무자 대상 면접을 통한 정책 개발을 진행했다. 올해 개발한 중소도시의 지역별 정책 모형을 바탕으로 3차 년도에는 읍면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대상 정책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FGI 및 심층면접

주요 요소	내용	비고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조사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유관기관 실무자 8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지역 사정과 특성을 잘 아는 실무자, 지역 학교 밖 청소년과 접촉하고 있는 실무자	
면담방식(공식성 정도, 구조화 정도, 개별 혹은 집단면담)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혹은 개별 심층면접	
면담 시간 및 횟수	실무자 1회 2시간 이내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녹취	
면담자	훈련된 면접원	



II. 이론적 배경

- 1. 발현 성인기
- 2. 부모로부터의 자립
- 3. 발현성인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
- 4. 질적 연구 방법론
- 5. 1차 년도 연구 결과 개요
- 6. 요약 및 시사점

1.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

1) 정의와 특징

청소년에서 초기 성인기로의 이행하는 발달학적 시기를 발현 성인기(emerging adulthood)라고 지칭한다(Arnett, 2000, Sussman & Arnett, 2014). 대략 18세에서 25세에 해당하는 발현 성인기(Arnett, 2000)는 보호자로부터 자율성과 자립을 획득해가면서, 성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러 규칙과 책임감을 배우게 된다. 또한 이 시기는 성인이 안정적인 직업과 삶을 영위하기 위해 거치게 되는 성인 이전 단계로, 청소년들이 많은 실험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Sussman & Arnett, 2014).

Arnett(2007)는 청소년과 성인 사이에 있는 발현 성인기라는 용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시기는 대부분의 청소년기 시기(약 10-17세)와는 매우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약 18세에서 25세의 발현 성인기 시기에는 청소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인 변화나 사춘기를 경험하지 않고, 대부분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어린이 혹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기가 되면 많은 발현 성인기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부모의 집을 나와 독립적인 공간을 이루고 사는 경우가 많다(Arnett, 2007). 그림 II-1은 Arnett(2007)가 발현 성인기를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한 그림으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발현 성인기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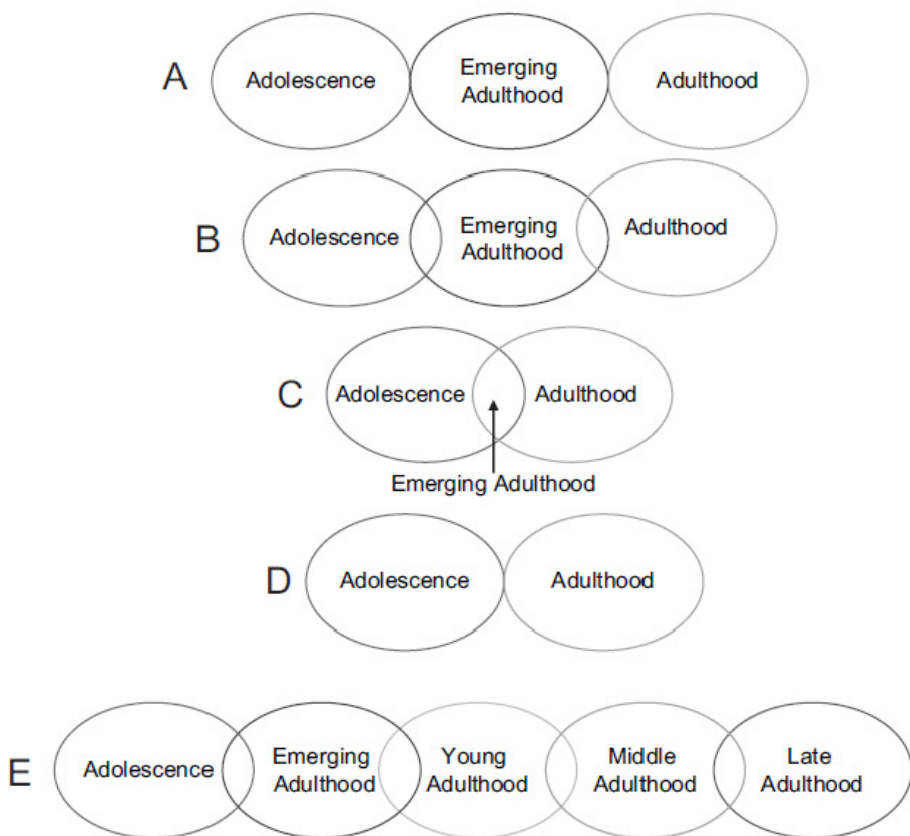


그림 II-1 발현 성인기의 가능한 배열

출처: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Arnett(2007)는 발현 성인기가 존재하지 않는 D는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C 또한 발현 성인기를 너무 짧은 기간으로 묘사했다는 데에서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였다. A는 청소년기, 발현 성인기, 성인기를 너무 구분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며, B가 발현 성인기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주장하였다. B의 형태를 보면, 발현 성인기는 어느 부분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겹쳐지면서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특성과 비슷한 면을 보이기도 하지만, 발현 성인기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Arnett(2004)는 발현 성인기가 다섯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Sussman & Arnett, 2014, p. 148에서 재인용). 다섯 개의 차원은 첫째, 정체감 탐색의 시기, 둘째, 가운데 끼인 느낌(feeling in-between)의 시기, 셋째, 가능성의 시기, 넷째, 자기 중심적(self-focused)인 시기, 다섯째, 불안정의 시기이다. 즉, 발현 성인기의 청소년들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 탐색하며, 스스로 청소년이나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또한 매우 긍정적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평가하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다양한 기회와 길들을 경험하고 실험한다(Sussman & Arnett, 2014).

2) 발현 성인기 관련 선행 연구 결과

발현 성인기의 청소년들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져왔다. 발현 성인기 청소년들의 정체성 탐색과 관련된 연구들(Schwartz, Côté, & Arnett, 2005) 외에도, 범죄와 관련된 연구(Piquero, Brame, Mazerolle, & Haapanen, 2002), 우울, 화,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Galambos, Barker, & Krahn, 2006), 약물 사용이나 중독의 위험이 증가와 관련된 연구(Stone, Becker, Huber, & Catalano, 2012; Sussman & Arnett, 2014) 등이 있다.

Galambos 등(2006)에 따르면, 사회적 지원 체계의 구축, 결혼 등의 요소가 정서, 심리적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발현 성인기가 미취업과 연관되어지면, 우울과 낮은 자아존중감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ussman과 Arnett(2014)에 따르면,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여러 중독에 취약할 수 있는데,

어렸을 때에 비해서 여러 약물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증가하며, 위험 행동을 하는 것이 다른 시기에 비해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위험 행동을 하는 것을 축하해주기도 함)이라고 하였다. Stone 등(2012)은 이 시기의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과 관련되어진 요인들을 메타 분석하였는데, 남자일 때, 약물 중독의 부모를 가졌을 때, 청소년기에 문제 행동을 보였을 때, 학교에 덜 전념했을 때 등이 발현 성인기의 청소년들의 약물 중독을 예측하는 요인들로 꼽았다.

한국에서도 발현 성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낮고 20대가 되면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한국에서의 20대는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김은정, 2014). 직장을 얻기 위해 과거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도 늘어났다(김은정, 2014). 대다수의 20대들이 성인으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정적으로 직장을 갖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발현 성인기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어져 왔다. 하지만 발현 성인기라는 용어가 최근에 소개되어진 개념이다 보니, 발현 성인기는 이와 유사한 다양한 용어로 일컬어져 연구되어져 왔다. 예를 들어, 성인 모색기(김은정, 2011, 2014, 2016; 정영라, 최희철, 2017), 성인 도래기(주경필, 2015), 성인 진입기(김누리, 신나나, 2017; 윤미설, 이동형, 2017), 신흥 성인기(박영숙, 2005), 초기 성인기(장수미, 2015), 후기 청소년(천정웅, 2013) 등이 있다. 한국의 발현 성인기 청소년들의 다양한 주제를 탐색, 분석한 연구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한국 사회의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발현 성인기를 분석한 김은정(2011)의 논문은 여대생이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20대 여대생은 과거의 20대의 여성과는 매우 다른 발달적 과정을 겪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겨우 졸업할 수 있었던 과거의 여성들과는 다르게 교육학적 측면에서도 많은 기회를 제공받고 있으며,

취업, 결혼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a) 교육과 학업, (b) 진로, (c) 성/연애/데이트/라는 주요한 개념들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 결과, 교육기간은 연장되었으며, 취업으로 인한 불안이 증가하였고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이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또한 여대생의 취업의 경우, 여성이라는 젠더에 대한 개념이 합쳐지면서 남성들과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어린 나이’가 남성과는 다르게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외모와 같은 요소 또한 취업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이성교제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순결 이데올로기’와 같은 여러 불안으로 혼란스러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후 2014년도에는 20대 전반에 걸쳐,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발현 성인기를 탐색하였다(김은정, 2014). 발현 성인기의 20대들을 대상으로,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과정에서의 과업 수행 지표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a) 원 가족으로부터의 분리, (b) 학업의 종료, 취업(진로), (c) 가족의 형성이 세 가지 지표로 사용되었다. 이와 더불어 (d) 이성교제와 성 행동이 가족의 형성의 준비 단계로 인터뷰에 추가되었다. 원 가족으로부터의 분리는 부모의 경제적, 주거적 지원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발현 성인기의 청소년들은 취업과 결혼의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에 경제적, 주거적 지원을 부모에게서 받고 있었다. 비록 부모와는 떨어져 타 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정서적, 경제적으로 원 가족과 분리되고 독립하는 것은 성인으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다. 몇몇 연구 대상자들은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난이나 군대와 같은 강제적인 요소들에 의해 이러한 독립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진로와 관련되어서는 20대 후반이 될수록 본인이 원하는 직업의 대한 접근과 가치관이 보다 구체화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본인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로 인하여 성인기로 이행되는 시간이 지연되었다. 가족의 형성은

결혼과 출산이 지연됨에 따라 더불어 늦추어지고 있다. 하지만 결혼으로부터 분리된 연애, 이성교제는 이와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과거에 결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성행동이 결혼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전반적인 발현 성인기의 특성들을 분석한 연구들 이외에도, 우울, 도박과 같은 발현 성인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발달학적 문제 행동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발현 성인기의 우울과 도박문제를 연구한 장수미(2015)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우울과 도박문제를 이끄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학생은 발현 성인기에 놓여있는 집단으로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정서적 자립을 획득해가는 여러 과정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여러 정서적 어려움까지 겪을 가능성이 있다(장수미, 2015, p.100에서 재인용). 또한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 스트레스는 도박문제의 주요 예측 요인이 되는데, 한국정보화진흥원(2004)의 연구에 따르면 도박의 원인으로 이러한 스트레스를 떨치고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있었다(장수미, 2015, p.101에서 재인용).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도박에 대한 부모의 태도나 가족 응집력이 대학생의 도박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현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누리, 신나나(2017)의 연구는 발현 성인기 여성들이 부모와 갖는 관계가 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발현 성인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의 경우, 여전히 부모로부터 경제적, 정서적 독립을 획득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와의 애착이 발현 성인기 여성들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미쳤으며, 발현 성인기 여성들의 자아존중감은 그들의 우울에도 영향을 미쳤다.

2. 부모로부터의 자립

1)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

청소년기의 자립은 다양한 용어로 연구되어져왔다. 우선,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separation-individuation)은 자립이라는 개념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분리-개별화는 원래 아동이 주변 사람 혹은 사물과 자신의 존재를 심리적으로 분리하고 개별화되는 되는 과정을 일컫는 용어로, 특히 아동기 초기에 있어서는 주양육자(엄마)는 자신과는 분리된 사람임을 인식하고, 주양육자와 본인을 다른 자아로 볼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Koepke & Denissen, 2012).

Blos(1967)은 아동기 초기에 일어나는 분리-개별화 과정 이후에, 청소년기에도 다시 분리-개별화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였다(Koepke & Denissen, 2012, p.76에서 재인용).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의 분리-개별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은 독립적으로 자기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본인이 한 행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Koepke & Denissen, 2012, p.76에서 재인용). 청소년들은 유아기 때 생성했던 부모에 대한 표상을 재구조화하고, 부모와의 관계를 보다 동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게 되는 것이다(Kavčič, & Zupančič, 2019). Blos(1979)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두 차례 일어나는 분리-개별화 과정이 건강한 심리, 정서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Hoffman, 1984, p.171에서 재인용).

특히 분리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개념화가 되어왔다(Koepke & Denissen, 2012). 구체적으로 (a) 부모의 의견, 믿음, 행동을 모방하지 않는 것, (b) 부모도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들만의 사적인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c) 본인 스스로의 사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d) 부모로부터 기능적, 정서적 독립을 획득하는 것, (e) 부모와의 갈등과 연관되어진 부모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f) 물리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있다.

발현 성인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의 분리-개별화 과정은, 발현 성인기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Jiang, Yang, & Wang, 2017, p. 426에서 재인용). 부모로부터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을 원활히 이루어내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되며, 비로소 청소년, 발현 성인기를 마치고 성인기로 무사히 전이해갈 수 있는 것이다(정윤희, 이인수, 2012). 따라서 분리-개별화 과정은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이해가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정일 뿐 아니라, 심리, 정서적 발달과 같은 다양한 발달 상황과 관련성이 크다(Jiang, Yang, & Wang, 2017, p. 426에서 재인용).

한국 청소년들의 분리-개별화 과정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는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부모와의 애착이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대해 연구한 김미진, 권경인(2014)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수록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었고, 이러한 분리-개별화 과정은 심리 적응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건강한 분리-개별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청년 자녀는 낮은 주관적 안녕감, 높은 우울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영, 정영숙, 2016). 경제적, 심리적 독립이 필요하고,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생활방식을 영위해야하는 20대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지나친 보호는 그들을 독립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분리-개별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이인영, 정영숙, 2016). 좀 더 다양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연구한 정윤희, 이인수(2012)의 연구에 따르면, 과보호 뿐 아니라 부모의 거부적 양육 태도 또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부모가 과보호를 하거나 거부적일수록 자녀가 계속해서 부모의 곁에 머물려고 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이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도 많았는데,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2004)의 연구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분리를 원활히 이루어낸 정도가 더 높았다. 또한 예상한대로 부모로부터 분리-개별화를 원활히 이루어낸 학생들이 보다 성숙한 진로탐색 태도를 보였다.

2) 부모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from parents)

청소년기 자립을 표상하는 또 다른 용어로는 부모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 from parents)이 있다. 심리적 분리 척도(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개발한 Hoffman(1984)은 독립이라는 단어와 분리라는 단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Hoffman(1984)에 따르면 부모와 아동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부모가 적절한 사랑과 보살핌을 아동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이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Hoffman(1984)은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부모로부터의 심리, 정서적 분리 과정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이다. 기능적 독립은 부모의 도움 없이 본인의 실생활적이고 개인적인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이다. 태도적 독립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믿음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 믿음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이다. 정서적 독립은 부모로부터의 승인, 친밀감과 같은 정서적인 지지 체계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이다. 갈등적 독립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낄 수 있는 죄책감, 불안, 화 등과 같은 갈등적 요소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시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스스로의 진로와 인생관을 구축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전예지, 이재림, 2014). 사회적으로

직업을 구하기까지의 기간이 연장되다보니,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심리적 독립 또한 20대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궁극적으로 건강한 성인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독립을 쟁취해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한국 사회에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발현 성인기에 놓여있는 청소년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에 대해 연구한 논문들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독립은 청소년의 진로탐색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전예지, 이재림, 2014; 주은지, 2018). 자존감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부모의 독립이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 전은영, 권경인(2011)의 연구에서도 부모로부터의 건강한 독립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높아진 자아존중감이 궁극적으로는 청소년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혔다.

청소년의 진로 뿐 아니라, 청소년이 이성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게 되는지도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연관성을 보였다.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청소년의 이성 관계와의 관련성을 연구한 김세영, 최나야(2011)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성취한 남학생의 경우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적 상황을 원활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감정표현에 있어서도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심리적으로 밀착된 경우, 오히려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보다 원활히 해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성취하는 것이 긍정적 발달로 이어질 수 있는 시기가, 같은 20대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김세영, 최나야(2011)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으로 한정되었는데, 한국사회의 대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로부터 독립을 획득한 성인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가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니다.

3) 자율성(autonomy)

청소년기 자립을 표상하는 세 번째 용어로는 자율성(autonomy)이 있다. 자율성이란 자신 스스로가 스스로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은주, 김민규, 2014). 부모로부터의 분리-개별화 과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본인만의 정체성을 획득해가는 과정에서 성인으로써 말아야 하는 본인의 역할과 책임을 지기 위해 적절한 자율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임영식, 한상철(2000)에 의하면, 자율성은 독립(independence)과 구분되는 개념인데, 독립성은 주로 행동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자율성은 행동적, 인지적, 정서적 요소 등 다방면의 자율성을 포괄한다고 하였다.

자율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행위적(행동적) 자율성은 타인 혹은 부모의 간섭이나 지도에서 벗어나 스스로가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살아가 수 있음을 의미한다(임영식, 한상철, 2000;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1). 둘째, 정서적 자율성은 부모와 연결되어진 정서적인 연결감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임영식, 한상철, 2000;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1).

Ryan과 Deci(2000)에 의하면, 자율성은 인간이 가지는 중요하고 보편적인 심리적인 욕구 중 하나로, 개인의 심리, 정서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홍승빈, 박성연, 2017. p. 6에서 재인용). 다양한 연구에서 이러한 자율성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율성과 개인의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홍승빈, 박성연(2017)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 파악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율성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안도희(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오현숙(2018)의 연구에 따르면 자율성이 낮은 경우 높은 비행수준을 보였으며, 공격행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3. 발현성인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

발현성인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자립을 획득하고, 사회적 여러 규칙과 책임감을 익혀 성인으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구가 청소년들이 학교를 중단하게 되는 원인과 학교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보호요인을 찾고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예 : 아영아, 박소현, 2018; 오정아, 김영의, 김정운, 2014), 학교를 중단한 후 전반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밟게 되는지에 되는지(예 : 김영희, 2015), 그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지(예 : 강석영, 양은주, 방미나, 2011; 문용선, 이운형, 2016)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통한 성인기로의 이행 경로를 짐작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첫째, 일반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성인기로 이행해 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과는 다른 부모와의 관계를 형성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그들과 어떻게 다르게 성인기로의 이행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지 유추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현대 우리사회의 일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인기로의 이행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사회의 20대는 학업을 마치고, 직업을 구하고, 적정한 시기에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결혼, 임신의 과정을 거쳐 성인기로 이행해가는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기를 무사히 마치고 성인기로의 이행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김은정, 2015). 하지만 후기 산업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반적이었던 성인기로의 이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김은정, 2015). 학업을 마치는 기간은 늘어났고, 이로 인해 직업을 구하는 시기도 늦추어졌으며, 직업을 구하는 일 또한

과거와는 다르게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고, 이로 인하여 결혼과 임신은 과거와 다르게 많이 늦추어졌다(김은정, 2015). 과거에 비해 성인기로의 이행에 걸리는 시간이 연장되었으며, 건강하게 성인기로 이행하는 것도 어렵게 된 것이다.

김은정(2015)은 이러한 변화된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어떻게 부모와의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떻게 부모로부터 독립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김은정(2015)의 연구에 따르면, 20대 발현성인기에 놓인 청소년들은 경쟁이 심화된 사회에 대한 인식에 힘들어하였고, 사회적 계층이 고착화된 불평등한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장래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부모의 도움을 기대하였다. 성인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실제로 주거 및 성인기로의 이행에 필요한 많은 부분(예 : 학원비 등)에 대해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었다. 경제적 지원 뿐 아니라 정서적, 정보적 지원과 같은 비경제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받고 있었다. 이러한 부모의 지원에 대한 기대 속에서 발현성인기의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이행해 나갔다. 부모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독립해야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게 되고,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는 만큼 부모가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하거나 자신의 삶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경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통제와 간섭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하면서 부모로부터의 자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었다. 부모로부터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패턴의 관계들이 나타났으며, 다양한 관계에 따라 완전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걸리는 시간에 차이를 보였다.

김은정(2015)의 연구는 일반 청소년들도 부모로부터의 자율성을 획득하여 성인기로의 이행을 수행해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유형과 패턴에 따라 성인기로의 이행에 걸리는 시간 또한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취약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유추해볼 수 있다. 취약계층 청소년은 저소득층

청소년, 아동복지시설 내 청소년, 가출 청소년, 비행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등 개인적, 환경적 요건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의미한다(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가정과 사회의 지지와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자율성과 자립의 획득을 통한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조규필, 정경은, 2016). 부모로부터 자립하고 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이 발현성인기에 이루어야 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업임에도 불구하고, 학업부족, 개인적 심리적 문제, 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취약 청소년들은 자립으로의 과정에서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당연히 성인기로의 이행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또한 취약청소년의 경우, 그 유형에 따라 그들이 놓인 환경과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자립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조규필, 2014). 예를 들어, 신혜령(2001)은 시설청소년의 자립에 대해, 시설을 나가게 되는 청소년들이 상호의존을 성공적으로 획득함으로써 스스로를 독립의 상태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조규필, 2014에서 재인용), 노혁(2003)은 빈곤청소년의 자립은 경제적 열등감을 이겨내고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고, 심리적인 의존성에서 벗어나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자립을 이루어 스스로를 신뢰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조규필, 2014에서 재인용).

청소년이 성인기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지지, 특히 부모님의 경제적, 정서적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은기수, 박진, 권영인, 정수남, 2011). 그런 면에서 취약청소년들은 적극적인 가족의 지지를 통해 성인기로 원활히 이행해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많은 취약청소년들의 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모의 이혼을 비롯한 가정의 불화,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기수 등(2011)은 만 19에서 만 29세 사이의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들은 취약계층

청소년에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하여 빈곤 청소년들을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며, 부수적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가족의 해체(부모의 이혼, 부모로부터의 이혼 독립 등)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험이 그들의 미래관이나 결혼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가족의 해체를 경험한 경우 초기부터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부모의 갈등, 재혼 등에서 성인기에 접어야 하는 다양한 문제를 미리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으며, 이러한 경험들은 부모의 방치, 이혼 성관계 경험, 동거 경험 등 청소년들이 성인기의 경험을 이른 나이에 경험하도록 이끌었다. 그들은 또래에 비해서 결혼, 임신 등과 같은 경험을 일찍 하여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일찍 획득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으나, 가족의 결핍으로 인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성인기의 경험은 미성숙하게 이루어졌으며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다양한 부처가 지원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대표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는 2019년 현재 전국에 총 20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9a),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은 물론 상담, 교육, 취업,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이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취약 계층의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쉼터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백혜정 외, 2015). 하지만 이처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백혜정 등(2015)은 부처 및 기관 간 연계 부족, 서비스 전달체계의 다원화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통합적이고 연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해줄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 들어서는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학교 밖 지원사업의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질적연구를 실시한 명소연, 조진옥(2016)에 의하면, 학교 밖 지원 체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 무력해진 삶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주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학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도 하고, 잃어버렸던 소속감과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부모, 상담사와 같은 사회적 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높이기도 하며(김지윤, 홍정순, 2017), 부모, 친구, 교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지지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외감을 낮추고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을 주었다(이정림, 조영아,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4. 질적 연구 방법론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이해가고 있는 발현 성인기에 놓여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정책적 지원체계를 살펴 보기 위해,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 정책적으로 어떠한 요구와 필요를 원하고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한국 사회의 각 지역별로 실제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Creswell은 질적 연구란 ‘사회적 또는 인간의 문제를 탐색하는 독특한 방법론적 연구 전통들에 기반 하여 이해하는 연구과정으로, 연구자는 복합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여,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보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으로 정의하였다(1998;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05). 전통적으로 질적 연구에 대해 언급한 저자들의 관점을 비교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질적 연구의 특성

특성	Bogdan과 Biklen(1992)	Eisner(1991)	Merriam (1988)
자료의 원천으로서 자연스러운 상황	예	예	예
자료수집의 주요 도구로서 연구자	예	예	
말 또는 그림으로 수집되는 자료	예	--	예
산물이라기보다 과정으로서의 결과물	예	--	예
특별한 상황들에 주의를 기울이며 귀납적으로 자료를 분석	예	예	예
참여자들의 관점, 그들의 의미에 초점	예	예	예
표현적 언어의 사용	--	예	--
논리에 의한 설득	--	예	--

* 출처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200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p. 33.

질적 연구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표 II-2는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유형에 대해 기술한다(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역, 2013). 이렇게 다양한 유형들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연구할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개를 혼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박지연 외 역, 2013). 또한 표에 제시된 열 가지 질적 연구의 유형 이외에도 자문화기술지, 대화분석 등 다양한 유형의 질적 연구 방법이 존재한다.

표 II-2 질적 연구의 유형

유형	관련연구	간단한 설명
실행 연구	Lewin(1946), Small(1995), Greenwood & Levin(1998), Reason & Riley(2009)	연구자의 실천가 역할이나 연구 참여자와의 적극적 협력을 강조한다
사례 연구	Platt(1992), Yin(2009), Yin(in press)	현실 세계의 맥락에서 하나의 현상(사례)를 연구한다
문화기술지	Powdermaker(1966), Greetz(1973), Wolcott(1999), Anderson-Levitt(2006)	사람들의 일상적 기준, 의식, 일과를 자세히 제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현장 기반 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민속방법론	Garfinkel(1967), Ciourel(1971), Holstein&Gubrium(2005)	사람들이 사회적 의식, 태도, 상징을 어떻게 배우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추구한다
페미니스트연구	Fine(1992), Olesen(2005), Hesse-Biber&Leavy(2007)	자주 간과되나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관계가 방법론과 기타 관계에 내재해 있다는 관점을 견지한다
근거이론	Glaser&Strauss(1967), Charmaz(2005), CQRbin&Strauss(2007)	현실 세계에서 사회적 행동의 자연적 발생은 상황식의 근거 범주와 개념을 도출함으로써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생애사	Lewis(1961, 1954), Langness(1965), Bertaux(1981)	삶의 전환점과 중요한 주제를 포함하여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수집하고 서술한다
내러티브연구	Riessman(1993, 2008), Chase(2005), Murray(2009), Connelly&Clandinin(2006)	현장감을 강조하기 위해 실제 환경 및 연구 참여자로부터 얻은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식 해석을 구성한다
참여관찰연구	Becker(1958), Spradley(1980), Tedlock(1991)	연구하려는 실제 환경에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 기반 연구를 수행한다
현상학적연구	Husserl(1970), Schutz(1970), Van Manen(1990), Moustakas(1994), Giorgi&Giorgi(2009)	사건을 이해하는 경험적 기반을 왜곡할 수 있는 기존의 범주와 개념을 거부하며,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사건을 연구한다

* 출처 :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2013). 질적연구 : 시작부터 완성까지. 학지사 (Yin, R. K. 2011,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p. 4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사·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Creswell이 제안한 다섯 가지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접근하되, 56명의 개별 패널에 대한 ‘사례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이들 학교 밖 청소년 패널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현상학적인 의미 구조’ 분석에 초점을 두어 분석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개별 패널 간의 현상학적 의미 구조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는 앞서 제시한 ‘발현성인기’ 및 ‘인생구조’ 이론을 근거로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이론을 구성하는, 근거이론 기법을 주로 사용할 예정이다. 특히 협동연구의 경우, 성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져있다고 판단되는 중소도시의 학교 밖 지원기관 및 관련기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성공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된 여러 환경적, 구조적 원인 및 지원 모델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질적 패널 조사는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 CQR-M)을 사용할 것이다⁴⁾.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M)은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을 변형하여 발전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샘플의 수가 많지만 응답들이 비교적 간단한 질적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다(Spangler, Liu, & Hill, 2012). 수정된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M)은 연구자가 데이터에 이미 정해져있는 구조를 입히는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카테고리를 추출하는 형식의 연구 방법이다(Spangler, Liu, & Hill, 2012). 일단 데이터에서 카테고리들을 추출하면, 연구자는 여러 명의 심사자들이 그 카테고리로부터 데이터를 코딩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여러 명의 심사자들이 좀 더 신뢰롭게 데이터를 코딩할 수 있도록 한다(Spangler, Liu, & Hill, 2012).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은 주로 상담이나 심리치료 영역의 연구 분석에서 많이 이용되어져 왔는데, 국내에서도 2001년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CQR)이 적용된 논문이 게재가 되면서 매년 그 사용의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지승희, 오혜영, 2013).

4) 본 연구에서의 질적 패덱 연구가 CQR-M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제 3장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분석의 연구분석 섹션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 외에 질적 연구 종류 및 질적 중단연구의 경향에 관한 더 자세한 설명은 1차 년도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져있다(윤철경 외, 2018).

5. 1차 년도 연구 결과 개요

1) 학교 밖 청소년 현황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중도탈락 청소년, 학교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등 다양하게 불린다(홍선영, 박금식, 박지영, 2018). 윤철경 외(2016)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만 7-18세 학령이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43만 명이며, 해외 유학 등을 포함하는 출국자를 제외하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는 약 34만 명이다. 교급별 국제 이동을 제외한 학교 밖 청소년의 비율은 그림 II-2와 같다. 성별에 따른 분류를 하면 그림 II-3과 같다.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학교라는 울타리를 나와 스스로 진로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과는 다른 경로의 발현 성인기를 맞이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들이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거쳐 발현 성인기를 맞이하는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맞이하게 되는 발현 성인기와 그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자립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지역 사회 기반 지원체계를 연구한 윤철경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의 청소년들보다 성인기로의 이행을 보다 빨리 맞이하게 되는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나 직업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인 자립으로 나타나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의 자립에 대해 진중히 생각하고 있으며, 학문적인 독립 혹은 자율성의 개념과 일치하는 수준의 자립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년정책은 정규 학교과정을 거친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책적 지지체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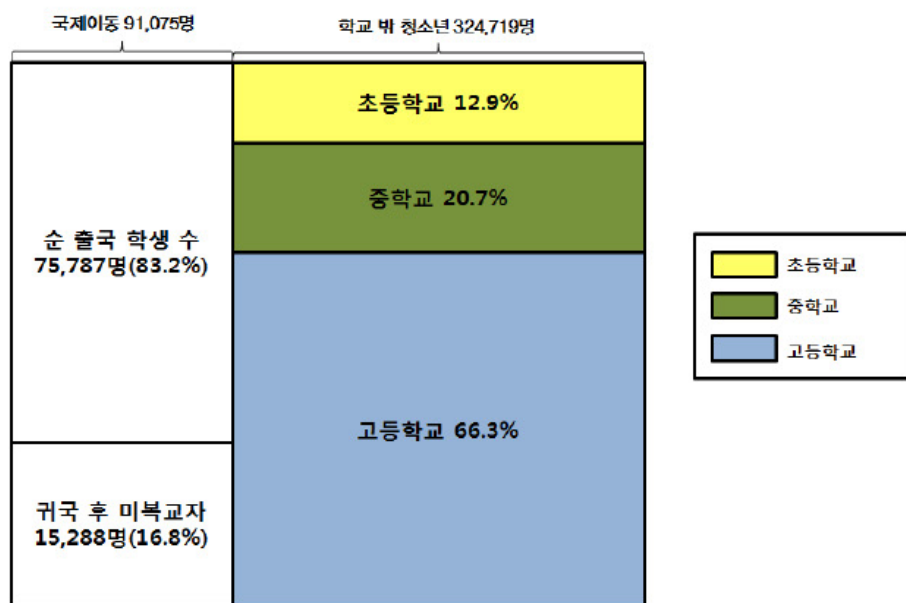


그림 II-2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급별 구성

* 출처 : 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연구보고 16-R1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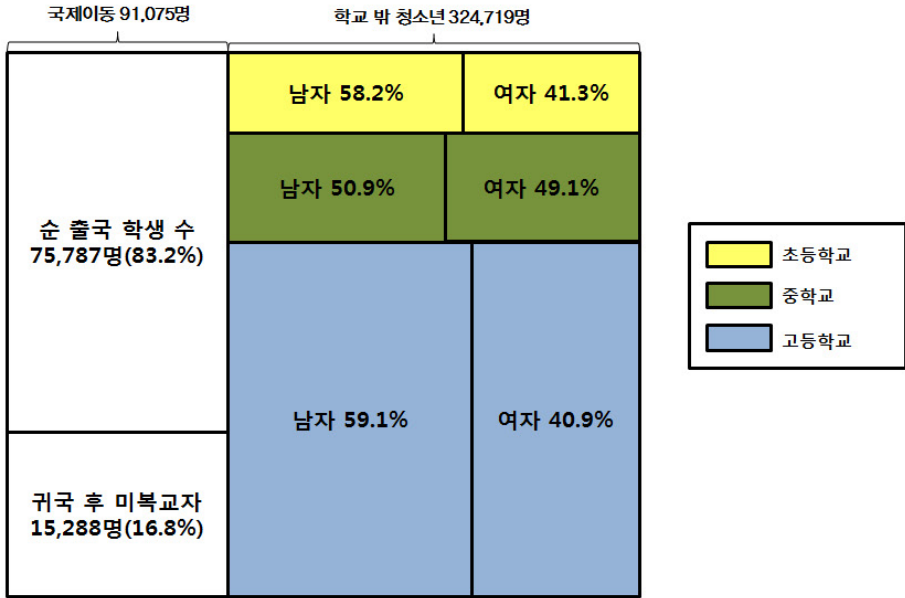


그림 II-3 학령기 학교 밖 청소년 규모의 교급별·성별 비율

* 출처 : 윤철경, 성운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연구보고 16-R1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에 설치되어져 있는데, 여성가족부(2017)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68,459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되었다(윤철경 외, 2018. p. 3에서 재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원센터로부터의 지원을 미비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철경 외, 2018). 특히, 지역별 규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이나 지원 인프라가 매우 상이할 수 있으므로, 지역별로 가용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2) 학교 밖 청소년 1차 년도 질적 조사결과 요약

2018년의 1차 년도 연구에서는 2013년부터 2017년 까지 5년간 추적한 학교 밖 청소년 장기종단 패널의 인생 경로를 잠재모형 분석을 통해 크게 '학업형'과 '무업형', '취업형'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들 중에서 각각 20명씩 총 60명의 질적 조사 대상 패널을 구성하는 작업에 집중했다. 이렇게 구성한 질적 조사 패널들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의 경험, 학업중단의 계기,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인간관계의 변화, 자신의 미래상과 의욕수준, 지역사회와의 도움 현황에 대한 1 : 1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탐색을 위해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에서 각기 한 곳의 시·군·구를 선정한 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의 책임자, 실무자와 이용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앞서와 마찬가지로 1 : 1의 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유형별 변화 양태 요약

학업중단 이후 생활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은 생활패턴이 불규칙해진다는 점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진로정보부족, 미래불안, 경제적 어려움, 진로계획 달성예측, 미래전망, 사회적 낙인감은 최근 3년 동안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무업형 청소년들은 이들 현황 측정치들이 처음부터 다른 유형에 비해 덜 긍정적이었으며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업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진로정보탐색활동을 줄여나가는 경향이 있었으며, 학업형은 사회적 낙인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년도 질적 조사에서는 주로 학업중단으로 이행한 과정에서부터 이행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주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조사결과, 이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유로는 졸업을 위해서는 검정고시가 시간적·비용적으로 효율적이라는

생각,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고 싶은 생각,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회의감 등 학교를 다녀야 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였다. 이렇게 학교를 떠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고 있었다. 이들이 떠올리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는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울타리, 친구들과의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곳, 사회생활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 등이었다. 아마도 학교에서 벗어났기에 학교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학교의 기능을 더 많이 체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대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 답답하고 의미 없는 곳’이라는 기억도 여전히 발견되었다.

(2) 양극화된 경험 양상

이들은 학업중단에 대해 자신이 정상적인 루트에서 벗어났다는 생각, 취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미래에 대한 막막함과 우울함,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 지루해지는 일상과 학교 다니는 친구에 대한 부러움, 생각지 못한 난관, 소속감이 없는 불안감 등을 주로 언급했다. 반면에 진로, 적성탐색, 대학진학의 동기부여로 작용하거나 해방감과 자유로움, 주도적인 선택, 책임감과 같은 긍정적인 해석도 발견되었다. 이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 이행과정은 양극화 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들 중에는 사회경험도 빨라지고 대인관계도 넓어졌으며 적응력이 생기고 인간관계 대처기술도 개선되고 인간관계에 대한 마음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성장했다는 집단이 있다. 이들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진로를 찾기도 했고 실행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었다. 반면에, 학교 밖 이행과정에서 부적응과 침체상태를 호소하는 집단도 존재한다. 부정적인 경험은 주로 진로, 직업, 생계에 관한 것이었다. 안정적 직업을 찾고는 싶으나 준비과정이 막막하고, 불안정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고, 불투명한 취업에 대한 불안감, 학업능력부족으로 인한

학업지속의 어려움, 생계유지나 가족부양 등 경제적 문제 등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었다. 이 외에 자살충동과 같은 부정적 정서, 군입대 지연에 따른 불안감, 초점을 찾지 못한 고민 등이 발견되었다.

(3) 학업중단 이후 사회적 관계

학업 중단 초기에는 주로 의사소통 문제, 중단에 대한 염려, 생활방식의 문제, 부모님의 인내심의 한계 등으로 갈등이 있었으나 소통방식의 개선, 검정고시 합격, 가정경제에 보탬이 됨 등의 성과로 관계회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단,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사례마다 의견이 다양했다. 많은 청소년들이 장기적인 미래의 불명확함을 우려하고 있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생활패턴이 달라져 친구관계의 범위가 작아졌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학업중단 이전의 친구 관계를 지속하는 유형과 학업 중단 이후에 새로 사귀 소수의 친구들에 의존하는 유형이 발견되었다.

(4)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학업형 청소년들은 주로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복학, 상급학교 진학 준비나 이미 진학한 사례들 이었다. 이들 중에는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얻은 경우에는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만족하는 반면, 선택한 공부가 너무 어렵고 성적이 나빠서, 돈이 없어서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불만족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취업형 청소년들은 상당수가 단순 아르바이트가 많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직장에서 근무하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체로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진로와 상관이 없거나 단순히 돈을 버는 데 그친다는 점, 일이 많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점, 아르바이트 생활 반복으로 인한 주변의 시선 등이 그 원인이었다. 반면 경력 상의 이점, 전망 있는 분야, 적성에 맞는 일, 돈을 벌 수 있고 업무가 편하다는 이유로 만족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군복무 중이거나 군 입대를 대기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래설계가 중단된 상태에 해당했다. 이들은 진로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며, 일단 군대 제대 후 생각해 보겠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은 군대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야하는 곳, 스펙의 걸림돌,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자기계발의 기회가 있는 곳 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5) 자립에 대한 준비

이들이 생각하는 ‘자립’은 물리적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한 준비는 대체로 취업준비와 진학·진로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들 중 소수는 형편 상 돈을 벌어야 하거나 거처마련을 위한 저축 계획 등을 피력했다. 자립에 대한 준비에 있어서도 긍정적 집단과 부정적 집단이 존재했다. 긍정적 집단은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며 자격증, 공부, 일, 친구 사귀기 등 의욕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집단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자립이라는 주제 자체를 기피하거나 불안과 걱정 속에서 의욕은 있으나 시작하기 힘들고 자신감이 없고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유형별로 보았을 때 학업형은 미래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직업형과 무업형은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나 의욕 부족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학업형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반면 직업형과 무업형은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았다.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대처

실제로 많은 응답자들이 차별을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내적갈등을 보고했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비행청소년으로 여겨지는 경험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이 외에도 대학진학, 취업, 진급, 문화 활동, 아르바이트 등 생활 전반에서

불이익을 경험했다. 이러한 차별에 대해 상당수는 사회에 대한 원망을 넘어 스스로에 대한 자책, 타인과의 비교평가로 인한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건강의 위협을 겪고 있었다.

(7) 지역사회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

이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는 대체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1시간 이내에 닿고 접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경우의 이유는 정보를 모르거나 지역자원이 한정되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와 학업중단 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지원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에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은 내용은 주로 검정 고시, 학습멘토링, 지역 청소년센터 문화행사 참여,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취업성 공패키지, 생활비 등 복지적 도움, 숙려제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지원받기를 원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외국어공부를 위한 경비나 프로그램 지원, 취업현장에 있는 전문가 코칭, 일자리 지원, 취업관련 정보제공 등 학업, 진로직업, 취업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아쉬움을 언급한 영역은 진로에 관한 정보였다. 이들이 각자 탐색하는 진로 분야의 실제적인 정보에 대한 아쉬움이 가장 컸다. 그 외에 또래관계 네트워킹 등의 인적자원 지원, 건강검진 및 거주지 등의 생활지원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대한 수요가 발견되었다. 또한 학업중단 후 지원 절차에 대한 홍보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이후 진로설정, 생활계획에 대한 매뉴얼 제공, 지원 절차의 간소화,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사회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안내, 취업박람회 등의 종합적인 정보제공 기회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8) 1차 년도 연구의 한계

질적패널 조사 연구는 수년간 양적데이터로 축적되어진 패널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을 더욱 깊숙이 들여다볼 수 있게 했다는 것에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양적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학업중단의 다양한 이유, 학업중단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갖는 의미, 학업중단이 개인과 가정에 미친 영향,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과정, 그들이 생각하는 자립의 개념, 학업중단 이후로 변화된 인간관계의 양상과 그들의 미래에 대한 생각, 지역사회 지원 등을 그들의 언어로 세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다. 1차 년도의 질적패널 연구는 2차 년도 이후 세분화된 주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전반적인 기초적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면하고 있는 세부적인 문제 혹은 변화에 집중하기는 어려웠다. 자립의 큰 요소인 부모와의 관계로부터의 독립, 성인기로 이행하면서 겪게 되는 관계에서의 변화들과 같은 집중적으로 알아보아야 할 핵심 영역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기로 접어들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에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변화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다. 1차 년도 연구가 대략적이며 전반적인 연구의 지도를 그렸다면, 2차 년도 이후의 연구에서는 보다 핵심적인 주제를 통하여 집중적이고 세세하게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통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관찰,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협동연구) 1차 결과 요약

(1) 지역별 특성

1차 년도에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읍면지역별의 시설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평가된 각 1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이들 모범적 운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부족할지 몰라도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점이었다. 지역에 따라서 부족한 요소는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는 빈곤지역으로 결손가정 청소년이 많아 위기상황, 비행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이 많아 서비스를 적시에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였다. 반면에 중소도시는 지역 네트워크가 원활한 반면, 저소득층과 특성화고의 학업중단이 많은 편이라 지원 수요자의 절대숫자가 많았다. 그리고 읍면지역은 교통시설과 인프라와 경제활동 장소가 부족해 청소년이 인근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2)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대도시와 중소도시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으며, 읍면지역은 대인기피,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를 갖는 청소년이 많고 무기력하게 지내거나 도박, 성매매 등의 비행이나 위기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대도시 청소년들은 식비 등 생활비 지원, 검정고시 프로그램, 대학탐방 견학 프로그램, 전용시설공간마련에 대한 요구를 언급했다. 반면 중소도시는 의식주 문제해결, 읍면지역은 취업과 자립을 위한 훈련 지원과 취업연계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아르바이트와 취업연계를 더 많이 원하고 있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체계적인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도 원하고 있었다. 대도시와 읍면지역은 또래친구와 동아리가 많았으면 하였고 프로그램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에 대한 욕구도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는 교통편 부족으로 인한 셔틀버스에 대한 수요가 언급되었다.

(3)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현황

중소도시에서는 접근성 문제, 대도시와 읍면지역에서는 전용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가장 큰 차이였다. 대부분의 지원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는

경로는 주로 교육청 리스트와 숙려제였고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은 자체 홍보를 통한 발굴도 있었다. 대도시 기관에서는 검정고시, 아르바이트, 취업지원에, 중소 도시는 정서적 지원과 생활지도, 수용적 태도 형성, 읍면지역에서는 청소년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앞서 기술한 지역별 청소년 수요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지역별 특화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도시는 1 : 1 멘토링, 찾아가는 꿈드림, 직업탐색 및 진로지원이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직업인과의 만남, 진로동기 향상 프로그램 등이 있었으며, 읍면지역의 승마체험, 건강관리,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이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 현황을 보면, 대도시는 지역사회 기관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취업과 실습기회 제공, 대안학교와의 사업공유, 지역과 연계한 인턴십을 실시하고 있었다. 중소도시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의 봉사, 지역사업장과 연계한 창업 인큐베이팅,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사업이 있었다. 읍면지역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으나 취업까지의 연결이 부족하다는 자체 평가가 언급되었다.

지역별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현장 실무자에 대한 인력 및 수당지원 부족, 실무자의 잦은 이직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었다. 특히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기관에서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실적평가 기준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부담을 많이 언급했다.

지역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공통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자립지원을 위한 작업장 및 창업 공간 제공을 언급했다. 지역별로 보자면 대도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급식지원, 자치구의 예산지원을, 중소도시에서는 실무자의 처우개선, 지역사회의 재정후원과 취업연계, 읍면지역에서는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빠른 대응이 주로 언급되었다.

해당 기관들이 성공적인 모델이 된 이유를 살펴본 결과, 이들 기관의 공통점은 기관종사자의 사명감과 실무자의 적극적인 태도, 관내경찰서, 지역주민과의 연계나

후원이 중요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응답했다.

(4) 1차 년도 연구의 한계

협동연구를 통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연구는 도시의 규모, 인적, 물적 인프라의 양적, 질적 차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지역별 공통적인 요소들과 차이점들을 살펴본 연구이다. 지역의 차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하고 차별적인 요소들을 확인함으로써 지역적 인프라의 양, 특색에 맞게 지원모델을 다르게 구축해야한다는 포괄적인 대전제를 이끌어 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각 1군데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함에 따라, 각 지역의 특색을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어려웠다. 또한 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뿐 아니라 그들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연계기관들을 조사해 포함시킨다면 각 도시 규모별 보다 세분화된 지원모델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2차 년도 이후에는 각 차 년도에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를 집중 조사, 분석하여, 각 규모별 적절한 성공 지원 모델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발현성인기(예 : 20대 초반)의 자립의 과정을 질적 패널을 통하여 분석하기 위하여, 일반 청소년들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발현성인기의 부모로부터의 자립의 과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발현성인기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발현성인기를 어떠한 식으로 경험하게 되는지는 여전히 미지의 연구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욱 활발히 연구되어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청소년의 자립은 인간이 가지는 매우 보편적인 가치이고, 청소년기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 속에서 건강하게 성취해야하는 발달적 과업이다. 성인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인 직업 및 결혼에 관련되어진 진로 탐색 혹은 이성교제는 청소년의 자립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반청소년의 발현성인기 과정의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학교 밖 청소년의 발현성인기 과정의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이행하여 건강한 사회적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발한 연구와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일반 청소년에 비해 사회로의 경험을 일찍 시작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대 사회에서 일반 청소년들은 대부분 20대 중반에서 후반, 늦으면 30대에 성인으로의 이행을 천천히 준비하게 된다. 하지만 학업적 준비를 비롯하여 사회로 진입하는 준비를 제대로 마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10대의 어린나이에 갑작스럽게 학교를 중단하면서 사회로 내몰리게 되고 갑작스러운 자립의 희들을 위하여 고군분투하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일반청소년들보다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더욱 이른 발달적 시기에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일반 청소년들은 불평등하고 경쟁이 심화된 사회로 진입하면서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는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부족한 지원을 대체해줄 수 있는 폭넓은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학업의 중단에는 가족 관계 및 가정환경을 포함하는 가정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 2004; 남영옥, 2016; 아영아, 박소현, 2018). 가족의 화목도가 낮고 양육태도 또한 부적절했을 가능성이 있다(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따라서 부모와의 불화를 겪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는 대신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추구할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이러한 이른 자립에 대한 추구는 경쟁 사회에서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어렵게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정신적 자립을 이른 시기에 이룰 수 있을지언정, 건강한 자립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발현 성인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존재하지 않으나, 다른 시설청소년, 빈곤청소년 등과 같은 취약청소년들과 비슷하게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지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자립, 성인기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혹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에 비해 학교를 나와 비교적 사회적 경험을 일찍 시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모로부터의 자립을 더 빠르고 수월하게 획득하고, 이에 따라 성인기로의 진입이 더 원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취약계층 청소년의 성인기로의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것처럼, 학교 밖 청소년들을 포함하는 취약 계층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원활한 부모로부터의 자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에 필요한 충분한 보호와 지지를 받지 못할 경우, 질적으로 온전한 자립과 성인기로의 이행을 완수하게 될지의 여부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윤철경 등(2018)은 성인기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사회적,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발현 성인기의 기간이 연장되고, 과거에 비교적 쉽게 성취할 수 있었던 취업 및 결혼이 끊임없는 준비에 의해 성취되어지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성공적으로 성인기로 진입할 수 있도록 사회적 자원이 뒷받침 되어줘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지 또래의 친구들과는 다르게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고(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이로 인하여 또래에 비해 비교적 사회에 빨리 진입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성인기로의 이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배주미 등(2011)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는 취약청소년들은 특히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개인적, 가정적 환경의 취약성만으로도 자립이 어려운 상태에서 지역사회의 지원조차 부족하다면 자립을 통한 성인기로의 이행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에서의 청소년 복지 관련 정책은 단순한 현금을 지급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그들의 자립을 지원해주기 위한 정책으로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배주미 외, 2011에서 재인용), 교육적, 정서적, 경제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복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다방면에서 청소년들의 원만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돕고 있다(배주미 외, 2011). 성인기로의 이행을 방해하는 부족한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경제적 지지, 사회적 낙인 등의 부정적 영향을 만회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맞게 폭넓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기존의 양적 연구들 수치들로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황이나 어려움을 보여주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발현성인기에 놓여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성인기로의 이행을 위한 사회적, 정책적 지지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인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필요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어왔다(배주미 외, 2011).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취약계층 청소년과는 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이질적인 그룹으로 구성되어져있는 만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특화된 자립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 III.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분석 -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계 양상 중심으로

-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 2. 분석 방법
- 3. 논의
- 4. 종합 제언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분석

-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계 양상 중심으로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⁵⁾

표 III-1 연구대상

	구분	명(%)
성별	남	28(59)
	여	19(41)
연령	만 25세	2(4)
	만 24세	11(24)
	만 23세	15(32)
	만 22세	15(32)
	만 21세	2(4)
	만 20세	1(2)
	만 19세	1(2)
자퇴 시기	고등학교	40(85)
	중학교	6(13)
	초등학교	1(2)
학교 밖 생활 기간	4년차	1(2)
	5년차	2(4)
	6년차	4(8)
	7년차	21(45)

5) 본 장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자인 성균관 대학교 이동훈 교수에 의해서 작성되었다.

	구분	명(%)
학교 밖 생활 기간	8년차	16(34)
	9년차	2(4)
	11년차	1(2)
거주지	서울	8(17)
	경기도	9(19)
	인천	1(2)
	충청도	9(19)
	전라도	6(13)
	경상도	12(26)
	강원도	1(2)
	제주도	1(2)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본원에서 수행한,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윤철경 외, 2013)에 참여했던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선정했다. 2013년 당시 1차년도 패널 조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은 776명이었으며 이 조사의 마지막년도인 2017년의 5차년도 조사까지 참여한 청소년은 이들 중 41%인 318명이었다. 본 과제의 1차년도 연구에서 이들 318명의 5개년도 장기종단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의 학업중단 경로를 분석하여 유형을 분류했는데, 그 결과 학업 중단 이후에 다양한 경로로 다시 학업에 복귀한 ‘학업형’, 학업 중단 이후 다양한 유형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취업형’, 그리고 학업이나 뚜렷한 직업 활동 없이 생활 중인 ‘무업형’의 3가지 유형이 산출되었다(윤철경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이들 3가지 유형 별로 성별, 연령, 지역을 고려해 각각 동일한 인원을 선정해서 질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 원칙에 따라 2018년에 각 유형별로 20명씩 총 60명을 선정해서 1차년도 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중도탈락자들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총 47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참가자들의 연령은 만 22세 15명, 23세 15명, 24세가 11명으로 대부분

20대 초, 중반이었으며, 그 외는 만 25세 2명, 21세 2명, 20세 1명, 19세 1명이었다. 이들 중 고등학교 자퇴가 40명, 중학교 자퇴가 6명, 초등학교 자퇴가 1명으로 연구 참여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때에 학업중단 경험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 28명, 여자 19명이었으며, 거주지는 경기도 9명, 서울특별시 8명, 부산광역시 7명, 충청도 5명, 대전광역시 4명, 광주광역시 3명, 전라도 3명, 대구광역시 2명, 경상도 2명, 강원도,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각 한 명이었다. 인터뷰 시점은 학업중단 시점으로부터 4년차 1명, 5년차 2명, 6년차 4명, 7년차 21명, 8년차 16명, 9년차 2명, 11년차 1명으로 확인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모두 2018년에 동일한 면담 경험이 있어 인터뷰에 대한 전반적 상황을 숙지하고 있었으며, 지난 인터뷰를 통해 연구 참여자와 면담자간에 어느 정도 라포(rapport)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더 안전하고 편안한 면담을 위해 대부분 작년과 동일한 연구자가 면담에 참여하였다.

질적 조사의 특성상, 조사는 질적 연구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와 이동훈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 조직한 전문가 그룹에 의해 수행되었다⁶⁾. 이동훈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카운슬링 센터의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그와 그가 구성한 질적조사 전문가 그룹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상 재난상담 연구’, ‘자살 위험군에 대한 질적 연구’ 등 다양한 질적 조사 경력을 보유, 본 조사의 수행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실시 전, 사전에 작성한 질적 조사 내용과 조사 가이드라인을 제출하여 본원의 자체 연구윤리 심의를 통과했다. 질적 조사는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수행되었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연구 참여자가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었으며, 실제로 대부분의 조사는 주로 연구 참여자 거주지 근처의 스터디룸 혹은 조용한 커피숍에서 진행되었다. 면담 전에 연구의

6) 질적조사를 수행한 전문가그룹 구성원 명단은 보고서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목적과 과정,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고, 연구윤리 절차에 따라 구두 및 서면으로 동의를 구하였다. 면담은 조용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90분-15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면담 도중에 중단을 원하면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이 끝난 후 문화상품권을 사례로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을 구하였다.

심층면담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구조화된 질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서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흡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확인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다. 녹음한 내용은 5일 안으로 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2. 분석 방법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계 양상 분석

(1) CQR-M에 의한 결과 분석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관계에서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자립’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건강한 관계 형성의 위험요인과 촉진 요인을 파악하고 관련 요인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자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후 이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Modified(CQR-M)이다. CQR-M은 발견지향적 접근(Mahrer, 1988)과 탐색적

접근(Hill, 1990)을 CQR(합의에 의한 질적 연구법)의 요소와 통합한 방법으로, 큰 표본의 비교적 간략하고 단순한 질적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CQR-M은 개방적 질문을 사용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참여자로부터 깊이 있는 개인적 경험사와 일반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용이한 연구 방법이며(Hill, Knox, Thompson, Williams, Hess, & Ladany, 2005). 주로 예상치 못한 현상을 연구하거나 새로운 생각들을 연구할 때와 같이 선행연구가 부족할 때 적합하다(Hill,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특정 경험을 다양하고 심도 깊게 탐색하고 그들의 내면적 태도, 경험, 신념, 정서 등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는 많지만,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부터 학령기, 학령기 이후를 분류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는 CQR-M 연구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CQR-M은 여러 명의 평정자가 합의 과정과 검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CQR과 유사하지만, 다수의 표본에서 얻은 상대적으로 짧고 단순한 질적 자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CQR-M은 주로 예상치 못한 현상이나 새로운 생각들을 탐구하거나 선행연구가 부족할 때 보다 적합하고 모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얻는데 더 유용하다(Hill,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적인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상담교육을 전공교수 1명, 박사과정생 6명과 석사과정생 2명의 평정자 간의 논의 및 합의과정을 거쳤다(Hill, Thompson & Williams, 1997). 합의란 자연스럽게 만장일치가 된 결정 사항을 뜻하는 용어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은 본 연구방법의 필수 항목이다(Schielke, Fishman, Osatuke, & Stiles, 2009). 연구자들은 합의를 이루어 내기 위해 자료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구성원 모두 최선의 설명이라고 동의할 때까지 논의한다. 즉,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격려하는 수평적 분위기에서 자료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도출해낸다(Hill, et al, 2005). 팀원 간의 서로 다른 관점이 나타났을 때에는 경청의 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루어 내고 결론이 날 때마다

초기 자료로 돌아가서 검증하기를 반복한다. 최종 합의가 도출된 후에는 연구팀의 결과에 미칠 집단 사고의 잠재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Hill, et al, 2005) 상담 교육 전공 교수인 감수자 1인의 감수를 거쳐 자료의 내용을 범주화하였다. 이후, 결과의 비교를 위해 general, typical, variant 등의 빈도명을 사용하는 CRQ과 달리, 각 범주의 반응 수를 해당 영역의 총 반응 수로 나눈 비율로 빈도를 표시하는 CQR-M의 결과 비교 방법에 따라 빈도를 나타냈다. 범주별 빈도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하위 범주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응답자들이 의미 있고 주목할만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일 때, 그리고 그 차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질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다(Hill, 2016)

(2) 연구결과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양상을 CQR-M 방법으로 분류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III-2 학업중단 청소년의 관계 양상에 따른 빈도

CQR-M 비율 = (응답자 빈도/응답자 인원수)×100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부모와의 관계	학업 중단 이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10	30.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10	30.3%
		돌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12	36.4%
		부정적 관계양상	15	45.5%
		긍정적 관계양상	1	3.0%
	응답자 인원 수		33	100%
	학업 중단 직후~ 학령기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12	46.2%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5	19.2%
		학업중단 결정에 관한 부모의 신뢰	9	34.6%
		가족의 지지	8	30.8%
	응답자 인원 수		26	100%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부모와의 관계	학령기 이후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	6	21.4%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회복	13	46.4%
		부모-자녀 간 공존한 마음	5	17.9%
		부모의 지지	5	17.9%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9	32.1%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3	10.7%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1	3.6%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	7	25.0%
	응답자 인원 수		28	100%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학업 중단 이전	자신의 세계에 고립	8	47.1%
		심리적 취약	9	52.9%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	1	5.9%
		가족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함	4	23.5%
	응답자 인원 수		17	100%
	학업 중단 직후~ 학령기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	12	46.2%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	15	57.7%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	3	11.5%
	응답자 인원 수		26	100%
	학령기 이후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준비	13	34.2%
		뒤늦은 진로준비로 인한 무거움	6	15.8%
		소극적 진로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11	28.9%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	10	26.3%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6	15.8%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족감	8	21.1%
		심리적 어려움	10	26.3%
		행동조절의 어려움	2	5.3%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	1	2.6%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	4	10.5%
		부모로부터의 독립	11	28.9%
		부정적 자아 인식	4	10.5%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학령기 이후	긍정적 자아인식	11	28.9%
		군대에서의 적응 양상	4	10.5%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6	15.8%
	응답자 인원 수		38	100%
또래와의 관계	학업 중단 이전	부정적 또래관계	16	84.2%
		또래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5	26.3%
		이성관계	1	5.3%
	응답자 인원 수		19	100%
	학업 중단 직후~ 학령기	부정적 또래관계 양상	11	55.0%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	10	50.0%
		힘이 되어준 지인	6	30.0%
	응답자 인원 수		20	100%
	학령기 이후	심리적, 환경적 걸림돌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7	30.4%
		또래에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	5	21.7%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	13	56.5%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관계욕구의 지연	2	8.7%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8	34.8%
	응답자 인원 수		23	100%
이성관계	학령기 이후	관계양상의 다각화	11	68.8%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4	25.0%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	6	37.5%
	응답자 인원 수		16	100%
학교와의 관계	학업 중단 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14	38.9%
		원하지 않았던 학교	8	22.2%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1	30.6%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17	47.2%
		교사의 심리적 지원	6	16.7%
	응답자 인원 수		36	100%

범주		하위범주	빈도	CQR-M
학교와의 관계	학업 중단 직후~ 학령기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	9	81.8%
		직업학교로의 전환	1	9.1%
		학업중단과 복교의 반복	5	45.5%
	응답자 인원 수		11	100%
	학령기 이후	소속감의 회복	2	9.1%
		대학에서의 부적응	4	18.2%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4	18.2%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5	22.7%
		학교에 대한 소회	13	59.1%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	9	40.9%
	응답자 인원 수		22	100%
지역사회 (직장 및 유관기관) 과의 관계	학업 중단 직후~ 학령기	또래보다 빠른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됨	8	47.1%
		지역기관에서의 긍정적 경험	7	41.2%
		지역기관의 한계	8	47.1%
	응답자 인원 수		17	100%
	학령기 이후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5	41.7%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1	8.3%
		멘토의 지지	2	16.7%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5	41.7%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5	41.7%
	응답자 인원 수		12	100%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2) 학업중단 과정별 관계양상에 대한 분석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을 탐색하기 위하여 Krippendorff(2004)가 제시한 ‘내용 분석’(contents analysis) 절차를 기반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Krippendorff (2004)의 내용분석 방법은 내용을 차원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는데, 연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차원분류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Krippendorff의 내용분석은 4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텍스트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면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면담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이 어떤 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연구 참여자들의 의미 있는 진술을 찾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 중에서 관계양상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하여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도출된 의미단위를 범주화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유의한 의미단위 개념들 중 서로 유관한 개념들을 상위 개념으로 결집하여 범주화하였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러한 범주를 학업중단 시점을 기준으로 전, 중, 후로 나누어 재배열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하여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였다. Lincoln과 Guba(1985)의 평가기준은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사실적 가치(truth value)란 연구 참여자가 처한 맥락에서 신빙성 있는 사실을 담고 있는지를 의미한다. 사실적 가치 확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업 중단을 1회 이상 경험한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가 사실적 가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즉시 연구 참여자와 연락하여 분석 결과에 대해 확인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두 번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결과가 해당 연구 대상과 연구 진행 맥락이외에도 본 연구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 본 연구팀은 분석 과정에서 기존에 출간된 학업중단 관련 연구 및 보고서들을 검토하였다. 검토된 학업중단 연구 및 보고서들은 주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 양적 연구였다면,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과정의 전반적 경험에 대한 면담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의 구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정책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하기 위해서 질적 연구로 다수의 논문을 출간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분석 팀 내에서 지속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개념은 범주에 잘 배치되었는지, 범주명이 의미단위의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지 등을 검토하였다. 넷째는 연구의 중립성(confirmability)이다. 연구팀은 연구의 중립성을 위해 면담 자료 이외에도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삼각검증하면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고 독단적 해석을 지양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본 조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한 관계 영역의 변화를 학업중단 이전, 학업 중단 이후 (학령기), 학령기 이후 현재까지의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자아(나)와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래 관계, 학교(혹은 사회)관계의 4개 영역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단, 이들 영역별 질문을 하기 보다는 응답자에게 학업중단과 자신의 현실에 대해 자유롭게 연상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 응답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분석틀을 적용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각 단계와 영역별 분석 과정에서 도출된 핵심어들을 괄호표로 제시하고 그에 관련된 응답자의 구술을 표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각 응답자들의 주관적 경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 학업중단 이전<관계 양상>

가. 부모와의 관계

학업 중단 이전의 부모와의 관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돌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부정적 관계 양상’, ‘긍정적 관계양상’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학업중단 이전) 가족과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10)	무관심한 양육(6)	- 연구 참여자가 비행을 저지르고 자기통제력을 상실하여 교칙을 자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을 멈추도록 독려하는 어른이 없어 비행을 멈추지 못하고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여 퇴학에 이름(연구 참여자 8) - 부모님은 흡연에 대해 끊기 어려우면 사람들 없는 곳에서 피라고 하시는 등 실질적 훈육보다는 현실적인 타협을 제시한 부모의 교육관으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함(연구 참여자 8) - 초등학교 때에 전학을 가서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전혀 공감해주지 못해 상처를 받음(연구 참여자 18)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어 자신을 지지해주는 유일한 존재인 남자친구를 많이 사귀게 됨(연구 참여자 19) - 주변 친구들은 부모님께 성적표를 보여드렸을 때 혼나곤 했지만, 자신의 부모님은 성적표를 보여주든 안보여주든 신경을 쓰지 않으셔서 주변 친구들이 자유롭다며 부러워 함(연구 참여자 15) - 모는 연구 참여자의 잦은 결석을 알고 있었으나 몇 차례 훈계 후 더 이상 노력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30) -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집에 잘 들어가지 않고 집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부모부터 아예 연락이 오지 않음(연구 참여자 45)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4)	- 인라인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는 유일한 꿈을 부모님이 인라인스케이트를 버리는 등의 행동으로 꺾어버림(연구 참여자 15) -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엄마와 아빠의 강요로 자퇴를 결정(연구 참여자 1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10)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4)	•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아버지와 집 분위기(연구 참여자 27) • 모는 자신에게 집착하며 하나 하나 다 통제하려고 했음 (연구 참여자 41)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함(3)	• 훈육을 이유로 매가 부러질 정도로 맞는 등, 부모부터 신체적 학대경험이 많음(연구 참여자 25) • 모는 부의 신체적 학대를 막아주고 이혼 후에는 가정의 심리적 중심을 잡아주었기에 상대적으로 모에게 의지하게 됨(연구 참여자 25) • 보호해주지 못하는 무력한 엄마(연구 참여자 27) • 독한 아버지와 무른 아들의 갈등양상과 그로 인한 아버지의 비난과 폭행(연구 참여자 27) • 모는 체벌과 통제를 일상적으로 하였는데 나중에 본인은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함(연구 참여자 4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10)	부모의 심리적지지(5)	• 홀로 아들 둘을 키워내신 어머니의 고난 했던 지난 삶을 짐작하며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연구 참여자 6) • 살아가면서 주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부모님은 자신을 믿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셨지만 그에 대한 책임 또한 강조하심(연구 참여자 1) • 어머니의 말투/표정/분위기를 통해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학업중단을 만류하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연구 참여자를 걱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음(연구 참여자 6) •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거나 실수를 하여도 스스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시곤 했는데, 그런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함(연구 참여자 8) • 모는 귀가시간이 늦거나 외박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을 믿어주며 크게 간섭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33) • 부모님은 항상 자신의 선택을 신뢰하고 지지해주심 (연구 참여자 43)
	주체적 삶을 훈련시킴(4)	• 사람이 되라, 비뚤어지지라는 말 외에는 크게 강조하거나 요구했던 것이 없었던 부모님(연구 참여자 14) • 너의 먹고 살 길은 네가 찾으라면서 인정해주신 부모님 (연구 참여자 13) • 진짜 사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만 넘지 않으면 될 하든 상관하지 않는 부모님(연구 참여자 13)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10)	주체적 삶을 훈련시킴(4)	• 니 인생이고 니 선택이니 후회는 하지마라(연구 참여자 17) • 부모님은 신체적으로 위험한 일이 아닌 이상,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견을 존중 해주심 (연구 참여자 35)
	경제적 독립을 훈련시킴(1)	•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이시지만,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독립성을 교육시키셔서 독립적인 경제관념을 갖추게 됨(연구 참여자 11)
돌봄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12)	부모의 이혼(5)	•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전국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중학교 시절에 항상 집에 혼자 남게 됨(연구 참여자 15) •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인해 어머니와 다툼 일이 많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함 (연구 참여자 10) •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연구 참여자 16) • 한부모 가정에서 외동으로 자라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이 됨(연구 참여자 19) • 초등학교 때에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사실을 가족들이 숨기고 아버지가 바쁘다고만 한 뒤, 중학교 때에 이를 알려주어 큰 충격을 받음(연구 참여자 15) •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 동생하고 살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림(연구 참여자 25)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3)	•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버지와 따로 살게 됨. 경제적으로 어려워 어머니 혼자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 환경이 되었을 때 아버지를 원망했던 적이 있음 (연구 참여자 6) •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힘들었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여 막막함과 외로움을 경험(연구 참여자 6) • 부모님 이혼 후에 8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 양육되었는데, 이혼한 어머니 혼자 경제적 책임을 도맡아 해오시다 보니 가정 경제가 좋지 않아 중학교 1학년까지 생활고를 겪음 (연구 참여자 26) •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부의 가장으로써의 태도는 불성실 하고 책임감 없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22) • 조부모에게 물심양면으로 의존해온 부의 태도가 경제적인 면에서 책임감 없는 것으로 이어짐(연구 참여자 2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돌봄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12)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3)	• 불성실한 부의 직업적 태도로 인해 가정 경제의 대부분을 모가 감당함(연구 참여자 22) • 고등학교 교육비를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의 희생은 연구대상자로 하여금 돈을 벌고 싶은 욕망을 더욱 부추김(연구 참여자 6)
돌봄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12)	부모님의 부부 갈등(3)	• 부모님 별거 중이셔서 할머니, 아버지와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됨(연구 참여자 23) • 심리적으로 할머니가 유일한 가족임(연구 참여자 21) • 어렸을 때부터 부와 모의 사이가 좋지 않아 그 사이에서 눈치 보는 생활을 함(연구 참여자 26)
	열악한 생활환경(4)	• 몽골에서의 생활 중, 부의 갑작스런 귀국 결정으로 가정 전체의 생활환경이 바뀌면서 부모갈등이 첨예해짐(연구 참여자 25) • 가족구성원 대부분이 흡연을 하여 어렸을 때부터 담배에 노출되다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함. 너무 어린 나이에 흡연을 시작하여 금연에 거듭 실패하고 결국에는 교칙 위반으로 퇴학처분을 받게 됨(연구 참여자 8) • 모의 직업 상 출장이 잦기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동생과 둘이 생활하는 것에 익숙함(연구 참여자 26) • 부의 사별로 인해 모와 둘이 생활함(연구 참여자 41)
부정적 관계양상 (15)	부모님과의 소통 부족(12)	• 자퇴를 결심할 때에 '부모님 두 분도 힘들기' 때문에 조언을 받지 못함(연구 참여자 16) • 초등학교 때에 전학을 가서 힘들었는데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전혀 공감해주지 못해 상처를 받음(연구 참여자 18) • 부모님에게 연구 참여자가 겪은 집단따돌림피해경험의 고통과 괴로움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나누지 못하여 학업 중단 이외 다른 방법을 함께 강구하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후회됨(연구 참여자 5) • 부모님은 학업 중단 전 비행 청소년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말리셨지만, 당시에는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음(연구 참여자 7) • 일상생활의 소소함부터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대화가 별로 없음(연구 참여자 22) • 아랫사람 윗사람 할 것 없이 서로 평등하게 도리를 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구 참여자와 달리 불합리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음(연구 참여자 2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관계양상 (15)	부모님과 소통 부족(12)	• 부정적 환경에 노출된 어린 시절 경험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 형성을 유추함(연구 참여자 27) • 등교하기 싫을 때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집에 몰래 숨어 있다가 들킨 경험이 있음(연구 참여자 30) • 학교가기 싫다거나 자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학업중단에 대해 대화를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38) •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40) • 부는 무뚝뚝한 성격으로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45) • 부모님은 자퇴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자퇴를 심하게 말리심(연구 참여자 44) • 가족끼리는 각자 할 일을 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는 않음(연구 참여자 34) • 중학교 때 술, 담배나 학교폭력 가해 등 비행을 많이 했고, 가출도 잦았는데, 어머니는 '집만 나가지 마라'며 얘기를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하셨음. 아버지는 말을 안 들으면 때리곤 했어서 무서워했었음(연구 참여자 34)
	부모님과 갈등으로 가출을 하기도 함(4)	• 집보다 바깥이 나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출(연구 참여자 27) • 따듯하기보다는 불같이 뜨거운 부모님과 사춘기 때에 자주 싸워 가출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15) • 학교를 갑자기 가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부모와 상의를 하지 않고 가출을 하여 자신의 뜻을 전달함(연구 참여자 36) • 자퇴 의사를 밝힌 후 부모님과 갈등이 심해져 허락해줄 때까지 가출을 함(연구 참여자 39)
긍정적 관계양상 (1)	학업중단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 하다가 진정성있는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1)	• 학업중단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신뢰를 쌓음(연구 참여자 6)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중단 이전 시점에 역기능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를 경험해 왔음을 보고하였다. 먼저, 부모가 무관심한 양육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은, 흡연 등 지속적인 비행 행동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행동을 교정할 기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여러 연구 참여자들은 전학이나 학업문제 등 스트레스나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부모가 자신을 신경 쓰고 있다는 태도나 정서적 지지를 보여주지 않았음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의정부로 전학 왔는데 그때 힘들었을 때 뭔가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러면 아빠가 학교 선생님한테 다 말하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아빠한테 얘기 안 했고 엄마한테도 저는 위로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엄마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했어요.” (연구 참여자 18)

한편, 부모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태도로 양육하였다는 기술도 나타났다. 자녀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고 부모 임의의 판단으로 진로나 학교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등 비민주적인 방식의 부모-자녀 관계 양상이 드러났다.

“제 생각에...엄마, 아빠에게는 제가 하는 말이 효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간다고 했어도)...아빠는 거의 강요였어요. 일반고 가도 힘들어서 턱도 심해질 텐데 뭐 하러 가려고 하냐고 밀어붙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반 강요로 갔죠.” (연구 참여자 12)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주로 아버지에게 의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이 보고되었다. 어머니의 경우 그러한 학대로부터 연구 참여자를 보호하면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었거나, 반대로 연구 참여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면서 물리적, 정서적 피난처를 전혀 제공하지 못한 경우도 드러났다.

“우리는 아빠가 없어, 좀 위축되기 보다는 엄마랑도 우리는 잘 살아.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중간생략) 저나 동생이나 아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없애 주셨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5)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중단 이전 시점에 부모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일단의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가 적절한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로 인해 부모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감정을 느끼며 자신을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한편,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면서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강조한 부모의 양육태도도 드러났다. 나아가 부모가 경제적인 독립을 훈련시키면서 연구 참여자가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는 보고도 있었다.

“(학교를) 그만두고 났을 때, 부모님이 가장 강조했던 건 사람이 되라...인성 바른 사람이 되어 된다 그런 느낌...삔뚫어지지는 말이라는 거죠. 그거 말고는 없었어요. 별로 터치를 안 하셨어요.” (연구 참여자 14)

“둘 다 돈을 잘 버시는데 두 분 다 각자 4~500씩 벌고 있고 <중략> 중학교 때 일주일 용돈이 500원이었어요, 그때 짜장면이 4000원이었는데 <중략> (어머니의 가치관이 미친 영향은) 정규직을 찾게 됐고요 경제적인 생각으로 만들어 주셨죠.” (연구 참여자 11)

〈돌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연구 참여자들은 가정 내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환경을 겪어왔음을 보고하였다. 먼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스트레스와 충격을 겪게 되었고, 주 양육자가 생계를 꾸려나가기에 급급한 상황이거나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필요한 돌봄을

제공받지 못했음을 진술하였다. 이러한 가정환경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 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히스테리 같은 게 있어서 <중략>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께서 술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그만 마시라고 했더니 되게 발끈하셔서 서로 말싸움 시작하고 폭발 직전이었죠. 완전히” (연구 참여자 10)

“(부모님이)2번 이혼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이혼은 크게 상관없는데 첫 번째 이혼은 제가 많이 어렸을 때라서 어머니 1명이잖아요. 엄마 없잖아요. 그때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연구 참여자 16)

부모의 이혼은 빈곤 상태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으로 생활고를 겪거나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 경제를 혼자서 떠맡게 된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과 무책임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느낀다고 구술하였다.

“무엇보다 양육비나 그런 게 일체 없었거든요. 어머니 혼자서 저를 거의 8살 때부터 키우셨는데. (중간생략) 그 전에는 진짜 돈이 너무 없어서 맨날 저녁에 라면 3봉지 끓여서 세 명에서 나눠 먹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참여자 26)

또한 부모 간 갈등이 잦았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이런 경우, 별거 중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양육자가 자주 바뀌거나 눈치를 봐야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심리적으로 가족이라고 느끼는 사람이 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었다.

“할머니가 항상 아프고 제가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아빠한테도 마음이 끝났고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혼자라서” (연구 참여자 21)

마지막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갑작스런 귀국으로 생활환경이 변하게 되어 부모 간 갈등이 심해졌거나 생계유지 때문에 보호자 없는 생활에 익숙해진 경우가 있었다. 또한 유해한 생활습관을 가진 가정환경으로 인해 나쁜 습관을 일찍이 익혀 고치기 어려웠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부정적 관계양상〉

학교 중단 시점 이전에 부모-자녀 관계가 부정적이었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 먼저 부모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주된 이유라고 구술하였다. 그 중 몇몇 연구 참여자는 학교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부모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눔으로서 정서적 지지를 받거나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보고하였다. 일단의 연구 참여자는 부모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부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음을 진술하기도 하였다.

“(부모님으로부터의 조언은) 두 분도 힘들어서...(못 받았어요.)”(연구 참여자 16)

한편, 부모와의 갈등이 극심하여 가출을 선택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집보다는 바깥이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가출을 감행했거나, 부모와의 잦은 갈등으로 가출을 결심했다고 보고하였다.

“결국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있는 것보다 낫겠다는 생각으로 말 한마디 없이 짐 챙겨서 나갔어요.” (연구 참여자 27)

〈긍정적 관계양상〉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 양상을 보고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교 중단을 반대하는 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했으나 진정성 있는 설득 노력을 기울이면서 신뢰를 회복한 양상을 보였다.

“어머니는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한 번 믿어달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알바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얘기했죠. 어머니는 믿고 해 주셨는데 지금 결과를 어머니한테 보여드린 거죠. 자퇴한 대신 지금 결과로 보여드린 거죠.” (연구 참여자 6)

나. 나 자신과의 관계

학업 중단 이전의 나 자신과의 관계는 ‘자신의 세계에 고립’, ‘심리적 취약’,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함’ 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학업중단 이전) 나 자신과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자신의 세계에 고립(8)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음(5)	•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만 하는 성격인데 학업중단 당시에는 노는 것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둠 (연구 참여자 20) •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 자신이 고집 세고, 하기 싫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성격이라 학교에 가라는 부모님의 얘기도 듣지 않았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 • 부모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구 참여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편임(연구 참여자 2) • 고등학교 선정의 기준이 학업성취 결과가 아닌 예쁜 교복으로 주변의 피드백을 무시함(연구 참여자 38) • 한 번 결정하면 해야 하는 성격이라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약 한 달간은 무단으로 결석함(연구 참여자 44)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어려워 함(3)	• 학창시절에 타인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가나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누르고 삭혀서 속상한 일들이 많았음 (연구 참여자 18) • 학업중단 이전에는 친구들과 비교적 잘 어울리며 무난한 학교생활을 해 왔지만, 그 속에서 혼자 있을 때는 우울한 감정을 많이 느꼈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또래와는 ‘다르다’고 느꼈음 (연구 참여자 4) • 상대방과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데 주저하며 친구들에게 소외되거나 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워 상대방에 맞춰 행동함 (연구 참여자 30)

범주	하위범주	의미 단위
심리적 취약(9)	외상 경험(6)	• 중학교 1학년 때에 사촌오빠에게 당한 성폭력 경험이 삶과 학업의 의미를 상실하게끔 함(연구 참여자 13) • 학업을 중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소중한 사람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밖으로 나와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들을 갖고 싶었던 점이라고 생각됨(연구 참여자 11) • 어머니의 자살로 인한 충격에 헤어 나오지 못함(연구 참여자 10) • 집단따돌림에서 벗어나고자 전학, 이사, 분반 등 여러 대안을 생각해보았으나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막막하고 답답함(연구 참여자 5) •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연구 참여자 16) • 모에게 학대 수준의 통제와 체벌을 받아옴(연구 참여자 41)
	형제간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열등감)(2)	• 형제간 비교를 통한 열등감 형성(연구 참여자 27) • 학업성적이 낮은 동생을 보면서 부모를 등쳐먹는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22)
	불안(2)	• 대비책이 없으면 다음 행동을 이행하기 힘들 정도로 불안함이 큼(연구 참여자 27) • 내가 선택한 학교지만,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자신도 선생님께 뺨을 맞는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을까 두려워 자퇴함(연구 참여자 38)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1)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봄(1)	• 외향적이고 친화력 있으며, 서비스직에 소질이 있음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고 효능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27) • 주위사람을 챙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음(연구 참여자 27) • 어머니와 비슷한 자신에 대해 인식함(연구 참여자 27)
가족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함(4)	가족 내에서 갖게 된 심적 부담을 책임감으로 극복함(2)	• 동생을 돌보아야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나 그래도 돌보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생을 업어서 등하원을 도움(연구 참여자 27) • 학교를 그만두는 선택을 하더라도 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치료 받을 계획을 세움(연구 참여자 41)
	부의 모습을 닮지 않으려는 노력(1)	• 어릴 적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살게 되면서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함(연구 참여자 16)
	힘든 시간을 일에 집중하며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함(1)	• 부모님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불안과 힘들음을 활동적인 행동으로 잊으려 함(연구 참여자 25)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자신의 세계에 고립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학교 중단 결정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하고 싶은 것은 무조건 해야 하’는(연구 참여자 20)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 가라는 부모님의 이야기도 듣지 않았’고(연구 참여자 3), 부모님 등 주변 사람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다고 구술하였다.

“고집이 세니까 하기 싫은 건 죽어도 하기 싫으니까. 말을 좀 안 들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엄청 강했어요. (엄마가 학교 가라고 해도) 제가 안 갔죠. 많이 싸웠어요. 제가 뛰쳐나오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3)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말하지 않고 억누르거나, 표면적으로는 친구들과 잘 지냈으나 우울한 감정이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혼자서 감내해야 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속상하거나 답답함을 느끼고, 자신이 남들과는 다른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어 지낸 양상이 드러났다.

“평범하게 친구들이랑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조금 약간 불화도 있어보고 그러다가 다시 또 친해지고 반 친구들, 반 말고 다른 친구들도 잘 어울리고. 그 정도가 저는 평범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학교생활 중에서도 제 성격적으로 독특한 게 그냥 약간 우울감이 좀 많아 가지고 그런 평범한 상황 속에서도 약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중략) 약간 감정이 좀 가라앉은 면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 때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리고 약간 너무 다양한 생각을 해서.” (연구 참여자 4)

〈심리적 취약〉

학교 중단 이전 시점에 연구 참여자들이 심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진술이 보고되었다. 먼저, 외상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있었다. 구체적인 외상 유형은 부모 이혼, 가족 구성원의 자살이나 소중한 사람의 죽음 등 상실 경험과 성폭력, 집단따돌림 같은 폭력 피해 경험으로 나타났다. 외상 사건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은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도움을 구하기보다 혼자만의 세상으로 숨었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막막하고 답답함을 느꼈고,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해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했음이 드러났다.

“(부모님이) 2번 이혼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한 번 하시고 두 번째 이혼은 크게 상관없는데 첫 번째 이혼은 제가 많이 어렸을 때라서 어머니 1명이잖아요. 엄마 없잖아요. 그때 이후로 많이 힘들었어요. 병원도 많이 다니고” (연구 참여자 16)

또한 가족 내 형제/자매 간 비교에서 부정적 감정을 느꼈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구체적으로, 형제와 비교 당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 학업성적이 낮은 동생이 ‘부모를 등쳐먹는다’(연구 참여자 22)라고 생각했다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이 있었다. 한편 어떤 연구 참여자는 미래의 예기되는 상황을 대비해두지 않으면 행동 실행이 매우 어려웠다고 보고하며 높은 불안감으로 인해 겪은 심리적 어려움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동생은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힘들게 운동하는데 오빠는 왜 못해? 이런 느낌으로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저를 제가 집에서 동생에 비해서 열등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동생도 그렇게 대하는 게 있었어요. 한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춤 출 때만큼은 즐겁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7)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

학교 중단 전 연구 참여자는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있으며 주변 사람을 배려하고 보듬는 사람으로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원래 제 생각이 외향적이고 친화력이 좋았어요. 밝고 그래서 거의 해왔던 일들도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서비스업에서 손님들 상대하는 걸 했었어요. 어딜 가나 평판 안 좋은 손님도 잘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먹는 사장님도 저한테 착하게 대해 주고 이런 게 있었어요. 어른들한테 예뻐 받는 게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27)

〈가족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함〉

연구 참여자들은 다양한 가족 내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으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거나 갈등을 건설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을 나타내었다. 먼저, 연구 참여자는 동생을 양육해야 하는 등 부담이 되는 여건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극복하려는 태도로 임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부모님이 이혼하는 과정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부모와의 갈등으로 인한 힘든 시간을 일에 집중하며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로 지내왔음을 진술하였다.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가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연구 참여자 16)

“고민거리가 있어도 저 혼자 품고 있다가 간혹 진짜 친한 친구한테 얘기를 하거나. 그럴 때는 그냥 다른 행동, 활동적인 걸 하면서 웬만하면 잊으려는 편이라서.”
(연구 참여자 25)

다. 또래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이 응답한 학업중단 전의 또래와의 관계경험은 ‘부정적 또래 관계’, ‘또래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이성관계’ 로 분류되었다.

표 III-5 (학업중단 이전) 또래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또래관계 (16)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2)	-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 진하게 화장하고 이성과 너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보며 이질감을 느낌 (연구 참여자 18) - 학업중단 직전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방안을 생각하였으나, 새로운 학교에 가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무리에 끼어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퇴를 결정함(연구 참여자 17)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7)	- 잡은 전학으로 친구관계 형성 어려움(연구 참여자 23) -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던 중 중학교 1학년 3월에 또래와의 시비가 있었음(연구 참여자 24) - 섬세하고 민감성을 발휘해야 되는 관계가 불편함 (연구 참여자 22) - 학교에서의 관계는 한 반이라는 이유로 싫든 좋은 상관없이 함께 해야 되는 것에 불편함(연구 참여자 22) - 학창시절에 또래와 어울리려면 재미없는데 웃어야 했기에 광대가 아프곤 했음(연구 참여자 18) -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아주 소수일 뿐, 대부분 인사정도만 하는 친구들로서, 기대려고 하거나 사귀려고도 하지 않았음(연구 참여자 17) - 학업중단 당시 학교에 흥미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자주 나가지 않다보니,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달리 친구가 2명 뿐 이었음(연구 참여자 2) - 친구와의 갈등으로 등교를 거부함(연구 참여자 30) -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솔직한 모습으로 관계를 형성 하기보다 상대방에 맞추려다보니 가식적인 모습으로 관계를 형성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연구 참여자 3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또래관계 (16)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 (괴롭힘)을 경험함(7)	- 초등학교 때 왕따 경험으로 인한 틱 장애로 이후 중학교 적응과 고등학교 진학문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연구 참여자 12) - 중학교 때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이 일이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을 중단하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 함. 사과를 받았지만 몇 년간 힘들었고 내적 갈등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1) - 학업중단 이전에는 친구들과 갈등으로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음(연구 참여자 1) -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서 벗어나고자 전학, 이사, 분반 등 여러 대안책을 생각해보았으나 해결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연구 참여자 5) - 중학교 2학년 때 남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혔으며 그에 짜증을 느낌. 교사가 알게 된 후 물리적인 괴롭힘은 없었지만 종종 도발하곤 함.(연구 참여자 29) - 친구의 이간질로 인해 집단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연구 참여자 8) - 따돌리거나 피했던 친구들을 떠나 도피처로 선택하게 된 학업중단(연구 참여자 12) - 천하게 지내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함(연구 참여자 30, 31)
	비행청소년들과의 교류(4)	- 학업중단 이전인 초등학교 6학년 때 알고 지내던 중학교 언니들이 불건전한 행동들을 강요하거나 억지로 시켜 내적 갈등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7) - 초등학교 때 알고 지내던 불량스러운 언니들이 친구들에게 돈을 뺏어오라고 시키거나 친구들이 새 신발을 신고 오면 자신들의 한신발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등 불량스러운 행동을 시켜 비행에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느낌. 이런 경험은 후에 비행청소년이 많은 고등학교 진학 후 학업 중단에 영향을 미침(연구 참여자 7) - 학업 중단 이전에 불량한 선배들이 친구들에게 돈을 뺏어 오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갖다 주고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 해서 친구들에게 갚았음. 1년여 동안 시달렸지만 친구들도 같은 부류여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는데 이는 후에 비행청소년이 많은 고등학교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연구 참여자 7) - 재학 당시, 주로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지냄 (연구 참여자 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또래관계 (16)	비행청소년들과의 교류(4)	• 비행을 저지르는 언니들과 어울리곤 했으나, 언니들이 강제전학을 당하면서 자연스럽게 비행청소년들과 소원해 지게 됨(연구 참여자 7) • 학업 중단 이전에 주로 어울린 친구들은 모두 불량한 청소년이었음(연구 참여자 8) • 고등학교 1학년 때 2명의 친구와 놀며 함께 학교에 나가지 않음(연구 참여자 45) • 중학교 시절 친구들이 하나 둘 방황하며 학교를 떠나다보니 적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짐(연구 참여자 32)
또래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5)	친구의 학업중단을 모델링함(1)	• 학업을 중단해야 할지 고민하던 시점에 교회에서 동갑내기가 중 3때 자퇴하고 수능을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학업 중단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며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경찰을 더 빨리 할 수 있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학업 중단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됨(연구 참여자 4)
	소수 친구의지지(5)	• 학업 중단 당시 친구는 2명뿐이었으나, 연구 참여자가 학교를 잘 나가지 않자 울면서까지 걱정해 주는 모습을 보고 고마운 마음을 느낌(연구 참여자 2) • 친구들과 어울려 잘 지내다가도 우울감이 올라와 감정 기복이 생기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기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신의 성격과 비슷하고 서로 공감해줄 수 있는 친구와 소통하며 감정을 추스르곤 함(연구 참여자 4) • 교칙위반으로 특별프로그램에 위탁되었을 때 성격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남(연구 참여자 8) • 단짝 친구에게 의지하고 친구에게서 지지와 격려를 받음(연구 참여자 30) • 중학교 시절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소통이 되는 유일한 대상인 남사친의 도움으로 방황에서 버틸 수 있었음(연구 참여자 38)
이성관계(1)	배려없는 이성교제(1)	• 중학교 때 교제한 이성 친구는 자신에게 당연한 존재였기에 상대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해주지 못함(연구 참여자 26) • 과거엔 연인과 자신의 격차를 강조하고 자신을 과시하며 연인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연구 참여자 26)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부정적 또래관계〉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에 새로 만난 친구에게서 이질감을 느끼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학창 시절에는) 보통 〈학교에〉 들어가면 친구를...처음 친해진 친구랑 계속 친구를 하잖아요. 그 때는 이미 친해진 무리에 낄 수 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교우관계가 너무 탄탄해지는 시기라..전학을 가도 적응할 자신이 없었어요.”(연구 참여자 17)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잦은 결석과 전학으로 인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원하지 않아도 함께 해야 하고 사회적 관계를 위해 가식적인 행동을 하는 등 생각보다 많이 소비되는 에너지와 감정소모에 지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였다.

“그냥 인사하는 정도..제가 친구들한테 기대려고 하지도 않고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가 진짜 기댈 수 있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친구는 몇 안 되고 그 친구들만 있으면 되거든요. 두 세 명 정도.”(연구 참여자 17)

학교 밖 청소년은 새롭게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장애나 우울 성향 등의 개인적 특성과 또래갈등 등으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밝힌 청소년도 있었다.

“중학교 다닐 때 미술학원에서 약간 따돌림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인기피도 생기고 사회공포증도 생겼다가... 그래서 집에만 박혀있고... 완전 무너졌었거든요.”
(연구 참여자 1)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겪은 부정적 또래관계로는 비행청소년과의 어울림이 있는데,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불량한 선후배 또는 불건전한 친구들과 어울려 금품갈취, 폭력 행위 가담 등 불량스러운 생활 경험을 보고하였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불량한 언니들이 있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교복 입으라고 하면서 무서운 일진들 섭외해서 학교로 보낸단 말이에요. 교복을 시라고 하면서.. 친구들도 다 비행청소년들이어서... 자꾸 돈 모아오라고 하고 핸드폰도 한 달 동안 빌려가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냥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언니들이 무서우니까”
(연구 참여자 7)

〈또래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반면에, 학교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또래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을 받은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4의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기 전 다른 친구의 학업중단 사례를 접하고 학교교육과정을 거치는 방법 외의 다른 대안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동갑인 친구가 수능을 준비한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저런 길이 있구나 생각하게 되니까, 그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때도 꿈은 계속 경찰이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검정고시를 보고 경찰공무원 시험을 합격하면 최연소로 경찰이 가능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연구 참여자 4)

또한 학업을 중단하기 전, 단지 2~3명 정도의 소수의 친구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나 연구 참여자의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에게서 위로와 위안을 받은 적이 있다고 구술한 청소년도 보였다.

“학교를 잘 안 나가서 애들이랑 친해질... 딱 몇 명만 친하니까 딱 몇 명만 이야기하고 연락하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되게 많은데 고등학교는 2명 정도...〈중략〉...일주일 만에 학교 갔을 때 친구 한 명은 울었죠. 갑자기 보더니 울더라고요. 왜 우냐고 그러니까 너 걱정돼서, 학교 안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

〈이성관계〉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경험한 경우가 다수였는데 이는 이성교제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이성과의 교제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태도가 부족했었다고 과거의 이성관계를 회상하였다.

“문제는 여자 친구네 집은 좀 많이 부유한 집이라고 해야 되나. (중간생략) 떠벌리는 데 문제는 이게 사실이고 이 사람은 나와서 격차가 말도 안 되게 벌어져서 뭐라고 말을 못해서 막 부들부들 대는...”(연구 참여자 26)

라. 학교와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원하지 않았던 학교’, ‘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교사의 심리적 지원’의 5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표 III-6 (학업중단 이전) 학교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14)	틀에 박힌 생활을 참기 어려움(4)	• 학교는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지도 않으면서 갇혀있는 감옥 같았음(연구 참여자 14) • 아지나 아침수업처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해야만 하는 인문계 교육과정(연구 참여자 13) • 3년간 틀에 박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봤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답답함과 여기만 답인가라는 생각을 함(연구 참여자 13) • 연구 참여자의 신체적 특성상 수면요구량이 많아 등교시간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음(연구 참여자 30) • 시간을 지켜 학교에 나가는 것보다 밖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음(연구 참여자 4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14)	(질적, 양적 측면에서) 교육 내용이 부실함(5)	• 자신은 더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배우고 싶은데 학교는 획일적인 교육만을 강요함(연구 참여자 16) • 실업계 학교에 진학했는데 교육과정이나 취업 연계 내용이 질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학업을 중단 함(연구 참여자 7) • 경영분야로 진로를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학교에서 관심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없었기에 학교에서의 시간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학교 밖을 선택함(연구 참여자 6) • 우리나라 교육은 공장에서 기계로 찍어내는 듯千篇일물적이라고 생각함. 이는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성을 찾아줄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 좋겠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1) • 음악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과정을 보고 자퇴를 결심함(연구 참여자 44)
	학교 교육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함(6)	•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어려워 공부에 매진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재미를 못 느낌(연구 참여자 6) • 페루 학교는 일과가 짧고 교육과정이 놀이식이라 활동적이고 재미있었던 데 반해, 한국 학교는 강의식, 교과학습 위주라 답답하고 지루해서 밖으로 나가고 싶었음 하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3) • 학교 교육과정이 지루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어 답답하였음(연구 참여자 3) • 과거 고등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무기력함과 힘듦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29) • 지식만 배우는 공간이라 경험을 통해 배우는 자신의 스타일과 달라 학교를 나가지 않음(연구 참여자 42) • 관심 있던 분야와 교과중심의 학교 공부가 맞지 않아 학업과 학교에 대한 흥미를 잃음(연구 참여자 33) •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 교과 중심의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못함(연구 참여자 47)
원하지 않았던 학교(8)	희망하지 않은 고등학교 진학(4)	• 체육특기생으로 체육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했으나, 실업계 고교로 진학을 하게 되어 본인의 꿈과 맞지 않아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함(연구 참여자 15) • 실업계고교로 진학하길 희망하였으나, 인문계고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인문계 고등학교의 틀에 박힌 생활에 답답하여 자퇴(연구 참여자 13) • 실업계를 가면 인생이 망한다면서 원치 않았던 인문계고등학교로 교사가 원서를 직접 제출함(연구 참여자 13)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원하지 않았던 학교(8)	희망하지 않은 고등학교 진학(4)	• 전혀 관심이 없던 원예를 배워야만 하는 실업계 고교에 입학하여 학업중단을 결심함(연구 참여자 43) • 진로가 명확하였지만, 부모의 결정에 따라 특성화고가 아닌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됨(연구 참여자 47)
	비행청소년이 많은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5)	• 고등학교 입학 후 선생님과 학생이 맞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며 자퇴를 결심함(연구 참여자 15) •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친구들이 진하게 화장하고 이성과 너무 자유롭게 교류하는 것을 보며 이질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18) • 중학교에 입학설명회를 하러 온 선생님들의 홍보 내용을 보고 해당 고등학교에 진학했으나 중학교 때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비행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 학업을 중단하게 됨(연구 참여자 7) • 학생답지 않은 또래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아 자퇴를 결심함(연구 참여자 38) •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또래들을 보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연구 참여자 39)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11)	상급학교의 낯선 분위기와 환경(4)	• 중학교라는 낯선 환경에서 낯선 친구들을 만나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24) •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달라진 생활패턴과 학교 체계, 친한 친구들과의 이별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연구 참여자 29) • 신설이었던 중학교 때와 달리 노후 된 고등학교 시설과 먼 거리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연구 참여자 39) • 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중학교 선생님들과 다르게 성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너무 싫었음(연구 참여자 44)
	친구관계의 어려움(3)	• 학교를 다닐 때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 못했다는 것이 후회스러움(연구 참여자 14) • 한국에서 늦게 학교를 들어가다 보니 같은 학교 아이들이 나이가 어려서 어울리기가 어려웠음(연구 참여자 3) • 친했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배신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30)
	학업성취에 관한 두려움(5)	•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자퇴결정의 일부였음(연구 참여자 12, 17) • 학교 다니는 내내 공부와 경쟁만 있는 학교(연구 참여자 13) • 중학교 때에도 수업을 따라가는 것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어려움이 보다 커짐(연구 참여자 2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1)	학업성취에 관한 두려움(5)	• 어렵게 느껴지는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포기하게 됨(연구 참여자 29) • 서울에 와서 교육과정 다시 시작(연구 참여자 23)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음(1)	• 학원에서의 과도한 학습요구로 인해 학교에서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됨(연구 참여자 29)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17)	집단 따돌림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함(2)	• 집단따돌림을 당한 연구 참여자는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학교의 제도적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함(연구 참여자 5) • 학교에서 집단따돌림피해자를 위한 보호적/예방적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지 않았고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대처에 다시 한 번 좌절함(연구 참여자 5) • 중학교부터 이어온 따돌림의 피해가 고등학교 이후 지속되었으나 도와주지 않고 방관하던 선생님의 인하여 학업 중단결심(연구 참여자 36)
	교사의 무관심/갈등(8)	• 학업중단 이전부터 선생님들은 자신을 비행 청소년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힘들 때 도움을 청하거나 마음을 나누지 못함(연구 참여자 7) •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를 잘할 때만 관심을 보여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관심을 갖지 않으신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7) • 게임중독과 공격적 성향을 지닌 형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했는데 가출했을 때, 담임교사가 연구 참여자를 불성실한 학생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알고 교사에 대한 믿음이 깨짐(연구 참여자 6) • 학교 교사가 불성실하거나 불량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올바른 길로 가도록 도와주려 하지 않고 협박과 강압적인 말로 훈육하는 모습을 보며 학업중단 결심을 확고히 함(연구 참여자 6) • 어머니의 죽음으로 심적 충격을 받아 학교를 다니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잠만 자곤 했는데, 선생님은 연구 참여자가 학교에서 늘 잠만 자던 모습을 봤기 때문에 불성실하다고 오해하심.(연구 참여자 9) • 학생들을 억누르며 권위적으로 대하시는 교사와 갈등관계를 겪음(연구 참여자 8, 46) • 자퇴를 익숙하게 생각하는 선생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자퇴결심(연구 참여자 38) • 학교선생님들은 몇몇 친한 학생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43) • 담임교사는 체벌을 하며 학생을 감싸주지 않았고 나중에는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음(연구 참여자 4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17)	문제아 낙인(5)	• 학교에서 문제아라는 부정적 피드백을 받음(연구 참여자 27) • 어린 시절부터 한국 학교에서 과도한 질문으로 인한 부정적 피드백을 받음(연구 참여자 29) • 흡연 욕구를 조절하기 힘들었을 때 어리다는 이유로 무조건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하는 교사가 원망스러웠음(연구 참여자 8) • 왕따를 당했을 때, 교사가 네가 잘못을 했으니깐 그런 것이 라고 말함(연구 참여자 31) • 자퇴하고 싶은 마음에 백지로 시험지를 내자 담임선생님이 반항이라고 생각하여 체벌을 당하며 사이가 안좋아짐(연구 참여자 37)
	자퇴를 권유하는 학교(3)	• 체육특기생으로 입학 한 학교에서 갑작스런 부상을 당하게 되자 TO문제로 자퇴할 것을 종용하여 결국 자퇴함(연구 참여자 17) • 자퇴를 고민하며 학교를 나가지 않다가 오랜만에 학교를 가니 자신의 책상이 없어져 있었음(연구 참여자 19) • 적응을 못하고 힘들 것이라며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말리는 교사들(연구 참여자 17) •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잘 가지 않았고, 2학년 1학기 때 출석미달로 자퇴권고를 받아 학교를 중단함(연구 참여자 34)
교사의 심리적 지원(6)	교사의 관심과지지(6)	• 허리 디스크로 인해 학업 중단을 고민하고 있을 때 선생님, 교장선생님 모두 신경 써 주시고 가장 좋은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셨는데 이런 관심이 고맙게 여겨졌음(연구 참여자 10) • 교문에서 인사도 해주고, 김밥도 나눠주는 좋은 선생님을 만난 경험이 있음(연구 참여자 27) • 학업과 진로를 선택하는 결정적 시기마다 관심을 가져준 교사에게 대한 보은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나감(연구 참여자 22) • 집단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학교 차원에서의 조치는 없었지만 담임교사는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심(연구 참여자 29) • 무단으로 결석할 때 담임교사가 가정에 방문하였고, 무단결석 대신 질병결석으로 처리해줌(연구 참여자 44) • 중,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은 수업시간에 잠을 자도 되겠냐 등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면 대부분 허용을 해주는 등 관계가 좋았음(연구 참여자 35)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의미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없었고, 획일적인 학교 생활에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오랜 시간동안 쓸모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학교가 감옥 같이 느껴졌다고 토로하였다.

“여기만 답인가? 이런 생각. 그런 틀에 있는 생활이 답답하고 싫고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3년 (공부)해서 내가 대학 가서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해서.”(연구 참여자 13)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교육이 각각의 개인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교육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했고, 보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수준의 교육을 기대했던 연구 참여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경영 쪽으로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원래 **경영고등학교, 실업계 가고 싶었는데 면접이 있는데 떨어져서 인문계로 갔죠...그래서 학교 공부에 흥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7)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고 지루하게 느껴졌으며 비자발적이고 관심 없는 교육활동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에 가면, 하고 싶은 걸 못하고 수업이 제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계속 앉아서 책만 보니 지루해서...” (연구 참여자 3)

〈원하지 않았던 학교〉

연구 참여자 중 몇몇은 특기나 적성을 살려 재능을 키울 수 있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특성화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실용적인 교육을 받고 싶었으나 계획대로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15의 경우

에는 체육특기생으로 본인의 특기를 살려 체육고등학교를 진학하고자 하였으나
예정에 없던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여 학교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
다고 회고하였다.

“(학교를) 그만 둔 이유 하나는 가고 싶었던 꿈(운동선수)이 있었는데 그걸 부모님이
끊은 거니까.”(연구 참여자 15)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은 상급학교에 진학했을 때, 진학한 학교에 만연하는 불건
전한 분위기와 진한 화장과 자유분방한 이성교제 등 불량한 선배들의 모습에
이질감을 느껴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교내 계단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그런 게 너무 적응이 안 돼서...〈중략〉...
침을 막 위층에서 뱉고, 진짜 너무 당황스러워서...” (연구 참여자 7)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은 상급학교로 진학하였을 때, 낯선 학교의 새로운 체제와 환경에
적응하는데 힘들었고 친한 친구와 동일한 학교로 진학하지 못하여 외로움과 소외
감을 느끼는 등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진짜. 학교 친구들하고 뽀뽀이 흠어지고. (중간
생략) 어쩌다 보니 좋은 애들을 만났는데 적응을 못했어요.” (연구 참여자 29)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웠던 또 다른 점은 친구관계
에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재학시절, 학교 밖 청소년은 여러 명의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거나 이미 형성된 또래집단 속에 소속되지 못하여 소외를 경험하는 등 원만
하지 못한 친구관계로 인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다고 구술하였다.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친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을 걸 그런 생각…, 학교 안 다닌 게 후회되죠. 중학교 때 친했던 몇몇 애들하고만 연락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잘 안하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나보면 부럽죠. 친구가 그래도 저보다는 많으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애들…, 편하게 얘기하고…(저한테는 없잖아요).”
(연구 참여자 14)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느낀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운 점으로는 학업성취에 대한 두려움과 학업에 대한 흥미상실이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습 내용이 어려워 학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두려움을 많이 느꼈고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학업성취에 부담감이 높아져 노력보다는 포기를 선택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29의 경우에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었고 이것이 학교생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구술하였다.

“학교를 먼저 그만 두고 그 다음에 학원도 안 가게 됐어요. 공부를 워낙 좋아했던 게 아니라서. 원래 못했으니까.”(연구 참여자 29)

“내가 이걸(학원에서의 학습)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몰랐던 게 있다고 하니까 되게 가기가 싫어졌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지.”(연구 참여자 29)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한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특히,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보호적/예방적 대안을 마련해주지 않고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대처하여 학교와 교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회고하였다.

“선생님들도 어차피 신고해봤자 소용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니까…(중략)… 학교에서도 전학에 관련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제가 찾아봐야 될 정도로 학교에서 도움 받은 게 없었어요.” (연구 참여자 5)

또한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교사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관계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은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고민을 나누기 힘들었고 교사나 학교 측에서 연구 참여자의 행실이 불성실하다며 연구 참여자를 신뢰하고 지지해주지 않아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고 한다.

“고등학교 다닐 때, 형 때문에 가출을 한 번 했었는데 부모님이 가출 신고를 경찰한테 했어요. 그래서 형사가 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이것저것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도 대답을 해줬겠죠. 그 후에 반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더라구요. 원래 다니기 싫은 것도 많았는데 그것도 학업 중단에 영향이 있었죠.”
(연구 참여자 6)

이에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은 재학시절, 연구 참여자의 불성실한 태도나 독특한 개별적 특성으로 인해 교사나 학교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으로 낙인찍힌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29의 경우에는 주의산만하고 충동적인 개인적 성향으로 잦은 수업 방해와 문제행동으로 인해 관심아동으로 취급당했던 학업 중단 전의 학교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항상 선생님들 수업할 때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하고 말을 엄청 많이 해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런 쪽에서 문제아로 많이 찍혔었어요. 과목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한테 손을 잡고 가서 애 때문에 수업 못하겠다고 말씀 드릴 정도로 되게 심했었어요.”
(연구 참여자 29)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학업을 중단하기 전 개인적인 특수상황으로 인해 학교로부터 자퇴를 권고 받거나 복교를 희망하였으나 재고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학교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경험을 보고한 청소년도 있었다.

“TO가 없어서 네가 나가야 새로운 신입생 축구선수를 받을 수 있다고, 네가 나가야 된다고...좀 억울했죠. 나 하나 있을 공간이 없나...불량학생도 아니고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연구 참여자 17)

〈교사의 심리적 지원〉

그러나 개인적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주거나 교사와 학생간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어 준 교사와의 경험을 떠올리며 심리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회고한 청소년도 있었다.

“학교 차원에서는 진짜 최선을 다 하셨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다 걱정해 주시고 교장 선생님도 뵈거든요. 학교생활 관찮냐고 교장 선생님도 학생 1명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안 좋은 걸 아시고 불러주셔서 상담해 주시고 자퇴해라 이게 아니라 휴학을 하거나 아니면 자퇴를 해라 근데 휴학을 했는데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학교가 머니까 자퇴를 하고 다른 학교에 가는 게 어때니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많이 해 주셨어요.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주셨는데 다음 달에 나왔어요.” (연구 참여자 10)

○ 학업중단 직후~ 학령기 까지 〈관계 양상〉

가. 나 자신과의 관계

학업중단 청소년이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이후, 본격적으로 학업중단의 삶의 시작되며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문제들을 크게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분류하였다. 학업중단 중 경험하게 되는 나 자신과의 문제는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과의 부정적 경험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7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자신과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12)	대인기피의 모습이 나타남(1)	• 자퇴 후 일 년 동안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늦은 시간 외에는 외출을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24)
	기대 곳이 사라짐(2)	• 학교 밖 생활이 힘들다고 가족에게 하소연 하면 '네가 선택한 것이니 힘들다고 하지 마라'는 반응을 보면서, 학업 중단 결정에 대한 후회나 실패는 절대로 해선 안 되고, 결정한 대로 혼자서 감당하고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4) • 기대 곳이 없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후 오는 자기연민의 감정을 느낌(연구 참여자 21)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 짐(4)	• 학교 폭력과 관련된 외상으로 혼자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활 전반에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짐을 느낌(연구 참여자 5) • 학업중단 이후 하루에 많게는 20시간이 넘도록 게임을 하는 생활을 하며 무기력하게 지냄(연구 참여자 7) • 학업 중단 직후 자고, 일어나서 먹고, 게임만 하는 생활이 반복됨(연구 참여자 37) • 학교 그만두고 돌아오는 길에 '인생이 끝났다'는 느낌에 낙담하고 좌절하였음(연구 참여자 34)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12)	기대와 달랐던 학업중단 현실(7)	• 검정고시를 보려고 학업을 중단했으나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공부가 되지 않아, 1년 더 다니고 졸업을 해야 했다고 후회함(연구 참여자 3) • 퇴학이라는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과거의 내 모습을 후회함 (연구 참여자 8) • 학업 중단에 대한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이 낙인이 되어 그로인한 우울감 및 학업적인 콤플렉스가 생김 (연구 참여자 24) •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치른 재수에 실패함(연구 참여자 26) • 알바를 하거나 주위에 자신을 소개할 일이 있을 때 자퇴 했다는 사실을 말하게되면 창피함을 느낌(연구 참여자 37) • 처음엔 자유롭게 지낼 수 있어 좋았는데, 계속 밖에서 놀기만 하다 보니 더 이상 할 게 없고 만날 친구도 없음 (연구 참여자 45) • 어머니와 관계 회복을 위해 학교까지 그만두고 함께 치료를 받았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악화됨(연구 참여자 41)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15)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함(5)	• 학업중단 이후 홀로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게을러지지 않기 위해 자신과의 싸움을 해 나감(연구 참여자 1) • 학교 밖 친구들이 술만 마시고 놀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울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고, 미래를 준비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함을 깨닫게 됨(연구 참여자 2) • 학업중단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생김(연구 참여자 20) • 국비지원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17세에 학업을 중단하고 19세에 국비유학생 시험에 합격함(연구 참여자 26) • 학업 중단 직후의 시기를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에 도전해 보며 적성을 찾는 시간으로 활용함(연구 참여자 46)
	주도적인 삶의 시작(8)	• 학업중단 이전에는 부모님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고 결정을 내리는 데 망설이는 경향이 있었으나, 학업 중단 이후 검정고시도 합격하게 되면서 무엇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면 된다고 생각하게 됨(연구 참여자 2) • 학업중단 후 잉여시간을 보내다 계속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될 것 같아 독립하여 혼자 모든 것을 해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함으로써 자신을 단련하고자 함(연구 참여자 8) • 지퇴 후 일찍 사회로 나와 정서적, 경제적인 독립을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게 됨(연구 참여자 16, 43, 46) • 네가 원하는 학업중단이니 엄마, 아빠는 신경을 안 쓰겠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스스로 찾아보고 행동하기 시작함(연구 참여자 17) • 학업중단 이후 부모님의 일을 돕는 등 다양한 일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47) • 개인적인 시간이 엄청 많아져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려고 했음(연구 참여자 32)
	혼자만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3)	• 학업중단 이후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이제는 이전의 친구와의 갈등과 관련된 아픔들을 털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내 안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모두 소중함을 수용하게 되어 점점 내 자신을 오히려 단단하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됨(연구 참여자 1) • 학업중단 이후 혼자 오랫동안 깊게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면의 답들이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함(연구 참여자 1)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15)	혼자만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3)	•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다양한 경험들은 적성 및 진로탐색의 과정이었고 나에 대해 깊게 고민하여 한층 더 성숙해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음(연구 참여자 6) • 주로 혼자 집에서 독서를 하고, 때때로 NGO 활동에 참여함(연구 참여자 41)
	대학진학을 결정함(4)	• 직업전문학교를 다니면서 전공 흥미를 느끼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추천서도 받으면서 연계된 대학에 가고자 결정함(연구 참여자 12) • 검정고시 출신에 대한 비판적 시선 때문에 대학 진학을 결정(연구 참여자 17) • 고등학교 때 못해본 더 넓은 인간관계에 대한 동경으로 대학진학을 결정(연구 참여자 17) •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 후, 요식업에 관심이 생겨 관련한 대학진학을 결정(연구 참여자 20) • 학교에 남아 있는 친구들보다는 공부를 많이 해서 대학에 진학하겠다고 다짐함(연구 참여자 44)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3)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함(2)	• 일을 하며 자신이 성실함과 인내심이 큰 편임을 알게 됨(연구 참여자 23) • 환경에 적극적인 태도로 적응하고자 하는 면이 장점임을 알게 됨(연구 참여자 25)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함(1)	• 일 잘하는 사람에서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직장생활에서 삶의 기쁨을 느낌(연구 참여자 23)
	유능감을 갖게 됨(2)	• 학업 중단 이후 17세부터 직장생활을 하면서 수입이 많아 유능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23) • 자퇴를 했음에도 남들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함(연구 참여자 44)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중(中) 기댈 곳이 사라지고, 무기력해졌음을 보고하였다. 스스로 학업중단을 선택하였기에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실패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꼈던 연구 참여자들은 기댈 곳이 없는

자신의 모습에 연민의 감정을 품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에 가지 않아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게임만 하는 등 무기력한 일상을 보였으며,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대인기피의 모습까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사람이 무서웠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다 보니까 사람도 무섭고 사람이 싫었어요. 거의 밤이 되어야지 밖에 나갔어요.” (연구 참여자 24)

“근데 그게 또 엄마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처음 자퇴하고 힘들다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네가 선택한 건데 힘들다고 하면 어떡하냐 이래서 그때부터 무조건 해내야 된다. 약간 이런 강박적인? (중략) 그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계속 뭔가 꼭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런 강박이 생기다 보니까 힘들 거를 좀 타인에게 말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 위로를 받는 거에 어려웠고. 대학교 오게 돼서도 뭔가 내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계속 뭔가 혼자 해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4)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中) 학업중단 이전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학업중단 이전에는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것, 퇴학 당하는 것, 학업중단에 대해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 등과 관련하여 별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학업 중단 이후 연구 참여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예상과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의 결정에 대해 후회하였으며, 우울감을 느끼고 학업 콤플렉스까지 생기기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그 시기 때 좀 학업적으로 무시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꿈드림을 가기 전까지는 학업적으로도 많은 콤플렉스를 받았었어요.” (연구 참여자 24)

“(검정고시) 시험 보면 1년 더 안 하고 바로 졸업장이 나온다고 해서. 엄마한테 검정고시 보겠다고 그러면 더 빠를 것 같다고 했는데 (검정고시 공부)가 더 안 되는 거예요.(중략) (학교)1년 더 하고 끝낼 걸.” (연구 참여자 3)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중(中)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홀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다양한 모습들로 노력하였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참여자들은 이 과정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으며, 무의미하게 학업 중단 이후의 남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음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음을 고백하였다.

“게을러지는 자신과의 싸움밖에 없었죠. 조금 게을러지는데 대신 그만 두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연구 참여자 1)

“집을 나와서 원룸에 들어갔고 원룸 잡자마자 방세를 내야 하니까 구걸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버티며 살았어요. 널 건 내자 하고...이런 환경이 그렇게 강한 마음을 먹게 해준 거 같아요...이런 환경에 처하게 만든 게 지금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 게 대학 나온 애들도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고 서빙이라도 해야지. 26살이나 돼서 쪽팔리고. 그런 걸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연구 참여자 8)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中) 학교를 다니지 않게 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때때로 이러한 혼자만의 시간들은 적성 및 진로탐색의 시간이 되었고, 또한 학업 중단 전 경험한 부정적 정서들을 털어버리고 연구 참여자들이 더욱 강하고 성숙해지도록 만드는 힘이 되는 시간들이었다.

“학교 다니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청소년지원센터에는 많이 해보기도 했고 인간관계에서도 좀 더 어렸으니까 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인지 모르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깨닫게 된 계기가 됐고, 제가 뭘 해야 될지 조금은 정해지는 단계라고 할까... 그런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연구 참여자 6)

한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中) 대학진학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중 경험하는 부정적 요인들 즉, 인간관계의 단절과 감정고시 출신이라는 시선을 극복하고자 연구 참여자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었다. 또한, 학업중단 중 경험한 아르바이트를 시작으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업종에 관심이 생겨 대학진학을 결정한 참여자도 있었다.

“검정고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서 저는 거짓말 굳이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안 나왔어하는데, 처음 본 사람들은 재 문제 있나?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게, 그래서 대학교도 검정고시를 돕기 위해서 갔거든요. 그것도 컸어요.” (연구 참여자 12)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학업중단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사회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장점들을 발견하거나, 수입이 생기면서 유능감을 가지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때도 직업학교 1년 있다 취업해서 꾸준히 다니라고 성실하게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 말 듣고 그냥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계속 점점 (성실함이) 쌓여 가더라고요. 무조건 참고 했어요. 힘들어도.” (연구 참여자 23)

“뭐든 배우고 보자는 생각 때문에 공구도 처음 만져보는 건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랬던 것 같아요. 어딜 가든 어쨌든 내가 여기를 다녀야 된다면 내가 적응하는 게 맞으니까.” (연구 참여자 25)

나.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가족과의 관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가족과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은 크게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학업중단 결정에 관한 부모의 신뢰’, ‘가족의지지’로 분류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중단에 대하여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중 부모와 가족이 보내준 지지와 신뢰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표 III-8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가족과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12)	자신을 창피해하는 부모님(2)	• 학업 중단 이후, 어머니는 다른 애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창피해 한다.’고 느껴져 분노함(연구 참여자 2) • 부모님이 자신의 학업중단을 창피해하는 것 같아 서운함(연구 참여자 7)
	부모님의 걱정(4)	• 학력 차별로 무시를 당한 경험이 많은 어머니는 내가 어머니 처럼 무시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며, 검정고시나 대학 진학을 원하심(연구 참여자 2) • 학업중단 이후 어머니는 자신의 학력이 부족하니 희망하는 직업(경찰)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염려함(연구 참여자 4) • 자퇴한 것이 평생 너의 주홍글씨가 될 거라고 하시면서 꼭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진학할 것을 권유함(연구 참여자 18) • 고등학교 자퇴 결정에 대해 부모님은 반대하셨지만, 대화 끝에 검정고시 취득을 조건으로 허용해주셨음(연구 참여자 35)
	부모님과의 갈등(8)	•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지만, 부모님은 채팅을 하며 온라인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얘기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12)	부모님과 갈등(8)	• 자퇴를 먼저 하고 이후 어머니께 자퇴한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살기를 느낄 정도로 대노하심(연구 참여자 15) • 자퇴를 두고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결정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서로 다른 의견으로 아버지와 1년간 갈등을 겪음(연구 참여자 17) •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말은 지지라기보다는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는 말로써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음. (연구 참여자 26) • 가출을 하여 밖에서 자는 등의 환경에 노출됨 (연구 참여자 27) • ‘학교를 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자퇴가 아니라 학교개교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던 부모님이 등교거부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갈등이 발생함(연구 참여자 38) • ‘학업중단’ 이후 부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와 성격이 맞지 않아 잦은 갈등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33) • ‘자유롭게 생활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부와 갈등이 잦았음(연구 참여자 33) • 자퇴 후 부모님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며 계속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음(연구 참여자 44)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5)	가족에게 미안함(3)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 시선보다 부모님 지인들의 편견어린 시선이 부모님을 더욱 힘들게 함 (연구 참여자 5) • 학업을 중단한 것을 알고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교육을 잘못하였다며 아버지를 크게 혼내시는 것을 보게 됨 (연구 참여자 5) • 퇴학 후 부모가 눈총을 주지 않았으나 스스로 죄책감과 미안함으로 집을 나와서 생활함(연구 참여자 8) • 학업을 중단한 자신이 가족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림 (연구 참여자 12)
	형제자매로부터의 무시(1)	• 친언니가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것에 대해 무시하는 듯 얘기하는 것에 분노함(연구 참여자 7)
	친척들의 편견, 선입견, 무시(1)	• 학업중단 후 적성의 탐색 및 다양한 사회경험을 해보겠다는 포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척들로부터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는 태만하고 생각 없는 아이로 무시당하고 비난을 받음(연구 참여자 6)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5)	친척들의 편견, 선입견, 무시(1)	• 학업 중단 후 외삼촌댁에 위탁되어 자랐으나, 외삼촌으로 부터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기도 함. 그러나 외삼촌을 믿고 맡긴 어머니가 속상해 하실까봐 아무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 아픔을 감내함(연구 참여자 6) • 학업중단 청소년을 불성실한 청소년으로 바라보는 친척들의 편견 때문에 숨 막히고 답답함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6)
학업중단 중 경험한 부모의 실패(9)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6)	• 어머니는 학업을 중단한 자신이 혼자 힘들지는 않을까 염려해 주시기도 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며 격려해 주시기도 함(연구 참여자 1) • 직장을 구한 것도, 학생신분도 아니어서 어머니께서 걱정 하고 불안해하셨지만 이러한 감정들은 따뜻한 사랑의 시선이었음(연구 참여자 6)
		• 복교 후 학업을 재중단하자 실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다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알아봐 주셔서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연구 참여자 14) • 나와 동일하게 학업중단이 있는 아버지는 나의 결정을 이해 해주셨으며, 엄마는 길을 알려주는, 아빠는 들어주는 사람 이셨음(연구 참여자 18) •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병상에 계신 아버지가 고마움과 미안함에 응원하고 지지해주심 (연구 참여자 19) • 학업중단 이후 바로 일을 시작하고 출, 퇴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보시며 점점 부모님과 사이가 좋아짐 (연구 참여자 46)
	묵묵히 지켜봐주시는 부모님의 믿음(4)	• 친구와 할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부상으로 자신이 꿈꾸던 운동선수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고통 속에서 방황하는 기간 동안 부모님은 자신을 믿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봐 주셔서 너무 고마웠으며,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는 동기가 생겼을 때에야 비로소 부모님의 입장을 이야기하심(연구 참여자 11) • 학업 중단 후 감정고시를 따는 것 이외에는 진로에 관련 해서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심(연구 참여자 18) • 무뚝뚝하지만 집에 있을 땐 용돈도 주시고 잘 챙겨주심 (연구 참여자 45) • 자퇴 결정에 별다른 반대를 하지 않으셨고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주심(연구 참여자 3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가족의 지지 (8)	힘이 되어준 가족 (8)	• 가족들은 연구 참여자가 학업중단 이전에 경험한 따돌림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빨리 나아지도록 재촉하기 보다는 묵묵히 기다려 주시면서 지지해 주심(연구 참여자 1) • 인생에서의 고통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하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어머니를 통해 모델링함(연구 참여자 6) • 가족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 받아 일함(연구 참여자 8) • 형은 저를 응원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직업전문학교에 다녀, 주말에 잠시 집에 들릴 때면 운동도 같이 하러 가자고 챙겨주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고 말하면서 위로도 해주어 마음이 편안해졌음(연구 참여자 12) • 가족 간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응해야 되는 환경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25) • 누나의 정서적 지지는 탈선하지 않고 학업을 지속하여 현실의 일상생활 영위하도록 지켜주는 소중한 자원(연구 참여자 36) • 모에게 인간관계와 결정해야 할 문제에 대한 조언을 자주 구하며, 모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33) • 자퇴서 제출 후 부가 '이런 학교를 다니게 해서 미안하다'고 한 말에 스스로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음(연구 참여자 34) • 부모님은 학업과 관련해서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대학가면 차를 사주겠다고 하시는 등 금전적 동인을 제시 해주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음(연구 참여자 34)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중(中) 자신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었던 부모들의 모습에 대해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다른 가정의 자녀들과 달리 학업을 중단한 자신을 창피해하는 부모의 모습에 대해 서운하거나 화가 났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족한 학력으로 인해 자녀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의 모습들을 보고하였다.

“어머니가 애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까지 해야 되냐고 뭐가 창피하냐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변인들이 너를 나쁘게 생각할까 봐 그게 싫어서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중략) 엄마 말은 그렇다고 생각 하는데 모르죠. 넘어가는 거죠. 아직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연구 참여자 2)

한편, 많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中) 학업중단 결정 및 중단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부모와의 갈등 모습에는 자퇴는 내 인생에 대한 나의 결정이라는 연구 참여자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모와의 갈등을 비롯하여, 자신을 이해 하지 못하는 부모를 피해 가출을 하는 등의 모습도 포함되었다.

“아빠가 왜 그만 두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아빠는 제가 그만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는 내 인생이지 않겠냐, 내가 싫다는 데 아빠가 왜 그러냐고 그랬죠. 제가 그냥 자퇴를 해버려서 그걸로 끝이 났지만 아빠와 관계는 1년 정도 안 좋았죠.”
(연구 참여자 17)

“그때 당시에는 밖에서 무슨 꼴을 당하더라도 집에 있는 것 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갔어요. (중략) 아파트 빈 건물에 자면서 낮에는 밥 먹어야 되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데 가서 노동 착취당하고 살고 있었을 때 저녁에 어린 나이인데도 빈 건물에서 혼자 자려고 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잠이 쉽게 들지 않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7)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한 이후부터 학업중단과 관련하여 형제자매, 친척 들로부터 무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무시와 편견을 경험하며 자신이 가족 내에서 골칫거리가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신으로 인해 부모님이 할아버지로부터 자식 교육을 잘못시켰다며 혼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지인들로부터의 편견의 시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에게 미안하였음을 고백하였다.

“저 있는 앞에서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너는 애 바보 만들 일 있냐고. 학업을 중단한다는 게 내가 하고 싶다고 나에게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5)

“언니가 왜 사람을 건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언니는 짜증나게 자기만 잘난 줄 안다니까요. 편의점 알바를 할 때였어요. 언니가 저한테 편의점 알바나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제일 짜증났던 거는 술 그만 먹으라고 하는 거랑 담배 피는 거 뭐라고 하는 거랑 그 나이 먹고 편의점에서 일하라는 말이 짜증났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7)

〈학업중단 결정에 관한 부모의 신뢰〉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는 학업중단 결정에 따라 학업중단 중(中)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향한 부모님의 응원과 믿음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부모님의 모습들에는 학업을 중단한 연구 참여자가 혼자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염려해주셨던 부모님,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학생의 신분도 아닌 자녀의 모습을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걱정해주셨던 부모님들이 포함되었다.

“자유롭게 있어도 뭐라고 크게 말씀 안 하시고, 그냥 걱정은 해주세요. 막 혼자 우울해 하거나 그럴까봐 걱정 해주셨는데 나름 잘 크고 있어서 ‘많이 나아졌네’라고 엄마가 얘기하셨어요.”(연구 참여자 1)

“어머니는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좋겠다는 게 있고 저는 돈이 계속 나가는 거니까 어머니한테 한 번 믿어달라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알바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얘기 했죠 …〈중략〉… 그때는 학생 때이기도 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이었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죠.”(연구 참여자 6)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 일체의 간섭과 훈계가 없이 묵묵히 지켜봐주셨던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보고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부모님의 모습을 자신을 향한 믿음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러한 부모님이 고마웠음을 고백하였다.

“부모님도 그 전까지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제가 그만 두고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 과정은 별로 뭐라고 안 하셨는데 제가 대학을 결정하고 뭐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니깐 그걸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생각을 많이 하라고 너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연구 참여자 11)

〈가족의지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중(中) 가족의 지지가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가족의 지지는 학업 중단이라는 환경변화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정서적 도움이 되기도 하였고, 때로는 가족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 받아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등 경제적 도움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아무래도 여기 와서 이제 겨우 친구 사귀었는데 또 간다고 그러고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물론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5)

“아버지께서 건설업계에서 일하시는데 거기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8)

다.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또래와의 관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또래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은 크게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 ‘힘이 되어준 지인’으로 분류되었다. 학업중단 이후 또래와의 관계는 단절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단절된 관계의 회복 및 지인들의 도움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표 III-9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또래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또래 관계의 양상(11)	또래관계의 단절(9)	•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니 혼자가 되어 버림(연구 참여자 15) • 학업 중단 이후 친구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은 함께 어울릴 수 없었음(연구 참여자 5) • 학업 중단이후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 시간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대인관계가 단절됨(연구 참여자 7) • 중학교때 친했던 친구들도 하루 일과 스케줄이 달라지다 보니 점점 멀어짐(연구 참여자 12, 14) • 방통고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아저씨와 형들 뿐이었음(연구 참여자 12) • 일주일에 한번 가는 방통고는 '아저씨들만 다니는 학교'였음(연구 참여자 14) •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은 알바나 직장생활 때문에 지속적인 교류를 맺기가 어려움(연구 참여자 5) • 학업 중단이후 일을 하다 보니,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계속 거절하게 되어 결국 관계가 단절 됨(연구 참여자 8) • 재학 중 또래와의 갈등 이후 미해결된 문제로 인해 관계를 단절함(연구 참여자 30) • 한학기 밖에 다니지 않아 고등학교 친구가 없어 아쉬움(연구 참여자 36) • 학업중단 이후 남자친구 외에 다른 친구가 없이 지냄(연구 참여자 45)
	관계형성과 유지의 어려움(2)	• 직장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심리적 유대감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친구를 이용하는 또래관계들을 경험하게 되어 상호적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경우에만 관계가 유지됨(연구 참여자 6) • 어릴 적 또래들에 비해 일찍 돈을 벌었던 연구대상자는 친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성인이 되었어도 되값아 주는 친구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6) • 이성교제에서 잦은 이별과 짧은 교제 기간은 인간관계에서 위축으로 이어지기도 함(연구 참여자 6)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또래 관계의 양상(11)	관계형성과 유지의 어려움(2)	알바를 할 때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친구들을 보며 학창시절 때와는 달리 학교 밖에서 만난 또래들은 관계 형성에 있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됨 (연구 참여자 37)
	관계결핍에 의한 비행청소년과의 만남(1)	학업 중단 중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해 또래관계가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었는데, 친구의 잘못된 부탁을 들어 주다 2년 보호감찰을 받게 됨(연구 참여자 15)
	계속되는 또래와의 외상경험(1)	집단 따돌림의 가해자와 생활영역이 동일하여 학업중단 후에도 계속 마주치면서, 외상경험의 재현으로 고통스러워함(연구 참여자 5)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 (10)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의 관심(4)	- 학업중단 이후 친구들의 지속적인 관심은 도움이 되었음 (연구 참여자 9) - 복교를 한 새로운 학교가 인문계라 이전의 전문계고등학교와 달리 친구들의 성품이 좋아 학교적응에 큰 도움이 됨 (연구 참여자 38) - 학업중단 이후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과 지냈기에 더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았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45) - 학교 중단한 친구들이 많아서 외롭지 않았고, 함께 어울리면서 학교중단 후 유예기간을 즐겁게 보냄(연구 참여자 34)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4)	- 학업 중단 후 또래는 물론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었는데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이성을 포함한 매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연구 참여자 6) - 학업 중단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학원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함(연구 참여자 16) - 학업 중단 후 소모임과 단체 활동을 통해 또래를 만나며 외로움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나감(연구 참여자 24) - 학업 중단 후 미용학원을 다니며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 (연구 참여자 31)
	회복된 인간관계가 가져온 변화(3)	- 청소년지원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예의나 대인관계기술을 익힘 (연구 참여자 6) -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얘기를 솔직하게 하지는 않는 편이지만 인터넷을 하다가 만난 사람들은 직접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자신의 얘기를 털어 놓고 공감을 받게 됨 (연구 참여자 7) - 보호감찰진흥원을 소개받아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상담을 받고, 악기를 배우며 외로움을 해소함(연구 참여자 1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힘이 되어준 지인(6)	지인의 도움(6)	• 지인을 통해 일자리를 알선 받아 일함(연구 참여자 8) • 자퇴의 과정에서 바쁜 부모를 대신하여 지인이 많은 도움을 줌(연구 참여자 24) • 대학 입시에서 수시 지원하는데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 주심(연구 참여자 44) • 사촌언니가 나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고 이해해주며 용돈까지 보내주고 큰 힘이 됨(연구 참여자 41) • 다른 지역에 사는 이모의 집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도움을 받음(연구 참여자 32) • 학교중단 시기에 만나게 된 여자친구가 검정고시 공부를 하라고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열심히 했고, 대학진학까지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연구 참여자 34)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직후 또래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래 친구들은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하루 일과가 맞지 않았고, 일을 하는 연구 참여자의 경우 친구들의 연락을 일 때문에 거절하게 되다보니 연락이 끊기는 등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대안학교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또래가 아닌 나이 많은 사람들뿐이었다고 구술하였다.

“개네는(또래친구들은) 일반고를 다니니까 학원도 다니고 시간도 없었고 저는 연락을 했는데 딱히 기회도 없었고 시간도 안 돼서 못 만나고.” (연구 참여자 14)

“방통고는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저랑 동갑은 1명도 없었고 어른들이 공부 더 하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또래 있어봤자 1, 2살 많은 형들밖에 없어서 아쉬웠죠” (연구 참여자 12)

새로운 관계의 형성 및 기존 관계의 유지가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또래들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돌아

오는 것은 없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였고, 직장생활이 삶의 중심이 되면서 또래와의 관계 유지가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이는 또래와는 다른 삶을 살게 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어렸을 때는 몰랐으니까 친구들한테 돈 쓰고 뭐 사주고 그랬었는데 지금 딱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자기가 나중에 돈 벌면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연구 참여자 6)

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며 범법행위를 하게 된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다. 또래친구의 폭이 좁기 때문에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라도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개네는(친구들은) 몰래 밖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뭐 좀 도와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자기 오토바이가 있으니까 빠져 여기 갖다 달라고 그래서 잠깐 옮기는 거니까 무면허지만 안 걸리면 되지 알았다고 갖다 줬어요.” (연구 참여자 15)

마지막으로 집단 따돌림으로 학교를 그만 둔 연구 참여자의 경우 학교 밖에서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치게 되어 외상 경험의 재현으로 인해 힘들어 하였다. 학교를 자퇴했음에도 사는 지역이 같기 때문에 외상경험의 재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구술하였다.

“이사까지 생각해야 될 정도로... 그 당시 개네가(가해자들이) 전학을 갈 수도 없는 상태고...” (연구 참여자 5)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족한 또래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학업을 중단한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존 친구들의 관심이 지지가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중학교 친구들이 제가 싫다고 해도 (연락이) 계속 와서 지지를 해 주는 게 있었어요.”

(연구 참여자 10)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단절된 관계를 학교 밖에서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학원, 소모임, 유관기관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한다고 구술하였다.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연구 참여자 12)

또한 이러한 새로운 인간관계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관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었다. 외로움의 해소뿐만 아니라 공감을 받고, 부재할 수 있는 대인관계기술을 익힐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개인적으로 진흥원에서 화타라라해서 기타 전문적으로 치시는 분이 와서 알려주신 적이 있어요. 짧게 배운 걸로 공연도 하고 악기 배우고 싶은 거 있냐고 그러면 타악기도 해보고 싶고 베이스도 해보고 싶다고 그러면 다 알려주셨으니까 지금도 그분들하고 연락을 하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연구 참여자 15)

〈힘이 되어준 지인〉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였다. 바쁜 부모님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기도 하고, 지인들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기도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부모님이 통화가 안 돼도 저한테나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랑 저희 아는 이모님이 같이 갔었거든요. 학교에. 이모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셔서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연구 참여자 24)

다.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학교와의 관계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학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은 크게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 ‘직업학교로의 전환’, ‘학업중단과 복교의 반복’으로 분류되었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학업중단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했으며 복교를 생각하거나 실행했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표 III-10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학교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9)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2)	•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복교를 희망했었던 가장 큰 이유였음(연구 참여자 12) • 부모님이 졸업장은 있어야 한다며 간청함(연구 참여자 14)
	학교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함(5)	• 늦게까지 일바를 하면서 교복을 입고 손님으로 오는 학생을 보면서 너무나 부러워 복교를 결정하게 됨(연구 참여자 13) • 검정고시는 보기 싫은 반면 학교는 출석만 하면 졸업인증이 되므로 복교를 선택함(연구 참여자 14) •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며 소외감과 부러움을 느껴 복교를 결심함(연구 참여자 15) • 막연하게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2년제 고등학교에 복교함(연구 참여자 20) • 할머니 등 주변 사람들이 한심하게 바라보는 시선으로 집에 있는 것이 힘들어 예쁜 교복을 입을 수 있는 학교 중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복교함(연구 참여자 38)
	되돌아간 학교에서의 적응(2)	• 담임교사가 개인적 상황을 감안하여 더 관심을 가져주어 적응해나감 (연구 참여자 25) • 복교 후, 또래와 친해지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축구활동을 통해 어울리고자 하는 등의 노력을 함 (연구 참여자 25) • 새로운 학교에 복교 후, 좋은 학교분위기와 함께 높은 성적을 받게 되면서 적응하게 됨(연구 참여자 38)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9)	학업중단을 아쉬워함(2)	• 학업중단 기간 동안,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았다면 더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함(연구 참여자 8) • 허리디스크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와 관계가 좋았기에 학업 중단 이후 아쉬움이 컸음(연구 참여자 10)
직업학교로의 전환(1)	더 나은 선택이 된 학업중단(1)	• 학업 중단 후 입학한 직업전문학교는 돈을 어떻게 모아서, 미래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등 구체적인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가르쳐 주었음(연구 참여자 3) • 혼자서는 초등학교 검정고시조차 준비하기 어려웠는데 직업 학교에 진학해서 초, 중학교 졸업장을 따고 알바가 아닌 정식 직장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며 따라서 직업 학교는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어 주었음(연구 참여자 3)
학업중단과 복교의 반복(5)	학교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이를 막는 교사(2)	• 적응을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등 힘들 것이라며 학교로 돌아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말리는 교사들(연구 참여자 12) • 계속 방통고를 다니라고 권하는 교사들(연구 참여자 12) • 새로운 학교의 교복을 사 입고 갔지만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아 재중단하게 됨(연구 참여자 15)
	학교로 되돌아갔지만 학업중단의 반복(3)	• 복교 후 또 다시 집단 따돌림을 겪으며 가해자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판단하여 다시 학업중단을 함(연구 참여자 5) • 학교폭력 가해자로 소문이 많이 퍼짐에 따라 이미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퇴학당하기 전 먼저 자퇴함(연구 참여자 13) • 학업 중단 이후 1년간 쉬다가 원학교로 다시 복교하였으나 감혀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어 2주 만에 다시 학업중단을 하고 이후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함(연구 참여자 14)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에 대한 아쉬움과 복교에 대한 고민을 구술하였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하게 된 학업중단에 대해 아쉬움을 가지기도 하였고, 또래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 부모님의 간청 등의 이유로 복교에 대한 고민을 했거나 복교를 했음을 밝혔다.

“(부모님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해라 아니면 검정고시를 보면가 그래서 알아보다가 방통고 간 거죠.”(연구 참여자 14)

“교복 입고 다니고 나는 일하고 11, 12시에 끝나고 일하는데 기존 친구들은 학교 교복 입고 같이 놀러 다니고 그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연구 참여자 13)

또한 복교를 한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담임선생님이 세심한 배려를 해주어 적응을 할 수 있었다고 구술했다. 또한 스스로도 또래와 잘 지내기 위해 더 노력을 기울였음을 언급하였다.

“애들하고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같이 축구하고 놀다 보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20)

〈직업학교로의 전환〉

‘학교 밖 학교’인 직업학교로 복교가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언급한 경우도 있었다.

“직업학교를 안 접했으면 초등학교도 못 나왔을 거예요. 거기서 시험을 봤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또 직업학교를 안 갔더라면 산업체라는 일들을 몰랐을 거예요.”(연구 참여자 3)

〈학업중단과 복교의 반복〉

학교 밖 청소년들은 복교를 희망하거나 실행했지만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의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구술하였다. 복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교사들이 복교를 만류하기도 하였으며, 이전의 자퇴문제가 다시 대두되어 다시금 학업중단을 하기도 하였다.

“입학할 수 있는데 전학생들이 오면 그런 게 있잖아요. 따돌림 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연구 참여자 12)

“(학교폭력)문제가 커져서 그 문제도 겹치고 퇴학당할 것 같아서 어차피 학교 있어봤자 좋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나가야지.” (연구 참여자 13)

라. 지역사회(직장 및 유관기관)와의 관계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은 크게 ‘또래보다 빠른 사회 경험이 됨’, ‘지역기관에서의 긍정적 경험’, ‘지역기관의 한계’, ‘취업의 장벽’으로 분류되었다. 지역기관을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도움을 받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었던 반면, 도움을 받지 못한 학업중단 청소년이 있었다. 또한 높은 취업의 장벽을 느꼈다고 구술하였다.

표 Ⅲ-11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지역사회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또래보다 빠른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됨 (8)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움(8)	• 학교 밖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직접 경험하며 삶을 배움 (연구 참여자 6, 46, 39, 43) • 사회생활을 더 빨리 시작하게 되면서 나이 많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나 사회생활, 인내심, 적응력이 또래보다 높아짐 (연구 참여자 13, 31) •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배가 이끌어 주는 등 주변 사람들로 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배움(연구 참여자 23) • 또래보다 이른 사회진출로 인해 장기간 근무하여 실무능력이 높아짐에 대해 자부심을 가짐(연구 참여자 30)
지역기관에서의 긍정적 경험 (7)	위로가 되었던 상담기관(5)	• 수련관 상담사분들은 공부에 대한 걱정과 코칭, 위로와 먹을 것 등을 제공(연구 참여자 12) • 1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히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에 방문하며 기분이 좋아짐을 느낌(연구 참여자 29) • 학업 중단 직후 찾아간 청소년 상담센터의 상담사가 심리적으로 지지해주고, 많은 정보도 주어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31)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지역기관에서의 긍정적 경험 (7)	위로가 되었던 상담기관(5)	• 학원비 지원,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장학재단의 장학금 등의 혜택을 연결해 주어 학업지속에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36) • 강원도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멘토로 인연이 된 신부님은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2)
	또 다른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주었던 교정기관(3)	• 학업 중단 후 이사까지 하여 혼자 남게 되었는데, 보호 감찰 기간 중 보호감찰진흥원을 소개받아 그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상담을 받고, 악기를 배우며 외로움을 해소함(연구 참여자 15) •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연계된 상담센터에서 바리스타 과정 및 카페 일바경험이 이후 요식업에 종사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줌(연구 참여자 20) • 꿈드림 아웃리치 프로그램같이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고 그로 인한 경제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자신감 회복과 경제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어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36)
지역기관의 한계(8)	도움이 되지 못한 유관기관 (8)	• 검정고시를 따기 위한 프로그램 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서 꿈드림센터에 한 두 번 만 가고 가지 않았음(연구 참여자 13) • 상담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역시 학교를 중단한 자신을 안 좋게 인식한다는 느낌이 들어, 알고는 있어도 찾아가지 않았음(연구 참여자 14) • 학업중단청소년 지원기관에 대해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항목으로 상담제공에 대해서만 알고 있어 특별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 활용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30) •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으로 학업을 중단했을 때, 상담 장면에서 반복적으로 피해경험에 대해 질문을 받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회피함(연구 참여자 30) • 다양한 학업중단 학생을 포용하지 못하는 일방적 프로그램 제시로 인해 학생들의 참여율이 저조해 지속되지 못함(연구 참여자 36) • 학업 중단 직후 나중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필요한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이 있어 기관을 찾아가지 않게 됨(연구 참여자 39) • 학업을 중단한 직후 검정고시, 취업 등을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함(연구 참여자 43, 37) • 아무도 도움 받을 기관에 대해 얘기해준 적이 없고 나 스스로도 찾아본 적이 없음(연구 참여자 4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취업의 장벽(4)	대인관계 경험의 부족(3)	•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업무환경과 관계의 유연성 부족으로 인해 좌절함(연구 참여자 22) • 면접 기술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취업에 실패함(연구 참여자 25) • 독학으로 컴퓨터를 배우고 혼자 일을 해결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과 손발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33) • 해야 하는 일의 필요성을 납득해야 일을 하는 성격으로 인해 직장에서 상사와의 갈등이 잦았으며 그로 인해 해고를 당하기도 함(연구 참여자 33)
	낮은 수준의 일자리(1)	• 화물차들을 구역으로 안내하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팔에 부상을 입는 등 몸이 상함(연구 참여자 24)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또래보다 빠른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됨〉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에 비해 빨리 시작한 사회 경험으로 또래보다 일찍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대해 습득할 수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사회생활, 일도 더 빨리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것도... 회사생활을 더 잘할 수 있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13)

〈지역기관에서의 긍정적 경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유관기관들로부터 상담을 받거나 기관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고 구술하였다. 또한 진로에 대한 조언을 얻고, 새로운 경험을 접하는 등 지역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 수련관)멘토 선생님들을 보니까 오로지 자기 멘토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그냥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어주고 전수해 주려고 하시는 게 마음에 깊이 남아 있고 선생님들이 밥도 사주시고...”(연구 참여자 12)

〈지역기관의 한계〉

하지만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유관기관의 사람들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한 유관기관이 본인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없어 가지 않게 되었다고 구술하였다.

“(꿈드림 센터에서) 상담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서 거의 김정고시를 따게 하기 위한 그런 게 많다고 저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될 것 같아서 그때 저는 김정고시를 딴 상태라서 안 갔어요.”(연구 참여자 13)

〈취업의 장벽〉

학교 밖 청소년들은 취업 장면에서 대인관계 경험이 부족하다보니 면접에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또한 일할 자리가 많지 않아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는 상황을 마주하기도 하였다.

“들어가니까 내가 뭘 실수했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긴장 상태여서, 생각해보면 실수는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봤을 때 그분들만 아는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연구 참여자 25)

“너무 바빠서 뛰다가 자리에 맞게 배치는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그 대형차 서 있는데다가 화물에 박았었어요. 팔을”(연구 참여자 24)

○ (학령기 이후) 관계 양상

가. (학령기 이후) 나 자신과의 관계

학령기 이후의 나 자신과의 관계는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 준비’, ‘뒤늦은 진로 준비로 인한 무거움’, ‘소극적인 진로 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포레보다 이른 직장

생활에서의 만족감',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직장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심리적 어려움', '행동조절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정적 자아인식', '긍정적 자아인식', '군대에서의 적응양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로 나타났다.

표 III-12 (학령기 이후) 나 자신과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준비 (13)	적성분야에 따른 진학(2)	- 요식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한 대학을 진학함 (연구 참여자 20) - 국악을 공부하며 음악 분야로 진로를 선택하고 음대로 진학함(연구 참여자 44)
	자기탐색에 따른 진로준비 (11)	- 스스로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생각에 사기업에 입사가 아닌 공무원을 준비함(연구 참여자 9) - 좋은 대학에 다니는 대학생들이 유튜브 등으로 쉽게 돈을 버는 사람들에 대해 회의감을 갖는 것을 보며 좋은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의 루트이고 학업중단을 한 자신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연구 참여자에게 좋은 학벌이 다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됨. 학벌보다는 근본적으로 내 실력을 키우자는 생각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9) - 구직 활동을 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적을 것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 취미활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배우고자 노력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 3) - 그림 그리는 일은 다른 것과 달리 질리지 않아 2년째 그래픽 학원을 다니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29) - 인터넷상에 올린 그림에 대한 긍정적 댓글을 통해 인정받는 기쁨과 뿌듯함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29) -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자기 개발에도 관심이 있어 인문학 공부를 따로 하는 모습을 보임(연구 참여자 26) - 사회적 평판 등 미래를 생각하여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싶은 욕구로 인한 편입준비(연구 참여자 36) - 일을 하면서도 미래에 자신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진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대학 입학에 준비함 (연구 참여자 3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준비 (13)	자기탐색에 따른 진로준비 (11)	• 현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며 이후 자영업을 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43) • 본인의 꿈이 확고하며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갖고 하나씩 이루어나가고 있음(연구 참여자 47) •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 전문직을 알아보고 실현 가능한 전문직을 선택하여 시험을 준비함(연구 참여자 41) • 항공기 정비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공군에 입대하며 정비대에서 생활중이며 관련 자격증 준비도 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2) •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는 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는 가지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여러가지 분야를 더 탐색해보고 싶음(연구 참여자 35) • 인터넷에 무료 교육기관을 찾거나 전화해서 물어보고, 찾아가보기도 하는 등 관심분야를 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탐색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연구 참여자 35) • 관심분야나 진로 방향을 명확히 하기 보다 다양한 분야를 경험해보고 배우고 싶어, 여러 종류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5)
뒤늦은 진로준비로 인한 무거움 (6)	진로준비에 대한 부담감(5)	• 독학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늦은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26) • 공익근무를 하면서 검정고시를 홀로 준비하다보니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데가 없음(연구 참여자 28) • 직장생활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검정고시를 준비할 시간과 돈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치 않음을 느낌(연구 참여자 30) • 이미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상황에서 원하는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며, 학력과 경제적 상황이 걸림돌이 됨(연구 참여자 33) • 급여가 적더라도 아르바이트가 아닌,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아직 배우고 싶은 게 없어서 막막해지고 걱정이 됨(연구 참여자 35)
	진로준비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 (1)	• 홀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립감과 외로움을 강하게 느낌(연구 참여자 26)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뒤늦은 진로준비로 인한 무거움 (6)	뒤늦은 수능준비에 대한 자괴감과 열등감(2)	• 국비유학 실패 후 2년째 지속되는 수능 수험생활에서 자괴감과 열등감의 악순환이 지속됨(연구 참여자 26) • 주식투자에 손을 댄 후 입시에 집중하지 못하는 생활로 시험에 실패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짐(연구 참여자 26) • 자퇴 후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고 지금까지 지방대에 진학한 부분이 열등감으로 남아있음(연구 참여자 41)
소극적 진로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11)	진로준비에 대한 막막함(6)	•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었으나 한일 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진로가 가로막히게 되자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짐. 진로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지 않아 더욱 어렵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10) • (전공에서) 나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기량을 닦아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함(연구 참여자 1) • 인내심의 부족으로 쉽게 포기하고 싶어짐(연구 참여자 27) • 취업과 관련된 기관 및 정책을 알지 못하며 주도적으로 찾으려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29) • 6개월 이후 군대를 가야하므로 남은 시간이 짧다고 느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27) • 학업을 중단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어 김정고시 준비과정이 막막하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30) • 현재까지도 진로와 미래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고 느낌(연구 참여자 37)
	진로준비의 미비(5)	• 말로서 자신을 어필하는 것에 서툴기에 취업 과정에서 면접 단계를 넘어가기 어려움(연구 참여자 29) • 아직은 놀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서 딱히 진로를 준비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음(연구 참여자 28) • 진로를 위해 노력해야함을 알면서도 PC방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곤 함(연구 참여자 31) • 자기탐색을 하지 않은 상태로 취업이 잘되는 학과로 진학을 했으나, 적성에 맞지 않고 통학거리가 멀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연구 참여자 38) • 일에 쉽게 질리는 편이며 적성을 찾기 위한 노력도 크게 기울이지 않음(연구 참여자 40) • 무언가를 배우고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음(연구 참여자 4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소극적 진로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11)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준비에 대한 이른 포기(1)	• 자기개발 및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시작하지 못함(연구 참여자 24)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 에서의 만족감 (10)	적성에 맞는 취업에서의 만족감(6)	• 학업중단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한 분야에서 성실히 일한 결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승급을 앞두고 있으며 자신의 삶의 여정에 자부심을 갖게 됨(연구 참여자 6) • 모의 권유로 시작한 직업이 원하는 것과 달라 못마땅했지만 적성에 맞아 긍정적인 태도로 바뀜(연구 참여자 2) • 학교생활보다 사회생활하면서 음식점에서 서빙하고 홀메니저로 손님 응대하는 일에 적성이 맞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었음(연구 참여자 28) • 경험을 통한 선택이 중요하여, 학업중단 이후부터 많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것에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42) • 본인의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또래보다 실력이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음(연구 참여자 33) • 서비스업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고, 손님을 잘 대하면서 지정손님이 생기거나, 인센티브를 더 받는 등 능력을 인정받아 만족스러움(연구 참여자 35)
	또래에 비해 이른 사회생활의 정책(5)	• 또래 보다 경제활동을 일찍 시작하였고,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하는 모습을 보며 친구들이 부러워함(연구 참여자 20) •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더 고생했지만, 직장을 가지고 경제생활활동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많이 누리고 있다는 생각을 함(연구 참여자 3) • 한 가게의 사장으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직원들을 관리함(연구 참여자 20) • 조기 사회진출로 경력이 쌓이고 능력도 쌓임(연구 참여자 30) • 폴리텍 대학에서 국비지원을 통해 전기기술을 교육받고 전기기술 쪽에서 경력을 쌓고 있음(연구 참여자 47) • 사회생활을 빨리 시작하였기에 주변에서 본인에게 다양한 조언을 구하며, 그를 도와주면서 뿌듯함과 성취감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33)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6)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4)	•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되면서 가족이 살 집을 구하는 등의 시급한 현실과제를 마주하게 됨(연구 참여자 25) • 자기개발 및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쉽게 시작하지 못함(연구 참여자 24)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6)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4)	• 금전적인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결정하는 우선순위임(연구 참여자 22) • 모 건강의 악화로 인해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이 커짐(연구 참여자 23)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2)	• 우리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실제적 방법은 부동산투자, 투자할 수 있는 기본 자금 마련이 삶의 목표임(연구 참여자 26) • 친구들과 놀러다니려다보니 단기간 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필요해서 주말을 이용해 고소득을 단번에 벌 수 있는 단기직종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28)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족감 (8)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무의미함(1)	• 대학을 진학한 친구들은 향후 대졸학력을 갖추어 전문성을 인정받게 되지만, 연구 참여자가 직장에서 보낸 시간은 전문적 커리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희망하는 직업군도 아니어서 의미 없는 삶을 살고 있다 여김(연구 참여자 5)
	경력단절에 대한 무력감(1)	• 학업중단 이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퇴직을 하고 회복을 위해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 무력감이 다시 생김(연구 참여자 7)
	업무역량의 부족(1)	• 회사에서는 내가 한국인처럼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를 기대하는 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보니 때로 상사의 지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일하는데 어려움을 느낌(연구 참여자 3)
	단기적 아르바이트로 연명(2)	• 빚을 갚느라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위한 경험을 하기 보다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함(연구 참여자 10) •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지만 나중에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익히지는 못한 것 같음(연구 참여자 35)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특성(3)	• 단순하고 반복적인 제조업분야가 적성에 안 맞음(연구 참여자 27) • 혼자 하는 일이 적성에 맞아, 관계 중심적 직장은 힘들(연구 참여자 23) • 업무 성과가 있을 때는 뿌듯하지만 적성에 잘 맞지 않아 즐겁게 일할 수 없어서 아쉽고,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연구 참여자 34)
심리적 어려움 (10)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발생(1)	• 현재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 통원치료 중인데, 정신과 의사가 공황장애가 온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속마음을 말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함(연구 참여자 18)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심리적 어려움 (10)	걱정과 불안함(2)	• 어린 나이에 학업중단이라는 큰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애쓰며 살아오는 동안 자신의 판단에 대해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성향이 있음(연구 참여자 5) • 불안함에 압도되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음(연구 참여자 27)
	우울감(3)	• 잦은 이사로 인한 또래,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입대신체 검사에서 만성적 우울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연구 참여자 24) • 직장에 적응하지 못하고, 군대도 적응하지 못하는 등 실패감으로 인한 정신적 붕괴(연구 참여자 27) • 심리적 유약함으로 인해 군 훈련소에서 3일 만에 복귀 하면서 무기력해짐(연구 참여자 27) • 주변에서 본인의 학업 중단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눔을 알고 우울감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40)
	후회와 아쉬움(4)	• 학교를 중단한 결정이 부모님 간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가족의 와해까지 영향을 미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학교를 중단한 것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이 들기도 함(연구 참여자 4) •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빨리 올 수 있는 길을 돌아서 온 것만 같음(연구 참여자 31) • 돈 버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다보니 친구들이 많지 않고 공허함을 느낌(연구 참여자 39) • 일찍 하나의 기술을 배워 꾸준히 살아왔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후회가 있음(연구 참여자 40)
	관계외상의 재경험으로 인한 고통(3)	• 집단따돌림의 상처를 극복해 보려 가해자였던 친구들이 생활하는 영역내의 직장에 취직하였으나 가해자였던 친구들을 마주치는 것에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벗어날 수 없는 무력감을 재경험함(연구 참여자 5) •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성친구와 헤어지고 난후 본인의 부족함으로 인해 헤어졌다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떨어짐(연구 참여자 6) • 학교를 그만둔 지 7년이 지난 지금에도 학창시절의 또래 괴롭힘을 떠올리면 가슴통증을 느낌(연구 참여자 2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행동조절의 어려움 (2)	자해 시도(1)	• 군대 부적응 문제로 아버지와의 갈등이 축적되자 자해를 시도함(연구 참여자 27) • 심리적 어려움이 강하게 느껴질 때 손목을 긋고 싶은 충동을 느낌(연구 참여자 27)
	분노조절의 어려움(2)	• 반복된 실패경험이 억울함과 열등감을 일으키면서 급기야 분노조절이 어렵게 됨(연구 참여자 27) •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워 칼을 던지는 등 역기능적인 대처를 하여 이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치료를 받고자 노력함(연구 참여자 8)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 (1)	관계외상으로 부터의 극복(1)	• 재학 당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으로 혼자 다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혼자 여행을 해보니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편하고 나를 괜찮다는 것을 깨닫게 됨 (연구 참여자 5)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 (4)	의미없는 생활로 인한 지루함(1)	• 총체적인 삶에서 생산적이지 않고 무의미하고 재미없고 지루함을 느낌(연구 참여자 5)
	수동적 삶의 태도(2)	• 현재 용돈을 받고 있어 경제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수동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29) • 부모의 권유로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그것을 활용하여 취업을 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음(연구 참여자 40) • 주변에서 검정고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였기에 검정고시를 취득함(연구 참여자 40) • 추가적인 자격증 취득이 필요함은 알고 있지만 그을 위한 지원책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40)
	불규칙적인 일상생활(1)	•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군 부적응 문제 이후 일상생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음(연구 참여자 27)
부모로부터의 독립 (11)	경제적 독립(9)	• 학업 중단 이후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고 이십대 초반에 거주지까지 옮겨 실질적인 독립을 시도 함(연구 참여자 5) •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함. (연구 참여자 26) • 진로결정이나 경제적 문제 등에 대해 부모가 관여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6) •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 자립함(연구 참여자 30) • 경제적 독립으로 인하여 부모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는 점, 집을 마련한 점 등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함으로써 자신에게 뿌듯함을 느낌(연구 참여자 4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모로부터의 독립 (11)	경제적 독립(9)	• 중3때 가출을 한 이후, 부모님이 용돈을 주지 않아 주로 요식업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을 충당함(연구 참여자 40) • 독립적인 성격으로, 중학교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아옴(연구 참여자 47) • 집에 잘 들어가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용돈도 끊겼지만 남자친구 집에 지내며 크게 신경 쓰지 않음(연구 참여자 45) • 레슨과 연주회 활동으로 경제적인 부분은 90% 가까이 독립된 상태임(연구 참여자 44)
	심리적 독립(4)	• 자수성가로 살아온 부와 같은 방식으로 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짐(연구 참여자 27) • 진로나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은 주로 혼자 해옴(연구 참여자 47) • 아버지의 돌봄을 기대하지 않았고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편했음(연구 참여자 45) • 더 이상 어머니의 틀 안에서 지내기 싫고 직장생활을 하는 대로 독립할 생각이며 모녀지간에 최소한의 도리만 하고 싶음(연구 참여자 41)
부정적 자아 인식 (4)	부정적 자기존재감(4)	• 자기 자신에 대해 죽지 못해 사는 무가치한 자신의 존재로 인식함(연구 참여자 7) • 힘들면 중도포기, 빨리 포기하는 등의 인내력 부족의 모습을 보임(연구 참여자 27) • 군 입대 후 적응의 반복된 실패로 인해 자신감이 떨어짐(연구 참여자 27) • 열등감과 수치감으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버릇이 생김(연구 참여자 27) • 학벌이 좋은 사촌들에게 상대적 열등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26) • 대학교에서의 적응적 경험 후 자신이 바뀐 줄 알았지만 군대에서의 부적응문제로 인해 더욱 실망스러워짐(연구 참여자 27) • 늦게 일어나서 차려진 밥상과 때마다 부모님이 알아서 주시는 용돈을 받을 때마다 자신이 식충이 가 된 것 같음(연구 참여자 2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정적 자아 인식 (4)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감(2)	-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높아 무엇을 시작하기가 어려우며 높은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연구 참여자 29) - 귀농을 목표로 자신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열정만으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감(연구 참여자 27)
긍정적 자아인식 (11)	고독을 통한 자아성장(2)	- 내 삶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다른 사람 보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함.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내적 고민을 많이 하며 극복하고자 노력함(연구 참여자 1) - 다른 사람들과 소속되고 싶어하다가도 혼자 있고 싶어질 때도 있어 여전히 스스로에 대해 잘 모르겠고,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4)
	긍정적 자기존재감(8)	- 스스로를 “개복치”처럼 몸은 약하지만 마음은 단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1) - 학업중단 이후 스스로에 대해 실패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대학 진학 이후 여러가지 경험을 하면서 구청에서 상을 받는 등 성공 경험을 하며 실패자가 아니라 '나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자기상을 갖게 됨(연구 참여자 9) - 학령기 당시 우수한 학업성과 주시투자의 성공적 경험으로 인해 무엇이든 하면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삶의 동기로 작용함(연구 참여자 26) - 동생을 통해 우연히 춤에 재능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 하면서 기쁨을 맛봄(연구 참여자 27) - 학업중단의 문제가 인생에 불이익을 준 적이 없어, 자신의 노력으로 진로를 찾은 모습에 스스로 만족함(연구 참여자 42) - 업무 역량이 직장 사람들에 비해 뛰어나기에 혼자 일을 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3) - 사장 아들이란 이유로 회사 내에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을 도맡아 할 때 귀찮기도 하지만, 뿌듯함을 느끼고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듦(연구 참여자 34) - 회사 내 모든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외근 중에 시간이 남아도 빨리 들어와서 남은 해야 할 일을 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4) - 업무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지만,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뿌듯하고 대견함(연구 참여자 34) - 누가 뭐라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미리 해놓는 등 스스로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긍정적 자아인식 (11)	자기결정권에의한 주체의식(6)	• 스스로 학업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결정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생활을 만족스럽게 느낌. 온전히 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1) • 학업 중단 이후 모든 결정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주도적인 성격으로 변화함(연구 참여자 9) • 내가 한 결정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하고,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느껴질 때 자책을 많이 하고 오랫동안 과거 결정에 대해 곱씹기도 함. 그래서 스스로 말한 것과 행동을 지키는 '타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연구 참여자 4) • 학업중단 당시에는 자퇴를 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식의 얘기를 주변에서 듣다 보니 내 인생이 비정상적인 루트로 간다는 생각에 비판하게 되었으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진학과 진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찾다 보니 오히려 더 큰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됨. 대학도 지역 내에서만 갈 생각이었으나, 전국구로 좋은 학교를 고민하게 됨 (연구 참여자 9) • 고유하고 유일한 존재인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꾸려가고 싶음(연구 참여자 1) • 학업중단 전 또래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나 이제는 대인관계에 있어 명확한 판단력이 생겨 편안해짐 (연구 참여자 30) •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은 “학업중단”을 한 것이고, 다시 돌아가도 학업중단 이후 다시 학교를 탐색하는 등의 적극적 행동을 할 것임(연구 참여자 38) • 몸으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사람에게 학교보다 현장에서 경험이 더욱 소중하고 결과적으로 긍정적인(연구 참여자 42)
	자아탐색을 위한 멈춤의 시간(3)	• 17세부터 이른 직업인으로 취미생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다가 직장을 그만 둔 후 또래와 여행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됨(연구 참여자 23) • 학업중단 후 쫓기듯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압박감으로 흥미와 여유없이 살았던 모습을 돌아봄(연구 참여자 22) • 일을 하다가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시기를 미래를 고민하는 시간으로 보냄으로써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었음 (연구 참여자 4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군대에서의 적응 양상 (4)	군대에서 적응의 어려움(2)	• 규칙에 얽매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군대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움(연구 참여자 27) • 나이가 어린 선임들에게 다 참아야하는 관계가 힘들(연구 참여자 32)
	군복무에서의 만족감(3)	• 시험에 대한 반복적 실패 후 군대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생활로 군대에서의 경험이 인생의 최고 경험 중 하나가 됨(연구 참여자 26) •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함으로 인정받아 전체 팀장 역할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28) • 항공기에 대해 공부하며 간부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연구 참여자 32)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6)	지지적인 관계(2)	•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지지집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홀가분해짐(연구 참여자 29) • 고등학교 친구들의 심리적 지지가 대학생활을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됨(연구 참여자 38)
	진솔한 관계(5)	• 진심으로 아껴주는 관계를 맞보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곁돌았던 관계가 슬프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21) •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 경험이 그리움(연구 참여자 26) • 가시적인 거짓된 모습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않고 소수일지라도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함(연구 참여자 30) • 학과친구들, 교수님의 현실적 조언보다 고등학교 친구들과 깊이있고 진실한 위로가 진로장벽극복에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38) • 자기 내면의 소심한 면을 알아주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을 알아봐준 것 같아 반가움(연구 참여자 33)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준비〉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령기 이후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은 학령기 이후 자기탐색에 대한 진로준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에는 진로 선택에서 관계에 영향을 덜 받는 직업군을 고려하기도 하고,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이미 학업중단으로 탈락된 위기를 인식하고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또래에 비해 일찍 사회 경험을 하면서 구직 활동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기도 하였고, 학교에서 의미를 찾지 못해 성실하지 못했던 태도에서 적성 탐색을 통해 취업준비를 위한 선택과 집중된 태도로 진로준비를 해나가기기도 하였다.

자기탐색에 따른 진로준비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연구 참여자 중에서는 요식업에 관심을 갖게 되어 관련 대학을 진학하는 것과 같이 적성분야에 따른 진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러 철학 강의도 들으러 다녔거든요. (중간생략) 인문학적으로도 이거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사람을 포용하는 데 쓸 수 있는...”(연구 참여자 26)

“2년째 학원을 다니고 있고 (하루에) 3, 4시간은 기본으로 (그림을 그리고) 학원은 아니고 혼자서 또 괜찮으면 거기서 8시간까지 갈거고.” (연구 참여자 29)

〈뒤늦은 진로준비로 인한 무거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학령기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래에 비해 진로준비가 뒤늦은 것에 대한 부담감과 진로준비 과정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을 보고하였다.

“혼자서 지금 계속 입시를 한다는 거에 부담감도 있고, 동시에 이거(입시준비)를 하다보면 주위의 사람들의 관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어서 연락이 다 끊긴다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일부러 끊는다든가 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 26)

특히, 연구 참여자 26의 경우 학령기 당시 우수한 학업성적으로 국비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학업중단을 한 이후 국비 유학에 실패되면서 군대를 마치고 난 후부터 입시 준비를 하게 되면서 자괴감과 열등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흔히 말하는 자괴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열등감.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냥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연구 참여자 26)

〈소극적 진로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이십대가 넘어서면서 진로준비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느끼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만족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 중에서는 막연하게 일본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한일 관계에 대한 부정적 소식만으로 대안을 찾지 않는 태도를 보이거나 역량을 기르기 위한 노력에 인내심이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였다. 한편,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모든 진로를 군 제대 이후로 지연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하였다.

“당장 군대가 너무 어떻게 보면 큰 산이다 보니까 뭘 해야겠다는 걸 전혀. (중간생략) 어차피 6개월 있으면 군대 가야 되는데 그걸 지금 건드려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연구 참여자 27)

진로준비에 대한 막막함은 실제적인 진로 준비가 미비한 채 취업 단계에서 면접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가정 경제적 어려움이 부담이 되어 자기개발 및 학업에 대한 욕구를 일찍이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역량을 개발하고 싶고 나 스스로 개발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자본. 자본이 제일 필요하니까. (중간생략)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경제가(경제적 어려움이) 무너뜨리거든요.” (연구 참여자 24)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

학교 밖 청소년들 중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특히 적성에 맞는 취업을 한 연구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취업에 대한 만족감을 밝혔는데,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아 성실히 일하여 승급을 앞둔 연구 참여자는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모의 권유로 시작한 직업이 생각보다 적성에 맞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또한 취업에서의 만족감을 경험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한 후 또래에 비해 이른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현재 취업을 고민하는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과 상대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만족감을 표하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손님들 접대하고 응대하는 데 저는 잘 맞는 거 같아요. 시간도 잘 가고 손님들이랑 얘기하는 것도 즐겁고, 저한테 잘 맞는 거 같아요.”(연구 참여자 28)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을 밝힌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가장이 되면서 가족이 살 집을 구하는 것과 같은 현실과제를 마주하기도 하였으며, 자기 개발 및 학업에 대한 욕구가 있더라도 가정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부담감으로 자기개발을 쉽게 시작하지 못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개발을 할 여유가 없기에 금전적인 이유가 우선순위가 되어 다른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아르바이트와 취업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하거나, 가족구성원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이 느끼고 있던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가 일자리도 있지만 집 문제 때문에. 내년 말이면 집 계약이 끝나요. (중간생략) 서울에 청년임대주택이 있어서 그걸 신청하려고 올라왔다가 (중간생략)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막히는 거예요. (중간생략) 그래서 생각이 많아요. 서울에 있어야 될지 가족들 때문에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야 할지.”(연구 참여자 25)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를 보이기도 하였는데, 실물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를 축적하기 위한 실제적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언급하며 진학을 통한 경제공부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위한 기본자금 마련을 현재 삶의 목표로 구술하였다. 또한 또래와 어울리는 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보다는 주말을 이용한 고소득 단기직종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스스로 씨드머니(seed money)를 만들 수 있는 자신의 스펙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 하거든요. 지금 경제 공부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어야...”
(연구 참여자 26)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족감〉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이른 직장생활을 시작한 일부는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족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무의미함을 보고하는 경우, 대학을 진학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는 또래와 달리 이른 취업을 통해 직장에서 보낸 시간은 상대적으로 전문성을 덜 인정받으며 본인의 경력은 자신이 희망하던 직종도 아니었기에 삶이 무의미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 직장생활을 하다가 사고로 인한 경력단절을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에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잖아요. (중간생략) 개네들은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약 지금 일을 그만두게 되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커리어가 쌓여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고졸이다 보니까 이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5)

또한 업무역량의 부족을 느낀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한국어 실력의 부족으로 상사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함에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특성으로 인해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족감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단순업무를 하는 직장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혼자 하는 일이 적성에 맞기에 관계 중심적인 직장생활에서 어려움을 느껴 일을 그만 두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단기적 아르바이트로 연명하는 연구 참여자는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느라 자신의 진로나 미래를 위한 경험을 하지 못함에서의 불만족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저 혼자 일하는 것만 해봤지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는 그런 거는 해본 적이 없어서 금방 그만 뒀어요. 적성에 안 맞아서.”(연구 참여자 23)

〈심리적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다양한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가 발생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병원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공황장애의 원인 중 하나로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해주었음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걱정과 불안함을 보고하기도 하였는데, 어린 나이에 내린 학업중단이라는 결정을 책임지기 위해 자신의 선택을 끊임없이 점검하는 과정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걱정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불안감이 과도한 경우에는 그에 압도되어 인터뷰 중에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떠오르지 않음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울감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잦은 이사로 경험하였던 부적응의 문제가 학업 중단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이것이 입대신체검사를 통해 만성적 우울감으로 확인되거나, 학업 중단 이후의 지속적인 부적응 문제와 실패감이 우울감으로 이어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군대 검사 있거든요. 그걸로 받았다가 따로 부르더라고요. 마음에 내장된 우울이 많다.
한 번 검사를 받아봐라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거를 신경 쓸 틈도 없이 일을 다녔어요.”
(연구 참여자 24)

또한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보고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특히 연구 참여자 4는 자신의 학업중단 결정이 부모님의 갈등을 일으키고 그것이 부모님이 이혼으로 이어져 가정이 와해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학업중단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이후에도 관계외상의 재정험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집단따돌림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가해자들이 생활하는 영역 내의 직장에 취직하였으나 여전히 과거의 관계외상이 극복되지 않았음을 재확인함으로써 깊은 무력감을 경험하거나, 학업을 중단한지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과거의 관계외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과거 경험한 관계외상 이야기를 하던 중 가슴 통증을 보이며) 지금 한 번, 원래 약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검사 받으면 이상은 없고.”(연구 참여자 29)

〈행동조절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자해시도나 분노조절의 어려움과 같은 행동조절의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27은 아버지와의 갈등이 축적되자 통제력을 잃고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으며, 종종 심리적 어려움이 강하게 느껴질 때 자해의 충동을 느낀다고 밝혔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반복된 실패경험으로 인한 역울함과 열등감이 분노조절의 어려움으로 이어졌음을 보고하였으며, 사람들과의 갈등이 심화될 때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고 역기능적인 대처를 하는 자신을 보며 심각성을 느끼기도 함을 구술하였다.

“학교 다니고 나서 초반까지는 자해행동을 했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연구 참여자 27)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

학교 밖 청소년들 중 학업중단 이후의 시간을 통해 과거의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한 청소년도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재학 당시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혼자 다니는 것을 두려워하였지만, 학업중단 이후 여행을 홀로 떠나 혼자 다니는 것이 두렵기보다는 오히려 편안하고 걱정했던 것보다 편안함을 느끼고는 과거 자신이 지냈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여행은 혼자 가본 적이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혼자 비행기 타고 여행 해보고 나니까 오히려 혼자 있는 것도 편하고 특별한 게 있진 않았어요.” (연구 참여자 5)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보내고 있는 일상생활에 불만족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의미 없는 생활로 인한 지루함과 수동적인 삶의 태도, 불규칙적인 일상생활이 그 이유였는데, 매일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자신의 삶이 지루하다고 인식하거나, 용돈으로 생활을 하기에 경제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수동적인 삶을 지속하는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군 부적응 문제를 경험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일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불규칙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하고 있어 그로 인한 불만족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그냥 요즈음에는 뭔가 해본다는 생각 보다는 진짜 하루하루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압박을 느끼고.” (연구 참여자 27)

〈부모로부터의 독립〉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일부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을 이루었음을 밝혔다.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경제적 독립과 심리적 독립으로 나뉘었는데,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거나, 학업 중단 이후 경제적 자립을 시작하였으며 거주지까지 옮김으로써 실질적 독립을 시도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진로결정이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부모가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음으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되었음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에는 부와 자신의 삶의 방식이 다름을 깨달음으로써 아버지와의 분리개별화가 이루어지며 비로소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을 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어머니는 신경 안 쓰세요. 제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제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보험비 잘 내라 그런 거 말고 나머지 쓰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세요…〈중략〉…진로에 대해서 개입 안 하세요. 맡겨 주세요. 옛날에는 그랬는데요 요즘은 제가 알아서 잘하니까 스스로에 맡기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6)

“아버지하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람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중간생략〉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독하게 클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독한 분으로 자랐고 저는 아직도 마음이 여린 거예요.”(연구 참여자 27)

〈부정적 자아 인식〉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부정적 자기존재감을 보였는데, 그 이유로는 대학교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에 반하는 군대 부적응 문제로 인한 자신감 하락 및 이로 인한 열등감과 수치감 경험이 있었다. 부정적인 자기존재감은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용돈을 받고 밥을 먹는 자신을 ‘식충이’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부정적인 자아상과도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이걸 또 실패 했구나
마음이 들면서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면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7)

“저는 식중이. (집에만 있고) 돈을 벌지 못해요.” (연구 참여자 29)

또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감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 인식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29는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자신에 대해 자책하는 경향이 있으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일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모습이 있지만) 나를 거기에 맞추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설령설령”

(연구 참여자 29)

〈긍정적 자아인식〉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정적 자아인식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와 반대로 긍정적 자아인식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 고립되어있던 시간을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기로 보냄으로써 고독을 통한 자아성장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되돌아봄으로써 삶에 대한 통제감을 스스로 회복하거나 학업중단 이후의 시간을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서 자기결정권에 의한 주체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밝히기도 하였는데, 학업중단이라는 선택 이후의 삶은 온전히 자신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주체적인 삶에 만족하거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도적인 성격을 얻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9는 학업중단 당시에는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학업중단이라는 자신의 선택을 비판하였으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진학과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 현재에는 과거보다 더 큰 시야를 갖고 삶을 살고 있음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퇴를 한 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에 어느 수준의 어느 과가 있고 스스로 알아보는 거 솔직히 대구 살았을 때는 크게 관심 없었거든요. (중간생략) 근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수련을 준비한 시점부터 뭔가 각종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대학교 등급 그런 게 체계적으로 잡히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교에 대한 욕심도 생기고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9)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긍정적인 자기존재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스로를 마음이 단단한 사람으로 인식하거나 학업중단 이전, 이후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긍정적 자기존재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학업중단 이후의 성공 경험은 자신을 ‘학업중단으로 인한 실패자’가 아닌 ‘학업중단을 했음에도 평범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해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사실 제가 어디 가서 그룹에서 절대 거기 그룹에 속해 있는 그룹원으로 전략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연구 참여자 26)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자아탐색을 위한 멈춤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긍정적 자아인식을 하게 되었음을 구술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이른 사회인으로서 직장생활을 하며 자아 탐색을 미뤄오다가 직장을 그만 둔 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아탐색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학업중단 후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여유 없이 살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자아탐색을 하는 시간을 갖는 중임을 밝히기도 하였다.

“저는 해보고 싶은 게 나중에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고 싶어서.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다고 그래서) 뒤로 밀렸던 생각을 하면 너무 아쉽고. 지금이 제일 좋을 때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3)

〈군대에서의 적응 양상〉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연구 참여자 27은 군대에서 적응이 어려웠음을 밝혔다. 학업 중단 이전에도 적응문제를 겪었고 규칙적인 생활을 어려워했기에 군대에서의 엄격한 규칙과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생활이 본인에게는 매우 어렵게 다가왔음을 구술하였다. 반면,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군복무에서의 만족감을 보고하였다. 입시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후 자존감이 낮아졌지만 군대에 들어가서 인정받는 생활을 함으로써 군대에서의 경험이 인생 최고의 경험으로 남았거나,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함을 인정받아 다른 사람들을 어우르는 팀장 역할을 하게 됨에서 만족감을 느껴 군복무 경험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숨쉬기 힘들 정도로 답답하더라고요. 뭘 하든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제가 적응력도 빠르지 않아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는데 풀 곳도 없고 갇혀 있다는 생각도 계속 들고.”
(연구 참여자 27)

“사실 저는 막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엄청 좋아해요. 저 군대로 맨날 돌아가고 싶어서 꿈을 꾴요.”(연구 참여자 26)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지적이며 진솔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른 나이의 학업중단과 이후의 한정된 인간관계로 인해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줄 관계가 부족함을 인식하며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또래 지지집단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이 홀가분해질 것 같음을 밝히거나, 피상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인간관계가 아닌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던 관계 경험이 그리움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나면) 마음이 홀가분? 비슷한 처지니까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연구 참여자 29)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요. 수험생활을 하면서도 외로움을 느끼고 (중간생략) 깊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연구 참여자 26)

나. (학령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학령기 이후 가족관계는 가족 간 소통방식, 현실적 과업 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회복, 부모 자녀 간 공존의 마음, 부모의지지,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으로 나타났다.

표 III -13 (학령기 이후) 부모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가족 간 의사 소통 방식(6)	의사소통에서의 갈등(3)	• 생활방식과 성격 갈등으로 부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부를 피해 집에 들어감(연구 참여자 27) • 가족 간 갈등 양상 시 직접적 문제해결보다 회피의 대처 기제를 사용하여 가족관계에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27) • 노력하면 뭐든지 된다는 부와 달리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 차이가 갈등을 더욱 크게 만들(연구 참여자 27) • 부모님께 힘들다는 표현을 하면 수용을 하기보다 더 힘든 친구들과 비교를 하는 양상이 나타나 의사소통에 단절이 생김(연구 참여자 38) • 교직에 뜻이 없음에도 부모님이 원하셔서 임용시험 준비를 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44)
	의사소통을 통한 가족 간 유대감(3)	• 부의 사회생활 경험이 학업중단 후 고립되어있던 삶에 간접적으로 생활의 지혜를 가르쳐줌.(연구 참여자 24) • 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모와의 친밀감을 깊게 인식함 (연구 참여자 24) • 아버지 조연으로 집을 구입하는 등의 성취가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아버지의 조언을 수용함 (연구 참여자 42) •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면서 대화의 기회가 생겼고 그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가 비교적 원만해짐(연구 참여자 4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회복 (13)	성실한 태도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지지(7)	• 학업중단 이후 놀기만 하는 자신을 부모님이 걱정하고 화도 내셨지만, 이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잘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부듯해하심(연구 참여자 20) • 결혼 이후 부모님과 가는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하며 원만하게 지냄(연구 참여자 8) • 연구 참여자가 대학을 진학하고 혼자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현재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어주심(연구 참여자 4) • 연구 참여자가 대학을 진학하고 혼자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현재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어주심(연구 참여자 4) • 성인이 되어 경제적으로 자립한 자녀의 선택을 믿고 지지 해주며 친구같이 고민을 들어주는 관계가 됨(연구 참여자 30) • 간호대 진학이후 실습을 하면서 새벽 3시에 자는 등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간식을 챙겨주는 등의 행동을 받음(연구 참여자 38) • 삶의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이를 이행하는 모습을 보시며 부모님이 점점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심(연구 참여자 39) •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하고싶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다양한 정보와 비용을 알아보는 등 미리 준비하는 편이라, 부모님이 믿고 자유롭게 하라고 허용해 줌(연구 참여자 35)
	학력 취득으로 인한 부모의 인정(6)	• 검정고시 합격 후 아버지의 걱정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관계가 좋아졌으며 대학에 합격하자 완전히 좋아짐(연구 참여자 17) • 학업중단의 실패감을 딛고 입학한 대학에서의 적응이 인생의 큰 성취감을 줌(연구 참여자 27) • 학업중단 당시, 부모님은 1년 안에 검정고시를 붙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검정고시를 통과한 이후로는 본인의 선택을 지켜봐 주심(연구 참여자 47) • 대학교에 진학하여 학점을 잘 받고 교직이수를 하니 부모님과 사이가 나아짐(연구 참여자 44) •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 후로 모와의 관계가 많이 회복됨(연구 참여자 41) • 대학 합격 후 부모님이 좋아하시면서 집 분위기가 호전 되었다고 느낌(연구 참여자 34)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모-자녀 간 공유한 마음 (5)	비행행동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3)	• 학업 중단 이전에 비행을 저지르며 다닐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했지만, 지금은 어머니에게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듦(연구 참여자 7) •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뒤편이었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연구 참여자 6) • 중고등학생 시절에 철이 없어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이 있음(연구 참여자 32)
	부모의 불화로 인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1)	•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의 안락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전한 청년으로 바르게 성장하여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을 자랑스러워 함(연구 참여자 6)
	부모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2)	•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부모의 삶이 안쓰러움(연구 참여자 24) • 부가 돌아가시고 본인 꿈도 다 접고 혼자 애를 키워야 했던 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있음(연구 참여자 41)
부모의지지 (5)	적극적인 진로 지원(4)	• 애견마용사가 되고 싶어서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하였을 때 엄마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심(연구 참여자 7) • 대학교를 가고싶다는 생각을 하자 부모님이 재수학원을 지원해주심(연구 참여자 37) • 부모님이 간호사가 되길 바라셔서 학비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학교생활을 간신히 이어나감(연구 참여자 38) • 아버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함을 느낌(연구 참여자 34) •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대학 진학의 원동력이자 졸업을 가능하게 한 이유라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4)
	모의 무조건적 지지(1)	• 갈등이 심한 부와 달리 모는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주고 이해해주려고 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음(연구 참여자 27)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9)	경제적 부양의 부담감(8)	• 경제관념이 없고 자기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삼대독자 오빠가 가족들의 기대를 잘 부응하지 못해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들 모두 연구 참여자에게 기대를 함(연구 참여자 1) • 경제적 상황을 생활비와 용돈으로 분리하여 생활비는 스스로 내고 있음(연구 참여자 23) • 모와 동생들이 함께 살 집을 구해야 되는 가장으로써의 책임감에 취업을 서두름(연구 참여자 2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9)	경제적 부양의 부담감(8)	• 부모의 이혼 후 장남으로써 모와 동생을 부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음(연구 참여자 26) • 키워준 조모에 대한 미안함으로 취업과 학력취득에 대해 조급해짐(연구 참여자 21) • 어린 나이에 유흥업소, 서빙, 화물 운반 등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땀을 맞는 수모까지 경험하기도 하였으나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참음(연구 참여자 8) • 직업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모가 경제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경제적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큼(연구 참여자 40) • 학업 중단 후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생활비에 대한 요구를 들어옴(연구 참여자 40) • 어린 동생과 몸이 안 좋은 모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음(연구 참여자 33)
	가정경제적 어려움(1)	• 실제적인 경제생활 수준은 기초생활 수급 수준인데 부모의 신용 등 복잡한 문제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국가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24) • 현재 수입의 90% 이상을 가정 경제를 메우는데 사용함(연구 참여자 24) • 대학진학을 하고 싶지만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적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24)
	현실과 주관적 인식 간의 괴리(1)	• 모의 경제적 수입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에 만족감이 저하됨.(연구 참여자 26)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3)	부모의 신뢰를 통한 자립(2)	• 연구 참여자가 대학을 진학하고 혼자서 해나가는 모습을 보며 부모님이 현재는 스스로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믿어주심(연구 참여자 4) • 부모님은 성인이면 혼자 살아보야 하지 않겠냐며 독립을 권하시는 등 자율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심(연구 참여자 35)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립(1)	• 학업중단부터 현재의 취업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온 이유는 부의 무능력함으로 인해 고생하는 모의 고단함을 보고, 일찍 독립을 결심함(연구 참여자 22) •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와는 쓸 것도 받을 것도 없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간주함(연구 참여자 22)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1)	부모에 의존된 자립의 욕구(1)	•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적응해야 되는 갈등상황에 놓여 있음(연구 참여자 27) • 적성이 맞지 않는 부에게 의존하여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계획을 세움(연구 참여자 2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 (7)	부모에 대한 원망감(3)	• 사회에 나오니 이혼으로 본인에게 가장의 책임감을 지게 한 부가 원망스러움(연구 참여자 25) • 어렸을 때 겪었던 가정불화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연구대상자도 회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음(연구 참여자 6) •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아버지의 모습이 내면화되어 2세를 위해 금연을 할 정도로 가족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갖는데 긍정적 영향을 줌(연구 참여자 8) • 감정조절에 성숙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보임(연구 참여자 8)
	가족관계의 단절(2)	• 조모가 재혼한 부를 대신하여 키워주면서 동생과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함(연구 참여자 21) • 오빠와 언니가 있지만 오빠와는 소원하고 언니와는 싸우기도 했지만 성격도 안맞아 언을 끊었음(연구 참여자 45)
	형제관계에서의 상대적 박탈감(2)	• 언니는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리고 잘 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부모님이 자신보다 언니를 더 아끼시는 것 같아 당연하면서도 서운하게 생각 함(연구 참여자 7) • 언니가 대학시절 성적이 좋다 보니 장학금을 받음으로 인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연구 참여자 38)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가족 간 의사 소통 방식〉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을 하고 학령기를 지나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역동을 보고하였다. 먼저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에서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갈등으로 의사소통 자체를 피하는 연구 참여자가 있는 반면에 의사소통을 통해 생활의 지혜를 얻고 친밀감을 깊게 인식하는 등 가족 간 유대감을 느끼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그때 안 들어가고 아버지 주무실 시간에 들어가서 잠만 자고 나오고.(중략)아버지께서 한국에 들어오신지 일주일 반 정도 됐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시간이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중학교 때처럼 집에 들어올 때 신발장을 먼저 보게 되더라고요.
어머니 신발이 있나” (연구 참여자 27)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회복〉

현실적인 과업을 수행함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묵묵히 자신의 일에 몰두하거나, 정기적으로 안부 인사를 하거나, 혼자 힘으로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는 등의 성실한 태도를 보임으로 부모로부터 지지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더 나아가 검정고시에 합격 후 대학에 진학하는 학력을 취득함으로 부모에게 인정 받았다는 긍정적 경험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제가 검정고시 합격하고 바로 좋아졌던 거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그만두고 안 좋았으니까 아버지는 걱정이 되셨던 거죠. 애가 그만두고 뭘 할까.. 근데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교도 가니까 그 때부터 좋아졌던 거 같아요.”
(연구 참여자 17)

〈부모-자녀 간 공허한 마음〉

학령기 이후의 시기이지만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부모-자녀가 서로에 대한 공허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자녀는 학업중단 이전 비행행동에 대한 미안함과 힘들게 사셨던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성실하게 사셨지만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부모의 삶을 안쓰럽다고 구슬하였고, 아버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불화의 안락하지 못한 가정에서 바르게 성장한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며 한편으론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너무 미안해요. 괜히 저희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했으니까 미안하죠. 엄마한테…
〈중략〉…아버지도 힘든 환경에서 진짜 잘 자라줬다고 착하게 잘 자라줬다고 어머니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6)

〈부모의 지지〉

부모의 지지적 측면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고 싶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는 엄마와 갈등이 심한 부와는 다르게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려는 마음을 느끼게 해준 모의 무조건적 지지도 보고하였다.

“어머니하고 저랑 비슷해요. 어머니도 어렸을 때부터 마음도 약하고 정도 많았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외할머니께서도 어머니 어렸을 때 그런 점을 많이 걱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7)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을 보고하였는데 가족의 기대, 생활비의 자기부담, 가장 및 장남으로서의 부양 책임감, 생계유지 등의 경제적 부양의 부담감을 구술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환경, 수입의 대부분을 가정에 부담, 대학진학조차 할 수 없는 가정상황 등 현실적 가정경제의 어려움을 구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모의 경제적 수입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현실과 주관적 인식 간의 괴리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혼으로 인해) 아버라는 존재가 없어지니까 웬지 내가 그 역할을 넘겨받은 것 같은 (중간생략) 어머니 혼자 벌어야 되니까 내가 일을 안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취업을 서둘렀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5)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vs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한 연구 참여자들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등의 모습에서 부모가 믿음을 가지는 부모의 신뢰를 통한 자립과 부의 무능력 및 모의 고단함에 일찍이 독립을 결심하거나 부모와는 경제적으로 주고받을 것이 없는 독립적 영역으로 간주하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립을

보고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부모부터 독립하고 싶지만 부가 운영하는 회사에 적응하며 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양가감정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딱히 도움을 받을 일은 없겠구나, 20살 넘어서 거의 돈도 안 받았고 등록금도 아빠가 낼 때는 국가 장학금이 다 나왔어요.”(연구 참여자 22)

“그 누구도 도와주질 못하니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연구 참여자 27)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

학령기 이후에도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은 보고되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가장의 책임감을 지게 한 부에 대한 원망스러움, 어린 시절 겪은 가정불화와 부의 부재로 인해 자신도 화목한 가정을 꾸리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부의 모습을 닮은 분노조절의 어려움 등 부모에 대한 원망감을 구술하였고, 조모의 양육으로 동생과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된 가족관계의 단절, 자신보다 언니를 더 아끼시는 것 같은 마음에서 느껴지는 형제관계에서의 상대적 박탈감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아버지가 이혼을 안 하셨다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취업적인 부분에서 부담감이 덜 했을 텐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내가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원망했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5)

다. (학령기 이후) 또래와의 관계

학령기 이후의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범주로는 심리적, 환경적 결핍으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또래에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관계육구의 지연,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관계양상의 다각화,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로 나타났다.

표 III-14 (학령기 이후) 또래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심리적, 환경적 걸림돌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7)	또래관계의 축소(3)	• 여자 친구와 대형, 소수의 친구들 외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음(연구 참여자 16) • 대학 편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정을 주지 않고 주로 혼자 지냄(연구 참여자 9) • 여자 친구와 대형, 소수의 친구들 외에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음(연구 참여자 16) •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으로 인해 관계를 맺는 것이 불편해지면서 타인과 친밀감을 쌓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관계를 더 이상 확장하지 않음(연구 참여자 5)
	또래관계의 단절(5)	•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또래관계에서 소외됨(연구 참여자 6) • 학업 중단 결정 시 부모님은 자신이 또래 친구를 만들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였는데, 지금은 그 걱정이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됨(연구 참여자 4) • 대학 편입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정을 주지 않고 주로 혼자 지냄(연구 참여자 9) • 남자친구와 지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기존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31) • 학업 중단이후 다른 친구들은 다 학교에 가는 시간에 만날 사람이 없어서 대인관계가 단절됨(연구 참여자 37)
	학령기 당시의 관계 외상의 재경험(1)	• 재학 당시 경험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타인에 의해 거론되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서워하게 됨(연구 참여자 5) • 재학 당시 경험한 집단따돌림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타인에 의해 거론되는 것조차 불안하게 느껴지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무서워하게 됨(연구 참여자 5)
또래에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5)	경제적 수입으로 인한 또래에서의 비교우위(1)	•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술값을 혼자 다 부담하는 것이 짜증이 남(연구 참여자 7)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또래에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5)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또래에서의 비교우위(4)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구직을 하지 못하고 게임중독에 빠져있는 또래 친구들을 보며 학업중단을 선택한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6) - 주변보다 앞서 사회에 진출하였기에,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주변보다 자신이 낫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3) - 학업을 지속한 친구들에 비해 빠르게 진로를 정하였기에 현재에는 친구들이 자신의 선택을 부러워함(연구 참여자 47) - 학교중단 한 친구들이 매일 술 먹고 담배 피며 노는 모습을 보며 '저렇게 사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본인이 대학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됨(연구 참여자 34)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13)	이른 사회인으로 또래어울림의 배제(3)	- 또래와 함께 하는 시간이 직장생활에 영향을 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또래들과 어울리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또래관계에서 소외됨(연구 참여자 6) - 취업준비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듦(연구 참여자 4) - 학창시절 친구들은 거리가 멀고, 일 때문에 활동 시간대가 달라 자주 만나지는 못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5)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경험 배제(1)	학업을 중단한 경험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교과 내용 등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감하지 못하도록 영향을 미침(연구 참여자 10)
	사회적 소속감으로부터의 박탈(5)	- 또래와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갈망이 큼(연구 참여자 24) - 학교 밖에서도 노력하면 친구를 만들 수 있지만 쉽지가 않고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것 같아, 친구를 만드는 것은 학교 환경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4) -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고 즐겁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에 비해 나는 학교를 다니지 않다보니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쉽고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부러운 마음이 듦(연구 참여자 3) - 학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없고, 대학교 친구들이 동네 친구, 선배와 노는 것을 보면 부러움을 느낌(연구 참여자 18) - 또래가 학교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자 복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음(연구 참여자 40)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13)	학교 친구의 부재(5)	- 고등학교 학창시절 이야기에 끼여들 수 없어 아웃사이더가 되어버림(연구 참여자 12) -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친구가 별로 없다는, 제한된 친구관계만을 경험했다는 것에 학업중단을 후회함(연구 참여자 14) - 고등학교 3년을 졸업했다면 또래를 만나 인간관계를 3년 더 경험했을 것임(연구 참여자 12) - 고등학교 학창시절 이야기에 끼여들 수 없어 아쉬움(연구 참여자 36) - 고등학교 친구들과는 공유된 추억이 적어 공감대가 다름을 느낌(연구 참여자 43) - 학업을 중단함으로써 또래에 비해 좁은 교우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음(연구 참여자 33)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관계육구의 지연(2)	정서적 관계의 가치를 경시(2)	- 심리적 유대나 위안은 돈, 직장처럼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관계는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함(연구 참여자 6) - 대학교 진학 초기에는 학생회 활동을 하는 등 관계를 확장하며 소속감을 느끼는 것을 좋아했지만, 휴학 후 함께 할 친구들이 없고 취업준비에 매진해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 어딘가에 소속되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마음이 듦(연구 참여자 4) - 직장 상사의 벅찬 업무 지시에 해결책을 찾는 대신 욕을 먹더라도 참고 견디는 방식으로 대처함(연구 참여자 6)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8)	소극적 관계형성(3)	- 이성친구든 동성친구든 먼저 관계형성을 주도하기보다는 주로 상대방이 먼저 다가올 때 관계를 맺는 양상임(연구 참여자 6) - 사람들 관계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편. 그래서 직장생활도 혼자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일을 우선순위로 생각 함(연구 참여자 7) - 지금의 남편인 남자친구를 만날 때부터 다른 친구들보다는 남편의 지인들과 관계를 형성해왔음(연구 참여자 45)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경험 부재(2)	친구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친구를 새롭게 사귀고 싶지만, 어디서 만나야 할지 만나서 어떻게 친해져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함(연구 참여자 3)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8)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경험 부재(2)	• 학업 중단 결정 시 부모님은 자신이 또래 친구를 만들지 못할 것에 대해 염려하였는데, 지금은 그 걱정이 일리가 있었다고 생각이 됨(연구 참여자 4)
	극소수의 관계망에서 공감대 형성(3)	• 연락하고 지내는 중학교 때 친구 두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현재 진로와 미래가 막막하고 불투명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꺼내 놓기 어렵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대상이 되어 줌(연구 참여자 9) • 솔직한 모습으로 소수의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인간관계의 맺고 끊음이 명확해짐(연구 참여자 30) • 대학 진학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여자 친구나 아주 친한 사람들과만 교류하는 것이 편안함(연구 참여자 34)
관계양상의 다각화(11)	이성관계의 집착으로부터 분리(1)	• 연애를 할 때 일상과 힘든 일을 공유하곤 했었지만, 혼자 또는 친구들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연인이 관계의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4)
	이성관계로의 집착(3)	•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애정에 대한 강렬한 욕구의 원인은 안정적인 소속감임.(연구 참여자 21) • 성인초기 이성친구관계의 양상(모습)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성향임.(연구 참여자 21) •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그 친구마저 없으면 혼자라는 것을 알기에 외로움과 소속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연구 참여자 21, 27) • 남자친구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지역을 옮기고, 남자친구가 자신을 키우는 것 같다고 말 할 정도로 남자친구와 의존적인 관계를 맺음(연구 참여자 31)
	실리적 인간관계 형성(3)	• 사회생활을 통해 주고받는 이해타산이 맞는 관계 중심으로 인맥이 형성됨(연구 참여자 22) • 한 번 어긋난 관계는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다는 것에 대해 누적된 경험을 통해 확인함 (연구 참여자 22) • 직장 상사의 훈계는 연구대상자의 업무력을 신장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여기며 누구나 이런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연구 참여자 6) •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학교 친구들과 달리 실리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하는 것 같으며, 목적이 사라지면 쉽게 헤어짐(연구 참여자 33)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관계양상의 다각화(11)	지지적 관계형성(5)	• 실패감과 낮은 자존감이 여자친구의 무조건적 지지로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버텨냄(연구 참여자 27) • 여자친구의 무조건적 지지로 인해 맞춰나가기 힘들었던 성격차이를 서서히 조율해나감(연구 참여자 27) • 여자친구를 통해서 나를 공감해주고 솔직해 질 수 있는 관계를 통해 자기개방 경험을 함으로써 편안함과 안정감을 경험함(연구 참여자 27) • 연락하고 지내는 중학교 때 친구 두 명 있는데 그 친구들도 현재 진로와 미래가 막막하고 불투명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꺼내 놓기 어렵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서로 심정적으로 의지하고 지지하는 대상이 되어 줌(연구 참여자 9) • 학업중단 이후 형성된 관계로 심리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친구관계를 형성함(연구 참여자 30) • 친구와 친구 어머니의 권유로 컴퓨터 한글 자격증을 취득하고 재미를 느낌(연구 참여자 45) • 오래 만난 여자친구는 생각이 깊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람임. 결혼이나 함께 카페 일을 하는 등 구체적인 미래를 생각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4)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4)	경제적,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한 생활고(2)	• 남자친구와 결혼을 생각하고 동거를 하고 있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막막함(연구 참여자 2) • 아내와의 교제 기간도 짧고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부족하여 부부생활에 갈등이 지속됨(연구 참여자 8) •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가출을 해버리는 등 미숙한 갈등 대처 방식으로 인해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심함(연구 참여자 8) • 결혼 전에 조금 더 아내와 진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야 했다고 생각했으나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거듭 설득하는 아내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심리적 경제적으로 준비가 부족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됨(연구 참여자 8) • 자신의 의견보다는 배우자의 의견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여 진행한 결혼이다 보니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갈등이 심해져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는 아픔을 겪음(연구 참여자 8) • 아내와 갈등이 있을 때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무조건 참고 견디다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결국 불같이 화를 내곤 함(연구 참여자 8) • 아내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할 정도로 부부 갈등이 심하여 별거를 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8) • 진지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준비 없이 시작된 결혼에 대해 불안감이 있으나 자신의 선택이었기에 책임감을 갖고 후회를 하지는 않으려 노력함(연구 참여자 8)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4)	경제적,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한 생활고(2)	- 운송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화물차를 구입하려 모아두었던 자금을 갑작스럽게 결혼 비용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압박에 시달림(연구 참여자 8) - 아내가 임신을 한 이후 오랜 세월동안 피웠던 담배를 끊을 정도로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함(연구 참여자 8)
	관계애착에 대한 욕구로 인한 결혼(3)	- 학업중단 이전에 소중한 친구를 눈앞에서 교통사고로 잃은 후 더 이상은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고 싶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이른 결혼을 결심함 (연구 참여자 11) - 업을 중단해 보고 나서 혼자 있을 때의 외로움을 알기 때문에 원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내곁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결심함(연구 참여자 11) - 고등학교 시절에 알고 지내던 친구와 작년에 결혼하여 이십대 중반에 가정을 꾸림(연구 참여자 8) - 남자친구 집에서 지내다 아이가 생겨 결혼함 (연구 참여자 45)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 (6)	이성관계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을 분리(2)	- 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그와 반대성향의 남자친구를 선택 했지만 결국 부와 비슷한 사람이었음을 확인 후 남자친구와 결혼생각 버림(연구 참여자 22) - 부모로부터 채워져야 될 사랑이 이성관계에서 채우고자 결혼을 서두르는 게 오히려 독이 됨 (연구 참여자 21)
	이성과의 이별에 대한 자책(1)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성친구와 헤어지고 난 후 본인의 부족함으로 인해 헤어졌다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떨어짐 (연구 참여자 6)
	관계 지속 외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2)	- 업무형태, 근무조건 보다 취직을 제안해준 친구의 체면을 중요시하여 취직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7) - 불규칙적인 아르바이트 생활을 그만두고 싶지만 그동안 해온 정이 있어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40)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2)	- 불안정한 가족환경과 애정에 대한 강렬한 욕구의 원인은 안정적인 소속감임(연구 참여자 21) - 성인초기 이성친구관계의 양상은 의존적인 모습을 보이며, 주변 친구들도 비슷한 성향임(연구 참여자 21) - 여자친구, 남자친구에게 매달리는 이유는 그 친구마저 없으면 혼자라는 것을 알기에 외로움과 소속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연구 참여자 21, 27)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심리적, 환경적 절립돌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후 심리적, 환경적 절립돌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을 보고하였다. 또래 관계가 축소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여자친구와 매형, 소수의 친구들 외에는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거나 진학 준비를 위해 의도적으로 친구 관계를 축소시키고 있었다. 또한 과거의 집단따돌림피해경험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 이후 관계 확장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다른 사람들 입에서 제 얘기가 나오는 게 싫어요. 나쁜 얘기든 좋은 얘기든 그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연구 참여자 5)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이후 또래 관계의 단절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또래관계가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염려로 인해 또래들과 덜 어울리게 되면서 서서히 또래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대학 편입과 같은 진학 준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또래 관계를 정리하다보니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 4는 과거 학업중단을 결정하였을 때 또래관계를 걱정하던 부모님의 염려가 일리 있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조금 아쉬운 게 친구들이 같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도 저는 못 가고 애들이 놀자고 술 먹자고 할 때도 저는 못 가요. 다음 날 출근이고 그러면 부담이 되니까 그건 조금 아쉽긴 하죠.” (연구 참여자 6)

또한 학령기 관계 외상을 재경험 하여 또래관계에서 다시 한 번 소외감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5는 재학 당시 집단따돌림을 경험하며 타인과 어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두려움이 시간이 지난 지금도 남아있어 또래관계를 맺는 것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다니고 이런 게 저는 무서워요. 혼자 다니는 게 편해지고 개인 주의적인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연구 참여자 5)

〈또래에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조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였지만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진로를 충분히 고민 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또래와 비교하여 우위에 있는 조건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또래보다 비교우위가 있었고,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또래를 만날 때 자신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또한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또래와 비교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연구 참여자 6은 학업을 지속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지만 구직을 하지 못한 채 게임중독에 빠져있는 또래들을 보며 학업중단이라는 자신의 선택이 옳음을 재확인 할 수 있었음을 밝혔다.

“지금 저랑 동갑내기 사촌 형제 2명을 보면 1명은 군대 전역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일반인 하고 있고 또 1명은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거든요. 일바하면서 컴퓨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전부 다는 아닌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6)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으로 인해 또래문화를 충분히 누릴 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하고 이른 사회인이 됨으로써 또래에 비해 이른 구직활동과 직장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또래관계를 협소화시키기도 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학업중단으로 인해 정규교육과정의 학습경험에서 배제되었고, 또래들이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이해하는 경험에 공감하기 어려울 때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 사람들이 추억 얘기를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검정고시는) 진짜 시험 문제에 대한 것만 배우니까 ...〈중략〉... 이것만 외우면 되니까 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3년간 배울 걸 저희는 시험이 네 달에 한 번이니까 저희는 네 달 만에 배우는 거니까 공감도 못하고 낄 수 없고.” (연구 참여자 10)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소속감으로부터의 박탈감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이유로는 학업 중단으로 인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 또래관계가 협소해졌으며 학교가 아닌 곳에서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구술하였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박탈당했음에서 오는 아쉬움과, 학업을 중단한 자신과 달리 학교생활을 경험하며 또래문화를 즐기는 친구들에 대한 부러움을 밝히기도 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24는 또래와 일상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학교생활에 대한 갈망을 보고하며, 온라인 관계를 경험하는 사이버 대학이 아닌 대면적 관계가 주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대학에 대한 진학 욕구가 있음을 구술하였다.

“저는 대학생살을 하고 싶었는데 사이버 대학을 가면 그거(학교생활)를 못해가지고. 어우러지지는 못해도 그 학교생활 자체가 그리워요.” (연구 참여자 24)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을 중단하여 학교 친구가 부재하게 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12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학창시절이라는 공유된 경험을 나눌 때 본인이 끼어들 수 없음을 깨달았으며, 학업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인간관계를 더 오랜 시간동안 경험했을 것이라고 구술하였다. 연구 참여자 14 또한 이른 나이의 학업중단으로 인해 더 많은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을 후회한다고 보고하였다.

“고등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친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놓을 걸 그런 생각... 학교 안 다닌 게 후회되죠. 중학교 때 친했던 몇몇 애들하고만 연락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을 잘 안하니까... 중학교 때 친구들 만나보면 부럽죠. 친구가 그래도 저보다는 많으니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애들...편하게 얘기하고..(저한테는 없잖아요).”
(연구 참여자 14)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관계욕구의 지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생계 해결이 우선이라 관계욕구가 지연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학업중단 이후 삶을 유지함에 있어 생계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정서적 관계의 가치를 경시하게 되었음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유대감은 돈과 직장처럼 실질적으로 삶에 도움을 주지 않기에 또래관계가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다는 보고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음에도 취업이 시급해짐에 따라 또래관계에 소속되는 것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보고가 있었다.

“초기에는 대학교 와서 학생회로 하고 이것저것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좋고 그때는 소속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소속감이 싫어요. 약간. (중략)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될 때 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런 소속감이 싫은 것 같기도 하고.” (연구 참여자4)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또래관계에서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을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소극적인 관계 태도를 보고하였는데, 대인관계에서 관계 형성을 주도하기보다는 상대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관계를 맺고 유지함에 어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기에 대인관계 장면에서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하기 보다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구직 시 적극적인 대인관계를 요구하는 직장이 아닌, 혼자만의 시간이 확보되는 직장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제가 정이 많아서 오면 좋아한다고 하면 처음에 안 믿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저한테 하는 행동을 하면 좋은 행동들을 하면 거기 또 끌려서 만나게 돼요.”(연구 참여자6)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경험이 부재하여 대인관계를 확장하고 싶지만 그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업중단 결정 시 또래관계에 대한 부모님의 염려가 일리 있었음을 최근에 깨달았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 9는 학업중단 이후 또래관계가 사회적으로 확장되지 못함에 따라 학업중단 이전에 형성한 극소수의 관계 내에서만 심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그 친구 말고 새로운 사람이 만나고 싶은데 어디 가서 만나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학원도 낮가림이 많이 심해서 많이 얘기도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사귀지? 어색해요.”(연구 참여자3)

〈관계양상의 다각화〉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다각화된 관계양상을 보고하였다. 특히 불안정한 가족환경에서 성장한 연구 참여자들 중 일부는 안정적인 소속감과 애정에 대한 욕구로 인해 이성관계에 집착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이들은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외로움과 소속감을 해결하기 위해 이성친구에게 매달리게 된다고 구술하였다. 반면 연구 참여자 4는 이성친구 뿐만 아니라 또래와도 일상을 공유하고 어려움을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작년에는 정말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 친구가 아니면 있을 곳이 없는 그런..” (연구 참여자 27)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른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경험하면서 실리적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었다. 직장생활을 통해 형성된 인맥은 이해타산이 맞는 관계가 중심이 되었으며 이에 편안함을 느끼게 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어긋난 관계는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고 구술하기도 하였다.

“회사 사람들하고도 어쨌든 봐야 되니까. 그렇게 친해지고 싶은 사람도 사실 없고.”
(연구 참여자 22)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지지적인 관계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 27은 여자친구의 무조건적 지지와 공감으로 자신이 무너지지 않고 편안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이전에 형성된 또래관계를 유지해오며 심리적인 지지와 안정감을 경험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여자친구가 많이 붙잡아주고. 그나마 현재 유일하게 저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중간생략) 공감을 많이 해주고 오히려 저보다 더 몰입을 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화내주다 보니까 마음이 더 그런 것(편안해진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7)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을 생각하거나 실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이른 결혼을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는데, 연구 참여자 11은 학업중단 이전에 소중한 이의 상실을 경험한 후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는 생각과, 학업중단 이후에 경험한 외로움으로 이른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참여자 8은 이십대 중반에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실제 가정을 꾸렸음을 밝히기도 하였다.

“제가 결혼을 좀 더 빨리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그런 과정이 너무 싫어서 물론 그 친구 뒤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난 거지만 그런 과정이 싫어요.” (연구 참여자 11)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이른 결혼생활을 하고 있거나 결혼을 염두에 둔 동거를 하는 청소년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밝혔다. 결혼을 생각하고 동거를 하고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가 막막함을 보고하거나 실제 결혼을 한 이후에도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구술하였다. 특히 연구 참여자 8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심리적 준비가 미비했던 결혼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구술하였다. 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또한 미숙하여 부부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내가 유산을 하게 되는 등의 아픔을 겪기도 하였다. 현재에는 미숙한 갈등대처 방식으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어 별거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압박에도 시달리고 있음을 밝혔다.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아니 계속 만나 보다 하려고 했는데 일단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해서 결혼식 잡았는데, 그때 애기도 있었는데 유산되고 아내가 계속 가출을 하니깐 찾으러 다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중략〉…와이프랑 성격이 안 맞아요. 저는 먼저 화를 내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내가 화를 잘내니까, 제가 화를 10번 참으면 1번 터질 때 많이 내서 제가 봐도 심한 게 주체가 안 돼요, 열 받아서. 아내는 짜증나서 하는 말인데 그 말에 저는 눈이 돌아가고 싸우니까…〈중략〉…그때 아내가 아기 가져서 투잡하는데 집 사고 돈 다 날라가서. 돈이 수중에 없어서 다시 모으려고. 밤일 하고 낮일 하고 밤에 알바하고 낮에 알바 하고…….” (연구 참여자 8)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대인관계 양상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이성관계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을 분리하게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불성실했던 부의 모습과

반대되는 이성과 교제하였지만 상대가 부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 결혼 생각을 버리게 되거나, 가정에서 채워지지 못한 사랑을 충족시키고자 이성관계에 매달리고 결혼을 서둘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음을 깨달았다는 구술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자 6은 안정적인 교제를 통해 결혼까지 생각했던 이성과의 이별을 한 후, 자책을 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안될 것 같아요.(오래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빠 냄새가 나서. 그 사람이 좀 무단결근을 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2)

연구 참여자 7은 업무 형태나 근무조건, 자신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일자리를 소개해 준 친구의 체면만을 생각하는 등, 친구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하게 되었음을 구술하였다. 또한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애정에 대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이성관계에 대한 집착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들은 가정이나 또래관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외로움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해결하고자 의존적인 이성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집착하게 됨을 보고하였다.

“어렸을 때도 그랬고 제가 의지할 곳이 가정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고 싶은게 가장 크니까 의지를 친구보다는 남자친구한테 했었고.” (연구 참여자 13)

라. (학령기 이후) 학교와의 관계

학령기 이후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속감의 회복, 대학에서의 부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학교에 대한 소회,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표 III-15 (학령기 이후) 학교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소속감의 회복 (2)	대학생활을 통한 관계형성(2)	- 고등학교 때에는 친구들과 공감대가 맞지 않아 같이 못 어울렸지만, 대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는 잘 맞아 무난하고 재미있게 지냄(연구 참여자 18) - 대학에서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소통 역량을 높여줌(연구 참여자 22)
대학에서의 부적응 (4)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의 연장(4)	- 대학원 진학의 꿈이 현실적으로 연구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됨(연구 참여자 22) - 대학 입학이후 기초과목을 따라가기 힘든 현실(연구 참여자 22) - 실습하는 병원에서 친하지 않는 동료, 간호사, 환자들과의 관계에서 마찰로 스트레스 받고 울기도 함(연구 참여자 38) - 원하는 대학이 아니었고, 교육과정도 실망스러웠음(연구 참여자 41) - 다녔던 고등학교가 기술교육 중심이었고,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학에서 학업을 따라가기가 무척 어려웠음. '대학'졸업만 하자'는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생활하였음(연구 참여자 34)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4)	대학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지원(1)	청년수당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해결함(연구 참여자 22)
	멘토가 되어준 지도교수(3)	- 전공심화과정 야간으로 배정해준 교수님 도움으로 학교 생활은 좋은 편이었음(연구 참여자 21) - 지도교수와의 면담이 대학을 자퇴하고자 하는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됨(연구 참여자 22) - 사회생활 이후 대학교를 한번 씩 찾아가는 것이 친정집에 가는 것처럼 여겨짐(연구 참여자 22) - 대학 진학 후 대학 수준이 높지 않아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교수님이 잘 대해 주셔서 대학생활은 만족스러움. 교수님과 거의 1주일에 1번씩 만나 영어공부와 비전얘기, 힘들 땀 속내도 이야기 나누며 친분을 쌓음(연구 참여자 9) - 대학에서 친하게 지내는 교수님의 가정사가 좋지 않았고 부모님이 마약을 하시는 등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음(연구 참여자 9)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4)	진로결정을 위한 전공선택의 기회(3)	• 사회복지과에서 세무회계 심화과정으로 이동하여, 학교생활 중 자격증 취득함(연구 참여자 21) • 학업중단의 결손이 대학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학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됨(연구 참여자 22) • 학점 관리를 잘 하여 교직을 이수를 통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44)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5)	진로 정보 제공(1)	• 직장 정보취득 및 준비 등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함(연구 참여자 21) • 대학입학 4년 만에 공백없이 취업처 정한 후 바로 취업(연구 참여자 21)
	취업을 위한 자원의 활용(5)	• 정보취득은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보고, 공부는 인강으로 하는 등 주변자원 활용하여 대안을 탐색하여 진로유지함(연구 참여자 21, 22) •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활용하여 직장생활에서 전문성의 중요성을 알고 자격증 등을 취득하여 실제생활에 적용(연구 참여자 21) • 흥미와 적성에 맞춰 입학한 게임학교에서 게임구현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기 위해 다양한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연구 참여자 1) • 고교졸업장의 유무일 뿐 미취득으로 인해 특별한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음(연구 참여자 30) • 1년 국비자원이 되는 폴리텍 대학에서 전기기술을 교육받고 전기기술 분야에서 일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47)
학교에 대한 소회 (13)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학교(5)	• 뒤돌아보았을 때 학교를 생각하면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16, 37) • 사회에서 일하다보니 고등학교를 계속 다녔다면 인간관계는 도움이 되었을 것(연구 참여자 14) • 만약 내 자식이 자퇴를 한다고 하면 공부는 안 해도 되니까 학교 가서 친구들이랑 놀다오라고 말하고 싶음(연구 참여자 14) •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고 싶음(연구 참여자 17) • 공부는 하기 싫지만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더 놀 수 있는 공간임을 인정함(연구 참여자 45)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에 대한 소회 (13)	학생으로써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학교(4)	• 수업도 듣고, 대인관계도 경험하고, 고민상담도 할 수 있는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음(연구 참여자 17) • 학교 밖 생활을 통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왔었던 학교의 경험과 그 속에서의 생활들이 다 의미가 있고 학생에게 혜택이었음을 알게 됨(연구 참여자 17) • 가정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오롯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주어짐(연구 참여자 30) • 예쁜 교복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학창시절만의 특권이라 여김(연구 참여자 38) • 학교는 교육, 음식(급식), 규칙적인 생활과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화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업중단으로 인하여 우수하고, 효율적 공교육에 대한 특권을 상실하여 안타까움(연구 참여자 36)
	학력사회의 요건이 되는 학교(3)	•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 대학졸업장이 필요하여 대학진학을 고민함(연구 참여자 19) • 일시적인 어려움이나 힘들기는 하나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이라면 학업을 중단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것을 권하고 싶음(연구 참여자 30) • 지금은 학교중단에 대해 후회하진 않지만, 나이가 좀 더 들어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35)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4)	• 면접을 볼 때마다 검정고시출신임을 물어오며 따라 학교를 그만둔 건 후회하지 않지만, 야간대라도 다녀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됨(연구 참여자 13) •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생활에서 일일이 설명해야 됨(연구 참여자 21) • 정상적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 자타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음(연구 참여자 21) • 결혼 전 상대방 부모의 학업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에 대해 걱정됨(연구 참여자 30) • 전문직 분야에 들어서니 지방대 출신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듦(연구 참여자 41)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 (9)	자기삶 찾기의 계기가 된 학교중단(5)	•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없으며 학업을 중단해도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의 삶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함(연구 참여자 6)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 (9)	자기삶 찾기의 계기가 된 학교중단(5)	• 학업중단 의미는 지금의 당당한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으로 긍정적(연구 참여자 21) • 어이없이 가게 된 복교학교에서 우수한 성적 취득이 대학 진로 선택에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포기하지 않고 대학생활 지속(연구 참여자 38) • 하고 싶은 것이 명확한 상태에서 학업중단을 하였기에 학업중단 선택이 좋았다고 회고함(연구 참여자 47) • 형이나 주변 친구들은 고등학교 과정 다 밟아서야 대학을 가는 데, 나는 검정고시 잘 본 것 하나로 4년제 대학을 갈 수 있게 되어 운이 좋았다고 느낌(연구 참여자 34) • 중단했던 고등학교를 계속 다녀도 진학한 대학을 가기 힘들었을 것이고, 당시 친구들과 계속 어울렸을 것이므로 오히려 나온 것이 긍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음(연구 참여자 34)
	적극적 미래설계를 고민하게 한 학교중단(3)	• 학업중단 이후 어른스러워진 점은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과 배려(연구 참여자 21) • 학업중단은 대학을 갈 수 있게 한 계기이자 결정이었음(연구 참여자 12) • 인생의 전환점이자 나의 꿈을 스스로 설계하여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학업중단경험(연구 참여자 17)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학교중단(3)	• 자퇴 이후 대화 상대가 경청을 하는 등 환경적으로 편안함이 제공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함(연구 참여자 21) • 학업중단을 하는 사람 중 소수의 사람만이 의지를 가지고 성공하므로,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면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학교를 다니는 것이 개인의 삶에 큰 도움이 됨(연구 참여자 36) • 학업 중단을 한 것이 자신의 끈기가 부족하여서라고 생각이 되어 힘든 일이 있을 때면 또다시 포기하지 말자고 자신을 북돋음(연구 참여자 37)

〈소속감의 회복〉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학령기 학교에 대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지만 대학과 취업 준비의 실질적 측면을 주로 보고하였다. 먼저 소속감의 회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와 다른 공감대 형성으로 대학교 친구들과 잘 지내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소통하고 역량을 키우는 대학생활을 통한 관계형성을 구술하였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안 맞았죠. 화장하고, 대학교 친구들한테는 편하게 말할 수 있죠. 개그 코드도 잘 맞고, 안 웃기면 재미없다고.. 하하.. 대학교 동아리 사람들 외에는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지만.... (연구 참여자 18)

〈대학에서의 부적응〉

대학에서의 부적응도 보고하였는데 대학원 진학의 좌절, 대학에서 기초과목을 따라가기 힘든 현실을 구술하며 대학생활이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보고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처음에 입학할 때 전자과인데 고등학교 공부를 고등학교 1학년 중반까지 했었잖아요. 뒷부분을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순수하게 검정고시 성적으로 대학교를 간 케이스라서 수학 같은 경우 따라 가기 힘들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22)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를 잘 활용한 측면도 보고되었다. 청년수당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다는 사회경제적 지원에 대한 구술이 있었고, 전공심화과정의 야간배정, 지도교수와의 면담, 친정집 같은 느낌의 대학, 교수님의 친절함과 친분, 친한 교수님과의 공감대 형성 등 멘토가 되어준 지도교수에 대해 구술하였다. 학교생활 중 자격증 취득과 학업 유지 제도 활용하는 진로결정을 위한 전공선택의 기회 부분도 구술하였다.

“학교생활은 글썄요. 학교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고 속된 말로 레벨이 낮은 편이고 밖에서 시선도 그렇게 좋지 않고 어디 가서 이 학교 다닌다는 말은 못하고 근데 교수님은 되게 좋게 해주시고 거의 일주일에 1번씩 보고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서 영어공부하고 앞으로 비전 얘기도 하고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는 것 같아서” (연구 참여자 9)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본격적인 사회 진출 시기이므로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대한 측면도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학을 4년 만에 다니며 공백 없이 바로 취업을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진로 정보 제공, 인터넷이나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거나 인턴·아르바이트 경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영역에 참여하는 활동들을 하며 취업을 위한 자원 활용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졸업하기 전에 취업을 해놓고 졸업하고 취업에 바로 들어갔죠. (중략)저희 학교 자체가 주간이 1, 2학년이 있고 따로 전공심화과정이라고 야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공부는 계속 하고 싶어서 2년 더 하고 싶어서 거기로 들어갔어요. 야간으로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연구 참여자 21)

〈학교에 대한 소회〉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학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학령기 시절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대학 진학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새롭게 바라보게 된 듯하다. 학교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이며, 고등학교에 계속 다녔으면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었을 것, 내 자식에게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강조할 것, 돈으로 살 수 없는 친구들과의 추억을 쌓고 싶음 등을 구술하며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장으로서 학교의 중요성을 보고하였다. 다른 한 연구 참여자는 학교가 수업, 대인관계, 고민 상담 등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임을 알게 되었다며 학교 내의 경험과 그 속의 생활이 모두 의미 있고 혜택이었음을 구술하며 학생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서 학교를 표현하였다. 또 다른 연구 참여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하나의 요건으로서 학교에 대한 의미를 구술하기도 하였다. 이밖에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면접 때마다 검정고시 출신인지를 묻는 현실에 야간대라도 다녀야 하나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중단 이유를 매번 설명해야 하는 등 정상으로 간주되는 환경에서 벗어나 있는 것에 대해 자타가 느끼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구술하였다.

“친구관계, 이제 남들 다 수학여행가고 고등학교 생활을 할 때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많이 만난다고 하는데 저는 중간에 그만 뒤서 친구관계가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모이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저는 중학교 친구들만 남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가장 고민이 됐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그런 자신감으로 학교를 그만 두고.” (연구 참여자 21)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

학업중단 자체에 대한 소회 내용도 보고되었다. 인상적인 언급으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그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성공적 삶을 살 수 있음을 본인의 삶으로 증명했다는 연구 참여자가 있었다. 유사하게 학업중단은 지금의 당당한 나를 만들어준 원동력이며, 자신의 삶을 찾게 해준 중요한 계기라는 의미를 부여한 연구 참여자도 있었다. 또한 미래에 대한 생각과 배려, 대학진학의 계기, 인생의 전환점이자 자신의 꿈에 대한 설계 계기가 되는 등 학업중단이 적극적으로 미래설계를 고민하게 한 경험이었다고 소회하였다. 다른 한 연구 참여자는 자퇴 이후 환경적 편안함을 느껴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며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계기로서 학업중단을 구술하기도 하였다.

“다른 친구들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아직 다니고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전역하고 친구들은 다시 다니고 여자들은 취업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저는 취업이 된 상태고 몇년만 더 있으면 매니저 사장이 되는 거니까 따져보면 저는 진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학교가 전부인 아닌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마.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로는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멘토의 지지,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사회생활에서의 적응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5)	후기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센터 지원의 한계(4)	- 가장으로서 필요로 하는 자원과 청소년센터에서 지원 하는 내용 간 괴리가 있음(연구 참여자 25) - 현재 살고있는 지역이 외딴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함(연구 참여자 31) - 애초에 도움 받을 청소년센터의 지원을 알지 못했고 도움 받은 적도 없음(연구 참여자 45) - 무료 교육 제공 기관의 교육은 인원이 많아 날림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개인의 능력이나 학습속도를 배려하지 않고 진도만 나가는 것 같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음(연구 참여자35)
	직업학교에서의 교육과 취업간의 괴리(2)	- 직업학교에서 이수한 자격과정과 현실에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 간 차이가 있음(연구 참여자 25) - 무료 교육기관들의 교육 내용이 상세하지 않아 선택에 어려움이 있고, 마치면 당연히 취업이 된다고 안내하는 것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대홍보인 것 같음 (연구 참여자35)
	제한적인 취업조건(1)	진로성향과 현실에서 구직 가능한 직업 간 격차가 많음 (연구 참여자 25)
	열악한 근무환경(2)	- 열악한 근무환경과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급여로 퇴사를 결정하게 됨(연구 참여자 25) - 현재 프랜차이즈 매장의 주방에서 일을 하여 체력적으로 힘들고 본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을 느낌(연구 참여자 24)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1)	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유대감 충족(1)	학교 밖 청소년 인권 및 정책옹호 단체인 홈스쿨링 생활백서와 세학자(세상이 학교인 자퇴생들의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속감과 유대감을 느낌(연구 참여자 24)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1)	청소년 단체를 통한 또래와의 교류(1)	• 학업중단 후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소모임과 단체 활동을 통해 관계를 맺어나감(연구 참여자 24)
	온라인 관계(1)	• 학업중단 후 sns를 통해 전국적 관계망을 맺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음.(연구 참여자 24) • 새학자를 통해 대학 진학에 대한 정보를 접함(연구 참여자 24)
멘토의 지지(2)	멘토의 도움(2)	•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인정해 주고 삶의 지혜를 알려주며, 본인을 인간적으로 존중해주는 대표님이 있어 현재 소속된 단체에 대한 애정이 큼.(연구 참여자 24) • 학교나 정식 학원을 통하여 실무능력을 쌓기보다는 실제 작업 현장의 작업동료나 선배들에게 직접적으로 기술을 보고 배우고 익힘(연구 참여자 8)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5)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선호(4)	• 급여수준이나 급여체계 상승 여부 등 급여가 나의 기준에 타당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회사의 안정성이 있는가 등이 직장선택과 유지 기준이 됨(연구 참여자 21, 22) • 안정성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할머니 의견이 장래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침(연구 참여자 21) • 공기업이라는 안정성에 대한 나의 기준이 취업 이후 확실해짐(연구 참여자 22) • 보안업체는 젊은 시절만 할 수 있으므로 자격증 자격증을 따서 장기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직장을 위한 준비(연구 참여자 42) • 부모님의 영향이 컸지만 교직이 안정적 생활임을 인정하기에 3년 동안은 임용시험에 도전하기로 함(연구 참여자 44)
	퇴근 후 삶이 있는 근무환경 선호(1)	• 초과근무로 당일 마무리하지 못할 업무를 지속적 야근으로 이어나가는 조직문화가 맞지 않음(연구 참여자 22) • 회사에서 내가 설정한 기준 이상의 초과근무, 야근 등 부당한 요구가 올 때 전직을 생각함(연구 참여자 22)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 행동(3)	• IT계열이 변화에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만큼 이직 결정도 빠르게 이루어짐 (연구 참여자 22) • 더 나은 이직을 위해 평생학습 차원에서 자격증 과정과 학원 수강이 요구됨(연구 참여자 22)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5)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 행동(3)	•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좋은 사람과 좋은 환경이 주는 이점을 파악하고 직장을 선택함(연구 참여자 21) • 지방대 학력을 극복하기 위해 토익을 공부하며 편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학원 진학도 생각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41)
사회생활에서의 적응(5)	직장생활에서의 적정한 경계 설정(2)	• 직장동료들과의 적절한 관계설정을 회사 자리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감(연구 참여자 22) • 회사에서 동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자리에서 밑바닥을 보지 않는 게 낫다고 여김(연구 참여자 22) •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은 하지만 그 이상을 하지는 않음으로써 욕먹지 않을 정도의 관계거리 유지(연구 참여자 22) • 회사에서 말을 할수록 실수가 많아져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직원들에게 거의 말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하면서 의사소통 함(연구 참여자 34) • 사적인 관계에서는 나와 맞지 않을 때 관계를 끊을 수 있지만, 회사 사람들은 보기 싫어도 봐야하니까 불쾌하거나 무례해도 웃으면서 넘겨야 함(연구 참여자 34)
	직장 적응을 위한 마음가짐(2)	• 직장생활에 대한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 주변 자원을 활용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언급함(연구 참여자 21) • 사장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회사 분위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게 됨(연구 참여자 34) • 회사 직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등의 이야기를 해도 잘 지내기 위해서 웃어넘기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4)
	지지적인 직장동료(2)	• 현장 경력을 쌓다보니 연구 참여자 보다 10~20세 정도 위의 연령대인 동료들과 어울리다보니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음주)을 답습하게 됨(연구 참여자 8) • 직장 내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직장동료와의 친목을 통해 해결함(연구 참여자 8) • 직장 내 다른 사람들과 공통적인 관심사나 업무를 기회로 쉽게 친해지며 갈등 경험이 없는 편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연구 참여자 35)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현실의 격차〉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시점 이후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은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청소년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에서 지역사회 지원을 받은 청소년의 경우, 취업과 관련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학교에서의 일자리 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자격증이 취업 시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교육프로그램과 취업 간 괴리를 보고하였다. 또한 학업중단시점 이후 지역사회 지원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와 체력적으로 강인할 것을 요구하는 열악한 업무환경에 대한 정보 미제공문제를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업중단시점 이후 지역사회 지원을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지원프로그램이 주로 진로와 취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성되어 생계유지를 해야 하는 가장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과는 간극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직업학교 견학 같은 걸 간 적이 있어요. 체험 학습으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다른 직업학교 학생들이 만들어주는 커피를 보고 저거 재밌겠다. (중략)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직업학교로 빠져서 그쪽 학교를 다니게 됐던 거죠. (중략)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자소서를 쓰면 검토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 건 나름대로 위탁기관을 다녔기 때문에 취업 준비에 대한 건 일반 학교 보다는) 훨씬 잘 됐던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5)

“동네 카페 알바를 약 한 달 정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네 카페라서 저 혼자 해야 되고 근데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는 있고 되게 정신없고 한 번 만들다가 실수하면 그 뒤로 주문이 짹 밀려서 이게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맞나? 내가 생각했던 바리스타와 많이 다른 거예요.” (연구 참여자 25)

“저희는 그와 다르게 역량을 개발하고 싶고 나 스스로 개발하고 싶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의 자본. 자본이 제일 필요하니까. 근데 그 자본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의 힘을 빌리더라도 나 스스로가 벌어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회의감? 내가 어떻게 까지 벌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스스로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많고, 그 번 돈 자체도 쓰는 것도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돈도 저와 비슷하게 부모님을 드리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번 돈을 놓고 싶은데 못 쓰는 경우도 많고 자기가 번 돈을 아예 노는 데 다 쓰는 경우도 많고, 조금 그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경제가 무너뜨리거든요.” (연구 참여자 24)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 및 정책 옹호를 위한 단체인 ‘홈스쿨링 생활백서와 세학자’와 같은 단체에 참여하면서 학교라는 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 사회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나와 비슷한 상황의 친구들이라는 유대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학생이 아닌 상황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 학생만이 참여 가능한 모임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소모임이나 단체 활동이 소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ns를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인관계, 심리적 안정 뿐 아니라 진로 및 진학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네트워크는 학업중단청소년에게 소속감과 안정감을 동시에 해결해주어, 이후 안정된 상태에서 정보교환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똑같이 외로워 보이고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딱 그게 보이더라고요. (중략).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에서 진행하는 졸업식이 있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진짜 졸업식의 느낌을 내보자.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이 말씀하셔서 투입이 됐었어요.” (연구 참여자 24)

〈멘토의 지지〉

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지원 프로그램 중 멘토와의 만남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생활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잘하기는

어렵다고 알려주는 멘토와의 교류를 통해 사회생활의 시행착오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시행착오를 인정해주는 멘토의 모습으로 통해 진로를 찾고, 취업을 하는 순간순간의 시행착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학습하게 되었다. 이런 태도의 학습은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동기와 삶의 지혜를 주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간적으로 존중을 받는 경험을 통하여 가족에게서도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가지게 되는 등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것이 사회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맥락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배울 때에도 실제 작업 현장의 작업동료나 선배들의 기술을 직접 보고, 배우고, 익히는 것이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형식적 취업 프로그램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저희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팀원들 모두를 다 챙겨주세요. 다 챙겨주시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개인톡으로 어디가 아프세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아프면 일 안해도 되니까 다 낫고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쉬어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알바 같은 거를 하다 보면 몸이 많이 안좋아지잖아요. 무리하고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 이런 알바는 단순한 것뿐이지 건강은 계속. 아픈 거는 계속 가니까. 대표님 말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만 두는 거를 추천한다. 그렇지만 선택은 너의 몫이다 이거죠.”(연구 참여자 24)

“용기도 주시고 절대 일을 못한다고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처음이니까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하다 보면 다른 분들처럼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식으로 말씀해주시니까 더 좋더라고요.”(연구 참여자 24)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위하여 직장의 급여수준 또는 급여체계 상승 여부, 장래성이 직장선택과 유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참여자들의 모습은 가족관계에서의 불안정성 등과 학업중단이라는 주변의 부정적 시선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과근무나 지속적인 야근 등을 요구하는 직장보다 평생학습을 하더라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치가 있는 직장이나 직무분야로 진로를 결정하고 싶어 했다. 예를 들어, IT계열 등과 같이 변화가 빠른 곳은 불안정하므로, 공기업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연구 참여자들은 안정적인 업무환경과 좋은 복지혜택 등의 이점을 가진 직장을 구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진로를 결정하려는 모습을 드러냈다.

“뭘 해도 시작하기에 안 늦은 나이라서 더 공부하고 싶고 주변 환경이 갖춰진다면 그 할머니도 그렇게 집에서 계속 저한테 공무원 준비를 하라고 그러셨어요.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하고 싶은 물론 제가 하고 싶은 적성은 찾았지만 정말 해보고 싶은 건 안 해보는 느낌인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1)

“잘 가르쳐 주시고 저희 세무사님이 되게 좋아서 흔히 말하는 곧대짓 하는 걸 안 좋아하세요. 저한테도 나중에 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서 사회생활 하면 주변 취업한 친구들도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 때문에 일 가르쳐 주는 매니저가 그렇다고 친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좀 괜찮아서 어려움을 안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21)

“급여 보다는 되게 안 좋은 건데 발전 없이 살고 싶어요. 공기업 같이 고여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중략) 회사가 망하지 않는 안 잘리는 곳이나 아예 급여가 높은 업체 잘릴지 모르더라도 둘 중에 하나는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연구 참여자 22)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인의 태도로서 우선 동료와 적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의 적정선을 넘는 경우 이후 사회생활이 불편해진다는 것을 회식자리 등 경험을 통하여 습득하였고, 동료관계 유지를 위하여 회식자리에서 밑바닥을 보이지 않게 행동한다고 보고하였다. 동시에 사회

에서 관계유지나 인정을 받기 위해 지나치게 애쓰기 보다 자신의 역량 내에서 노력을 하자고 결심을 한 경우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직장생활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이후 직장생활에서 태도와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주변자원을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거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워 적용을 하기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개인의 상황이나 역량에 따라 실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사회인으로서 적절한 타협을 시도하며 사회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고하였다. 또한 사회생활 적응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자신의 행동 기준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회에 적응적인 연구 참여자들은 직업프로그램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좌절하고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는 연구 참여자들과는 차별성을 보였다. 사회인으로 잘 적응하며 지내는 연구 참여자들은 실천에서 부딪히면서 현실과 적절히 타협하는 방법을 배웠으며, 이를 통하여 사회생활에서 시행착오를 인식하고, 인정하며 수용을 함으로써 지속적인 직장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냥 딱 생각했을 때 욕만 안 나오는 사람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은데. (중략) 어떻게 해도 욕은 먹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때는 받아들이고?) 어찌겠어요. 가서 먹살을 잡을 수도 없고., (중략) 수용하면 관계가 지속되는 거고 그런 거죠.”

(연구 참여자 22)

4) 학업 중단의 근본적 원인과 촉발 원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의 근본 원인과 촉발 원인을 살펴보면, <표 16>, <표 17>과 같다. 먼저 근본 원인으로는 또래관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상, 가정불화, 학업에 대한 흥미 없음, 학교 규칙 위반, 부상, 원하지 않는 학교, 희망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함으로 나타났다. 또한 촉발 원인은 원하지 않는 학교, 학교생활 부적응, 자퇴 권유받음,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 학교 규율 위반, 심리적 외상, 친구와의 갈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임교사로 보고되었다.

표 III-17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근본 원인

하위범주	의미단위
또래관계 문제 (12)	• 천편일률적인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친구들과 원만한 또래 관계를 맺지 못함(연구 참여자 1) • 페루에서 생활하다 한국으로 입국하여 한국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학교를 다니지 않음(연구 참여자 3) •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된 집단따돌림이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까지 지속되어 벗어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5) • 건강 문제로 학교를 중단했다가 복교 했으나 학교에서 자신보다 한 살 어린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9) •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왕따 등)으로 틱 장애를 얻게 되면서 학업 및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됨(연구 참여자 12) • 또래 친구들보다 먼저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선제적 결정을 내려 인문계가 아닌 공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하였는데, 공업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또래 문화에 이질감을 느끼고 자퇴하게 됨(연구 참여자 18) • 또래 관계 중 특히 동성관계에서의 불편함(연구 참여자 22) • 부모의 직업상 잦은 이사로 인해 또래 적응의 어려움(연구 참여자 24) • 또래 관계 중 특히 이성관계에서의 불편함(연구 참여자 29) •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배신감을 느꼈고 소외감과 고립감을 견디지 못해 학업 중단을 선택함(연구 참여자 30) • 중학교부터 이어진 따돌림 문제가 지속됨(연구 참여자 36) •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32)
경제적 어려움 (4)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취업 요구(연구 참여자 23, 25) •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의미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사회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어 학교를 그만둠(연구 참여자 6) • 사춘기가 찾아온 중학교 1학년 때 자신이 반대한 재혼을 아버지가 하셨는데 이후 새어머니에게 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등 가정문제가 있었고, 이후에 아버지와 둘이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연구 참여자 19)
심리적 외상 (3)	• 어머니의 자살로 인한 심리적 충격(연구 참여자 10) • 친한 친구와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삶의 회의를 경험함(연구 참여자 11) • 중학생 때 사춘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음.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13)

하위범주	의미단위
가정불화(4)	• 부모의 불화로 인한 심리적 갈등(연구 참여자 21) • 부와의 심리적 갈등(연구 참여자 27) •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함(연구 참여자 16) • 모와의 불안정 애착관계로 인해 자퇴를 하고 치료를 통한 관계 회복을 원함(연구 참여자 41)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음(10)	•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위주의 학교에 흥미가 사라지고 사회에서 쓸모 있는 것들을 배우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고등학교를 자퇴함(연구 참여자 14) • 태만한 성향이 있어 규칙적인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연구 참여자의 기대만큼 학업성취를 이루지 못함(연구 참여자 2) • 하고 싶은 것은 꼭 해야만 하는 성격인데, 학업 중단 당시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노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놀기 위해 학교를 자퇴함(연구 참여자 20) • 이론만 가르치는 학교가 재미가 없음(연구 참여자 42) •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는 것이 싫었으며, 놀거나 쉴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필요했음(연구 참여자 31, 37) • 학교가 멀었으며 하고자 하는 공부와 교과중심의 학교 공부가 맞지 않아 학교를 다니는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연구 참여자 33) • 학업에 대한 흥미가 없어 이전부터 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에 교사의 자퇴권유를 받아들임(연구 참여자 40) •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고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잘 가지 않았고, 2학년 1학기 때 출석미달로 자퇴권고를 받아 학교를 중단함(연구 참여자 34) • 중학교 때부터 공부에 흥미가 없었고, 정해진 시간동안 학교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감을 많이 느낌(연구 참여자 35)
학교 규칙 위반 (3)	• 학교 규칙을 자주 위반하여 벌점이 한계점을 초과하게 되어서 학교로부터 자퇴처분을 받고 학교를 그만둠(연구 참여자 8) • 학교부적응 행동으로 인해 벌점이 초과됨(연구 참여자 28) • 장기결석으로 선도위원회 조치로 받은 사회봉사조차도 이행하지 않아 수업일수가 부족하게 되는 상황이 됨(연구 참여자 45)
부상(2)	• 부상으로 인한 운동선수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면서 학교를 그만둠(연구 참여자 1) • 엘리트 교육을 받는 전도유망한 축구선수였으나 갑자기 부상을 당함(연구 참여자 17)
원하지 않은 학교 (7)	•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후, 불량스러운 선배들과 불건전한 모습이 자주 보이는 학교 분위기, 연구 참여자가 배우고 싶었던 내용과 수준에 못 미치는 학교교육 과정에 실망하여 학교를 자퇴함(연구 참여자 7)

하위범주	의미단위
원하지 않은 학교 (7)	- 인라인스케이트 선수를 희망하여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을 희망했지만 자신의 의사와는 달리 어머니의 뜻대로 공업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됨 (연구 참여자 15) - 국비유학 준비로 인해 실업계 진학 후 자퇴함(연구 참여자 26) - 예쁜 교복만 보고 간 학교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학업을 중단함 (연구 참여자 38) - 적성과 맞지 않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어 학업중단을 선택함 (연구 참여자 43) - 신설이었던 중학교 때와 달리 노후 된 고등학교 시설과 먼 거리,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또래들을 보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음(연구 참여자 39) - 대학 진학과 성적만으로 학생을 대하는 학교가 싫었음(연구 참여자 44)
희망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2)	- 경찰공무원을 희망하던 연구 참여자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도 고등학교 학력검정고시를 합격하면 경찰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고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4) -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자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47)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표 III-18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 촉발 계기

하위범주	의미단위
원하지 않은 학교(7)	- 고등학교 진학 문제를 두고 부모님께서 직업전문학교로 진학을 결정함 (연구 참여자 12) -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으나 담임교사의 결정으로 인문계 고교를 진학 하게 되면서 학업위주의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에 거부감이 듦(연구 참여자 13) - 정보 특성화 고등학교 2학년 진학 때, 취업반과 진학반이 통합되어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없을 바에는 취직을 하여 경력을 쌓는 것이 이롭겠다 생각되어 자퇴함(연구 참여자 2) - 취업을 위해 중졸 후 직업학교로 진학하게 됨(연구 참여자 23, 25) - 굳이 학교에 꼭 다녀야 할 필요성을 못느낌(연구 참여자 32) - 원하던 고등학교가 아닌 교사의 추천으로 진학한 학교가 여러 점에서 맞지 않아 자퇴를 생각하게 됨(연구 참여자 35)
학교 생활 부정적응(4)	- 가출과 비행행동으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못 함(연구 참여자 21, 27) - 중학교 진학 후 초등학교와 달라진 학교수업과 분위기(연구 참여자 29) - 예쁜 교복만 보고 간 학교가 분위기가 좋지 않아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38)

하위범주	의미단위
자퇴를 권유받음 (6)	• 체육부장교사가 운동선수 T/O문제를 거론하며 부상당한 자신이 학교를 나가야 다른 선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자퇴 권유(연구 참여자 17) • 학교폭력문제로 교사가 자퇴를 종용함(연구 참여자 24) • 학교를 잘 다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부가 자퇴를 결정하였으며, 본인은 그 결정을 받아들임(연구 참여자 33) • 고등학교 때 출석이 미달될 정도로 불성실하였으며 이에 담임교사가 자퇴를 권유함(연구 참여자 40) • 장기결과와 선도위원회 조치 불이행으로 담임교사가 자퇴를 권유함(연구 참여자 45) •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서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잘 가지 않았고, 2학년 1학기 때 출석미달로 자퇴권고를 받아 학교를 중단함(연구 참여자 34)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5)	• 고등학교의 수업내용이 사회에서 유용한 것들이 아니라는 마음에 그만 둬(연구 참여자 16) • 적성에 맞지 않는 수업내용을 듣는 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느껴짐(연구 참여자 22) • 이론만 가르치는 학교가 재미가 없음(연구 참여자 42) • 교과 공부가 아닌, 현장실습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자 학업을 중단함(연구 참여자 47) • 예체능 교과를 무시하고 대학진학에 유리한 교육과정만을 추구하는 학교가 싫었음(연구 참여자 44)
학교 규율 위반(2)	•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잦은 학교 규칙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된 상태에서, 친구를 폭행하여 벌점 초과로 자퇴 처리됨(연구 참여자 8) • 학내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심장병이 있는 친구에게 담배를 권했다가 퇴학 처분(연구 참여자 9)
심리적 외상(3)	•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연구 참여자 10) • 친구 죽음 이후 학교를 다니는 것에 의미를 찾지 못함(연구 참여자 11) • 모로부터 받은 외상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계속 커져만 감(연구 참여자 41)
친구와의 갈등(5)	•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싶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으나 부모님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음. 이때 학급 친구와 갈등이 생겨 학교에 다니기 싫어 학교를 며칠 나가지 않았고 이에 부모님이 학업중단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결정을 내림(연구 참여자 4) • 가정의 지지를 받지 못해 이성 친구에게 의지했으나 이것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퍼졌고, 또 그 소문을 낸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충격을 받고 학교를 자퇴함(연구 참여자 19) •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받아 심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어 학업중단을 선택함(연구 참여자 30)

하위범주	의미단위
친구와의 갈등(5)	- 친한 친구와의 오해로 왕따를 당하게 되어 학업중단을 결심함(연구 참여자 31) - 중학교부터 이어진 따돌림 문제가 지속됨(연구 참여자 36)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임교사(2)	- 일반 고등학교 진학 후, 가정의 어려움과 의미 없는 학교생활로 고민하던 중 형의 폭력으로 가출을 하였을 때, 담임교사가 학급 친구들에게 연구 참여자를 건전하지 못한 학생이니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훈계했다는 말을 듣고 연구 참여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임교사에게 지도받고 싶지 않다 생각되어 학교를 그만둠(연구 참여자 6) - 학생들을 억누르며 권위적으로 대하시는 교사와 갈등관계를 겪음(연구 참여자 46)
자퇴한 또래의 영향(2)	먼저 자퇴를 하고 잘 지내고 있는 친구를 보며 학업중단을 결심함(연구 참여자 43, 37)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3. 논 의

1) (학업중단 이전)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에 대한 논의

학업중단 학생들의 학업 중단 전 부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연구 참여자들은 크게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와 관계 양상, 가정환경에 대해 보고하였다. 먼저 긍정적 양육 태도와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학업중단 전부터 부모들은 학생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개개인의 선택을 존중해 준다거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훈련시키기도 하였고,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경우도 있었다. 이런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이라는 선택도 자신의 주체적인 삶의 연장선에서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게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 중에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로 인한 부정적 관계양상을 보이거나, 뜻하지 않게 가정 내에서 돌봄 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연구 참여자의 부모들은 자녀가 학업

중단 전에 어떻게 생활하는 지 무관심하거나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양육, 더 나아가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당하기도 하였다. 이는 학업중단청소년들로 하여금 심리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학교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래관계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져 학교 이탈을 유발하기도 하였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폭력 및 약물 남용, 저소득,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한부모, 조손 가족과 같은 구조적 결손가정의 청소년이 학업 중단 확률이 높다고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맥상통하는 연구결과이다(김순규, 2004; 박창남, 도종수, 2003; 서우석 외, 2007; 신현숙, 구본용, 2002; 이자영 외, 2010; 조아미, 2002; Dupper, 1993).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허용적,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학업중단이 더 많이 일어나며, 부정적인 양육태도와 부모-자녀관계는 학교 부적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학업중단 행동 및 의도를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오승환, 2009; 이희선, 2013; 정규석, 2000).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 사이의 활발한 상호교환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고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 나가는 과정을 말한다(김현숙, 2003). 적응은 어느 시기에서나 중요하지만 특히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이 중요한 이유는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과 사회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적응의 개인적 측면에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정서지능, 감정통제, 성격특성 등이 있고, 환경적 측면에는 가족특성, 분리개별화,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등을 들 수 있다(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특히, 청소년기의 경우 제 2의 분리개별화의 시기로서 이들은 진정한 개인으로서의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박아청, 1998), 성인기로 진입하기 직전의 시기인 고등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욕구가 가장 강해진다는 점(류남애, 유순화, 송현아, 최지현, 정애리, 2011)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하더라도 진정한 개체로서의 독립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 부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사례가 다수 있어 이들이 분리개별화의 과업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예측된다(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장근영, 윤진, 1992; 장휘숙, 2002).

이런 경우,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결정 시 부모의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특히 부모가 학업 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학업중단 결정이나 이후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보고한 연구 참여자의 경우 비교적 분리개별화가 잘 되어 부모의 요구나 감정에 순응하기보다 자신의 욕구와 동기를 명료하게 하고, 자율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학업 중단을 결정하는 양상을 보였다.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이 부모-자녀의 안정적인 애착을 유지하는 것과 더불어 자율성을 획득하고 부모와의 정서적인 분리인 것을 고려하면(Bloom, 1980; 박규상, 조성호,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과업을 충분히 이루지 못한 상태로 학업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이후 학교 밖 생활의 적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청년들과 부모와의 관계 및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입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전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외상을 경험했거나, 형제간 비교를 통한 박탈감을 경험하는 등 심리적으로 취약성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전부터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어려워 자신만의 세계 안에서 고립되어 생활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며(Erikson, 1968) 자아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이 부족한 상태이므로 주위 환경이나 자극에 감정적 변화가 쉽게 일어나고 자기통제력이 취약해 더욱 부정적인 문제 상황이 예측되는 발달단계이다(박은영, 2014). 따라서, 질풍노도의 청소년 시기에 갈등상황이나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경험할 경우 이를 자기(self) 안에서 조화롭게 통합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아강도가 약하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은 학교생활 중 겪는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에 마주했을 때 이를 개인 내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 학업 중단을 선택할 경우 정체감 형성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자아확립 과정에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기간이 길어지기 쉽다(Erikson, 1968), 학교 밖 생활에서도 적응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실제로, <표 16> <표 17>에서는 학업 중단의 근본 원인과 촉발 원인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근본 원인은 또래 관계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상, 가정 불화 등 개인 내적 요인이 많았던 반면, 촉발원인은 원하지 않는 학교, 자퇴를 권유받음,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 등 주로 개인 외적인 요인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학교 교과과정이나 교사의 문제로 인한 외부 문제로 자신의 학업 중단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사실상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 내적 요인이 학업 중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낮은 자아 존중감과 무기력(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Martin, 1995; Muha & Cole, 1990), 낮은 의사소통능력(Ross, Saavedra, Shur, Winters, & Felner, 1992), 사회적 고립(Blanton, 1988), 또래집단의 낮은 정서적 지지, 비행성향이 있는 또래집단과 잦은 접촉, 불량한 교우관계(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배영태, 2003; 전병재, 1991), 결손가정(Jancek, 1999; Peraita, & Pastor, 2000), 재혼가정(이경림, 2000; Pong & Ju, 2000), 가족 간의 불화(구자경, 2003; 배영태, 2003), 부모의 음주, 폭력 및 학대와 같은 역기능적인 가족문제(김준호, 박정선, 1993; Franklin, 1992), 낮은 정서적 지지(구자경, 2003)와 같은 열악한 가족 환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중단 이전에 경험한 또래관계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긍정적 또래관계 보다는 부정적 또래관계 양상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또래관계는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친구관계 내에서 원만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로 보고되었다. 그리고 비행청소년들에 시달리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보고한 학교 밖 청소년도 있었는데 이는 청소년은 교우로부터 거부당할 때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Parker & Asher, 1993) 친구관계에서 만족감을 얻지 못했던 학업중단 청소년은 비행청소년과의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노하우를 습득하고 자신의 빈자리를 채운다고 보고한 전경숙(2006)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러한 또래관계 양상은 학교 밖 청소년의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도울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학업 중단 이전, 학교 밖 청소년이 경험한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학교 밖 청소년은 틀에 박힌 생활, 부실한 교육 내용 등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실업계 고교나 공업 고등학교 등에 진학한 연구 참여자들은 학내 불량한 학업 분위기, 기대와 다른 학업 내용 등으로 인해 실망을 하고 학업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학교에 대한 실망은 학교생활 적응, 학업 성취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청소년들의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양화되고 특성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 현장에서 모두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학교 울타리 안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지역사회로 확장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진로체험 운영 대안교실 마련(오승근, 이진숙, 2016) 등으로 학생들의 다양화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강영택, 김정숙, 2012; 양홍권, 2007; 최돈민, 2013). 실제로 Brown(2000)의 10-12학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5년 종단 연구에서 진로체험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율이 감소

했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에 교사와의 관계 갈등을 경험하였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보고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학업중단 이후~학령기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에 대한 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중 가족과의 관계에서 부정적 경험들을 보고하였다. 자녀들의 학업 중단과 관련해 부모들은 이에 대해 창피해하거나 걱정하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중 부모와의 갈등이 있었음을 언급하였다. 또한 형제자매, 친척으로부터의 무시와 편견에 힘들어 하였지만, 자신이 가족의 골칫거리가 된 것에 미안함을 느꼈음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신을 두고 자포자기한 부모님 혹은 벽을 쌓고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한 기존 연구(박병금, 노필순, 2016)의 결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중의 가족과의 관계의 양상을 보다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학업 중단을 결정한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해당 가족들을 위한 교육용 자료들의 개발 및 보급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업 중단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며,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부모의 믿음과 격려를 포함하는 가족의 지지가 가장 큰 삶의 원동력이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본 연구보고서에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학업 중단 중 부모의 신뢰를 포함하여 가족의 지지를 받은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의 응원과 격려가 학업 중단 과정에서 힘이 되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학업 중단 이후, 청소년의 적응적 미래를 위한 가족의 인식 및 관계 개선을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중 자기인식에서 나타나는 양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직후 대인기피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무기력해지고, 가족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등의 현실을 직면하며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었기에 가족에게 하소연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전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리, 마주하게 되는 부정적인 현실은 더욱 연구 참여자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청소년보다 우울과 스트레스, 자살률에서 훨씬 높은 수준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박근수, 김민, 2016)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즉, 타인을 원망할 수도 없고, 부모에게 하소연하며 기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예상과는 다른 부정적 현실들을 스스로 감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이 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보다 주목해야 필요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의 지지가 청소년의 심리정서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들(석말숙, 구용근, 2015; 이재희, 이경상, 2018)을 고려할 때, 연구 참여자들이 언급했던 부모의 반대, 하소연하거나 기댈 수 없는 가정환경 등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 가장 큰 심리적 지지체계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 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상황들에 대한 세부적 안내와 교육이 요구되며, 위로와 격려 등의 심리적 지지자원 제공의 필요성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또래와의 관계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직후 기존 또래와의 관계 및 새로운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보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을 이어가는 또래들과의 공감대가 맞지 않았고, 하루 일과가 달라지다보니 기존의 친구들과 점점 멀어지면서 단절되어갔다고 보고하였다. 새로운 또래를 만날 기회가 적어 청소년 지원센터, 학원, 소모임 등에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나가려 노력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외로움을 해소하고, 공감을 받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

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학업 중단 직후 또래 관계가 중요한 문제임을 시사한다. 하지만 대체로 관계의 고립을 해결할 만남의 장은 작았다. 대인관계가 좁아져 정서적 외로움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조언을 들을 기회도 적었다.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단절하지 않기 위해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또래와의 관계 양상은 학교에 대한 그리움과 복교에 대한 생각으로 이어졌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직후 관계의 고립과 외로움으로 인해 복교를 희망하거나 복교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존의 학업중단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로 돌아간 경우 적응이 쉽지 않았고, 다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였다. 또한 복교에 대한 교사들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이 복교를 막기도 하였다. 이러한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탐색 시간 및 복교 과정에 대한 안내와 프로그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직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에 이른 진출을 하거나 진출을 위한 준비 과정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체로 학업중단 직후 자격증이나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아르바이트 및 취업을 하였다. 일을 시작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또래에 비해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해 일찍 배우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점도 있었으나 업무 환경은 열악하였다. 자퇴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과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낮은 급여나 복지 수준의 일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일을 하다가 몸을 다치기도 하였다. 학업 중단 직후 취업 및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단기적으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한다고 해도 이후에 장기적인 진로를 설계하지 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장기적인 진로 설계의 부족은 단기적인 일자리의 연속으로 이어지거나 관심 분야 탐색 및 진출의 한계로 이어져 이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된다.

3)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에 대한 논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령기 이후, 부모관계의 양상은 의사소통 방식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적 과업 수행 정도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모습을 보였다.

부모 간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부모로부터 학령기 이후 이른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지혜를 주기도 하고 부모를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준다(윤숙자, 김희정, 2013). 본 연구에서는 지지적인 의사소통이 적극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묵묵히 삶의 선택과 수행을 해 나가는 모습을 기다려주는 양상으로도 나타났다. 부모들은 가족 간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게 된 원인 중 부모 불화가 있었던 것을 회고적으로 돌아보며 미안한 마음과 자녀에 대한 긍휼함을 품기도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지적인 의사소통은 학령기 당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비행행동을 돌아보면서 부모에 대한 죄책감으로 현실적인 과업 수행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반면에 의사소통의 갈등과 부재는 학령기 이후 가족관계에 대한 불만감을 가중시켰다. 부모와의 불화는 부모-자녀 간 폐쇄적 의사소통으로 이어져 자녀의 비행 행동을 증가시킨다(민하영, 1992). 부모의 불화로 인한 학교 중단은 학령기 이후 이십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인으로써의 부담감을 통해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부모에 대한 원망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가족 간 의사소통의 부재는 가족과의 단절로 이어지고 의사소통에서의 갈등은 형제관계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하였다.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취득과 이른 취업에서의 성실한 태도는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과 부정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후 사회에서 홀로 서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학업의 중요성을 절감한다(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이는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학업에 대한 동기를

통해 성실한 태도로 변화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갈등을 빚었던 부모와 화해해 나가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현실 과업 수행을 통해 회복되기도 하고, 현실과업이 지연될 경우 더욱 관계 악화로 갈등을 빚는 양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에 비해 심리적, 경제적 독립을 적극적으로 요구받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학교를 그만둠과 동시에 부모가 책임지고 돌봐줘야 하는 학생의 신분에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이른 성인으로 독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경제적 독립은 학생으로써의 신분에서 이른 성인으로 역할 기대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였다. 특히, 이십대에 이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독립적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혼자 힘으로 사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욕구가 높다(유진이, 선다솜, 2018). 이는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령기 이후 부모로부터 경제적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일치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에는 경제적 독립에서 나아가 경제적 부양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보고한 부양자로서의 압박감은 진로 준비에 대한 부담감 및 진로 탐색 지연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기에 가정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령기 이후 자기와의 관계는 자신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진 경우 진로 및 직업 영역에서 자기 탐색을 통해 만족스러운 진학과 직업 선택이 또래보다 빠르게 이루어졌다. 학업중단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삶을 배워나가면서 사회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 있게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후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반성적으로 통찰하는 시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자기반성을 위한 멈춤의 시간은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과 낙인감을 직면하며 맞서 딛고 일어서는 도전의 계기가 되고, 학력 취득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깨달아가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념은 사회적 적응을 해 나가는데 사회적 낙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이화명, 김영미, 2017). 이는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자기반성적인 시간을 통해 사회적 낙인감으로부터의 부정적 자기 개념을 딛고 20대 초반에 사회적 적응을 잘 해 나가는 모습과 일치한다. 자기 개념은 진로 태도 성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반성을 통한 적성 탐색으로 자격증 취득과 실질적인 진학 준비를 통해 대학생활을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갔다(이현우, 양명숙, 2017).

반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시 경험했던 부정적 자아 인식이 학업중단 이후 건강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지체되면서 2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적 취약함과 환경의 어려움 간 복합적인 작용은 2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발달과업을 지체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가정 경제적 어려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기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을 하기보다 생계형 직업 전선에 뛰어들게 하였다. 생계를 위한 취업과 단기 근로 경험은 학업중단으로 인한 부정적 자아인식에 대해 실존적 고민의 시간에 머무를 겨를 없이 환경을 적응하는 데 비중을 두게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생계형 노동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노동시간 이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이선희, 2014). 학교 밖 청소년들의 취업 경험은 가정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기도 하고 근로의 맛가를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데서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중단 전후에 지닌 심리적, 행동적 취약함과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미해결과제로 미뤄둔 채 이루어진 취업은 지속되지 못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정적 자아인식은 취업 전선에 빠르게 진출하지만 자기 탐색과 장기적인 진로 역량을 담보하지 못한 채 20대에 이르러서 학업수행과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과제를 직면해야만 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충분한 자기탐색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건강한 자아를 통합해나갈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령기 이후 또래관계에서 상위학교 진학, 지역 및 대학에서의 지원체계, 취업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기도 하였다. 대학 진학은 학교 중단으로 인해 단절된 소속감을 회복시키고 학령기 때 미숙했던 관계 방식과 다른 양상의 관계를 맺게 하였다. 학업중단 이후 자아탐색 시간과 이른 사회인으로써의 경험은 관계 갈등을 대처하는 훈련의 시간이 되어 대학 진학에서는 관계 갈등을 유연하게 해 나가게 하였다. 지역 및 대학에서의 지원체계는 학령기 이후 한 단계 향상된 학업수행과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학업중단 당시 미해결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되어주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대학 신입생의 학교 적응에 교수 멘토링이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이인경, 김장희, 2011). 대학에서 지도교수의 면담제도는 학령기 당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적응이 어려운 전공 수업을 해 나갈 수 있는 현실적 방법과 대안을 제공해주었다. 지역사회에서의 멘토는 자치적인 청소년 활동을 주체적으로 수행해나가는 경험을 통해 학업 중단으로 인한 무력감과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성공감을 경험할 수 있는 지지체계가 되어주었다. 이른 사회인으로 진출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실리적 인간관계를 경험하면서 관계의 다각적인 측면을 이해해나가고, 공적, 사적 관계에서의 심리적 경계와 거리감을 배워나가게 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 둔지 6~7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서 학교에 대한 사회에서 관계 형성의 장으로써, 또래 문화를 익히는 곳으로써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회고하였다. 특히,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아닌 다른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둔 경우, 또래관계에 대한 욕구는 학령기 이후 이성 관계에서 애착으로 이어졌다. 학업중단 이후 또래관계에서의 박탈감, 소외감, 고립감과 같은 결핍 욕구들은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이성관계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집착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독립적인 성인으로써

충분한 심리적,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혼은 한 가정의 부모로, 부부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버겁게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령기 이후 안정적인 관계를 위한 과도한 집착은 건강한 관계 설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채 원가족에서 해결되지 못한 부모와의 갈등이 재현되기도 하고, 잦은 이성관계의 교체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원가족에서의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을 경우 결혼 이후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경주, 김영혜, 2015).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학교 밖 청소년은 대인 관계에서 미성숙하고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분화 수준을 향상시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또래 관계의 어려움이 결혼 관계로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령기 이후 이른 사회인으로 또래보다 경제적으로 여유있고 취업이 이루어졌으나 또래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심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쫓기듯 바쁜 취업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또래와의 문화적 활동을 통해 자존감과 대인관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은, 류민정, 2019). 문화 활동 중에서도 공동체적인 스포츠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진로 개발에도 긍정적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동욱, 2018). 본 연구에서는 쉼과 충전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생활로 인해 육체적, 심리적 소진으로 이어지면서 균형이 깨어지고 과도한 음주와 수면패턴으로 이어졌다. 이에 다양한 또래와의 문화적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존감 향상과 건강한 진로 개발을 도와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령기 이후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취업과 진학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속된 일원으로 살아가는 모습과 사회적 소속감에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사회 내 청소년 지원 및 활동을 위한 공적기관은 학령기 내 청소년 활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령기 이후의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실질적 필요를 채우는 데 괴리감이 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 학교 경험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는 훈련

직종과 적성의 불일치, 시설 환경과 엄격한 생활 규칙에 대한 불만과 같은 어려움이 나타났다(조규필, 김수진, 2019). 이는 본 연구에서도 직업학교에서의 취업 제공은 단기간 근로가 가능한 서비스 직종과 열악한 근무환경에 치해있는 제조업 분야에 국한되어 있는 것과 일치된다. 청소년 수련활동은 문화 및 동아리활동에 집중되어 있어서 구직활동과 자립에 대한 학령기 이후 청소년의 욕구를 채워나가는 데에는 현실적 제약이 있었다. 학령기 이후의 욕구에 초점화되어 있지 못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공적 서비스 지원체계는 이십대에 들어선 학교 밖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적인 학습 공간이 필요하다. 이십대에 들어선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학습을 이어나가야 한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대안적인 학습 공간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학력 취득과 사회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공간으로 활용하였다(허효인, 김한별, 2015)

반면에, 지역사회의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지원, 취업을 위한 구직 준비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청년수당 제도가 대학을 진학하거나 취업과 관련된 구직 준비를 하는 데 실질적으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청년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장 하루의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내외경제TV, 2019)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현재 마련되어있는 제도들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진로 준비 과정 또한 다양한 적성 분야에 맞춰 제공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학교를 그만둔 지 6~7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재 이십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다. 2015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 법률의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예방하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교육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차원에서 부처 간 마련되었다. 교육부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상담을 통해 학교를 그만두기 전 학업중단에 대한 문제를 숙고하는 시간을 마련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과 인문계 고등학교 내 직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교 부적응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였다(아시아 뉴스통신, 2014).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학교를 그만 두더라도 지역 내 공적기관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권을 포함하여 청소년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나아가 법무부에서는 범법 및 촉범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시설보호라는 소극적 방법의 지도에서 선도조치라는 예방적 차원의 방법이 확대되었다(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령기 이후 이십대 초중반을 지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시행 이전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지역사회 지원체계를 충분히 활용하거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였다. 동시에,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학령기 청소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따라서,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학업중단 당시 잔존된 문제 영역들을 대처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최근 5년간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양상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제정 이후 학교 부적응 문제로 인한 학교 중단율은 감소되는 추세이다. 청소년 인구수가 감소되고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내신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대학 진학을 위한 내신평가의 비중이 높아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 들은 학교부적응 문제로 인한 학교 중단 비율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 밖 청소년들은 내신 평가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자발적으로 학교를 그만 두고 검정고시를 선택하기 위한 자발적인 선택이 증가되었다(EDUJIN, 2019). 본 연구에서는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중단 이후 삶의 양상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중단 양상과 학교 중단 이후 삶의 경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CQR-M 분석에 따른 논의

본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전, 학업중단 이후 학령기, 학업중단 학령기 이후의 시기에 부모와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이성 관계, 학교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한지 CQR-M을 통해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중단 이전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관계양상과 돌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했었던 경우가 많았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요인을 보고하고 있는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의 실직, 경제적 지원 부족, 부모의 갈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해체(Jancek, 1999; Peraita & Pastor, 2000)등에 대해 설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학업중단직후부터 학령기 시점에는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이 46.2%로 학업중단 전의 ‘부정적 관계양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가정을 위기의 가정으로 보고한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정재민, 2012). 학령기 이후 시점에는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게 나타났는데, 학업 중단 이전에 부모와의 부정적 관계양상이 두드러졌던 것과 달리, 학령기를 이후에는 현실적 과업수행을 바탕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긍정적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전에 ‘심리적 취약’과 ‘자신의 세계에 고립’ 두 가지가 두드러진 반면, 학업중단 중 학령기에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이 57.7%로 나타났고, 학업중단 학령기 이후에는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 준비’가 3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 한 이후에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추가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또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업중단 전에서 '부정적 또래관계'가 84.2%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상당수의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전 다른 또래와 비행을 행하거나 따돌림 등의 부정적 또래 관계를 경험을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학교에서의 소외, 학업중단 청소년과의 접촉, 건전하지 못한 이성 관계 등의 부정적 또래관계 요인들이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오혜영 외, 2011), 학업 중단 직후부터 학령기에는 '부정적 또래관계 양상'이 55.0%로 나타나 기존의 부정적 또래관계가 지속되는 양상을 탐색할 수 있었다. 한편, 학령기 이후에는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이 56.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한정되고 협소한 또래관계로 인해 다양한 또래문화를 경험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네 번째로 학교와의 관계에서 학업중단 전 학교는 대부분 부정적 대상으로 표현되었다.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이 47.2%로 가장 높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38.9%,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30.6% 순으로 나타났는데, 반면에 '교사의 심리적 지원'은 16.7%로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학교와 교사 부정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하는데, 이는 학교 요인인 학교 조직과 분위기, 학교규율과 교육과정 운영, 학교풍토, 학교의 통제적 분위기, 교육적 기능의 약화 등이 학업중단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일맥 상통한다(금명자, 2008). 더욱이 학업중단 이후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으로 81.8%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학업중단 결정에 후회하고 복교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구본용 외, 2002, 오정아 외, 2014; 김상현·양정호, 2013). 이는 상당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에 대해 재고한다는 점에서 복교에 대한 상담 및 경로 시스템이 정비되어야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직장 및 유관기관)와의 관계에서 학령기에는 또래보다 빠른 사회 경험을 하는 이점이 있지만, 능동적으로 지역기관에 대해 정보를 확인해야

하고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점도 나타났다. 실제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김정고시나 취업, 여가 공간, 직업체험 및 진로탐색 관련 자원이 부족하다고 보고하였다(최지연, 김현철, 2016).

지금까지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양상을 CQR-M 분석을 통해 탐색해 볼 수 있었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학업중단이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부정적 관계로부터 촉발되는 학업중단은 부정적 삶의 경로로 학령기까지 이어지고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업중단은 긍정적 관계 요인보다는 부정적 관계에서 비롯되고 그 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다. 반대로 긍정적 관계의 형성은 학업중단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요인일 수 있고, 나아가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에 대한 논의

(1) 부모자녀관계의 변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10)	무관심한 양육(6)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12)	자신을 칭피해하는 부모님(2)	가족 간 의사소통 방식(6)	의사소통에서의 갈등(3)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양육(4)		부모님의 걱정(4)		의사소통을 통한 가족 간 유대감(3)
	부모로부터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함(3)		부모님과의 갈등(8)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 회복 (13)	성실한 태도로 인한 부모로부터의 지지(7) 학력 취득으로 인한 부모의 인정(6)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10)	부모의 심리적 지지(5)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5)	가족에게 미안함(3)	부모-자녀간 긍정적인 마음 (5)	비행행동으로 인한 부모에 대한 미안함(3)
	주체적 삶을 훈련시킴(4)		형제자매로부터의 무시(1)		부모의 불화로 인한 자녀에 대한 미안함(1)
	경제적 독립을 훈련시킴(1)		친척들의 편견, 선입견, 무시(1)		부모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2)
돌봄받기 어려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3)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가정환경 (12)	부모님의 부부 갈등(3)	학업중단 중 경험한 부모의 신뢰(9)	부모님의 응원과 격려(6)	부모의 지지 (5)	적극적인 진로 지원(4)
	열악한 생활환경(4)				모의 무조건적 지지(1)
부정적 관계양상 (15)	부모님과의 소통 부족 (12)	학업중단 후 부모와의 신뢰(9)	부모님의 믿음(4)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9)	경제적 부담의 부담감(8)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가출을 하기도 함(4)				가정경제적 어려움(1)
긍정적 관계양상 (1)	학업중단을 반대하는 부모님과 갈등을 경험하다가 진정성있는 노력으로 신뢰를 회복(1)		목욕히 지켜봐주시는 부모님의 믿음(4)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3)	현실과 주관적 인식 간의 괴리(1)
					부모의 신뢰를 통한 자립(2)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인가감정(1)	부모의 경제적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자립(1)
					부모에 의존된 자립의 욕구(1)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 (7)	부모에 대한 원망감(3)
					가족관계의 단절(2)
					형제관계에서의 상대적 박탈감(2)

⇨

⇨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논의

연구에 참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 영향은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학업중단 중 생활양식의 영향을 주기도 하며 학업중단 이후의 진로 설정의 요인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정불화 등 가족 관계에서의 문제들이 보고되었는데, 학업중단 전에서 이와 동일한 내용들을 찾을 수 있다. 청소년기에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인 내적인 갈등과 더불어 주변의 핵심적 인물이나 상황에 영향 등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여 결정되는 일이다. 여기서 핵심적 인물은 1차적으로 부모와 형제자매인 가족이 될 것이고 핵심적 상황 역시 가족에서 가정환경을 꼽을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지만 가정의 심리적 환경인 '가족 유대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다(손충기, 배은자, 김영태, 2012). 학교를 그만 둔 배경의 우선순위로 좋지 않은 가정환경을 기술하였다(김상현, 양정호, 2013). 본 연구 학업중단 전 시기의 나타난 범주와 같이 결국 가정에서의 심리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은 모두가 학업중단을 유발할 수 있는 핵심적 요인임에는 틀림이 없다. 학업중단 전 시기를 지나 학업중단 중 시기에 접어들면 학업중단의 원인보다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써 위치를 경험하게 된다. 학교라는 제도권 사회에서 벗어나 스스로 진로를 모색하고 계획을 세우며 가족들에게 자신의 행보를 그대로 보이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걱정, 부모님과의 갈등 등의 상황에 처하며 가족들에게 미안함을 표현하는 부정적 인식과 태도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부모의 신뢰와 가족의 지지를 획득하는 연구 참여자들도 보였다.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이 부모인 만큼 학업중단 중에는 가족이 보이는 태도에 대한 기술이 많았고 가족들의 언행을 예민하게 주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업중단 후에는 이전에 보였던 모습보다 능동적 형태의 범주들이 나타난다. 학업중단 후는 청소년기를 벗어나 사회로 진출한 시기인 동시에 성인기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 부모와의 관계, 경제적 부담 등에서 현실적인 인식과 태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업중단 전과 중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인식을 수동적으로 수용에 그치거나 소극적 저항의 모습을 보였다면 학업중단 후에는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에 직면하고 가족 간에 유대감을 가지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보고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현실적인 과업을 수행하거나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애처로움 등을 드러내며 내·외적으로 성장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경제적 생활면에서도 어려움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지만 독립과 자립에 대한 기술을 확인하였다.

학업중단 전-중-후에서 가족관계는 단계적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그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학업중단 전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가정환경의 영향을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그쳤다면, 중에서는 가족 내의 위치와 가족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볼 수 있으며, 후에는 의사소통을 통한 유대감 형성, 현실적 과업 수행과 부모와의 관계 회복, 부모에 대한 긍휼한 마음, 경제적 독립에 대한 고민 등이 능동적 태도로 나타나며 가족관계를 이끌어가려는 단계로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2) 자기 인식의 변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자신의 세계에 고립(8)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음(5)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12)	대인기피의 모습이 나타남(1)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준비(13)	적성분야에 따른 진학(2)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어려워 함(3)		기밀이 사라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무기력해 짐(4)	뒤늦은 진로준비로 인한 무기울(6)	자기탐색에 따른 진로준비(11)
심리적 취약(9)	외상 경험(6)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15)	기대와 달랐던 학업중단 현실(7)	소극적 진로준비로 인한 불안증감(11)	진로준비에 대한 부담감(5)
	형제간 비교를 통한 상대적 박탈감(영등감)(2)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함(5)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10)	진로준비에서의 고립감과 외로움(1)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1)	불안(2)	대학진학을 결심함(4)	주체적인 삶의 삶의 시작(8)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뒤늦은 수능준비에 대한 자괴감과 열등감(2)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봄(1)		혼자만의 시간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3)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진로준비에 대한 막막함(6)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진로준비의 미비(5)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진로준비에 대한 이룰 포기(1)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적성에 맞는 취업에서의 만족감(6)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또래에 비해 이른 사회생활의 정착(5)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당장 먹고사는 문제에 대한 현실적 부담감(4)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2)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경력을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무의미함(1)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6)	경력단절에 대한 무력감(1)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이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가족 내에서 갖게 된 심적 부담을 책임감으로 극복함(2)	자신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함(2)	직장생활에서의 불만족감(8)
가족 문제를 공정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함(4)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 (3)	업무역량의 부족(1) 단기적 아르바이트로 연명(2) 적성에 맞지 않는 직업 특성(3)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발생(1)/ 각성과 불안함(2) / 우울감(3) / 후회와 아쉬움(4) / 관계외상의 재경험으로 인한 고통(3) 지해 시도(1) 본노조점의 어려움(2) 관계외상으로부터의 극복(1) 의미없는 생활로 인한 지루함(1) 수동적 삶의 태도(2) 불규칙적인 일상생활(1) 경제적 독립(9) / 심리적 독립(4) 부정적 자기존재감(4)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괴리감(2) 고독을 통한 자아성장(2) 공정적 자기존재감(8) 자기결정권에 의한 주체의식(6) 자아탐색을 위한 멈춤의 시간(3) 군대에서 적응의 어려움(2) / 군복무에서의 만족감(3) 지지적인 관계(2) / 진솔한 관계(5)
힘든 시간을 일에 집중하며 생산적으로 활용하고자 함(1)	유능감을 갖게 됨(2)	행동조절의 어려움(2) 심리적 어려움 극복(1)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4) 부모로부터의 독립(11) 부정적 자아 인식(4) 공정적 자아인식(11) 군대에서의 적응양상(4)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6)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 자기 인식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중단이전 자기인식을 살펴보면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지 않는다거나 자신의 마음을 타인에게 보여주기 어려워 자신만의 세계에 고립되었거나, 심리적 취약성으로서 외상을 경험, 형제간 비교를 통한 박탈감을 경험, 막연한 불안을 호소했다. 청소년기는 ‘자아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로 통합적인 자기(self)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기질적으로 혹은 외상사건 등을 통한 취약성의 고착화는 스트레스 사건 발생 시 대처능력의 부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문제 발생으로 학업중단을 한 경우 학교 밖에서도 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학업 중단의 근본 원인과 촉발 원인을 비교 시, 근본 원인은 또래 관계 갈등이나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상, 가정불화 등 개인 내적 요인이 많았던 반면, 촉발원인은 원하지 않는 학교, 자퇴를 권유받음,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 등 주로 외적인 요인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 과정에서 학업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학교 교과과정이나 교사의 문제로 인한 외부 문제로 자신의 학업 중단 원인을 돌리고 있으나, 사실상 그 근본 원인을 살펴보면 개인 내적 요인이 학업 중단에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업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명료한 자기 인식을 통한 의사결정을 독려함과 동시에 내적 갈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실존적 유예기간을 바탕으로 내적 갈등의 조기 발견 및 자기 탐색을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학교 단위에서는 Wee클래스 및 Wee센터가,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안전망이 제공하는 다양한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 등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학생들이 자기(self)를 찾아가기 위해 “개인 내적 갈등의 통합을 위한 실존적 유예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며, 기능적인 학습만이 주로 강조되어 이런 내적 갈등을 개인의 부족하다. 따라서, 학교 교사, 가정, 학생들에게 학습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자기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개선과 주의를 환기를 통해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직후에는 대인기피의 모습이 나타나거나, 무기력해지고, 가족에게도 기댈 곳이 없는 등의 현실을 경험하며 좌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택한 결정이었기에 가족에게 하소연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학업 중단 전 예상했던 모습과는 달리 직면하는 학업중단 중의 부정적인 현실은 더욱 연구 참여자들에게 좌절을 안겨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학업중단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업중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 및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안내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업중단 전 이러한 내용과 프로그램의 안내는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전문상담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직전 해당 학생이 다니던 학교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충분히 반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학업중단을 선택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도, 학업 중단의 결정이 학생 개인의 노력에 따라 성공 및 실패의 선택이 될 수도, 학생 신분이 아닌 채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명과 암이 있을 수도 있음 등의 양면적인 면을 지니고 있음과 관련,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정보를 다각도에서 제공하여 사전 준비가 없이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학생들을 예방하는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도울 필요가 있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중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며, 자신의 몰랐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하는 긍정적 경험을 보고한 경우는 학업중단의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며, 학업 중단 후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장점과 삶의 의미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현실에서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삶의 적응과정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유는 이들을 대하는 인식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학업 중단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더 이상 학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스템적으로 이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에도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위로와 격려 등 심리상담 분야가 주로 언급되고 있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들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쉼터와 휴식처 등의 기능 외에도 보다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 지원형, 정보 제공형의 기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이후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기 탐색을 기반으로 진로 및 직업 영역에서 자기 탐색을 통해 만족스러운 진학과 직업이 또래보다 빠르게 이루어졌고,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탐색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삶을 배워나가면서 사회진출을 위한 첫발을 내딛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반성적으로 통찰하는 시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자기반성을 위한 멈춤의 시간은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과 낙인감을 직면하며 맞서 딛고 일어서는 도전의 계기가 되고, 학력 취득의 의미를 현실적으로 깨달아가기도 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 자기반성적인 시간을 통해 사회적 낙인감으로부터의 부정적 자기 개념을 딛고 20대 초반에 사회적 적응을 잘 해 나가는 모습과 일치한다.

반면에,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시 경험했던 부정적 자아 인식이 학업중단 이후 건강하게 다뤄지지 못하고 지체되면서 20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내적 취약성과 환경의 어려움 간 복합적인 작용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을 지체시킴과 동시에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기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보다 생계형 직업전선에 뛰어들어, 자신에 대한 실존적 고민을 할 겨를 없이 환경을 적응하는 데 비중을 두게 하였다. 이렇듯 학교 중단 전후에

지닌 심리적, 행동적 취약함과 관계에서의 어려움들을 미해결과제로 미뤄둔 채 이루어진 취업은 빠르게 사회진출 하게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자기 탐색과 장기적인 진로 역량을 담보하지 못하여 지속성이 부족하게 되고, 20대에 이르러서 학업수행과 심리적 미해결과제를 풀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이른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데 충분한 자기탐색 시간과 부정적 자아에 대해 반성적 통찰 시간을 통해 자아를 통합해나갈 수 있는 시간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센터는 학령기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어, 이십대 초반이 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심리지원 지원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센터 내 이십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지원체계가 마련되거나 후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심리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이십대에 들어선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지원은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되는 해결 중심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3) 또래와의 관계변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범주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부정적 또래 관계 (16)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낌(2)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11)	또래관계의 단절(9)	심리적, 환경적 걸림돌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7)	또래관계의 축소(3)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함(7)		관계형성과 유지의 어려움(2)		또래관계의 단절(5)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함(7)		관계결핍에 의한 비행청소년과의 만남(1)		학령기 당시의 관계 외상의 재경험(1)
부정적 또래 관계 (16)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함(7)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11)	계속되는 또래와의 외상경험(1)	또래문화에서의 기회박탈(13)	경제적 수입으로 인한 또래에서의 비교우위(1)
					무의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또래에서의 비교우위(4)
					이른 사회인으로 또래어울림의 배제(3)
					정규교육과정에서의 학습경험 배제(1)
부정적 또래 관계 (16)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함(7)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11)	계속되는 또래와의 외상경험(1)		사회적 소속감으로부터의 박탈(5)
					학교친구의 부재(5)
부정적 또래 관계 (16)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함(7)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11)	계속되는 또래와의 외상경험(1)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관계육구의 지연(2)	정서적 관계의 가치를 경시(2)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8)	소극적 관계형성(3)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경험 부재(2)
부정적 또래 관계 (16)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따돌림(괴롭힘)을 경험함(7)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11)	계속되는 또래와의 외상경험(1)		극소수의 관계망에서 공감대 형성(3)

→

→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또래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5) 친구의 학업중단을 모델링함(1)	소수 친구의 지지(5)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10)	단절된 인간관계의 회복(4) 회복된 인간관계가 가져온 변화(3)	관계양상의 다각화(11)	이성관계의 짐작으로부터 분리(1)
					이성관계로의 짐작(3) 실리적 인간관계 형성(3) 지지적 관계 형성(5)
이성 관계 (1)	배려없는 이성교제(1)	힘이 되어준 지인(6)	지인의 도움(6)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대착오(6)	경제적, 심리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결혼으로 인한 생활고(2) 관계에착에 대한 욕구로 인한 결혼(3)
					이성관계에서 원가족의 영향력을 분리(2) 이성과의 이별에 대한 자책(1) 관계 지속 외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는 취업(2) 이성관계에 대한 짐작(2)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학업중단 이전 또래 관계에서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부정적 또래관계를 경험했었다고 답한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 가운데 절반이상이 친구를 사귀거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을 고백한 것이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 중단 이전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에 불편함과 어려움, 두려움 등의 또래관계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의 원인으로 또래관계 문제가 영향을 주었음을 미루어 짐작케 한다. 즉, 학생에게 있어 학교와 학급은 수업공간이자 또래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인간관계의 장(場)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2가지 중요한 축 중에서 하나의 축이 되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를 호소하게 될 경우 학생들은 학업중단을 고민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또래관계의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명확한 학업중단 이후의 계획과 목표를 세우지 않은 채, 준비되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의 시작은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이후 부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인은 더욱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만약,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학업중단을 희망하는 가장 큰 이유로 친밀한 또래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확인된다면, 의사소통방식 및 또래관계 기술 등의 대인관계적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개입을 통해 준비되지 않은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이전, 학령기 이후에서 나타나는 또래관계 변화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이러한 전(全) 과정에서 대인관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미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여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을 하면서 기존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험을 재차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학령기 이후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또래관계의 축소와 단절로 인한 협소한 인간관계망을 갖게 되고, 또한 학업중단으로 인한 또래문화의 부재로 인해 사회생활을 시작해도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경험의 부재로 인해 사회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결과의 하위범주로 나타나는 준비되지 않은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이성관계로의 집착, 소극적 관계형성 역시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을 모두 종합할 때, 학업중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적인 측면에서 관계결핍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또래문화의 결핍과 함께 학교에서 또래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또래관계기술의 결핍까지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개입과 지원방안을 위한 초점은 대인관계 차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순히 친구관계의 단절로 인해 인간관계망이 축소된 부분 외에도 또래문화의 부재로 인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적 소속감 역시 느끼지 못하게 됨을 토대로, 개입 및 지원 프로그램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관계결핍에 따른 축소된 인간관계망의 회복, 공유하지 못한 또래문화의 경험 혹은 대체, 사회생활을 위한 대인관계 기술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을 도울 것으로 여겨진다.

(4) 학교와의 관계 변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범주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14)	특히 박힌 생활을 참기 어려움(4)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고에 대한 고민 (9)	학교로 되돌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2)	소속감의 회복(2) 대학에서의 부적응(4)	대학생활을 통한 관계형성(2) 대학생활에서 부적응의 연장(4) 대학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지원(1) 멘토가 되어준 지도교수(3) 진로결정을 위한 전공선택의 기회(3) 진로 정보 제공(1) 취업을 위한 자원의 활용(5)
	학교 교육에서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함(6)		학교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함(5)		
	회망하지 않은 고등학교 진학(4)				
	비행청소년이 많은 학교에서 적응하기 힘들(5)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11)	상급학교의 낯선 분위기와 환경(4)		취업을 위한 심리적 준비(5)	취업을 위한 학교에 대한 소회(13)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학교(5) 학생으로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학교(4)
	친구관계의 어려움(3)				
	학업성취에 관한 두려움(5)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음(1)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학령기 이후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17)	집단 따돌림 피해로부터 보호받지 못함(2)	직업학교로의 전환(1)	더 나은 선택이 된 학업중단(1)	학교에 대한 소회(13)	학력사회의 요건이 되는 학교(3)
	교사의 무관심/갈등(8)	학업중단과 학교의 반복(5)	학교로 되돌아가고자 하였으나 이를 막는 교사(2)		학업중단에 대한 사회의 선입견(4)
	문제가 낙인(5)		학교로 되돌아갔지만 학업중단의 반복(3)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9)	자기 삶 찾기의 계기가 된 학교중단(5)
	지퇴를 권유하는 학교(3)				적극적 미래설계를 고민하게 한 학교중단(3)
교사의 심리적 지원 (6)	교사의 관심과 지지(6)				반성적 사고를 가능하게 한 학교중단(3)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대다수의 연구 참여자는 학업중단 이전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험에는 부실한 교육내용과 틀에 박힌 인문계 고등학교 생활에 흥미를 잃어버렸거나, 원하지 않은 학교로 진학 하게 된 경우, 친구나 학업 성취, 학교문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 교사와의 갈등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전 선행연구 및 본 연구결과와 또래와의 관계 차원에서도 확인되었던 또래관계의 부정적 경험 외에 진로, 진학 차원과 관련한 요인들이 학업중단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진로/진학 결정의 중요성에 대해 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공유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연구 참여자 중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고 진학을 희망 하였으나 부모/교사의 반대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되고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음을 언급한 내용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는 틀에 박힌 교육과정 운영과 학업성취에 대한 부담감이 학업에 흥미를 잃고 최종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을 결정하게 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학교 졸업 및 고등학교 입학 시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대한 분명한 지각과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학교설립 목적에 따른 고등학교 종류별 교육과정 안내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중학교 1학년 시기에 자유 학기제가 운영되며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는 경험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중학교3학년 시기까지 지속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으며, 고등학교 입학 이전 해당 고등학교에 대한 탐방과 견학 등을 통해 교육과정 및 학교문화를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학생들의 학교선택 및 이후 학교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 많은 대학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캠퍼스투어 등의 방식으로 학교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점에 제공될 필요에 대해서도 추후 생각해볼 만하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이전, 학령기 이후에서 나타나는 학교와의 관계 양상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이전에는 학교의 다양한 면(교육과정, 학교문화, 환경, 학업성취 등)에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학업중단을 결정하게 되지만, 다수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결정에 반하는 즉, 복교에 대해 고민하고, 복교를 희망하거나 이를 실천에 옮기고자 한다는 점이다. 특히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복교를 고민하거나 결정한 이유의 대다수는 또래관계 및 또래 문화에 대한 동경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학교 밖 생활을 하는 기간 동안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장 희망하고, 필요로 하며, 가장 절실한 영역은 바로 대인관계(또래관계)임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학령기 이후의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소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미래의 자신의 자녀가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을 희망한다면,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니 친구들과 맘껏 놀다만 와라고 말하겠다는 연구 참여자의 진술은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볼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교에 대한 관계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업성취로 대표되는 학교문화 및 교육과정에 의해 대부분이 학교를 그만두는 등 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학업중단 직후~학령기 이전, 학령기 이후의 단계에서는 인간관계, 또래관계의 공간으로 더욱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교육적 필요에 의한 교육기관보다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또래문화를 공유하고 대인관계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간관계의 장(場)으로서 중요성과 필요성을 더욱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결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방안에서 깊이 고려되어야 할 문제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교육적 여건 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또래관계와 또래문화를 어떻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이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수강비 지원, 쉼터 지원, 체험기회 제공 등의 물리적 지원, 가시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방식에서 관계적 차원의 회복과 또래문화 공유에 보다 초점을 맞춘 개입 방안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5) 지역사회와의 관계 변화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학령기(고등학교 시절)	
범주	하위범주	범주	하위범주
		또래보다 빠른 사회 경험이 도움이 됨(8)	사회생활과 인간관계를 배움(8)
		지역기관에서의 긍정적 경험(7)	위로가 되었던 상담기관(5) 또 다른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주었던 교정기관(3)
		지역기관의 한계(8)	도움이 되지 못한 유관기관(8)
		취업의 장벽(4)	대인관계 경험의 부족(3)
			낮은 수준의 일자리(1)

* 학령기는 정규교육과정에서 고교시기까지를 의미함

학령기 이후		범주	하위범주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5)	후기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센터 지원의 한계(4) 직업학교에서의 교육과 취업간의 괴리(2) 제한적인 취업조건(1) 열악한 근무환경(2) 활동을 통한 소속감 및 유대감 충족(1) 청소년 단체를 통한 또래와의 교류(1)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1)
			멘토의 지지(2) 멘토의 도움(2)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5)
		사회생활에서의 적응(5)	인정적인 직장생활을 선호(4) 퇴근 후 삶이 있는 근무환경 선호(1) 더 나은 삶을 위한 적극적 행동(3) 직장생활에서의 적절한 경계 설정(2) 직장 적응을 위한 마음가짐(2) 지지적인 직장동료(2)

본 연구의 지역사회와의 관계 영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과 개입을 담당하는 유관기관, 직장 등을 포함하는 지역사회 내(內)의 환경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학업중단 전의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해당하는 연구 참여자들의 보고는 공란으로 두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직후부터 학령기 이전, 학령기 이후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보고하였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된 내용들에 주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원과 개입을 담당하는 유관기관(직업학교, 청소년상담센터 등)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였다. 언급된 내용들에는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불신, 교육 프로그램과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자격간의 격차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한 가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 연구 참여자들은 약 24-27세에 해당하여 학교를 그만두었던 약 7-10년 전 당시에는 학교 밖 지원사업 및 계획들이 현재에 비해서는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비스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한 본 연구결과는 추후 지역사회 내의 해당 유관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시점부터 학령기 이후에 이르는 현재까지 취업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를 그만 두고 연구 참여자들은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구직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일자리를 얻거나, 대인관계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취업에 실패하거나, 취업을 하였어도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부정적 경험들을 언급하였다. 또한 학령기 이후 성인이 되었어도 취업현장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이와 동일한 모습들로,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근무환경, 제한적인 취업조건들이었다. 이러한 현실은 고학력자가 증가하고 취업난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더욱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어 이들을 위한 지원과 개입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학력중심사회이며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사라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측면의 현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이들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취업문제는 지금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역시 자기계발을 돕고, 취업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만족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직업학교나 상담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종합 제언

본 연구는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2018년에 진행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1차년도 연구에서는 학업 중단 학생들에 대한 주요 쟁점을 전반적으로 탐색한 바 있다. 연구 주제로는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왜 학교 밖을 나오고 있는가', 둘째, '학업 중단의 의미와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인간관계 양상 및 학업 중단 이후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넷째,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며 만족도는 어떠한가',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였다. 이처럼 1차년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면, 2차년도에 진행된 본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깊이 있는 탐색을 진행하고자 연구가 설계되었다. 본 연구는 학업 중단 이전, 학업 중단 직후부터 학령기 이전, 학령기 이후 시기를 구분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 학교와의 관계, 지역사회와의 관계가 어떤지 보다 면밀히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는 1차년도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규 교육과정을

중단하기 전후부터 다양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는데, 특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은 학교 밖 청소년의 관계양상을 탐색하기 위해 차원별 분류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되었고, CQR-M의 연구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응답에 대한 비율도 함께 탐색하였다. 각 관계 영역에 대한 분석된 결과들을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제언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에서 학령기, 학업중단 이후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이전시기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부적응을 감소시키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태도에 대한 사전 인식을 기반으로 부모와의 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위기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학생에 대한 개입 뿐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코칭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부모가 심리·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에는 학업 중단 이후 오히려 부모로 인해 청소년들의 내적 갈등이 가중되고 있지는 않은지,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청소년 개인의 삶의 목표나 방향이 소외된 채 가족 내 경제적 지원책으로만 동원될 우려에 대해 구체적 탐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체적 탐색을 바탕으로 학교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개인 상담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개입을 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에서는 부모 대상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생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정 내에서 정서적 무관심과 방치 또는 학대와 같이 안정되지 못한 가정 환경을 경험한 청소년이라면 부모-자녀 간 분리개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청소년이 부모 외의 건강한 심리적 지지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학교가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심리적 지원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교사나 학내 상담(교)사 뿐 아니라 또래나 대학생 멘토링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나눌 지지대상을 확보하고, 가정 내에서 찾지 못했던 '좋은 어른'의 모습을 모델링함으로써 가정 내 어려움이 삶의 다른 영역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업중단 직후부터 학령기에서는 학업 중단 청소년의 부모/가족을 위한 안내 자료들이 제작, 보급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변화된 환경 적응 및 가족 내 관계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내 자료에는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이해와 관련하여 학업 중단 중 경험하는 자녀의 심리정서 변화,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 방식 및 내용, 지양해야 할 양육태도, 갈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한 부모 및 가족 구성원들의 공유와 인식 개선은 학업 중단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성장과 성공적인 미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령기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경제적 부양의 부담감이 지나치지 않도록 가정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역복지 차원의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정의 경제적 제약을 높게 인식할 경우 진로를 준비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진로가 지연(노지혜, 문성호, 2019)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진로와 취업에 대한 안정적인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 경제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한 단순 노무형 취업은 가정 내 가난의 되물림으로 이어지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역량을 충분히 개발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에 투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학교 중단 전후 학교 및 관계에서의 부적응으로 인해 해결되지 못한 실패감들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와의 의사소통에서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결정할 때 부모의 의사를 거슬러 그만두겠다고 하기 때문에 자녀의 몫으로 이후 삶의 선택과 책임을 넘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중단 이후 삶의 선택과 책임을 스스로 결정하기에 삶에 대한 미숙함, 부적응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들을 겪기 때문에 이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차적 돌봄자는 교사와 부모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둔다고 하는 것은 일차적 돌봄자인 교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인 만큼 부모의 역할 비중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사회 지원체계에서는 학령기 이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삶의 선택과 책임을 감당해나가기 위해 필요한 삶의 지혜들이 가족 내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배워나가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지적 의사소통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 중 가족 탄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과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데 필요하다(유영아, 김은하, 김성수, 2018). 가족 탄력성은 가족 안에서 경험하는 대처와 적응으로, 학교를 중단하는 위기에 직면해서 부모-자녀가 함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속성이다(김미옥, 2001).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학업중단 숙려상담이 학생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동반하여 가족 차원에서 학교 중단의 위기를 가족 내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적응해 나갈 것인지 함께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2)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제언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제언을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에서 학령기, 학업중단 이후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중단 이전**에는 청소년들이 정규 교육과정의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심리내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독려하고 내적 갈등을 통합시킬 수 있는 실존적 유예기간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심리적 우울과 무력감은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두는 데 강력한 요인이지만 조급하게 해결하는 데 치중된 심리지원이 아니라 실존적 유예기간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지속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 실존적 유예 기간은 삶의 정체성을 충분히 고민하면서 성인기로 이행되는 삶에서 반드시 거쳐 가야 될 발달과업이다(정성옥, 김성범, 2015). 이를 위해 가정-학교-지역 사회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이 외상 경험을 비롯한 심리적 취약성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가정 및 학교의 지속적인 관심과 더불어, 적절한 상담, 심리검사 및 병원연계, 연속성 있는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학교 단위에서는 Wee클래스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는 꿈드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 보호, 의료, 법률 지원 등이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자기(self)를 찾아가기 위한 ‘실존적 유예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심리지원체계가 기능적인 학습만이 주로 강조되어 이런 내적 갈등을 개인의 부족함으로 보거나 소수 문제가 있는 학생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 교사, 가정, 학생들에게 학습을 위한 교육 뿐 아니라,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실존적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개인의 주체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데 얼마나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인지에 대한 사회인식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학업중단 직후부터 학령기이전까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활용하게 될 때 다음과 같은 사전 준비과정 및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될 필요가 있다.

첫째, 학업중단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부정적 상황 및 그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안내,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의

심리 정서적 변화 및 학업 중단 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현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심리정서와 관련하여서는 학업중단 중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정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처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안내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한 바와 같이, 학업중단의 현실이 학업중단 전 기대했던 바와 달라 더욱 좌절되지 않도록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 없이 학업중단을 쉽게 결정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의 이후 삶을 준비하는 교육내용에서는 학교 중단 후 사회에 진출한 사례들의 적응 및 극복과정과 실패사례들을 고루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 대한 경각심과 함께 학업중단에도 최소한의 준비가 필요함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중단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는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하는 교사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이 소속되었던 학교에서 충분히 반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에 드러난 바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 중단 이후 대인관계가 단절되며,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면서 일정 기간 고립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학업중단 이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가 필요한 청소년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또한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내용과 프로그램의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다소 상이한 현실을 고려한다면, 1차적으로는 학업중단 숙려제 기간 동안 내실 있게 위와 같은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다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업중단을 결정하는 시점에 학교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재차 안내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의 결정이 이후 삶의 성공 및 실패가 될 수 있는 기로에 있다는 점,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명과 암이 있을 수 있음을 숙고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학업중단 숙려제도가 현실을 반영한 충분한 정보를 다각도에서 제공하는 한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업중단 이후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학업중단 숙려제도에서 정보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이 정착되기 이전에 학업중단을 경험하여 실제 학업중단의 의미와 학업중단 이후의 삶에 대해 알 기회조차 갖기 어려웠다.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에서도 학업중단에 대한 정보제공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기관 등에 대해 전혀 듣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학교에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이 정착되어 실시되고 있고 학업중단 징후가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이 학업중단 이후 삶의 경로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방황하고 대학진학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찾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에서 학업중단 시점에서의 교육과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은 한 주에 1회 상담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구조화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교사나 상담사의 재량에 따라 운영되는 실정이다. 학업중단 숙려상담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주는 정보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중단 숙려제도에서 담당자의 열의와 적극성, 전문성, 학생과의 관계 정도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대한 기회가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학업중단숙려제 기간 동안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보제공에 대한 구체화되고 표준화된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에 들어가야 될 내용으로는 첫 번째, 학업 중단의 다양한 유형과 사례를 제공하여 학업중단 이후 진로, 자립에 대한 어려움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 상담을 넘어서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체계, 대학진학 및 취업 경로, 모범 사례 등이 구조화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방법적 차원에서도 대면 상담 외에 실제 학업중단의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의 인터뷰 자료, 책, Youtube 등의 매체를 활용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학업중단을 결정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 시스템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개인정보가 지역청소년 지원 기관에 이관되고 있지만 수개월의 기간이 걸리며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공백기가 생긴다. 즉시 활용 가능한 자원정보를 알려 주고 공유할 수 있는 의무교육이 시행된다면 학교 안과 밖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22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은 학습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고 구술 한 바 있는데,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 뿐 아니라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학업 중단 이후 학습과 진로에 대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 생활기술 훈련으로 정보 검색을 통한 자원 접근 활용방법으로 익힐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정보의 부재로 인한 막막함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경우 관계의 단절로 인해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과 진로에 관하여 주도적인 정보 수집이 요구된다. 최근에는 인터넷 자료의 풍성함으로 인해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를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를 그만 둔 이후 관계로부터 철수되는 시기가 오게 되더라도 진로와 자립을 스스로 찾아나가고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검색 키워드를 찾아나가는 방법을 메뉴얼화하여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지역사회별로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리스트를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함께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학습, 진로 뿐 아니라 청소년기에 통합적으로 필요한 지, 덕, 체 프로그램에 대한 자원들을 총망라한 자료를 구축하여 학업숙려 상담에서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에게도 배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갈등 수준이 높았고, 학업 중단 청소년들의 부모는 학업 중단 이후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자녀의 선택에 따른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의 학부모에게 학교 밖 청소년의 삶과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함께 안내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필요한 부모의 실질적, 심리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재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은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 부모들의 고민이나 욕구를 대변할 지원이나 자료는 없는 실정이며, 특히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부모에게는 더욱 맞춤형의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포함되어야 할 정보로는 예를 들면,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는 학습 기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학습 자원들, 자격증 과정에 대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도록 한다.

학령기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후 이른 사회인으로 진출하는 데 충분한 자기탐색 시간과 부정적 자아에 대해 반성적 통찰 시간을 통해 자아를 통합해나갈 수 있는 시간과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사회 내 청소년 센터는 학령기 청소년에 집중되어 있다. 이십대 초반 후기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할 경우 대학에서 학생상담센터를 통하여 심리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심리지원 지원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 센터 내 이십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 지원체계가 마련되거나 후기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심리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이십대에 들어선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지원은 발달과업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되는 해결 중심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지역 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동기 강화, NLP(Neuro-Linguistic Programming) 집단 미술치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박지현, 2018; 임은실, 이제순, 2018)

이처럼 향후에는 심리 지원이 학업 중단 문제와 원인보다는 원하는 결과와 목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래상을 구체적이고 긍정적으로 제시도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또래 관계에 대한 제언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학업중단 이전, 학업중단 직후에서 학령기, 학업중단 이후로 구분하여보면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이전 청소년들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위클래스나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최상근 외, 2011). 하지만, 또래갈등이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중에는 주변의 시선에 민감하고 교내 위클래스를 활용하는데 비밀유지에 대한 신뢰가 낮아 적극 활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교내 위클래스의 비밀유지를 위한 방안 마련과 이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교내 위클래스 활용에 대해 부담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근접한 곳에 위치하여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이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다양한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학교현장에서는 주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대인관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은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기술 프로그램을 신학기에 집중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육 이수 시간이 확보되어야 하며 가정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학교생활 초기에서부터 경험하는 학교생활적응의 어려움을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하여 상위학년으로 진학할수록 어려움이 누적되어 다른 학생과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급기야 학업중단 또는

학업중단 위기 상황에 봉착하기도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박희훈, 오성배, 2014).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선행 연구에서는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려운 학교생활 적응을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희훈, 이유정, 2019). 다문화 가정의 학업 중단 청소년들이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고립된 환경에 놓이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들이 학교에서 비자발적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특별 관리 제도가 요구되며 한국 사회 적응에 필요한 특별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학내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이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다문화이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자치 활성화 교육정책이 발현되어 민주적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데 학생들의 자주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학생자치기구에서 또래관계에 관한 학교규정을 수립하여 운영하거나(박선환, 2019),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발굴하여 멘토-멘티를 맺도록 지원해주거나, 또래갈등 중재 및 폭력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활성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또래관계를 자주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자치 활성화 교육정책 따른 구체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마을결합형 학교, 경기도의 마을교육공동체, 혁신교육지구 등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교육행정지구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기구와의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으로 예산 지원의 탄력을 받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에는 온 마을이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이음터라는 마을, 학교, 주민을 잇는 공간을 전국 최초로 설립하여 선을 보였으며 동탄의 이음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해마다 증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이라 예측되는 가운데 본 연구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필수적인 교육 제공 또 이를 위한 제반 시설 및 예산 확보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할 때이다. 현재 꿈이룸 센터와 같은 특성화 기관들이 마련되어 운영을 확대해 가고 있는 실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의 증가와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그 기반 마련은 더딜 수밖에 없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개발비용, 시설 확보, 무엇보다 전문적 인적자원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안과 밖 청소년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음터’와 같은 기관의 장벽을 허물어 비용절감, 인적자원 확보 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없애고 이제는 학교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교육을 받고 싶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학업중단 직후 학령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 형성,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서로 공감 받고, 지지받는 경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아웃사이더’로서 관계의 단절과 외로움 경험한다고 언급한 바, 서로 공감대가 맞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하는 경험의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학업 중단 직후에는 미래에 대한 고민보다는 이러한 심리, 정서적 지지가 주안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한 개입 이후 진학, 취업 등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추후 멘토링 연결, 직업체험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또래에 비해 부족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정보와 조언을 얻게 해주는 경험이 필요할 것이다.

학령기 이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령기 이후 성인기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인 이성관계와 결혼을 건강하게 준비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이른 사회인으로 또래에 비해 빠른 성인기 발달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혼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 부모로서의 양육태도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 지역 사회에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 또는 신혼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다(중앙일보, 2019). 결혼 예비 학교 프로그램은 실제로 부부간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재림, 차동혁, 김지애, 이향희, 2012).

또한,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의 위한 관계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음과 같다.

지역 사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 모임의 장을 통해 소통하고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후기청소년을 위한 모임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무중력지대와 같은 후기청소년 공간이 마련된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부산의 경우 부산 청년 두드림을 통해 지역 청년들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파이낸셜 뉴스, 2019). 부산 청년 두드림에서는 청년 주도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첨삭과 면접 코칭, 다양한 문화 강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대 초중반을 위한 ‘청년 창업 공간’은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 진로탐색, 인턴십 등의 자원을 제공하며 만남의 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 욕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삶의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무중력지대’와 같은 청년들의 공간을 운영하여 커뮤니티 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꿈드림센터 이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청년들을 지원하는 공간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물리적 공간이 마련되고 확대된다면 자연스럽게 인적자원망이 구축되고 다양한 커뮤니티가 형성될 것이며 나아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 대한 진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관계의 장은 생계형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장기적 진로 설계와 취업준비를 위한 수당제도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직업학교 훈련과정이 사무직과 전문직 분야로 확대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구직 분야가 단순 노무직에서 일반 사무직 및 적성 분야에 따라 다양화 되어야 한다.

4)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제언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실천적·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업 중단 이전 시기에 대해 살펴보면,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으로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특기/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이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입시위주의 교육풍토가 만연해 있어 이런 활동들이 형식적 수준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하거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은 학업을 중단하기 전, 교사와의 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는 학내에서 적응적 어려움을 경험할 때 교사와 상의하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차단해 버리게 만들기도 하고, 의논을 해도 교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거나 오히려 문제아로 낙인찍혀 갈등을 겪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할 때, 교사를 대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이해도 향상 프로그램과 교사-학생간의 관계 형성에 관한 교사생애 주기별 요구에 맞춘 전문연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나아가, 청소년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메뉴얼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의 행정적 업무를 줄이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보다는 학생들의 삶의 질을 위한 교육풍토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안위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 진학 했으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을 비롯하여 실업계와 인문계를 용이하게 교환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도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소년기는 진로탐색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할 발달 시기이므로 인문계와 실업계를 선택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을 마련하여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유연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진학 전 실제 학교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캠프를 내실 있게 활성화하도록 예산지원과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입학과정에서 교사들이 직접 중학교에 나가 학생 유치를 위한 학교 설명회를 진행할 때 정확하고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적인 체험위주의 탐색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 또한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의 부적응 문제는 학교 장면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므로 교육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학부모 지원단을 구성하여 개인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생활의 장에서 모니터링하여 발굴하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학업중단 직후부터 학령기이전의 시점에서는 복교를 희망하고자 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이나 지역사회 내 기관을 통한 프로그램 등으로 자신을 탐색해보는 시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학업중단 원인을 다루어주고 해결이 되어야만 기존의 문제로 인해 다시 학업중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고 성공적인 학교 적응이 가능할 것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도와 마찬가지로 복교할 때에도 개인 심리정서에 대한 상담과 복교를 했을 때에 마주하게 될 현실들에 대한 고려, 대처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관기관의 안내 등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관기관에서는 복교한 학생들의 사례를 모아 해당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서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를 제시해 줌으로써, 막연하게 교복을 입은 친구들의

모습이 부러워 복교 한 후 학업중단을 하지 않도록 자기 탐색을 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학업을 중단하였던 청소년들에 대해 막연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교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존 아이들 속에 녹아들어 학업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지 적절한 훈육과 개입 방안을 교사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수의 기존연구들(박병금, 노필순, 2016; 이주연, 정제영, 2015)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중 복교를 고려한 적이 있다는 수준에서 제한적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복교를 고민하고, 복교를 결정하며, 복교 후 부적응 및 재차 학업 중단에 이르는 순환적 양상 속에서 개인 적응 및 학교, 교사요인의 영향들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입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 IV.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협동연구)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5개년도 연구계획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조사 대상 지역사회 특성
- 5. 연구 결과
- 6. 요약 및 논의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협동연구)⁷⁾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나,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족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많은 수가 가정환경에서의 기능적, 구조적 결손을 경험하고 있다(김경애 외 2014).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취약한 환경적 요소들은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2014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작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법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에 의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다. 이는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전 연구(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 2018)에서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물적 및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이 다르며, 각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가지는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 별 특색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7) 이 장은 본 연구의 협동연구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8-58-02)의 내용을 요약한 것임

본 연구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성공적인 지원체계모형을 발굴하고자 5개 년도의 연구로 계획되었다. 2018년에 진행되어진 1차 년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형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차 년도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기초자료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1차 년도 연구의 경우, 각 지역사회 유형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로 1개 기관 만을 선정하여 연구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어떠한 지원체계 및 모델이 필요한지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도시 중, 중소도시⁸⁾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소도시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형 개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소도시 중 성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선정된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 연계기관의 실무자 심층 면접이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사회 자원모델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5개년도 연구계획

본 연구의 전체 5개년 연구계획은 다음의 그림 IV-1과 같다.

-
- 8) 지역 선정을 위하여 자문회의가 실시되었으며,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 환경과 지역자원 등이 많이 부족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모델이 우선적으로 나와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중소도시 지역을 위한 지원모델 연구가 먼저 실시되었다. 또한 대도시, 읍면지역에 비해 중간 정도의 지역 규모이니, 향후 대도시, 읍면도시 지역 연구에 시사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중소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자체 수요와 청소년 연구에 기반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를 가, 나, 다로 등급을 분류한 리스트 중, 중간등급인 “나”등급의 지역으로 조작적 정의하였다. “나”등급 지역의 도시 중, 자문회의를 통하여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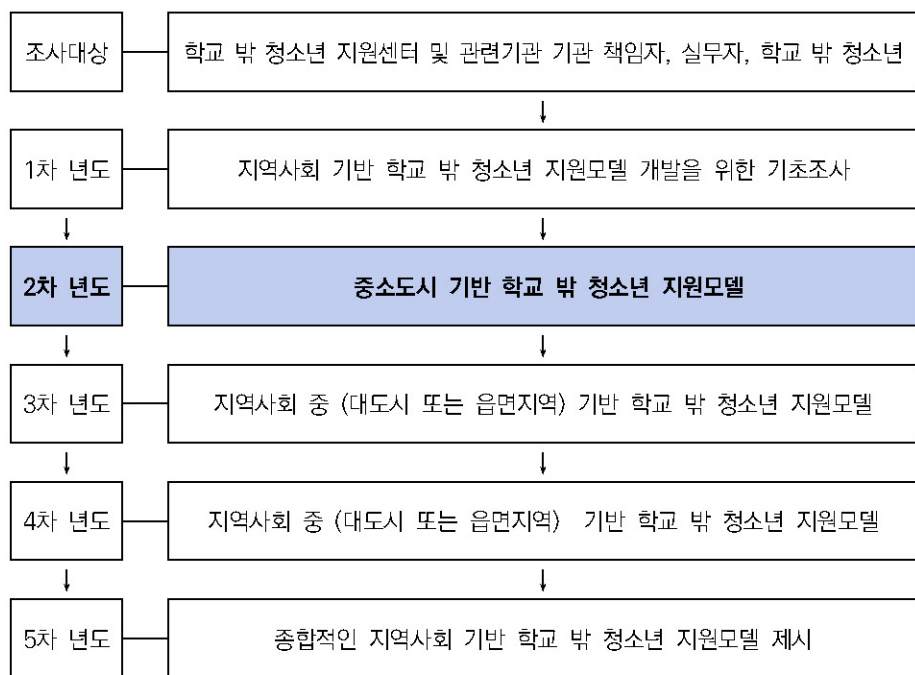


그림 IV-1 연구계획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선정된 중소도시 3개 지역의 지역배경, 자원분포 등 지역특성 조사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및 현황 파악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욕구 파악
-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성공요인 파악 및 지원체계의 성공모델 발굴
- 중소도시 지역 지원체계의 모델 제시

2) 연구 방법

(1) 심층면접 조사

조사 대상 중소도시로 선정된 3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및 지역 연계기관 실무자 면접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및 현황,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욕구 파악, 지역별 성공모델 조사 등을 파악하였다.

① 연구 참여자 현황

연구 참여자 현황은 표 IV-1과 같다.

표 IV-1 2차 년도 연구 참여자 현황

구분	코드	성별	나이	근무기간	비고
기관책임자	기관장 1	여	44	4년	기관책임자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실무자 1	여	49	3년	팀장
	실무자 2	여	51	9년	팀장
	실무자 3	남	40	9년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연계기관	실무자 4	남	51	8년	시설관리공단
	실무자 5	남	28	3년	사회적기업
	실무자 6	남	38	8년	문화스포츠센터
	실무자 7	남	31	3년	노인요양원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 주요 내용은 표 IV-2와 같다.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 운영현황 및 예로사항, 기관의 성공요인, 발전방향 등을 파악하였다.

표 IV-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지역, 유관기관 현황	조직현황, 공간현황, 예산확보방법, 임금현황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 지역의 환경적 특징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특성에 따른 한계점
기관 이용 청소년의 특성	현재등록인원, 실제이용인원, 이용인원의 연령대, 학업중단시기, 유입경로, 이용청소년 특성, 이용청소년 욕구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서비스 유형, 서비스 지원방법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
기관 성공모델 및 성공요인	성공모델
	성공모델 요인
지자체 네트워크, 정책의지, 지원사업	지자체와 지역 네트워크 결성, 지자체의 정책의지 및 관심
	지자체 지원사업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 추후 정책 및 지원 방향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지역의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의 주요 내용은 표 IV-3과 같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과정 및 연계 관련 사업, 운영현황, 사후관리, 애로사항, 발전방향 등을 파악하였다.

표 IV-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조사영역	세부내용
기관의 사업 유형, 학교 밖 청소년 관련사업, 학교 밖 청소년 연계과정	기관 주요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꿈드림과의 연계과정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연령 및 성별, 욕구(관심분야), 청소년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운영 후 사업성과 및 지속의향,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	서비스 유형, 이용인원, 꿈드림 연계 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 이용 청소년 사후관리
	사업 성과, 사업 지속 의향
	지역적 한계점, 개선점 및 애로사항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가장 필요한 네트워크, 가장 필요한 지원, 지원체계 발전방향

④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 연구원들이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 혹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진행하였다. 심층 면접은 사전에 제작된 반구조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연구의 기초적인 해석방법에 근거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은 녹음 또는 필사된 원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면담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내어 주요 영역과 핵심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함축된 용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후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자료에 대한 지속적으로 검증하였다.

4. 조사 대상 지역사회 특성

1) 경기도 ○○시⁹⁾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경기도 ○○시는 총 면적 430.99km²이지만, 면적의 68.6%가 임야이다. 지역규모에 비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들의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지 않다. 2018년도부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재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되어가는 중이다. 도시화가 되어가는 지역은 일부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도농지역이거나 공장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345,947명이며,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3년 49,370명에서 2017년은 53,915명(총 인구수의 15.6%)으로 지난 4년간

9) 조사내용의 특성상, 성실하고 솔직한 응답의 수집을 위하여 본 조사대상 지자체의 이름과 기관명 등 조사에 참여한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하기로 조사대상 기관과 합의하였으며, 이를 조사대상 현장실무자들과의 인터뷰 전에 공지하였다.

약 4천명의 청소년이 증가하였지만 구성비는 감소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20세-24세 청소년의 수는 늘었으나 구성비는 비슷하였고, 10-14세, 15-19세 청소년의 수와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시의 전체 학교 수는 79개교이며, 초등학교 수는 40개교, 중학교 수는 23개교, 고등학교 수는 16개교이다. ○○시의 전체 학생 수는 71,615명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25,140명, 중학교 학생 수는 12,817명, 고등학교 학생 수는 15,184명이다. 전국의 1개교 당 학생 수에 비해서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 학업 중단율은 다음의 표 IV-4와 같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에 반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0.46% 증가하여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많이 높아졌다.

표 IV-4 ○○시 학업중단율

(단위 :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36,753	291	0.79	18,814	120	0.64	7,841	45	0.57	6,825	126	1.85
2017	35,607	204	0.57	17,608	52	0.30	7,589	52	0.69	7,372	100	1.36
2016	35,215	235	0.67	17,042	83	0.49	7,501	47	0.63	7,571	105	1.39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08.01.) 인출

* 주 : 1) 학업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V-5와 같다. ○○시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 야영장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각 1개소, 미인가를 포함한 4개의 대안학교가 있다. 청소년을 위한 시설 자체가 많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기에 열악한 상황이다.

표 IV-5 ○○시 청소년 시설 현황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3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	
	청소년 야영장	2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	-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	1	5
	대안학교	4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 카페	-	-
	청소년 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9개소

2) 경기도 △△시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는 총 면적 134.56km²으로 서울, 인천, 부천과 가까운 수도권의 주거, 공업 분담도시이다. △△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고 있으나, 전철이 지나지 않은 곳은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실정 탓으로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이동이 어렵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왕복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이나 걸리기도 한다.

2017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419,664명이며,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3년 85,648명(총 인구수의 약 21.6%), 2017년은 80,870명(총 인구수의 약 19.2%)으로 지난 4년간 약 5천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비 또한 2.4% 감소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20-24세 청소년 인구수와 구성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0-14세, 15-19세 청소년 인구수와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시의 전체 학교 수는 44개교이며, 초등학교 수는 26개교, 중학교 수는 11개교, 고등학교 수는 7개교이다. △△시의 전체 학생 수는 44,961명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17,608명, 중학교 학생 수는 7,589명, 고등학교 학생 수는 7,372명이다. 전국의 1개교 당 학생수에 비해서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가 약 2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지역으로 선정된 3지역 중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 학업 중단율은 다음의 표 IV-6과 같다. 2016년에 비해 2018년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대폭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이 0.42% 증가하여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많이 높아졌다.

표 IV-6 △△시 학업 중단율

(단위 :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60,241	294	0.49	27,185	95	0.35	12,949	33	0.25	14,286	166	1.16
2017	58,602	266	0.45	25,140	73	0.29	12,817	56	0.44	15,184	137	0.90
2016	59,278	261	0.44	24,816	75	0.30	13,479	70	0.52	15,710	116	0.74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08.01.) 인출

* 주 :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품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V-7과 같다. △△시의 청소년 시설로는 청소년 수련관이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 남자단기청소년 쉼터가 1개소, 여자단기청소년쉼터가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각각 1개소가 있다.

표 IV-7 △△시 청소년 시설 현황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2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1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	
	청소년 야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쉼터	2	2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	1	2
	대안학교	1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카페	-	-
	청소년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7개소

3) 충청북도 □□시

충청북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시는 총 면적이 940.31km²으로 충북선,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가 모두 지나며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시는 유명한 소비도시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으며, 그에 따라 공단도 많다. 또한 군단위의 두 지역을 통합하면서 인구수와 지역 규모가 광역수준에 가까워질 만큼 커지고 있다. 시내 권 안에서는 청소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여 많이 이동하지만, 군단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은 많지가 않다.

2017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835,590명이다.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3년 169,701명(총 인구수의 약 20.5%)이며, 2017년은 155,993명(총 인구수의 약 18.7%)으로 지난 4년간 약 14,000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구성비 또한 감소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19-24세 청소년의 수와 구성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0-14세, 15세-19세 청소년의 수와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기준 □□시의 전체 학교 수는 172개교이며, 초등학교 수는 89개교, 중학교 수는 46개교, 고등학교 수는 37개교이다. □□시의 전체 학생 수는 141,352명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49,407명이며, 중학교 학생 수는 25,310명이며, 고등학교 학생 수는 30,768명이다. 전국의 1개교 당 학생 수에 비해서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의 학교 수가 학생 수 대비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 학업 중단율은 다음의 표 IV-8과 같다. 2016년에 비해 2018년 중학생의 학업중단율은 감소하였지만,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증가하였다.

표 IV-8 □□시 학업 중단율

(단위 :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113,511	674	0.59	49,823	176	0.35	24,373	125	0.51	28,528	373	1.31
2017	116,931	766	0.66	49,407	166	0.34	25,310	147	0.58	30,768	453	1.47
2016	119,971	668	0.56	49,338	148	0.30	26,689	138	0.52	32,388	382	1.18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08.01.) 인출

* 주 :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몰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V-9와 같다. 청소년 수련관이 1개소, 청소년 수련원이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가 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1개소, 청소년 쉼터가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2개소가 있으며, 미인가를 포함한 대안학교가 7개소가 있다.

표 IV-9 □□시 청소년 시설 현황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4
	청소년 수련원	1	
	청소년 문화의 집	1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1	
	청소년 아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3	3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2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	2	9
	대안학교	7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카페	-	-
	청소년 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18개소

5. 연구 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 면접 결과

연구 대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타 기관(예 : 상담복지센터)과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은 인원 기준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운영이 어려워 지자체에서

인원을 충원 받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중앙부처의 예산만으로는 예산이 모자라 지자체 지원, 사업공모 등으로 예산을 보완하고 있었다. 지역적 특색으로는, 조사 대상지역 중 두 지역의 기관은 공업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개발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수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타 지역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많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청소년이 많이 몰리고 있었다. 넓은 지역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한정되어 있고 교통편의 시설이 부족하여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아보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한 지역은 도농지역이었는데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직업군도 거의 없고 취업을 위한 전문 학원도 없어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조사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주로 친구의 소개로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한번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그 후에도 대부분 꾸준한 참여율을 보였다. 그들 중 많은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합격에 대한 욕구를 지니고 있었다. 공업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경제적 빈곤 및 위기 상황 노출로 인하여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도농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주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을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지역연계를 활발히 이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인턴십, 진로작업장 파견등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입을 위해서 검정고시와 관련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학진학을 위한 교재나 학습지원, 입학 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서 및 활동지원을 위한 실무인력 확충이 필요하고, 활동 및 작업 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IV-10 조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관 현황, 청소년의 특성, 운영 현황

구 분	내용
기관 현황	-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공간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사업 운영 인력 및 예산 부족 - 조사 지역 모두 타 지역 대비, 학교 밖 청소년 인원 많음에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의 부족으로 해당 기관 이용하는 청소년 수 많음 - 넓은 지역 대비 기관수의 제한으로, 기관 이용 시 청소년의 교통문제 열악 - 도농지역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이 원하는 취업 관련 기관 부족
기관 이용 청소년 특성	- 주로 친구의 소개로 기관 방문 - 꾸준히 기관 방문 - 공업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경제적 빈곤 및 위기상황 노출로 인하여 비행행동 증가 - 도농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토로
기관 운영 현황	-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지역연계를 활발히 하여, 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프로그램 활발히 진행 - 검정고시 지원 외의 대학진학을 위한 지원 혹은 입학 후 지원이 필요한 실정

본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자리를 잡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지역연계를 이루어냈다. 여러 특징을 고려하여 유형을 나누면 3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초기에 정부나 민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 사업들에 지원하여 기관의 자리를 잡은 유형이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부 및 민간사업 많아지면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증가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이 지역사회에 홍보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실무진의 업무가 급증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은 초기부터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 등에 지원하지 않고, 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사업과 지역 전문기관과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 자리를 잡은 유형이다. 셋째, 정부 및 민간 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확산형은 제 1유형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의

확장형으로, 초기에는 정부나 민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에 지원을 하다가, 차츰 지역사회에 기관의 이름이 알려지고 기관의 인력만으로는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어, 지역의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기관의 자립을 도모하는 형이다. 이 유형의 과거시점을 조사하였다면 제 1유형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 발견 되었을 것이다. 과거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에 힘썼지만, 현재는 그보다는 지역 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기관을 이끌고 있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IV-11 중소도시 지원모델 유형

구 분	내용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 기관 초기에 정부나 민간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지원하여 자리를 잡은 유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	- 기관초기부터 청소년 관련사업과 지역 전문기관과의 꾸준한 연계를 통해 지역네트워크 발굴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리를 잡은 유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확산형	- 위의 두 유형이 합쳐진 형태로, 초기에는 정부 및 민간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다가, 점차 지역네트워크 확산을 통해 기관을 이끌고 있는 유형

조사대상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성공요인으로는 실무자의 근무조건이 안정화되어 실무자들이 학교 밖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 이로 인하여 실무자들이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정신이 투철하다는 점,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실무자 복지를 위하여 지자체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들이 조사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자체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자체 자체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충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하였다. 또한 진로 작업장 예산 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을 만큼, 지자체의 관심이 높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꼽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으로는, 우선 중앙정부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인력 확보를 통해 업무를 안정화시키고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고위험군 청소년들을 위해 상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이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청소년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게끔 기능의 확장이 필요하고, 공간적으로, 행정적으로 상담복지 센터와는 분리된 독립된 기관으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교육비, 자립비 등과 같이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조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자체 소속으로 직영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취업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해 볼 수 있는 진로작업장을 확보하는 데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표 IV-12 조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성공요인, 지자체 협조 현황, 지원체계 발전 방향

구 분	내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 성공요인	- 실무자의 근무조건 안정화 -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 투철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뿐 아니라 실무자 복지를 위한 지자체 협조를 무난히 받을 수 있음 -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지자체 협조 현황	- 지자체와의 활발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지자체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높아 충분한 예산 확보 가능 - 진로 작업장 예산 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등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사는 사업이 있는 만큼, 지자체의 관심이 많음
지원체계 발전방향	- (중앙정부) 실무자 인력 확보 및 급여 안정 / 학교 밖 청소년 정신건강 위한 전문인력 확보 / 독립된 공간 마련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소속감 고취 필요 - (기초자치단체) 기관과의 협조관계 공고히 유지 / 진로작업장 확보와 같은 지자체의 지원 필요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연구 대상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관은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 문화센터)과 지자체와 연관되어 사업을 하는 기관(사회적 기업, 요양원)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되는 과정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관련 협조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영 평가 때문에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으로 연계기관의 활동을 통해 직업 체험을 해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진로와 학업 관련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훈련을 받으면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청소년도 있었다. 주로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에 참여하였으나, 가정환경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별로 없거나 내성적인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지역연계기관들이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맡기는 업무는 주로 청소년의 욕구에 맞춘 기초 업무 수준이었고, 청소년들은 '인턴십' 훈련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었다. 1년에 2~3명 정도 소수의 청소년만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인턴십이 끝난 후에 연장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연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지역연계기관들은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이어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토로하는 몇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아직 청소년이보니 전문성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좀 더 다양한 직무를 체험해보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어서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욕구에 부응해 주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성인이 아니다보니 직장예절을 잘 몰라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교통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중앙정부에 원하는 사항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긍정적 관심 확대를 위한 노력,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시설 확충 및 예산 확충이 있었고, 기초자치단체들에게는 지자체가 직접 지역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연계사업을 운영하는 것, 민간기관에도 지자체가 직접 지원 및 협조 요청을 하는 것, 현재 진행 중인 인턴십 활동에 대한 예산 확충 등이 있었다.

표 IV-13 조사 지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기관 현황, 운영 방법, 지원체계 발전 방향

구 분	내용
현황 및 연계과정	- 지자체의 관리를 받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타 기관들로 나뉘어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들이 연계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사업 관련 협조 요청 - 혹은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연계사업 시작
기관 이용 청소년 특성	- 10대 후반~20대 초반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이용 - 직업체험의 의도가 많음 - 다양한 진로 및 학업 욕구 존재 - 주로 적극적으로 인턴십에 참여하나, 가정환경 등의 영향으로 내성적인 경우가 있음
운영 방법	- 기초 수준의 업무 부과 - 1년에 1~3명 정도의 청소년이 이용 - 인턴십 종료 후 연장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 - 연계기관 자체적으로 사후관리 진행하지 않음
지원체계 발전방향	- (중앙정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긍정적 관심 및 이미지 확대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시설 및 예산 확충 필요 - (기초자치단체) 지자체에서 직접 연계기관에 지원 및 협조 요청 필요 / 현재 진행 중인 인턴십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 필요

6. 요약 및 논의

1)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같은 중소도시 내에서도 지역의 산업유형, 인구 수 혹은 인구 수 변화 추이,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인구 비율,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의 질적, 양적 차이 등을 고려하여, 지역특성이 반영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학교 밖 청소년 기관이 타 기관 (청소년 수련관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과 공간을 같이 쓰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이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대도시와는 다르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많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타 청소년들과 같은 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3) 모든 청소년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전 연령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는 것에 비해, 조사대상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나이는 17세에서 22세 정도가 많았다. 이는 모든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아우를 수 있는 사업 및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성공요인 중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우수한 전문 인력이 확보되었느냐의 여부였다. 근속년수가 길고, 학교 밖 청소년 사업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우수한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울을 비롯한 심리적 문제가 많은 고위험군 청소년들로,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줄 상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대도시와는 다르게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기관들의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몇 개 안되는 기관 중 하나인 경우가 많으며,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기관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이 확장되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 대안학교의 기능을 포함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력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질 수 있다.

(6) 예산 확보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는 부족하여 지자체 및 여러 정부 및 민간사업의 유치를 통해 기반을 다졌다. 이러한 예산 부족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또한 대도시와는 다르게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체험 및 인턴십의 기회가 적다보니 대도시로의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중소도시에서도 이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머물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7)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중소도시에서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선정된 조사 대상 지역들의 경우,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었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적극적인 협조 및 도움을 받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가 확고히 구축되어지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판단된다.

(8)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대도시와는 다르게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 이는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도시로 나가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어린나이에 본인의 거주지를 떠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게 한다.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아르바이트, 직업체험, 인턴십 등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9)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

예산의 부족, 최근의 트렌드의 급속한 변화 등은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 적합한 최적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들의 연수 제공 등을 통하여,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본 보고서를 통하여 중소도시 지역사회에 성공적인 지원모델로 3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각 유형은 각 조사지역의 성공요인 및 성공발달 과정의 특색에 맞추어 명명되어졌다. 각 유형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기관이 처음 지역에서 기초를 마련한 방법을 토대로 명명한 것으로, 초반에 정부 및 민간사업에 공모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통하여 토대를 닦은 유형을 의미한다. 초반의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 및 민간사업에 공모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기관이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체계의 핵심이 되는 중춷돌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유형은 오래 지속되기가 힘든데, 예산의 확대되고 사업이 활성화되어질수록 제한된 실무자들의 수에 비해 그 업무가 급속도로 증가되기 때문이다. 이 유형은 지역에 기반이 없어서 처음부터 지역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어렵거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시작되어질 수 있는 모델이다.

(2)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은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에는 지원하지 않고, 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 네트워크를 발굴하여 자립한 유형이다. 이러한 유형의 특성으로는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전적으로 좋았고, 이를 통하여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

(3)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은 초기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하여 기관의 자리를 잡은 후, 이를 통하여 형성하게 된 지역사회 네트워

크를 발굴, 확장시키면서 지역연계를 활성화시킨 유형이다. 제 1유형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과 제 2유형인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이 혼합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에 비해, 기관 초기에는 실무자의 부담이나 업무가 컸을 수 있으나 빠른 시일 안에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3가지 유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3가지 유형의 특징과 장, 단점을 비교하면 [표 IV-14]와 같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의 경우, 지역사회 연계나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이 자체적으로 기관의 확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의 양이 많아질수록 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의 인력만으로 지속시키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의 경우, 지자체의 활발한 협조로 시작될 수 있으며, 실무자들이 정부나 민간사업 공모에 시간과 노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확산형은 지속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사업을 유치하고, 결국에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 IV-14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구분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특징	주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기관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짐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서 지역사회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로 사업이 안정된 이후 지역 네트워크의 확산 및 활성화를 도모
장점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함	처음부터 학교 밖 청소년센터 본연의 기능 이외에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 추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단점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큼, 인력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의지와 관련이 적음	사업 초기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음

○———— V. 정책 제언

- 1. 요약 및 시사점
-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패널 분석결과

(1) 학업중단 이전단계의 경험

학업 중단 이전의 청소년들은 자아관계에 대해 ‘자신의 세계에 고립’, ‘심리적 취약’, ‘나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가정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자 함’ 등을 언급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돌봄 받기 어려운 가정환경’, ‘부정적 관계 양상’, ‘긍정적 관계양상’ 등이 부각되었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부각된 반응들은 ‘부정적 또래관계’, ‘또래 관계의 긍정적 영향을 받음’, ‘이성관계’ 등이었다. 이들이 학업을 중단하기 전 학교에서 얻은 경험은 주로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불만’, ‘원하지 않았던 학교’,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 ‘학교와 교사로부터 외면당함’, ‘교사의 심리적 지원’의 5가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즉,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에서 의미 있는 배움을 얻을 수 없었고, 획일적인 학교생활에 답답함과 어려움을 경험하며 오랜 시간동안 쓸모 없이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에 학교가 감옥 같이 느껴졌다고 토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중단은 근본 원인과 촉발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근본 원인으로서는 또래관계,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외상, 가정불화, 학업에 대한 흥미 없음, 학교 규칙 위반, 부상, 원하지 않는 학교, 희망하는 진로를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촉발 원인은 원하지 않는 학교, 학교 생활 부적응, 자퇴 권유받음, 학교 교과과정에 대한 불만족, 학교 규율 위반, 심리적 외상, 친구와의 갈등,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담임교사 등이 언급되었다.

(2) 학업중단 직후의 경험

응답자들이 학업을 중단한 이후, 본격적으로 학업중단의 삶의 시작되며 경험하게 되는 관계의 문제들 역시 자아, 가족, 또래, 학교, 지역사회로 분류했다.

이들의 자아관계에 대한 반응들은 ‘학업중단 중 좌절을 경험함’,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함’, ‘나의 새로운 면들을 발견함’의 범주로 나뉘어, 학업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의 삶의 과정에서 자신과의 부정적 경험을 마주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자신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학업중단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 인식’, ‘가족 내의 골칫거리가 됨’, ‘학업중단 결정에 관한 부모의 신뢰’, ‘가족의 지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났다. 다시 말해, 연구 참여자들의 학업중단에 대해서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반면 학업 중단 중 부모와 가족이 보내준 지지와 신뢰도 부각되었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부정적 또래관계의 양상’, ‘또래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변화’, ‘힘이 되어준 지인’ 등이 나타났다. 학업중단 이후 또래와의 관계는 단절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단절된 관계의 회복 및 지인들의 도움도 있었다.

학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모습들은 크게 ‘학업중단에 대한 후회와 복교에 대한 고민’, ‘직업학교로의 전환’, ‘학업중단과 복교의 반복’으로 분류되었다. 학업

중단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소외감과 외로움으로 학업중단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했으며 복교를 생각하거나 실행했다고 구술하였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 학교에서의 적응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업중단 이후 현재의 경험

이들이 경험하는 지금 현재 자아관계는 ‘적극적인 진로 및 진학 준비’, ‘뒤늦은 진로 준비로 인한 무거움’, ‘소극적인 진로 준비로 인한 불만족감’, ‘또래보다 이른 직장생활에서의 만족감’, ‘경제적 필요에 대한 현실적 인식’, ‘직장 생활에서의 불만족감’, ‘심리적 어려움’, ‘행동조절의 어려움’, ‘심리적 어려움의 극복’, ‘불만족스러운 일상생활’, ‘부모로부터의 독립’, ‘부정적 자아인식’, ‘긍정적 자아인식’, ‘군대에서의 적응양상’,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의 현재 가족관계는 가족 간 소통방식, 현실적 과업수행을 통한 부모와의 관계회복, 부모 자녀 간 공활한 마음, 부모의지지, 가족 내에서의 경제적 부담감,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양가감정, 가족관계에서의 불만족감 등으로 나타나, 역시 개별 사례마다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래 관계에 대해서는 심리적, 환경적 걸림돌로 인한 또래관계에서의 소외감, 또래에서의 비공우위에 있는 조건, 또래문화에서의 기회 박탈, 생계문제 해결로 인한 관계욕구의 지연, 사회적으로 확대되지 못하는 협소한 관계망, 관계양상의 다각화, 또래에 비해 이른 결혼, 안정적 관계를 향한 시행착오가 언급되었다.

학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속감의 회복, 대학에서의 부적응,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마련된 현실적 제도, 취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 학교에 대한 소회, 학업중단에 대한 소회 등이 나타났다. 지역사회와의 관계로는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데 현실과 이상의 괴리, 사회적 소속감을 위한 지역사회 활동, 멘토의 지지,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 사회생활에서의 적응 등이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장연구결과

본 연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형) 세 곳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역의 현황,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특성 및 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이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방향 및 성공요인, 지자체 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기관 및 지역 현황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 부분에서는 기존 여가부 지침 외에 인력 및 근무년수 확보가 되어있다. 공간현황은 타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활동 시 어려움이 있다. 예산부분에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였다. 임금은 타기관(상담복지센터)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 편이었다.

기관별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은 우선 세 기관 모두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이 높았다.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이 넓은 편이지만 규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했으며 교통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지역은 청소년이 선망하는 취업관련 전문기술학원이 부족하다.

(2) 기관이용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마다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공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은 경제적 빈곤과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의 증가가 나타났고 도농지역의 경우 심리적 우울을 이야기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중앙부처 권고 주요서비스 이외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 나타나는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반확립 모델 및 성공요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나형 센터의 모델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둘째,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셋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이다. 이런 모델이 되기까지 각 기관의 성공요인으로서는 실무자들의 근무조건 안정화로 인하여 이직률도 줄고 이로 인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성공요인이 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홍보와 사업설명회 등으로 인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정책의지 및 네트워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세 기관 공통적으로 정부나 광역시도의 지원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였다. 기관별 지자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진로 작업장 예산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기관마다 지자체와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사업 등에 대한 관심으로 예산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정책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으로 실무자들의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인력 필요,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을 이야기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 지원이다. 교육비와 자립비는 광역자치단체나 도 관할 입장에서 가장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많은 진로체험이 가능한 진로작업장 확장과,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시에도 학력취득 인정,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 내의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투입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 그리고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는 연계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기관의 사업 유형,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1) 지역 연계기관의 사업유형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 유형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문화센터)과 지자체와 연관 되어 사업을 하는 기관(사회적기업, 요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인턴십 훈련과정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계과정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직접 기관으로 찾아온 경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알게 된 경우였다.

(2) 기관이용 청소년의 연계경로, 연령대, 욕구,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는 주로 17~22세의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특성이 보이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과 매사에 무기력함을 보이는 특성도 나타난다.

(3)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해에 2~3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인계받은 후 기관방침에 따라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인턴십 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업성과는 지역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과 인턴십 훈련 후 기관에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사업은 꾸준히 하고 싶어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직무체험의 어려움, 교통 편의시설 부족, 직장 내 예절교육, 인턴십 훈련 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이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은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구분하여 정책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자체 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직접적 연결과 더불어 지역의 민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활동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내의 사례 및 업무협조 그리고 지역과 지역과의 관련기관 사례공유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 지자체 지원과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기관별 공통적인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시한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은 의무취학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의무교육 수행기관인 초등학교, 교육지원청과 대상학생에 대한 유기적 정보교환, 서비스 공유를 통하여 취학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 학교 밖 청소년지원체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시 학력취득 인정은 현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부등교에 의한 출석일수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는 바 보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함.
-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은 학업중단숙려제 근거법률인 초·중·고등교육법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명단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다만, 국무총리 훈령 상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교육청, 학교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함.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정책 제언

1)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방향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1차 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유형별 지원모델 개발 방향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는 공업지역·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의 확대 여부, 이에 따른 청소년 인구 및 비율,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비율, 지역 청소년 시설 수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특성(심리상담, 학습지원, 자립지원 등)을 고려한 별도의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 시설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특히 중소도시에서는 학교에 갈 시간에 청소년시설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많은 주목을 끌어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 시설 이용을 기피하게 했다. 이는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는 독립적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제시한 전용공간 확보, 실무인력 확충, 작업 공간 확보,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 등은 모두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들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예산 확보가 원활하다는 응답이 도출되었다. 이는 현장 실무자들이 기대하는 최소의 예산과 실제 장기적으로 요구되는 예산의 격차로 인한 결과이거나, 조사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한 응답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장실무자의 응답만으로 정책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한계와 왜곡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3) 모든 청소년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17세-22세 전후로 후기청소년에 편중되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전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센터의 활동목표를 확대할 필요가 발견되었다.

지자체 지원과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기관별 공통적인 지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시한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은 의무취학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의무교육 수행기관인 초등학교, 교육지원청과 대상학생에 대한 유기적 정보교환, 서비스 공유를 통하여 취학유예 학생에 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차년도 연구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체계 발전방향으로 제시한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수 시 학력취득 인정은 현재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의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장기 부등교에 의한 출석일수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제도의 확대 적용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관련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은 바람직하지만 학업중단숙려제 근거법률인 초·중등교육법에 개인정보에 대한 공유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명단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국무총리

훈령상 필수연계기관의 협력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통해 교육청, 학교차원에서 지원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급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다른 모든 사업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공 여부 역시 기관의 인적 자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연구대상이 된 3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고용의 질적 수준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근속연수가 많은 전문인력이 재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건이 다른 기관에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고위험군 상담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도농지역의 특성상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적 우울을 많이 경험하며, 주로 경제적인 이유보다 심리적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들은 일반적인 상담보다는 전문 심리상담을 필요로 한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달리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자체가 적다. 따라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더 많은 기능이 요구된다. 특히 센터가 대안학교의 기능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현재의 기관 규모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 현재 여건을 고려한 대안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력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며, 실제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를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검정고시를 취득관련 예산 지원에 그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검정고시 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6) 예산 확보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소도시형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보여주는 곳의 경우,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이전에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의 사업을 유치하여 기반을 다졌다. 사업유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지만 지역사회 연계나 예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사업초기에 적극적으로 하기도 한다.

(7)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중소도시형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모두 지자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시설의 성공적 운영의 필수조건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지원은 고용의 안정성, 실무자들의 경력과 전문성 축적,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 사업의 유치 등에 있어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었다.

(8)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아르바이트의 기회도 적고 직업체험이나 인턴십 종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소도시에는 자체의 인프라 부족은 이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을 대도시로 유인하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불안정한 주거와 생활 기반과 같은 또 다른 위험요인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서 어떻게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연수프로그램 등 실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 등을 확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관장과 실무자와의 면접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을 3개 제시하였다. 그것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연계기관 확산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자료만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을 고려했으나 추후에는 지역특성까지 고려한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같은 중소도시라고 해도 청소년인구의 수가 차이가 있고(2016년 12월 기준으로 ○○시의 경우, 345,947명인데 비해, □□시의 경우 835,590명), 학교 밖 청소년 수, 청소년 시설 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

(1)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에서 운영 초기단계에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에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성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유형이다. 연구대상이 된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2곳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이 유형은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한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실무진의 업무가 많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인력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적절하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네트워크도 생기게 된다. 만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인력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할 유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이 유형이었던 2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를 기반으로 기관자립형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2)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은 운영 초기부터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 등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고 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하게 된 유형이다. 연구대상이 된 3곳 중 1곳이 이 유형에 해당되었다. 이 유형의 경우,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 사업을 할 필요가 적었다는 것이 장점이나 도 차원의 청소년관련사업의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 문제다. 그 결과 사업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연계의 기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3)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는 앞서의 1유형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초기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가능하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형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이 확장되는 단계다.

이 유형은 사업초기의 어려움이나 업무 부담이 많으나,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은 경우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4)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의 비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의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또한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의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특징, 장점, 단점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V-1]과 같다.

표 V-1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구분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특징	주로 학교 밖 청소년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기관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짐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서 지역사회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로 사업이 안정된 이후 지역 네트워크의 확산 및 활성화를 도모
장점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함	처음부터 학교 밖 청소년센터 본연의 기능 이외에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 추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단점	실무자의 업무부담이 큼, 인력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의지와 관련이 적음	사업 초기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음

○———— 참고문헌

참고문헌

- 강석영, 양은주, 방미나 (2011).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열린교육연구*, 19(1), 89-125.
-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잠재적 학업중단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연구보고서
- 강영택, 김정숙 (2012). 학교와 지역사회의 파트너십에 대한 사례연구. *교육문제연구*, 43, 27-49.
- 구본용, 신현숙, 유제민 (2002). 테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중퇴 모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2), 35-58
- 구자경. (2003).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이 학교자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0(3), 309-330.
- 금명자 (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경애, 류방란, 정바울, 정연순, 송혜정, 조은주 (2014)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방안 연구 :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연구보고서
- 김경주, 김영혜 (2015).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3), 93-112.
- 김누리, 신나나 (2017).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 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30(2), 19-42.
- 김미옥 (2001). 장애아동가족의 적응에 대한 가족탄력성 (Family Resilience)의 영향력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8(0), 9-23.

- 김미진, 권경인 (2014). 청소년의 부모애착, 분리-개별화, 자아탄력성, 또래애착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2(2), 1-23.
- 김상현, 양정호 (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 김세영, 최나야 (2011). 남녀 대학생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9(9), 35-45.
- 김순규 (2004). 가족 환경 요인이 청소년학업 중퇴에 미치는 영향 :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1(3), 43-63.
- 김영희 (2015). 검정고시를 선택한 일반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적응경험 -학교 밖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고군분투하는 청소년. *청소년복지연구*, 17(2), 131-157.
- 김영희, 최보영, 이인희 (2013). 학교 밖 청소년의 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청소년 복지연구*, 15(4), 1-29.
- 김옥엽, 이연숙, 원유미 (2004). 전라북도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의식 및 위험 요인과 보호요인의 분석. *상담학연구*, 5(3), 725-741.
- 김은정 (2011). 새로운 생애 발달 단계로서의 성인모색기(Emerging Adulthood). *사회와 이론*, 19, 329-372.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 (Emerging Adulthood)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201*, 17(3), 83-129.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은정 (2016). 성인모색기 20대 여성의 이성교제 및 성행동을 통한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일 연구. *한국여성학*, 32(2), 149-184.
- 김은주, 김민규 (2014). 대학신입생의 자율성과 유능성 및 대학생활 만족도 간의 시간에 따른 변화와 상호 연관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의 검증. *청소년학연구*, 21(5), 29-56.

- 김준호, 박정선 (1993). *청소년의 가출과 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 : 연구원, 24.
- 김지윤, 홍정순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25(2), 393-412.
- 김현숙 (2003).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 무용 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지*, 36, 5-19.
- 김효정, 이승연, 노경란 (2014). 대학생의 애착, 분리-개별화와 불안의 관계 :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9(4), 339-359.
- 남영옥 (2016). The influence of parenting attitude on intention of school dropout in adolescents :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청소년복지연구*, 18(4), 251-274.
- 내외경제 TV (2019). [청년지원금] 취준생 주목! 국가에서 목돈이? 청년수당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청년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http : //nbntv.co.kr/news/view/684719](http://nbntv.co.kr/news/view/684719) 에서 2019.10.19. 자료 얻음.
- 노지혜, 문성호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특성 및 진로성숙 예측요인. *청소년문화포럼*, 58, 61-86.
- 노혁 (2003).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연구보고 03-R2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33.
- 류남애, 유순화, 송현아, 최지현, 정애리 (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심리적 독립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65-87.
- 명소연, 조진옥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이탈과 이후 삶의 도전과 성장에 관한 질적연구 : 학교 밖 지원사업에 참여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24(2), 75-98.
- 문동욱 (2018). 학교 밖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코칭능력개발지*, 20(2), 3-12.

- 문용선, 이운형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제와 상담방안. *교정상담학연구*, 1(1), 57-78.
- 민하영 (1992). 청소년 비행 정도와 부모 - 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3(1), 112-124.
- 박규상, 조성호 (2009). 자기 비난적 우울과 의존적 우울에 따른 분리 개별화 수준 및 대인관계성향의 차이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7(1), 78-93.
- 박근수, 김민 (2016). 학교 밖 청소년과 학업청소년의 건강실태 비교 연구. *청소년 시설환경*, 14(2), 17-26.
- 박병금, 노필순 (2016).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중단과정과 학교 밖 생활경험. *청소년학연구*, 23(8), 47-78
- 박선환 (2019). 국내외 학교폭력 예방 우수사례 분석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적용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3), 663-676.
- 박아청 (1998). 과보호의 발달심리학적 의미에 대한 일고찰. *인간발달연구*, 5, 53-73.
- 박영숙 (2005). 신흥성인기 여성집단의 자아방어기제 변화 연구. *스트레스연구*, 13(4), 301-308.
- 박은영 (2014).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2013). 질적연구 : 시작부터 완성까지. 학지사 (Yin, R. K. 2011, Qualita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 박지현 (2018).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동기강화 집단상담 프로그램 효과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 569-590
- 박창남, 도종수 (2003). 청소년 학교중퇴의도의 원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10(3), 207-238.
- 박희훈, 오성배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박희훈, 이유정 (2019).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정체성 인식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5(1), 725-743.
- 배영태 (2003). 학교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학술지)*, 11(2), 23-35.
- 배주미, 김영화, 김범구, 정익중 (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 22(3), 69-96.
- 백혜정, 송미경, 신정민 (201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체계화 방안연구* (연구보고 15-R09).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 석달숙, 구용근 (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경험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자기통제력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9(4), 905-928.
- 손충기, 배은자, 김영태 (2012). 청소년 학업중단의 가족 및 사회환경적 요인 분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3(6), 2504-2513
- 신현숙, 구본용 (2002). 중퇴생, 중퇴 고위험 및 저위험 재학생의 비교 : 개인 및 사회·환경 변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6(3), 121-145.
- 신혜령 (200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에 관한 연구 : 청소년과 보육사의 인식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아시아뉴스통신 (2014). 교육부, 2014년 학업중단 예방 340억 집중 지원. <http://www.anews.com/detail.php?number=622058&thread=09r02>에서 2019.10.19. 자료 연음
- 아영아, 박소현 (2018).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와 영향요인들 간의 경로분석. *학교사회복지*, 44(44), 75-97.
- 안도희 (2016). 부모와 교사의 자율성 지지,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및 안녕감 간의 관계. *비교교육연구*, 26(6), 27-53.

- 양흥권 (2007). 지역사회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HRD 연구*, 9(1), 27-40.
- 여성가족부 (2017). 학교 밖 청소년 실태보고 (내부자료)
- 여성가족부 (2019a). 학교 밖 청소년지원 사업설명자료_사전공표.
[http : //www.mogef.go.kr/mp/](http://www.mogef.go.kr/mp/) (2019.03.15.)
- 여성가족부 (2019b). 2019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http : //www.mogef.go.kr/mp/](http://www.mogef.go.kr/mp/) (2019.03.15.)
- 오승근, 이진숙. (2016). 대안학교 재학 청소년의 진로준비 현황 및 진로결정요인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3), 123-149.
- 오승환 (2009).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영향요인-위험요인에 대한 학교보호요인의 매개효과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1), 161-181.
- 오정아, 김영희, 김정운 (2014). 청소년의 학업중도포기 과정. *청년학연구*, 21(5), 141-168.
- 오현숙 (2018). 자율성을 매개로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 및 주의력 결핍의 문제. *교육문화연구*, 24(1), 351-372.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이정실 (2011). 학업중단청소년 학업복귀 강화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상담연구(총서)* 163, 1-206.
- 유영아, 김은하, 김성수 (2018).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가족탄력성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비교. *한국웰니스학회지*, 13(3), 305-319.
- 유진아, 선다솜 (2018). 학업중단청소년의 진로선택 요인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 연구*, 3(1), 69-110.
- 윤미설, 이동형 (2017).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사회적 위축 하위유형에 따른 정서적 부적응 및 주관적 행복감의 차이. *아시아교육연구*, 18(3), 463-487.
- 윤숙자, 김희정 (2013). 대학생의 부모-자녀 의사소통정도와 가족탄력성의 관계. *디지털융복합연구*, 11(8), 23-30.

- 윤철경, 서정아, 유성렬, 이동훈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연구 I: 질적 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보고 18-R1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성윤숙, 유성렬, 김강호 (2016). *학교 밖 청소년 이행경로에 따른 맞춤형 대책연구 I* (연구보고 16-R16).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철경, 유성렬, 김신영, 임지연 (2013).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I* (연구보고 13-R1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향숙, 황윤미, 김덕범, 장성화 (2011). 대학생의 자아분화, 스트레스 대처방식, 정신건강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10(2), 1-25.
-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 (2011).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정림 (2000). 실업계 고등학생의 중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 체계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상, 이재희 (2018). 부모지지가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및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6(1), 143-153.
- 이기학, 송현정, 임희경, 전윤경 (2004).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기주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남녀 차이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2), 53-65.
- 이선희 (2014). 노동경험이 있는 학업중단청소년의 학업복귀 경험 -근거이론에 의한 접근-. *미래청소년학회지*, 11(2), 157-181
- 이인경, 김장희 (2011). 대학 신입생의 학교적응을 위한 교수 멘토링 교육과정의 효과. *상담학연구*, 12(2), 673-691.
- 이인영, 정영숙 (2016). 청년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과보호와 자녀의 분리-개별화 및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4), 123-144.

-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 이재림, 차동혁, 김지애, 이향희 (2012).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메타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410-410.
- 이정림, 조영아 (2017). 고졸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 : 소외감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8(6), 90-102.
- 이주연, 정재영 (2015). 학업중단 결정에 대한 학교밖 청소년의 인식 연구. *청소년학연구*, 22(11), 239-267
- 이지은, 류민정 (2019). 동료 멘토링 농구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대인관계의 변화 과정 탐색 : 질적 연구. *체육과학연구*, 30(1), 147-159.
- 이현우, 양명숙 (2017). 학교 밖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자기개념명확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4(2), 91-116.
- 이화명, 김영미 (2017).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낙인과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9), 549-562.
- 이희선 (2013). 지각된 부모양육태도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영식, 한상철 (2000). *청소년 심리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임은실, 이세순 (2018). 학교 밖 청소년의 NLP 진로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진로성숙도 및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14(4), 305-333.
- 장근영, 윤진 (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5(1), 157-175.
- 장수미 (2015). 초기성인기 우울과 도박문제의 관계 : 부모의 도박에 대한 태도 및 가족응집력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0, 97-126.

- 장휘숙 (2002). 청년후기의 부모에 대한 애착, 분리-개별화 및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산업 및 조직*, 15(1), 101-121.
- 전경숙 (2006). 10대 학업중단 청소년의 근로실태에 관한 실증적 고찰 연구 - 가출경험 학업중단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상담연구*, 14(1), 3~21
- 전병재 (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서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예지, 이재림 (2014). 대학생과 미취업 대졸자 청년이 지각한 부모의 진로기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119-146.
- 전은영, 권경인 (2011). 애착과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상담학연구*, 12(1), 243-260.
- 정규석 (2000). 미국 고등학생의 학교중퇴에 관한 다체계 모델 : 모델 검증과 학교 중퇴 예방프로그램에 주는 의미. *한국아동복지학*, (9), 205-225.
- 정성옥, 김성범 (2015). 문학치료적 글쓰기와 인터뷰를 통한 대학생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4(4), 175-203.
- 정영라, 최희철 (2017). 청소년기 스트레스와 자존감의 성인모색기 우울에 대한 전망적 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5(4), 221-230.
-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2001). *청소년 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Rice, F. P., 1999, The 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 , and Culture).
- 정윤희, 이인수 (2012).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와의 관계에서 또래 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225-248.
- 정익중, 박재연, 김은영 (2010). 학교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자살 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34, 222-251.
- 정재민(201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과 예방을 위한 실천전략 개발 질적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0권 0호*, 66-91.

- 조규필 (2014).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2), 273-310.
- 조규필, 김수진 (2019).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6(1), 131-154.
- 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조아미 (2002). 청소년의 학교중퇴 의도 결정요인. *청소년학연구*, 9(2), 1-22.
- 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84
-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2005). *질적 연구방법론 : 다섯 가지 접근*. 서울 : 학지사 (Creswell, J. W. 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 주경필 (2015). 성인도래기(Emerging Adulthood)의 개념정립을 통한 국내 청년 복지정책에 대한 소고(小考). *청소년복지연구*, 17(1), 189-213.
- 주은지 (2018). 성인애착과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8), 181-201.
- 중앙일보 (2019). [21일 부부의 날]“돈 있으니 결혼? 부부의 가치 배웠기 때문이죠” 결혼학교 1기 예비부부 [https : //news.joins.com/article/23473922](https://news.joins.com/article/23473922) 에서 10.19. 자료 얻음
- 지승희, 오혜영 (2013). 상담분야의 CQR연구 동향 - 2001~2010년 상담 관련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4), 2327-2349.
- 천정웅 (2013). 후기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단체의 역할강화. *글로벌청소년학연구*, 3(1), 63-98.
- 최돈민 (2013).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구축 방안. *교육종합연구*, 11(4), 269-291.

- 최상근, 김동민, 오인수, 신을진, 김인규, 이일화, 이석영, 최보미. (2011). *Wee 프로젝트 운영 성과분석 및 발전계획 수립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수탁연구 CR, 33.
- 최지연, 김현철 (2016).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및 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103-132.
- 파이낸셜 뉴스 (2019). 부산청년두드림 개소 2년... 지역청년 701명 취업 꿈 심다 <http://www.fnnews.com/news/201909151802554899> 에서 10.19. 자료 얻음.
- 한국정보화진흥원(2004) *인터넷 도박중독 실태 연구*.
- 허효인, 김한별 (2015). 학습공간의 조건 :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성 회복과정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18(4): 77-103
- 홍나미, 신문희, 박은혜, 박지현 (2013). 학업중단 청소년의 학업복귀 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접근. *청소년복지연구*, 15(1), 121-153.
- 홍선영, 박금식, 박지영 (2018).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 2018-15). 부산 : (재)부산여성가족개발원.
- 홍승빈, 박성연 (2017). 청소년의 자율성 및 관계성 만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8(2), 5-16.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early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 469-480.
- Arnett, J. J. (2004).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 A cultural approach*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 Pearson.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 Bi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lanton, C. (1988). OSHA and the academic laboratory. *Professional Safety*, 33(7), 14.
- Bloom, M. V. (1980). *Adolescent parental separation*. New York GardenPress.
- Blos, P. (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22, 162-186.
- Brown, C. (2000). A comparison of selected outcomes of secondary tech prep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in Texa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5(3), 273-295.
- Dupper, D. R. (1993). Preventing school dropouts : Guidelines for school social work practice. *Children & Schools*, 15(3), 141-149.
- EDUJIN (2019). 2010~2018 고교생 학업중단 이유 ‘학교 부적응’ 줄었지만 ‘자발적 자퇴’늘었다 [http : //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3](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3) 에서 2019.10.19. 자료 연음.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o. 7). WW Norton &company.
- Franklin, C. (1992). Family and individual patterns in a group of middle-class dropout youths. *Social Work*, 37(4), 338-344.
- Galambos, N. L., Barker, E. T., & Krahn, H. J. (2006). Depression, self-esteem, and anger in emerging adulthood : Seven-year trajectories.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50-365.
- Hill, C. E. (1990). Exploratory in-session process research in individual psychotherapy : A review.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8(3), 288.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Hill, C. E., Knox, S., Thompson, B. J., Williams, E. N., Hess, S. A., & Ladany, N. (2005).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An updat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196.
- Hill, C. E., Thompson, B. J., & Williams, E. N. (1997). A guide to conducting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5*(4), 517-572.
- Hoffman, J. A. (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0-178.
- Jancek, R. L. (1999). High School Drop Out Factors and Effects : An Analysis of a Small School in Rural Illinois.
- Jiang, L. C., Yang, I. M., & Wang, C. (2017). Self-disclosure to parents in emerging adulthood : Examining the roles of perceived parental responsiveness and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34*(4), 425-445.
- Kavčič, T., & Zupančič, M. (2019). Types of separation-individuation in relation to mothers and fathers among young people entering adulthood. *Journal of Youth Studies, 22*(1), 66-86.
- Koepke, S., & Denissen, J. J. A. (2012). Dynamics of identity development and separation-individuation in parent-child relationships during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 A conceptual integration. *Developmental Review, 32*(1), 67-88.
- Krippendorff, K. (2004). *Content analysis :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Beverly Hills, CA : Sage.
- Lincoln, Y. S., & Guba, E. (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CA : Sage.

- Mahrer, A. R. (1988). Discovery-oriented psychotherapy research : Rationale, aims, and methods. *American Psychologist*, 43(9), 694.
- Marin, P. (1995). Using openended interviews to determine why Puerto Rican students drop out of school.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3(3), 158-169.
- Muha, D. G., & Cole, C. (1990). Dropout prevention and group counseling :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e High School Journal*, 74(2), 76-80.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
- Peraita, C., & Pastor, M. (2000). The primary school dropout in Spain :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 and labor market conditions. *Education economics*, 8(2), 157-168.
- Piquero, A. R., Brame, R., Mazerolle, P., & Haapanen, R. (2002). Crime in emerging adulthood. *Criminology*, 40(1), 137-170.
- Pong, S. L., & Ju, D. B. (2000). The effects of change in family structure and income on dropping out of middle and high school. *Journal of Family Issues*, 21(2), 147-169.
- Ross, J. G., Saavedra, P. J., Shur, G. H., Winters, F., & Felner, R. D. (1992). The effectiveness of an after-school program for primary grade latchkey students on precursors of substance abus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1), 22-38.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78.

- Schielke, H. J., Fishman, J. L., Osatuke, K., & Stiles, W. B. (2009). Creative consensus on interpretations of qualitative data : The Ward method. *Psychotherapy Research*, 19(4-5), 558-565.
- Schwartz, S. J., Côté, J. E., & Arnett, J. J. (2005). Identity and agency in emerging adulthood : Two developmental routes in the individualization process. *Youth & Society*, 37(2), 201-229.
- Spangler, P. T., Liu, J., & Hill, C. E. (2012).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for simple qualitative data : An introduction to CQR-M*. In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 A practical resource for investigating social science phenomena. (pp. 269-283). Washington, DC, U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tone, A. L., Becker, L. G., Huber, A. M., & Catalano, R. F. (2012). Review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of substance use and problem use in emerging adulthood. *Addictive Behaviors*, 37(7), 747-775.
- Sussman, S., & Arnett, J. J. (2014). Emerging adulthood : Developmental period facilitative of the addictions. *Evaluation & the Health Professions*, 37(2), 147-155.

○ — 부록

부록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자료

- (1)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 (2) 인터뷰 가이드라인
- (3) 질적조사 수행 연구진 명단

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연구(협동연구)
: 인터뷰 가이드 및 인터뷰 내용

- (1) 학교 밖 청소년 기관용
- (2) 연계기관용

1. 학교 밖 청소년 질적 패널 조사 자료

(1) 연구 참여 설명문 및 동의서

※ 귀하께서 2013년부터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3년 이후로 참여해 주신 패널분들 중 60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년에 걸쳐 질적 패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 조사는 학교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설문조사를 수행하는 대신, 심층인터뷰 방식으로 매년 1회씩만, 총 5년동안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 조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매년 조사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해 드리며, 조사 참여 철회를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연구진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패널 조사를 위해 귀하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묻고자 하오며, 이 정보는 본 조사 연구진을 제외한 다른 곳에 절대로 유출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 매년 인터뷰 관련 공지 시, 또는 계속 조사를 해야 하는 패널 조사의 특성상 귀하와 계속 연락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솔직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내용		1) 나는 이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위에서 읽었습니다. 2) 나는 내가 원하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3) 나는 이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스스로 동의하며,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이름 : _____ (서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카카오톡 ID			
현재 사는 곳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시/도 ()시/군/구 ()구 ()동/읍/면 나머지 주소 _____	
집 전화번호		*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는 부모님 집 전화번호를 기록	
연락이 안 될 경우 연락 가능한 가족/친구 연락처	성명		해당란에 ○ 표시 아버지 · 어머니 · 남형제 · 여형제 · 친척 · 친구(선후배 등)
	휴대전화번호		

(2) 인터뷰 가이드라인

항목		질문 내용
도입	연구 목적 설명	이 조사는 학교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 도와야 할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고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 분이 응답해 주신 내용은 학교중단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초자료로 소중한게 활용될 예정입니다. 심층면접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터 뷰 방 식 설 명 및 동의 서 작 성	• 면접의 답은 맞거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평소 생각이나 자신의 경험을 기억나는 대로 솔직하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잘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할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 면접내용과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모두 비밀이 보장됩니다. • 단, 조사 내용분석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면접 시간은 약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적 사항 확인	• 연령 : 기존 정보 있음 • 현재 살고 있는 곳 : 이사 여부(지역 이동 여부) 확인 • 마지막으로 학교를 그만둔 시기 : 기존 정보 있으나 재확인 • 현재 주로 하는 일 : 변화 여부 확인 • 장래 희망 : 변화 여부 확인/아래 <미래 계획> 부분에서 확인 • 가정 경제 상황 : 아래 <부모님과의 관계> 질문 시 함께 확인
현재 생활	현재 생활 탐색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가요? - 학업/ 진로/ 취업/ 아르바이트 /(남자의 경우)군입대 중 -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현재 의 하루 일과	하루 일과 - 평일과 주말에는 주로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최근 주 관	최근에 주 관심사는? 또는 고민이 있다면 어떤 고민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 최근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항목		질문 내용
	심사	- 최근에 주로 고민이 되는 부분/고민을 하게 된 계기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학업 중단 결정 과정 및 이후 변화	학업 중단 이전	학교 밖 청소년생활을 언제부터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지? 염두에 두기 시작한 이유는(당시 어떤 경험으로 인해 염두에 두기 시작했는지?)
	학업 중단 결정 과정	학업 중단 결정적 요인 전반에 대한 탐색 - 진로문제(전공만족이나 흥미)/관계문제(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소외 등)/경제적 어려움 등 ※ 작년 자료 숙지 후 연구 참여자에게 확인
	학업 중단 이후 변화	학업중단 이후 연구 참여자가 경험한 주요 경험 및 변화 계기 - 긍정/부정적인 변화의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탐색 ※ 작년 자료를 상담자가 숙지하여 사실 부분 확인 그런 경험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의미가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관계	부모와의 관계	- 학업 중단 전 부모님과의 관계 - 학업 중단 결정과 결정 당시 부모님이 미친 영향 ⇒ 부모님과 갈등은 없었는지/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실질적 정보제공, 심리 정서적 지지,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계 등) - 학업중단 이후 복교 경험이 있다면, 복교에 부모님이 미친 영향 - 학업중단 이후 부모와의 관계에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 학업중단 이후 부모와의 관계가 오히려 좋아졌다면/악화됐다면 어떤 계기가 있는지 - 부모가 학업중단 이후 나에게 긍정적/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 학업 중단 직후와, 현재 시점에서 부모님 관계가 달라진 점 -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 나에게 부모의 역할을 해 준 또 다른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인지
	교사와의 관계	- 초·중·고등학교 때 교사와의 관계(교사-학생 애착관점)/학업중단 이전 생활에 대한 탐색 - 학업중단 결정/결정과정에 교사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 ⇒ 교사와 갈등은 없었는지 추가 탐색

항목	질문 내용
	⇒ 교사의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실질적 정보제공, 심리정서적지지,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계 등) - 학업 중단 이후 교사와의 관계 변화와 그 이유 - 복교 경험이 있다면 복교에 교사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 - 학업중단 지속에 교사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 학교를 다녔을 당시 교사와 현재도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지 - 내 삶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기억되는 교사가 있다면 어떤 교사인지
또래와의 관계	- 초·중·고등학교 때 친구와의 관계/학업중단 이전 생활에 대한 탐색 - 학업중단 결정/결정과정에 친구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 ⇒ 친구의 학업중단이 계기가 되었는지, 친구들과 갈등은 없었는지 등 ⇒ 친구들이 학업중단 결정과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실질적 정보제공, 심리정서적지지,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계 등) - 학업 중단 이후 친구와의 (양적 질적) 관계 변화와 그 이유 ⇒ 친구들이 학업중단 이후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 부정적 영향을 미친 부분은 없었는지, 이를 끊을 수 없다면 어떤 점에서 끊을 수 없는지 - 복교 여부/학업중단 지속에 친구와의 관계가 미친 영향 ※ 작년내용 숙지 후 확인/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 친구와의 관계에서 학업중단 직후와 현재시점 비교 - 나에게 동성친구와 이성친구는 각각 어떤 의미인가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의 관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는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만난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만난 또래, 선후배와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기관에서 만난 멘토들과의 관계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그 외 관계	- 초·중·고등학교 때 그 외 사람들(형제자매, 아는 지인, 선후배 등)과의 관계 - 학업중단 결정/결정과정에 그 외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친 영향

항목		질문 내용
		⇒ 그 외 사람들이 학업중단 결정과 결정 과정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 학업 중단 이후 그 외 사람들과의 (양적 질적) 관계 변화와 그 이유 ⇒ 그 외 사람들이 학업중단 적응에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실질적 정보제공, 심리정서적지지, 관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연계 등) - 복교/취업/쉬는 중인지/취업 여부 등 현재 하고 있는 활동에 그 외 사람들과의 관계가 미친 영향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 그 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학업중단 직후와 현재시점 비교
	관계 전반에 대한 탐색	1) 또래관계,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중 - 학업중단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 - 자신의 삶에 (긍정적 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은? 가장 소중한 사람은? - 흔히들 학교는 자기자신-친구-교사 이렇게 3개집단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생활을 결정할 때 이 3개요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 2) 학업 중단 이후 현재 관계 - 학업 중단 이후 끊어진 관계 중 의미 있었던 사람 - 현재의 관계 중 학업중단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된 관계 - 학업중단 이후 사회생활 속에서 새롭게 형성된 관계 중 나의 성장에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준 관계 ⇒ 어떤 면에서 긍정적 부정적인지?/그때 느꼈던 감정이나 정서/새로운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이나 도움되는 부분, 깨달은 부분 - 현재의 관계 중 내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관계 - 지금 현재 (학업중단으로 인한) 대인관계 관련 고민/갈등 - 관계 갈등 시 대처법_학업중단으로 변화된 점이 있는지 - 학업 중단 이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 이유는? (도움이 제공되었으나 거부하였는지/도움을 제공할 만한 관계 자체가 빈약했는지 등) - 학업중단 이후 관계 영역에서 도움받고 싶은 부분/도움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 ※ 작년자료 숙지 후 확인/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학업 중단에 대한	학업 중단 의 영향	학업중단한 경험은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를 돌아볼 때 학업중단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 - 구체적으로 생각이나 행동, 생활패턴, 주변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

항목		질문 내용
생각		※ 직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 만약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을 선택할 것인지? - 학교 밖 청소년 생활을 선택할 당시 생각했던 것과 지금 성인이 되어서 생각했던 거랑 차이가 있는지? 어떤 점에서 가장 생각했던 것이랑 차이가 나는지? - 학업중단 이전/결심단계/중단 이후를 경험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은지
	학교의 회고적 의미	지금 되돌아보면 학교는 나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 학업중단 이후 학교의 의미에 대한 생각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다면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데 영향을 준 부분이 있는지 ※ 직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자아상과 미래 계획	자아상	- 현재의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가 막막하다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봐도 좋습니다(동물,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 등) - 미래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가 막막하다면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봐도 좋습니다(동물, 영화나 드라마 속 인물 등) - 미래의 자아상이 지금의 모습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여기는지, 지금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여기는지 그렇게 여기는 각각의 이유가 어떤 것인지 - 미래의 자아상을 위해 현재 내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 미래의 자아상을 향해 준비하는 데 걸림돌은 어떤 부분인지 - 미래의 자아상이 막막하다면 여기는 이유는 무엇인지
	미래에 대한 계획	앞으로의 계획 - 학업/진로/취업/아르바이트/(남자의 경우) 군입대 영역에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 학업/진로/취업/아르바이트/(남자의 경우) 군입대 영역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학업/진로/취업/아르바이트/(남자의 경우) 군입대 영역의 계획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된 부분과 도움받지 못했다면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 미래의 구체적 계획을 세우는 데 영향을 미친 계기(사람 또는 사건)가 있는지 ※ 직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지역 사회	지역 사회 도움	학업중단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나요? - 학업중단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기관/ 이웃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항목		질문 내용
		- 학업중단 이후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한 한계나 제한점을 경험했다면 어떤 부분인지 - 학업중단 이후 다른 지역에서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 학업중단 이후 도움을 받기 위해 이동한 경험이 있다면 어디까지 이동해 보았는지, 이동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 작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있는 지 확인
마무리		-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 중에 얘기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 긴 시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질문 시 주의사항

- 작년과 비교 내용을 확인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유 및 계기 등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 작년 인터뷰 내용을 질문지 문항에 정리해보고, 작년 내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응답되지 않은 문항들 위주로 탐색합니다.
- 문항에 없더라도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질 경우 추가 질문 등을 통해 깊이 있게 탐색합니다.
- 문항이 있더라도 연구 참여자에게 의미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되어질 경우 질문을 생략해도 좋습니다.

(3) 질적조사 수행 연구진 명단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명소연,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지열,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최준섭,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권옥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박수진,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신지원,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구민정,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허소정,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

박창열,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연구 (협동연구)
: 인터뷰 가이드 및 인터뷰 내용

(1) 학교 밖 청소년 기관용 설명문 및 인터뷰가이드

◆ Introduction ◆

○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어가는 말

- 본 인터뷰에서 나눌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응답 중에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시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정된 연구자 외 타인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2.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며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3. 인터뷰 시 사전 동의 후 녹음하며 녹음 자료는 연구자만 청취합니다.
4. 인터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연구 참여자는 연구 진행 중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가집니다.
6. 인터뷰 자료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폐기처분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연구자 : (서명) 연구 참여자 : (서명)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 ◆

인터뷰 일시		성 명	
근무 기관		성 별	☐ 남 ☐ 여
근무 기간		생년 / 나이	

I. 기관현황

1. 귀 기관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조금수입(국비/지방비/구비)
- 기관 내 수익(수익자부담 수업료 등...)
- 후원금

2. 귀 기관의 공간 현황은 어떤가요?

- 공간소유여부(자가/임대)
- 기관독립 전용공간
- 타 기관 내 전용공간
- 타 기관과 공용공간

3. 귀 기관의 조직 현황은 어떤가요?

- 조직현황
- 상근직원(정규직/비정규직)

4. 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현황은 어떤가요?

II. 해당 기관 이용 청소년의 특성

1.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어떤가요?

- 현재 등록 인원
- 실제 이용 인원
- 등록 및 실제 이용인원의 연령대
- 학업 중단 시기

2. 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 오게 되나요?

3.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4.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한 욕구는 무엇인가요?

III. 해당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1. 귀 기관은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교육자립
- 생활자립
- 경제자립

2.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꿈드림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 지역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

3.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귀 기관의 성공 모델은 무엇인가요?

예) 정부부처투자유치형, 지역네트워크확산형, 기관자립특화사업형

6. 귀 기관이 성공모델이 되기까지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IV.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지역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현황

1. ○○시의 지역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
- 지역 주변 환경 특징

2. ○○시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일까요?

-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3. ○○시의 특성에 따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지역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나요? 시장님, 또는 구청장님, 또는 담당자와 함께 모여 협의를 하나요? 이를 위한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5.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장(구청장) 등 정책 의지는 어떠하며 의회는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조례제정, 예산 문제 등

6. 실제 정부나 광역시도 지원 외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7.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8. 이를 위해 다음 각 주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 연계기관용 설명문 및 인터뷰가이드

◆ Introduction ◆

○ 조사 목적에 대한 소개

-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 요구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연구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듣고 이를 수렴하기 위해 인터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들어가는 말

- 본 인터뷰에서 나눌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 생각하시던 생각과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응답 중에 응답하기 곤란하시거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아시는 만큼만 있는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보는 연구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정된 연구자 외 타인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하시면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2.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며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3. 인터뷰 시 사전 동의 후 녹음하며 녹음 자료는 연구자만 청취합니다.
4. 인터뷰 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은 없습니다.
5. 연구 참여자는 연구 진행 중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가집니다.
6. 인터뷰 자료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폐기처분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연구자 : (서명) 연구 참여자 : (서명)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연계기관 실무자) ◆

인터뷰 일시		성 명	
근무 기관		성 별	☐ 남 ☐ 여
근무 기간		생년 / 나이	

1. 귀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3. OO시의 꿈드림 기관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4. 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 오게 되나요?
5.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 이용인원
 - 연령
 - 성별
 - 욕구(관심분야)
 - 특성
6. 귀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7. 꿈드림과 연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8.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1.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12.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3.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의 어떤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더 필요할까요?
14.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5. ○○시의 특성에 따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6.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life cycle of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is followed up to adulthood over the long term. It has the purpose of exploring these inner and outer world depths by accumulating materials on various adult transitions and growth processes of young people who interrupted their studies by irradiation. At the same time, by grasping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 system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held by facilities and institutions currently operated for young people outside schools in local units in South Korea, Trying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youth support system development. We hope that the materials and insights gathered through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building a community-based support system of policy goals and success that fits the reality of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For this purpose, researchers first have a general theory of adult transition process. We looked a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and reanalyzed the results of the type classification and primary qualitative panel surveys for youth in the first year. As a result, we set an important variable of the 2-year qualitative survey in psychological and social separation with parents (or caregivers) and individual processe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addition, joint research for seeking out-of-school youth support models conducted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current state of local community facilities and institutions in the first year. The research was advanced with a focus.

In the qualitative panel survey of youth outside the school, as in the first year, through a deep interview with 29 panelists, the changes in the world of life compared to the first year, ego. family. Around the same year, the process of changing relations with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was reconstructed in three steps up to the present day, before and after the interruption, and important factors and intervention requests centered on major incidents and responses to them. Searched for points. In collaborative research, SMEs vary in terms of economic conditions, access to infrastructure, and the level of cooperation with other regions. Due to their diversity, it is not possible to propose a collective support model for SMEs. It was. Therefore, we endeavor to select the small and medium cities that have the most local specialities as research subjects, and see what resources and opportunities are distributed among the small and medium cities selected in this way. After understanding the support system, he proposed an effective community-level collaboration model required for off-school youth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s a result of qualitative research, it was found that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in parts related to interpersonal guanwa. Adolescents who had already experienced difficulties at the same age and suspended their studies were growing in an environment where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existing friends was further disrupted by the disruption of study.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interruption of academic work induces the lack of related skills at the same age as the lack of culture of the same age.

Narrow human relations network, difficulty of social adaptation in adulthood, early marriage compared to peers, attention to heterosexual relationships, formation of passive relationships also reduced adolescent peer relationships. It was related to the disconnection.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thought they were chapters of human relations, where they could form and maintain school relationships, share cultures of the same age, and learn interpersonal skills. In other words,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felt not only the employment and career path due to barriers to educational background, but also the lack of culture of the same age as the relationship of the same age. Therefore, not only physical support such as support for educational expenses, shelter support, provision of experience opportunities, and specific support, but also the importance of interventions focused on restoring the relationship and sharing culture around the same year did. The biggest difficulty in the adult approach process for young people outside the school was still increasing at the job site. Respondents stated that they had a negative experience in the job-seeking process, including part-time jobs, where they could get a low-level job, or failed to find a job due to a lack of interpersonal skills, or did not suit their job with a Hayotod colleague. After entering the adults, respondents who complained of living difficulties and financial difficulties also experienced a poor working environment and limited working conditions that were less than the minimum hourly wage.

There are nin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upport models for out-of-school youth SME communities derived through collaborative research. First, the development of a community support model that

takes into account regional characteristics. Second, a dedicated space for off-school youth support centers has been secured. Third, business for adolescents out of school for all youth ages. Fourth, securing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t the youth support center outside the school. Fifth, the expansion of the off-school youth support center. Sixth, we secured a budget. Sevent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Eighth, building human and material resource infrastructure. Ninth, the capacity building of the outside youth support center of the school. In addition,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can present three support models for youth small and medium city communities outside of school. The first type is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invitation type. The second type is self-supporting through excavation of local area networks. The third type is a regional network diffusion type through the attraction of government and private business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18 detailed tasks were presented in both of the five areas. Five areas are strengthening sideline youth support measures, strengthening vocational training and employment support measures, dream dream center services, and operating improvements, securing various communication systems and building local ecosystems for off-school youth. The reorganiz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development water, and presented detailed issues for each area.

Key words : Out-of-School Youth, Out-of-School Youth Qualitative Panel Survey, Out-of-School Youth Community Support Model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9-R12-1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김성은 · 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 · 윤철경 · 서고운 · 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 · 임정아 · 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 · 유민상 · 김창환 · 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 · 유민상 (자체번호 19-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 · 백해정 · 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 · 정연 · 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 · 백해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 · 최정원 · 변금선 · 이종원 · 이민정 · 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 · 함세정

수시과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 · 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 · 이종원 · 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 · 김현철 · 문호영 · 이윤주 · 박지숙 ·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 · 이윤주 · 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모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균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문수정·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임희진·하형석·정윤미
- 19-R46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백해정·류정희·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김기현·하형석·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박지영·이지혜·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하태욱·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 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
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V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6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패널 조사를 중심으로**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연구보고 19-R16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